

韓國書院學報

제
14
호



韓國書院學會

2022. 6

목차

■ 기획논문 : 한·중서원의 운영 양상 비교

- 韓·中서원의 院任 비교 연구..... 채광수 ◦ 7
-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이광우 ◦ 43
- 19세기 韓中서원 자료를 통해 본 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이병훈 ◦ 107
- 慶州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

■ 일반논문

-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 정수환 ◦ 155
- 조선시대 서원과 비교 관점에서 -
- 講學과 經世 : 李顥의 書院講學과 社會教 정병석 ◦ 189
-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조명근 ◦ 217
-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배다빈 ◦ 247
- 강서(江西) 일대 서원을 중심으로
- 明清河南書院祭祀研究..... 刘明明 ◦ 279
- 以河南府和开封府为例
- 죽음을 통한 젊은 유학자의 성장..... 이우진 ◦ 333

■ 후보

- 연혁·활동 보고 | 377
- 회칙 | 380
- 편집 규정 | 378
- 논문투고 규정 | 391
- 원고작성 규정 | 397
- 연구윤리 규정 | 401
- 임원 및 편집위원 | 404

■ 기획논문 : 한·중서원의 운영 양상 비교

- 韓·中서원의 院任 비교 연구
 -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 19세기 韓中서원 자료를 통해 본 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 慶州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

韓·中서원의 院任 비교 연구*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채 광 수**

- I. 머리말
- II. 韓·中서원의 원임 구성
- III. 소수·백록동서원의 원임 비교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韓·中서원의 院任을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과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 중국 백록동서원을 교차 검증한 것이다.

원임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먼저 한국서원은 향촌 내 명망가를 자율적으로 선임 하되, 주로 원장-(장의)-유사 체제로 서원을 운영했다. 반면 중국서원은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원임으로 구분하여 운영했고, 원장은 지방 관료 또는 대학자 초빙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또 중국서원이 한국서원 보다 원임의 직제가 보다 세분되어 있으며, 조직 규모가 더 컸다. 다만 한국서원은 官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서원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다.

다음은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우선 원장-유사 직제를 지향한 소수서원은 창건부터 1900년까지 657명의 원장은 평균 5개월씩 재임했다. 이들은 주로 입원생 출신들로 2회 이상 원장을 중임한 자가 무려 225회에 달했고,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나 역임하였다. 규약에는 文官과 司馬 합격자 중에서 원임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유학 신분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한편 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corhkdt911@ynu.ac.kr

들은 주로 서원 인근 고을에 거주한 인사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姓貫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었다. 18세 중·후반부터는 외부 명망가, 현직 지방관을 원장으로 삼아 官權과 밀착했다. 유사는 상시 유사를 두면서 서원의 필요에 따라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백록동서원은 唐代 여산국학은 국자감 九經박사가 동주가 되어 교수를 관장하며, 과거 인재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었다. 서원이 복원되는 북송 대에는 당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관학적 성격을 띠었다. 남송 대 주자에 의해 백록동서원의 정체성과 특징이 형성된다. 그는 스스로 초대 동주에 올라 원생을 모집해 강학한 것을 비롯해 堂長과 유명학자 초빙, 강학 업무 관장 등 서원의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명대는 과거 출신 동주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이는 조정의 교육 통제에 따른 서원의 관학화 흐름에 조응한 현상이었다. 청대 서원의 강학 성격은 '과거 공명'을 주요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조건에 적합한 인사를 동주에 파견했다.

주제어 : 한국서원, 중국서원, 원입, 원장, 유사

I. 머리말

“내가 보잘것없는 몸으로 태평한 세상을 만나 외람되게 이 고을 군수가 되었으니 고을을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당과 서원을 설립하고 토지를 마련하고 경전을 소장하기를 한결같이 白鹿洞書院의 고사에 따라 하고서, 무궁한 후일에 훌륭한 인물을 기다리게 되었다.”

풍기군수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뒤 만든 『竹溪誌』 서문에서 밝힌 구절이다. 주세붕이 주희의 백록동서원을 모범으로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희가 재건한 백록동서원은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교육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그가 제시한 「白鹿洞規」는 서원 교육의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서원 곳곳에는 「백록동규」가 게시되어 있

다. 또한 강학 때마다 이를 敬讀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서원은 「백록동규」를 가장 충실히 구현한 공간이다.

한·중 서원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향별로 書院誌, 교육, 인적조직과 경제기반,¹⁾ 건축 분야에 주목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에서는 그 체제와 지식양상을 검토했고, ②에서는 영남서원과 중국 徽州 서원의 특징을 비교 고찰했으며, ③에서는 영남서원과 청대 山東지역 서원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한·중서원 연구는 대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성과 바탕 위에 書院史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 운영의 주체인 院任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시도해 본 것이다. 이에 두 갈래로 글을 구성해 보았다. II장에서는 한·중 서원 원임의 일반론에 대해 살폈고, III장에서는 소수·백록동 兩院 원임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다만 제한된 자료로 논지를 전개하다 보니 구성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충분한 관련 자료 발굴과 수집을 통해 극복할 향후 과제로 삼는다.

II. 한·중서원의 원임 구성

1. 한국서원의 원임

원임은 서원을 운영하는 주체이다. 한국 최초의 서원 백운동서원 「院規」

1)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誌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29, 2007;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9, 2021; 이수환, 「안동과 휘주의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陳聯, 「중국 휘주와 한국 영남지역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이수환 「조선조 영남과 清代 山東의 서원 비교 연구-인적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2010.

에는 ‘원장 1인과 院貳 1인’을 정해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시기, 지역, 당색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원임의 직제·신분·임무·임기 등 그 사정이 달랐다. 아래는 영남지역 원규의 모범인 이황이 지은 「伊山院規」 원임 관련 조목이다.

서원의 有司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品官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가운데 事理를 알고 몸가짐이나 행실에 있어서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한 사람을 골라서 上有司로 삼되 모두 2년 만에 교대시킨다.²⁾

원장에 대한 구절은 보이지 않는데 위 조목을 보면, 2명의 유사를 두고 그 중 우수한 자를 상유사로 삼아 2년 간 서원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이황이 별도로 원장직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서원 운영 구상 시 경제적 지원은 지방관이, 강학은 초빙된 학자가 담당하도록 구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원장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실제로는 상유사가 원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창기에 설립된 서원의 『원임안』을 보면 ‘상유사·하유사’ 체제와 ‘원장·유사’ 체제를 혼용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³⁾ 그 뒤 서원 제도가 조선 사회 내 안착하면서, 서원은 ‘원장·유사’를 기본으로 하는 직제로 편제되었다. 물론 서원이 발전함에 따라 원임의 직제는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어 가며, 당색별로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먼저 원임 자격과 직무에 대한 일반론을 짚어본 후 당색별 차이를 일별하고자 한다.⁴⁾ 일반적으로 원임은 춘추 향사 때 모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천거한 인사를 圈點 점수 순서에 따라 원장과 유사로 선정했다. 이후 선임된 원

2) 「伊山院規」.

3) 소수·서악·옥산·도동·병산서원 등은 ‘원장·유사’, 이산·천곡·역동·도산서원 등은 ‘상·하유사’ 체제로 조직되어 있다.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104쪽.

4) 이에 대해서는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임의 이름을 院內 계서하고 임명장인 號記를 발급하였다.⁵⁾ 먼저 원장직부터 살펴보면, 서원 재정을 비롯해 제사·교육·사람과 건물 관리 등 서원 살림 전반을 감독하는 의무와 권한을 가진 이가 원장이다. 원장의 책무에 대해서 소수서원 ‘斯文立義’에는 “원장 1인을 常定하여 제사·유생의 공궤 및 소속 인물·사찰·전답·재물·器具·院舍間閣 등 대소사를 아울러 專掌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⁶⁾ “院之長인 원장에 부임하려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학문에 종사하며 믿음과 신중한 자,’⁷⁾ ‘여러 사람이 높이 받들고 복종하며 한 뜻으로 공경하고 신의가 있는 자,’⁸⁾ 쉽게 말해 원장은 명망가를 추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음으로 실무는 유사가 담당했다. 원장과 원생 중간에 위치한 유사는 언행을 조심하고 학문이 정밀한 사람으로⁹⁾ 원장을 보필하면서 일상적으로 서원에 일어나는 각종 대소사를 주관하는 직무를 담당했다. 임기가 보장된 유사 이외에도 서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시 유사를 선임해 사업을 진행시켰다. 아래 표는 남·서인계 원임의 조직, 임기, 신분을 간략히 비교해 본 것이다.

〈표 1〉 남·서인계 원임 비교

구 분	남인계 서원	서인계 서원
조직	원장 - 유사	원장 - 掌議 - 유사
임기	1~2년(중임·재임)	종신 - 1~2년
신분	하급관료, 司馬, 유학 등	중앙고위관료, 대학자, 지방관 등
선임	入院生 중 선출	관료, 入院生

남인계는 전술한 체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남인계라 하더라도 영남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었다. 전라도의 대표적인 남인계 서

5)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양상과 위상 변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40쪽.
 6) 「소수서원 斯文立義」,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111쪽 재인용.
 7) ‘業文信慎者’, 「소수·옥산서원 원규」.
 8) ‘衆所推服 一意敬信者’, 「도동서원 원규」.
 9) 「도동원규－擇有司」.

원인 나주 眉川書院享 허목의 원임 구성은 오히려 서인계와 흡사한 점이 그러한 사례이다.¹⁰⁾

서인의 영수 송준길 현손 宋來熙는 무려 10개소의 서원 원장을 겸직했다. 서인계 서원의 특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체로 서인계 서원의 원장은 상징적인 명예직에 가까웠고,¹¹⁾ 실질적 업무는 장의가 처리했다. 서원의 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魯岡·竹林書院¹²⁾처럼 首院의 장의는 지방관 선임이 원칙이었다. 이와 달리 영남 서인계 서원의 장의는 향내 인사가 주를 이루었다.¹³⁾

양 당파를 대표하는 도산서원과 화양서원의 원장 비교를 통해 그 일단을 확인해보자. 도산에는 1573년(선조 6) 경~1895년(고종 32)까지 466명이 원장으로 부임하였다.¹⁴⁾ 반면 화양서원의 원장은 1695년(숙종 21)~1852년(철종 2)까지 18명에 불과하다.¹⁵⁾ 이 부분이 두 서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임기도 이와 짝을 이루어 도산은 평균 6개월에 그치지만, 華院은 8년 7개월에 이른다. 전자는 원장 수 확대를 통한 우호세력 확보를 추진하였고,¹⁶⁾ 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신직인 京院長制를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남서간 정치적 성쇠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서원 운영에 대한 시각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도산서원에서도 1798년(정조 22) 남인의 영수

10)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113~115쪽.

11) 원장 1명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京원장, 副원장, 鄕원장으로 세분된 제도를 구축하고 있었다.

12) 魯岡書院 : 享 尹煌·尹文舉·윤신거·윤증, 竹林書院 : 享 이이·성혼·김장생.

13) 송시열 등을 제향하고 있는 성주목 老江書院의 장의 구성원 전부가 향내 인사들이며, 단 1명의 관직자도 없다. 채광수, 「老江書院의 연혁과 인적구성」, 『민족문화논총』 제60집, 2015, 336쪽.

14)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15) 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 研究」, 『역사와 담론』 18, 1990, 157쪽 <표 4> 화양서원역대원장 재인용.

16) 전용우, 앞의 논문, 1990, 157쪽.

채제공·韓致應을 원장에 초빙한 예가 있었으나 단 2회에 그쳤을 뿐이다. 장의 또한 화양에서만큼은 종신제로 운영되었던 점도 특기할 만하다.¹⁷⁾

원장의 경력을 살펴보면 당상관 이상으로 도산의 원장이 된 자는 19명인데,¹⁸⁾ 이마저도 전직관료들이자 퇴계 후손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비해 화양의 원장은 조정의 公卿·宰相 및 대학자들이 포진해 있다.¹⁹⁾ 이러한 차이에는 남인계 서원이 퇴계 서원론의 영향을 받아 서원 운영에서 관권을 배제한 자치적 요소를 강조한 면도 작용하였으나, 이보다는 정계에 밀려난 당시의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반대로 화양서원의 예는 서인계 서원이 집권 세력과의 상호 제휴 속에서 운영되었던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兩院의 원장 선임 형식을 비교해 보면 도산은 주로 입원록에서 원장을 선출했고 화양은 전술한 추대 형식 통해 원장을 선임했다. 도산의 입원록인 『遊院錄』[1576년(선조 9) ~ 1773년(영조 49)]을 통해 원장에 오른 입원생은 중복을 포함해 114명이었다. 영남 남인계 서원의 입원생에 한정해 원임을 허락하는 방안은 하나의 규례였다.²⁰⁾

그런가 하면 화원에서는 李秀彦을 필두로 권상하·鄭鑑·민진원·이의현·李絳·박필주·민응수·조관빈·유척기·윤봉구·김원행·김량행·송덕상·김중수·송환기·남공철·조인영 등 서인계를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화양이 서인[노린]의 首院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원장에 추대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을 것이다.

17) 같은 서인계 서원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石室書院 享 김상용·상헌 卍은 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18) 도산서원 당상관 이상 원장 명단 : 琴愷·채제공·조덕린·姜潤·柳相作·金熙周·한치용·李彦淳·李東淳·류이좌·李孝淳·李秉博·류후조·李秉承·李晚運·李秉秉·李晚耆·李晚由 등

19) 정읍 무성서원에서는 원장 자격에 관해 ‘京鄕文蔭官 三品以上 年高德望’으로 규정되어 있다. 『武城書院誌』 권下, 「本員任員 選任規例」.

20)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109쪽.

2. 중국서원의 원입

중국서원은 唐代에 출현했다고 하나, 정확한 始元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私的으로 공부하는 서재와 官府의 藏書處, 즉 民·官 양측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民에서 세운 최초의 서원은 攸縣의 光石山書院, 최초의 官立 서원은 麗正²¹⁾, 集賢書院²²⁾으로 알려져 있다. 후자는 왕실 서적을 소장·관리하던 도서관적 기능을 띤 기구에서 발전한 곳이다. 당대부터 출발한 중국서원의 역사는 민관의 협력 속에 발전되었다. 일반적으로 당대~五代 말기²³⁾를 초기서원 시기로 간주하는데, 문헌에 의하면 이때 70개소의 서원이 존재했다.

北宋 대 서원의 흥성은 단기간에 관학 체계를 회복할 수 없어 나타난 변통의 결과였다. 이에 잠시 관학의 역할을 대체했지만, “正途” 곧 전통적으로 사인을 양성할 수 있는 관학 역량이 회복되자 서원에 대한 지원은 약화된다. 북송 중·후기에 이르면 백록동서원을 비롯해 많은 서원들이 폐지되고, 지방 州·府·縣의 관학체제로 편입된다. 그렇지만 북송 서원은 관학을 모방해 강학·장서·제사·學田 네 가지 기본 제도를 갖춘 부분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학의 색채가 강해 각 서원 고유의 특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강학 내용도 독서 단계에 머물렀으므로, 서원에서의 새로운 학문 모색이나 학술체계는 성립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南宋은 서원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大儒의 선도 아래 서원이 일종의 교육제도도 안착한 것이다. 아래 3가지가 그 表證이라 하겠다.

첫째, 서원과 理學의 일체화 시작을 꼽을 수 있다. 남송의 대유들은 당대부터 내려온 서적 및 학술 계통을 정리하고, 서원을 근거지로 삼아 각지의 학

21) 여정서원 : 당 현종 연간 낙양에 설립된 서원이다.

22) 집현서원 : 당나라 이래 황실의 도서관적 기능을 한 곳이다.

23) 618~960년, 총 342년이다.

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자신들의 학파를 경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학술과 서원이 번영기로 접어들고, 서원과 학술이 일체화되는 전 통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서원은 중국 학술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구심처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완전한 서원 교육제도의 수립이다. 남송의 서원은 관·사학의 경험과 교훈을 흡수했을 뿐 아니라, 禪宗의 종림·정사, 道家의 강학 방식까지 차용하였다. 이러했기에 서원의 목적·수단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면서도 여타의 학술·교육시스템과는 차별되었다. 북송 대 서원이 관학 대체 기구로서 잠시 발전한 것에 비하면, 남송 대 서원 제도의 형성은 중국 교육 사업이 관학, 서원, 사학이라는 三輪 구조로 나아가는 시대를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 서원 내부 구조의 완비, 관학에서 탈피한 고유한 특색을 지닌 제향인 봉안, 각 서원의 보편적 경제적 기반 구축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

한편 남송 대 서원은 山長負責制와 黨長負責制하에 교사·생도·교육·경비 관리 체제가 확립되었다.²⁴⁾ 이를 세분하면 교사에 대해서는 주로 산장의 임명과 이에 포함되는 각종 자격요건 기준이, 생도에 대해서는 入院 시험·합격 규정, 인원수 제한, 학업·덕행 요구 조건, 언행 통제, 시험, 상벌제도 등이 확립되었다. 교육 면에서는 산장이 정기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생도는 일일 4회 수업 참여와 동시에 매월 정기 시험을 필수로 거쳐야 했다. 경비 관리 면에서는 예산 지출, 분배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북송 시기에 유명했던 강서 백록동서원, 하남 應天書院, 호남 嶽麓書院 등은 꽤 세밀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송 시기에 접어들면 그 구조가 더욱 구체화한다. 북송 대에는 산장과 洞主라는 직책만 보이는 반면 남송 대 규모가 큰 서원의 경우 산장 - 副山長 - 堂長 - 堂錄 - 講書 그리고 각종 실무직들이 존재했다.²⁵⁾

24)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167~168쪽.

25) 이는 서원의 규모에 따라 상이했다. 관부에서 관리하던 중·대형 서원의 경우에 당연히 직책이 비교적 많았을 것이다. 예컨대 천하 4대 서원 가운데 최고로 불

公立서원의 산장은 대부분 현지 州學 교수가 겸직하거나, 지방 행정 장관으로부터 초빙된 저명한 학자가 담당했다. 송대 理宗 이후에는 정부가 규정을 통일하여, 과거합격자 또는 太學 졸업자 가운데 교직 담당 기준에 적합한 관원을 조정에서 엄선한 뒤 산장에 임명했다. 그런 만큼 산장에게는 급료가 지급되었다. 이는 산장의 학술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학의 서원화를 가속화했다.²⁶⁾ 생도 역시 북송보다 훨씬 증가함에 따라, 내부 조직구조는 더욱 정밀해졌다.

중국서원의 원임은 시대·지역·서원별로 편차가 심해 그 종류와 업무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선행연구를 근거하면 대체로 <표.2>처럼 요약할 수 있다.

<표 2> 중국서원의 원임 종류와 업무²⁷⁾

직책	주요 업무	비 고
산장	총책임자	·청대 이후 院長으로 개칭, 關防에서는 산장, 원장을 병용. ·높은 학식과 덕망, 지역의 학술적 유명세 등 고려 임명. ·별칭 : 산장·山主·동주·主洞·洞正·館師·掌教·院師·主講. (관사·장교·원사·주강 명칭은 明清 이후 자주 출현)
당장	교육, 연구, 행정	·송대 서원과 서당이 혼용, 당장이 산장의 별칭인 경우가 많았음. ·일부 서원 산장 아래 직급으로 당장 설치 : 악록·백록동서원. ·원·명대 이후 당장 지위 하락, 院生 대표의 명칭으로 변함. : 수업 기록, 생도의 질의응답 수집, 시험 책임 등 업무.
學長	교육, 연구	·백록동서원 : 禮·樂·御·謝·書·數·曆 7과목 교사로 각 학장을 둠 ·청대 이후 학생 대표 명칭으로 쓰이기도 함.
分校	교육	·청대 광주 廣雅書院에 보이는 직위. 學長과 유사.
講書	교육 (學官 업무)	·송대부터 시작된 명칭. 일반 교육업무.

리는 악록서원의 경우 송대에 이미 산장, 부산장, 당장, 講書, 講書執事, 司錄, 齋長 등 다양한 직책이 보인다. 반면 간단하게는 산장 한 사람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26) 변혜한,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5, 68쪽.

27) 陳谷嘉·鄧洪波, 『中國書院制度研究』, 浙江教育出版社, 1997. 105~120쪽 참조해 발췌하여 표로 작성함.

訓導	교육	·본래 관학 명칭, 원대 서원 관학 체계 유지했기에 서원에서도 사용 ·백록동서원에서는 명대에 설치.
經長	교육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나, 백록동서원에서는 5명의 경장을 두어 각기 역경, 상서, 시경, 예기, 춘추를 교육.
助講	교육	·거의 쓰이지 않는 명칭.
都講	교육	·上司
司錄	교육 기록	·서원의 수업, 행사 내용을 기록함.
會主	교육 사회자	·서원의 수업, 행사 사회자.
會長	강학 및 학술 고문	·강회와 文會 회장으로 구분. ·강회 회장 : 강학회에서 행사 진행에 학술적 의견 제시. ·문회 회장 : 학자들의 문장 비판, 질정하고 수준 향상을 도모.
敎主	학술활동 대표	·각종 강학 및 학술활동을 주도, 참여.
知賓	내빈접대	·외부 학자 초빙 강회 시 접대를 맡고 강당을 활용하도록 함.
司書	장서관리	·장서 등록, 관리, 보충
掌書	장서관리	·청대 광동 지역 일대 서원에 보이는 명칭 ·광아서원에서는 생도가 담당한 직책
司事	장서행정	·주로 서적 보관·대출 업무, 생도 중 졸업 성적이 우수한 인물 임명.
主奉	제례	·산장이 유고 時 제사 업무 주관 및 담당 (산장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짐)
主祠	제례, 교육	·송대 道州 濂溪書院(주돈이 享)에 보이는 명칭, 제례와 교육 담당.
掌祠	제례	·송대 서원에 자주 보임, 香火·제기·공물 준비 등 관리 업무 담당. ·보통 토호를 천거하거나 생도를 선출하여 임명.
監院	행정	·행정 직위로는 산장 다음 권한을 지님 : 업무 총괄. ·명대부터 설치되어 청대에 보편적 직책이 됨. ·유사 직책 : 院總 生童監院 등.
總辦	행정	·항주 求是書院에 설치된 직책.
掌管	행정	·감원 업무 보조 및 실무, 산장 초빙 업무.
監理	행정	
董事	행정	·청대 서원에 주로 설치, 토호 중 임명. ·董正, 董副, 監院董事 등으로 세분화.
司事	행정	·행정 실무 담당 : 청대 서원에 비교적 많이 설치. ·서원에 따라 각기 다름 : 수업 공지, 명단 등록, 음식 준비, 생도 출입 관리, 장부 회계, 서적 및 서가 관리 등.
錢糧官	재무	·송대부터 설치, 司計를 따로 설치해 전량관 보조 실무 담당.
直學	행정	·송대 태학에 근거 : 송대에는 생도의 생활 및 덕업 기록. ·백록동서원 : 생도 대표를 뽑아 당장 직속으로 설치.
經理	재무	·조세, 이윤, 경비출납, 장부 담당.
司計	재무	·송대 서원에 설치 : 주로 서원 졸업생이 담당.

이와 같이 중국서원에는 한국 서원보다 훨씬 다양한 직제와 직무가 실재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송대 서원 중 조직 체계가 가장 완벽했던 建康府 明道書院을 살펴보자. 이 서원에는 산장·당장·提擧官·堂錄·講書·堂賓·直學·講賓·錢糧官·司計·掌書·掌議·掌祠·齋長·醫諭 등 총 15종의 직책이 있었다. 우선 크게 직무별로 교육과 행정 담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산장·당장·당록·강서는 중요 직책이기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한 뒤 ‘山長位’, ‘黨長位’, ‘堂錄位’, ‘講書位’라 불렀다. 지위가 제일 높은 산장은 교무를 주도하며 생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매월 3차례 시험 날과 1·3·6·8일 강학 때 來院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때 당장은 산장 보조 역할을 했고, 평소에는 서원에 상주하며 업무를 주관했다. 다른 직책에도 체계적으로 업무가 분담되어져 있어 서원에서 일어나는 교육·연구·제사·도서·경비 등을 직책에 맞게 수행되었다. 참고로 의유는 건강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산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취임했다. 하나는 지방 유지나 학자가 서원을 창건해 스스로 산장을 맡는 예이다. 예컨대 1182년(元豐 5) 程頤는 伊皋書院을 창건해 산장을 맡았고, 陸九淵은 1187년(淳熙 14) 象出精舍를 세우면서 초대 산장에 올랐다. 다른 하나는 서원을 만든 뒤 유명한 선생을 산장으로 초빙하는 것이다. 1166년(乾道 2) 호남의 安撫使 趙鼎은 湖湘學의 최고 권위자 張栻을 약록서원으로 모셨다.

그러나 산장 제도는 시기와 서원에 따라 여러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潮州 韓山書院은 백록동서원을 좇아 다음과 같은 원임체제를 운영하였다. “동주는 郡守가 맡고, 산장은 群博士가 맡는다. 실무는 당장·사계를 1인씩 두고, 재장은 4인을 둔다.”²⁸⁾ 이처럼 동주 아래 산장이 있기도 했다. 여기에서 동주는 일급 지방 행정 장관인 군수가 맡은 것이다.

한편 당장부책제는 서당과 서원을 혼용해 어떤 서원은 당장이 산장의 직

28) “洞主, 郡守爲之, 山長, 群博士爲之. 職事則黨長, 司計各一員, 齋長四員.” 『永樂大典』 卷五三四三, 「宋潮州韓山書院」

능을 행사함에서 비롯된 남송대 특유의 현상이다. 九江 濂溪書院이 대표적인 곳이다.

Ⅲ.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의 원장 비교

1. 소수서원의 원임

「白雲洞書院規」의 원임은 원장 - 院貳(부원장) 각 1인이 院事를 주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紹院의 「任事錄」을 분석한 결과 원장 - 유사 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시기마다 약간의 변화는 보여 15~16세기에는 원장 - 監官(유사), 18세기에는 일시적으로 원장 1인 - 별유사 2인 - 상유사 1인 체제²⁹⁾, 이후 다시 원장 - 유사 체제가 유지되었다. 기존에도 별유사가 존재했으나 「임사록」에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가 1708년(숙종 34)에 다시 기재하였다. 상유사는 1772년(영조 48) 부터는 목격되지 않는다.

紹院의 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業文信慎者 1人을 원장으로 한다”³⁰⁾는 조목이 원규로 제정되었다. 그래서 초대 원장으로는 이에 적합한 金仲文을 선임했다. 서원 창건 시부터 크게 힘쓴 점과, 마음 씀씀이가 지극히 전일하고 제사의 주관과 접빈객에도 시종 한결같은 근신한 인사라는 점이 참작되었다. 집 또한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³¹⁾ 주세붕은 그를 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이를 天爵의 영화로운 자리라고 표현했다.³²⁾ 그러나 원장에 오른 김중문은 직책을 처음 맡아 보았기 때문이었는지 서원 운영이 미숙해 院中의 소란을 야기했고

29) 소수서원에 上有司가 임사록에 기재 된 시기는 1708년 ~ 1723년, 1764년 ~ 1767년, 1772년이다.

30) 『列邑院宇事蹟』 紹修書院, 白雲洞書院規.

31)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275쪽.

32)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508쪽.

公館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이항까지 나서 원장의 처신을 염려 하면서 해결책을 조언해 주었다.³³⁾ 이처럼 원장은 쉬운 자리가 아니었다. 그 때문인지 2대 원장부터는 김중문처럼 장기간(11년) 원장을 지낸 인사는 배출 되지 않았다. 단, 한 명이 해를 바꾸며 중임하는 원장은 여럿 있었다.

紹院에는 1542년(중종 37)부터 현대까지의 『임사록』이 온전히 남아있어 원임 구성과 정보를 알 수 있다.³⁴⁾ 이 명부는 紹院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했던 인물들의 특성을 파악 가능케 하는 유의미한 자료이다. 먼저 紹院의 창건부터 1900년까지의 원장을³⁵⁾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소수서원 원장 현황

시기	원장 수	평균 재임기간	성씨 수	과거이력	%
16세기 (1542~1599)	18명	3.1년	8개	11명	44.4
17세기 (1600~1699)	137명	0.7년	17개	69명	12.4
18세기 (1700~1799)	171명	0.6년	18개	99명	9.8
19세기 (1800~1899)	331명	0.3년	24개	151명	7.2

먼저 계량적 특성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자. 1542년부터 1900년까지 359년 동안 선임된 원장은 총 657명으로, 평균 5개월씩 재임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평균 재임기간은 16세기 3년 1개월, 17세기 7개월, 18세기는 6개월, 19세기 3개월이다. 17세기 이후부터는 재임기간이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했다

33)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750~751쪽.

34) 9책의 『임사록』가운데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것은 1책(1542~1718)·2책(1708~1794)·3책(1794~1898)과 4책(1898~) 일부이다.

35) 소수서원 원임에 대해서는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8, 2007에 精緻하게 다루어져 있어 크게 참고가 된다.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남 서원의 대체적인 흐름이며, 원장의 서원 내 입지와 역할이 점차 감소함을 보여주는 수치일 뿐 아니라 서원의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1697년(숙종 23) 한 해에만 5명의 원장이 부임한 예도 있었다. 이처럼 잦은 교체는 사실 서원 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원장의 임기가 축소되었던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원장의 자격을 갖춘 인사 부재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울러 未行公 또는 재직 중 부정, 개인적 사유 등 서원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했을 터이다. 未行公은 18세기 후반부터 관료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19세기 접어들면 원장은 거의 一期享祀를 수행한 명예직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까닭도 작용했을 것이다.³⁶⁾ 6~7회 중임한 원장이 연이어 배출된 원인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紹院에서 2회 이상 원장을 중임한 횟수는 무려 225회에 달한다.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나 역임한 원장들이 확인된다. 이를 다시 인원수대로 나열하면 2회 62명, 3회 16명, 4회 5명, 6회 1명, 7회 1명 총 85명이 중임했다. 이러한 양상은 1719년(숙종 45) 사마시 합격자 위주의 입원 자격을 罷格한 영향, 즉 입원생의 확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7차례나 원장에 오른 생원 權俊臣은 재임할 무렵 동몽재 재정 확립, 西齋 증축, 인사록 修補 등 다방면에서 서원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다.

紹院의 규약을 보면 “본소의 임원은 반드시 文官과 생원·진사 합격자 중에서 선비로 명망이 있는 자를 가려 정하고, 요행으로 입격한 사람을 안면에 구해되어 뒤섞어 천망하지 말도록 한다.” 라고 원임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다.³⁷⁾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장 취임 당시 유학 신분의 비율이 50.5%로 절반이 넘는다. 右尹·承旨 등이 그나마 고위직이며, 대다수는 司諫·掌令·應教·校理·正郎·持平·正言·主簿 등 당하관 출신이었다. 아마도 지역출신으로 문과에 합격한 인사들은 거개가 원장에 취임한 것으로 보인다.

36) 이수환, 앞의 책, 2001, 일조각, 117쪽.

37) 소수서원, 앞의 책 「소수서원 立議」, 2007, 292쪽.

이어서 거주지가 파악된 원장 439명의 군현을 조사한 결과 순흥 236명, 풍기 67명, 榮川 43명, 안동 42명, 京 15명, 예안 12명, 예천 3명, 상주 5명, 원주 3명, 廣州·長湍 각 2명, 봉화·石城·수원·龍仁·昌寧·포천·함창·洪州·회덕 각 1명 등 20개 列邑에 분포했다. 여기서 지방관이 兼원장한 사례를 논의로 하면 11개 군현에 불과하다. 紹院은 철저히 향중인사, 곧 순흥, 풍기, 榮川 사람을 대부분 원장에 임명했던 것이다. 원장으로 서원에서 5리 내 거주자를 선호한 영남 남인계 서원 인식이 잘 녹아있다.³⁸⁾

18세 중·후반 영남 首 서원에서 목격되는 외부 명망가를 추대하는 道원장제가 1788년(정조 12) 9월 紹院에서 결의되었다. 도산서원 사례에 의거해 도내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되 향중과 도내에서 돌아가면서 선임하는 것을 규정으로 삼았다.³⁹⁾ 이듬해 紹院에서 처음으로 외부 명망가 李光靖을 추대하면서 도원장제가 현실화되었다. 그는 형 李象靖과 함께 당대 영남을 대표했던 학자 중 한명이었다. 하지만 병 때문에 사임단자를 제출했고, 그해 사망하는 바람에 부임이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적으로 湖學 계열의 원장이 연이어 임명되고, 이는 소수서원이 湖論의 정치사회적 입장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학 역시 자연스레 心學과 실천을 강조하는 湖學적 학풍의 분위기와 맥을 같이 했다. 이상정의 조카와 손자들이 원장에 부임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후 1792년부터는 현직 순흥부사, 영천·풍기군수를 원장으로 추대한 사례가 산견된다. 한말까지 38명이 紹院 원장을 겸했다. 이들이 원장으로 재직할 시에는 중대한 일을 반드시 관가에 품신해 처리토록 조치했다.⁴⁰⁾ 특히 흥학에 관심이 높은 지방관이 원장을 겸할 경우 강학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도

38) 『海東雜錄』 3, (『大東野乘』소재), “別擇業文信慎者 一人爲院長 又擇一人爲貳 共主院事 主院者 若遠居 則雖有至試 勢不得常常顧之 必至荒廢 須以五里居人爲可也”. 이수환, 앞의 책, 2001, 일조각, 107쪽, 재인용.

39) 『雜錄』, 「戊申年 九月 九日 完議」.

40) 소수서원, 앞의 책 「소수서원 立議」, 2007, 292쪽.

산서원 1810년(순조 10), 병산서원은 1830년(순조 30)부터 지방관이 원장을 역임한 것에 비해 이른 시기에 등장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시기 紹院은 養土廳이 폐지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가던 상황에서 나온 자구책의 일환이었다.⁴¹⁾

사실 紹院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官權과의 깊은 밀착성을 꼽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황이 강조한 향촌자치제에 의한 서원 운영론과는 간격이 있으나, 소수서원은 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창건된 서원이고, 일찍이 관권이 서원의 행·재정 지원에 유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를 배제하지 않고 서원 운영에 적절히 활용한 제도가 兼원장제였던 것이다.⁴²⁾

한편 원장의 성씨 참여율은 44.4% ⇨ 12.4% ⇨ 9.8% ⇨ 7.2%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일부 성씨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상위 성씨는 중복을 포함해 김 101명·이 75명·권 62명·박 61명·황 70명·서 46명·안 38명 순이다. 이들의 성관은 의성·강릉·예안 김, 진성·예안·우계 이, 안동 권, 무안·함양 박, 창원·평해 황, 순흥 안이다. 즉 이들을 紹院 운영을 담당한 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단일 성관에는 2대 원장인 權應參을 기점으로 한 안동권씨를 위시해 대구서씨와 창원황씨의 점유율이 높다. 반면 주향자 본손 순흥안씨는 16세기 3회, 17세기 15회, 18세기 3회, 19세기 10회, 미상 7회 총 38회에 불과하다. 주지하다시피 경상감사 등을 지낸 安珪을 위시한 순흥안씨 본손들이 紹院 창건과 재정기반 구축,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의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公論으로 건립된 서원이 일정 가문의 사유화될 혐의를 피하기 위해 본손들의 원장 참여를 지양하던 것이 관례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일까.⁴³⁾ 이

41) 김자운,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177쪽.

42) 소수서원의 '兼원장' 제도에 관해서는 김자운, 앞의 박사학위 논문, 2014, 176~181쪽 참조.

43) 이병훈, 앞의 논문,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56쪽.

러한 요소는 도산서원이 이황의 후손 진성이씨가 원임의 85%를 점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⁴⁴⁾ 이를 17세기 이후 지역 내 丹溪·郁陽·龜灣·愚谷·道溪서원 등 서원의 증가에 따른 출입처 분산으로 보아야할 것인지는 추단할 수 없다. 이 점은 다른 영남 남인계 首서원에 나타나는 제향자 후손 증가 현상과 구별되는 紹院만의 특징으로 볼만하다.

紹院 원장의 또 다른 특징적인 대목은 초창기에는 도산과 같이 입원생 출신이 꽤 많다는 점이다. 1584년(선조 17) 『임사록』 1권에는 원장은 모두 入院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⁴⁵⁾ 1542년(중종 37)~1696년(숙종 22)까지 살펴 보면 5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619년(광해 11) 초대원장 金仲文을 빼면 전부 紹院 출신 원장이다. 이들은 주로 20대에 입원해 유사를 거쳐 40~50대에 원장에 올랐다. 이같이 입원생 출신의 원장 취임은 영남 남인계 서원의 일정한 규칙이었다. 그러다가 1650년(효종 1)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는 非 입원생 출신이 압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노정된다.⁴⁶⁾ 이는 여타의 서원에서 보이는 경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음으로 유사는 서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원규에 ‘특별히 학문에 종사하면서 신실한 이 1명을 선택하여 원장으로 삼고, 또 한명을 선택하여 차석으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⁴⁷⁾ 차석이 유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1인이 유사를 맡았으나 이후 많을 때는

44) 안승준, 「소수서원의 건립·운영과 안씨 본손들」, 『소수서원·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사, 2019, 212쪽.

45) 소수서원, 앞의 책, 2007, 725쪽.

46) 송정숙, 앞의 논문, 『書誌學研究』 38, 2007, 119~122쪽.

47) 같은 영남 남인계서원 동동서원규 ‘擇有司’ 조가 좋은 참조가 된다. “유사 또한 一院을 管攝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장과 원증이 상의하여 선택되 반드시 純謹 精詳한 사람을 얻어 임명한다.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一院之事에 봉사한다. 만약 마음 씀이 繼序하고 院事に 힘을 다하지 않거나 濫冒無恥하여 소문이 좋지 않은 자는 작은 일이면 원장이 신칙하고 큰 일이면 院中에서 責하고 끝내 고치지 못하는 자는 원장과 원증이 같이 상의하여 추방한다.” 정구, 『寒岡續集』 권4, 「잡저-道東院規」.

9명까지 서원 환경에 따라 인원의 변동이 있었다. 9명까지 두었을 때는 상유사가 있던 기간이었다. 상유사는 유사 중 으뜸으로 여겨진다. 또 서원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기도 했다. 『竹溪誌』에 산견되는 특수 유사를 발취하면, 養士廳別有司·京有司·寶穀有司·別辨有司 등이다.

양사청 별유사는 일반 유사 외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명칭이다. 양사청은 1749년(영조 25)에 강학의 안정적 재정의 틀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다. 양사청 별유사는 강학 재정 곧 院田 살림을 전담한 유사인 것이다. 양사청을 기반으로 강학활동을 이어갔으나 재정고갈로 인해 지폐를 거듭하다 결국 1792년(정조 16)에 완전 폐지되고, 양사청 별유사도 함께 사라진다.⁴⁸⁾

경유사는 1779년(정조 23) 채제공의 영정을 봉안할 때 재정세력의 도움을 받고자 前 참관 李益運을 선임한 사례이다. 紹院에서는 6차례에 걸쳐 영정 봉안식을 거행했는데 마지막인 채제공의 경우에만 경유사가 확인된다.

보곡유사는 원래 유생의 공궤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직이었다.⁴⁹⁾ 1629년(인조) 1월 미상환자와 서원 5~7리 안에 있는 자는 보곡유사에 천망하지 못하게 하는 立議⁵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운영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아마 보곡을 관리·감독해야할 유사가 오히려 이를 악용한 것 같다. 특히 서원 인근 거주 유사가 그런 빈도가 높았기에 차단한 조치인 듯하다.

별변유사는 1780년(정조 4) 金燦元 1명이 「임사록」에서 확인이 된다. 다른 문서상에서는 당시 김찬원이 養士有司로 나오고 있어 별변유사가 양사유사의 다른 이름인지는 불명확하다.

서원에서 특별한 사안이나 사업이 있으면 도감을 설치해서 공사원을 差定해 진행했고, 강학과 관련해서 훈장·考官을 위촉해 시행하는 등 더 많은 비상설직이 있었을 것이다.

48) 김자운, 앞의 박사학위 논문, 2014, 114~120쪽.

49) 김자운, 앞의 박사학위 논문, 2014, 78쪽.

50) 소수서원, 앞의 책 「士林立議」, 2007, 281쪽.

2. 백록동서원의 원입

백록동서원은 石鼓書院 應天府書院 嶽麓書院과 함께 4대 서원으로 추앙 받는 중국의 대표 서원으로, 당대 여산국학에서부터 남송을 거쳐 명·청대까지 당대 학술을 주도한 입지전적인 역할을 한 서원이다.

白院의 전신 여산국학은 940년(昇元 4)에 창건되었다. 「白鹿洞賦」에는 “남당 승원 연간에 백록동서당을 인준하여 學館을 세우고 토지를 주어 여러 생도에게 음식을 제공하니 학자들이 크게 모여들었다. 이에 국자감 九經박사 李善道가 동주가 되어 교수를 관장했다⁵¹⁾”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산국학은 과거 인재를 양성에 교육목적을 둔 교과를 설정했고, 생도 수는 많을 때는 몇 백 명 이상이었으며 평상시에도 백여 명 선을 유지하였다.⁵²⁾ 그러나 관의 서원전담 귀속에 따라 재정이 피폐해져 갔고,⁵³⁾ 976년(開寶 9년) 남당이 멸망하자 여산국학 역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산국학의 경영법과 교육 방식 등은 향후 白院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북송 초(976~977) 江洲지방 학자들에 의해 舊여산국학 터에 소규모로 白院이 재건되었다.⁵⁴⁾ 재건한 白院의 생도는 수십 명에서 약 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나,⁵⁵⁾ 이후 추이는 고증하기 어렵다. 다만 977년(太平興國 2) 송 태종이 지방관의 요청에 부응해 九經을 하사했고, 향시 수 백명의 생도들이 운집해 학문을 닦았다는 기록은 찾아진다. 또 태종은 서원 운영에 공로가 컸던 동

51) 『竹溪志』, 권5, 雜錄, 「白鹿洞賦」. 다만 중국학자 李才棟은 여산국학은 남당의 국학으로, 이는 후일에 여산국학의 터에 설립된 ‘향당지학’인 백록동 서원과 본질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백록동 서원의 시작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서원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기인한 관점으로 보인다.

52) 李才棟, 「北宋時期白鹿洞書院規模征實」, 『中國書院研究』, 2005, 1~8쪽.

53) 李燾, 『속자치통감 장편』 권21 「태종」, 310쪽.

54) 이 시기 백록동서원은 ‘서당’ 혹은 ‘학관’으로 불리었다.(李才棟, 『白鹿洞書院史略』, 教育科學出版社, 1989, 29쪽)

55) 李才棟, 앞의 책, 2005, 3~6쪽.

주 明起를 蔡州 褒信縣 主簿로 임명하여 표창했다.⁵⁶⁾ 이어 1002년(鹹平 5)에는 白院의 보수 및 공자와 제자상을 彫鏤해 서원을 일신했다. 1053년(仁宗 皇祐 5)에는 孫琛이 백록동에 學舍를 건립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선비들을 맞이했다. 이때 ‘백록동서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이듬해 전쟁으로 파괴되고 만다.⁵⁷⁾ 북송 대의 白院은 당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관학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남송 대는 오늘날 학계에서 조망하는 白院의 정체성과 특징이 형성된다. 그 중심에는 理學의 집대성자 주희가 있었다. 주희는 1179년(淳熙 6) 南康軍 知事에 임명되자 白院 복원에 착수했고, 1181년에는 황제로부터 賜額을 받아 국학의 지위를 획득한다. 그가 白院을 복원한 동기는 유가적 교육목적관 확립 - 이학의 전수, 斥邪衛正觀에서의 서원교육 필요 - 민족사상의 고취, 현실적인 교육시폐 척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⁵⁸⁾ 나아가 주희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이 모두 67개에 달할 만큼 서원 부흥에 열정적이었다.⁵⁹⁾

白院을 복원한 주희는 당초 몇몇 학자들을 초빙하여 직무를 맡기려다 무산되자 스스로 초대동주에 올랐고 원생 20여명을 모집해 『중용』 1장 강론을 선보였다.⁶⁰⁾ 주희는 「백록동 강회에서 卜丈의 운에 차운하다」라는 시에서 白院의 강화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집 담이 거칠고 무너져 몇 해를 지내니,

56) 주희 著·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백록동서원의 수리를 보고하는 狀」, 『주자대전 4』, 2010, 489쪽.

57)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22쪽

58) 정순목, 「한국서원 교육제도연구」, 『민족문화총서』 3, 1979, 228~291쪽.

59) 한편 조선에서 서원의 정착과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이황의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서원은 총 43개소이다. 채광수, 「퇴계 문인의 서원 보급 활동」, 『민족문화논총』 73, 2019.

60) 주희 著·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여백공에게 답함 32」, 『주자대전 7』, 2010, 541쪽.

다만 찬 연기만 산골 물 둘러쌌네.
집을 짓고 다행히 옛 경치 따라가니,
이름은 썼으나 유편 이름 허락하지 않았네.
동주를 위하여 보답하지는 마시게,
푸른 구름과 흰 돌은 애로라지 취향이 같으며,
서간 유공(劉頌)을 말한다
달 개인 풍광은 다시 별도로 전할 것이네
濂溪 선생을 말한다.
진중한 그 사이에 무한한 즐거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날아오르길 괴로이 부러워 마오.⁶¹⁾

그는 당대를 대표했던 학자 呂祖謙에게 「白鹿洞書院記」를 부촉했고,⁶²⁾ 스스로 「白鹿洞賦」와 「白鹿洞書院學規」를 지어 서원이 지향할 방향을 명시했다. 특히 「學規」는 중국을 넘어 동아시아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학칙으로서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희는 재임 중 陽日新을 당장에 초빙, 문인 劉靑之·林則之·王阮이 함께 강학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또한 유명 학자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개최하는 등 문풍 진작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특강은 주희와 남송 대 학문을 양분한 육구연의 義利에 관한 講이 대표적이다. 주희는 이날 강학에 대해 “그가 밝혀 편 강론이 간절하고 명백하여 학자들의 은미하고 깊은 병통을 알맞게 지적한 것이어서 들은 사람들이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며 호평을 마지않았다. 또 오래되면 혹 잊을까 두려워 다시 육구연에게 써주기를 청하여 받아서 갈무리한다고 덧붙였다.⁶³⁾ 동시에 “무릇 우리 동지들이 이에 대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깊이 살

61) 주희 著·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백록동 강회에서 복어른의 운에 차운하다」, 『주자대전 2』, 2010, 239쪽.

62) 주희는 여조겸의 글을 동문 黃銖에게 隸書를 받아 각석했다. 주희 著·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여백공에 답함 31」, 『주자대전 7』, 2010, 535쪽.

63) 주세붕, 『(국역)죽계지』 권5, 「잡록-금계 육주부가 백록서당에서 강의한 글 뒤 발문」, 영주시, 2002.

핀다면 아마도 덕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혼미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학의 의미를 부여했다. 주희는 白院을 떠나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였다.⁶⁴⁾

주희 외 조사된 동주는 高樸인데 북송의 유명한 易學者 种放의 문인으로 經術에 뛰어났다. 그는 2차례나 동주에 올랐다.⁶⁵⁾ 주희가 복설한 白院은 이학 전파의 구심치가 되었고, 문인들은 스승의 서원론을 계승해 서원 정착과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희의 주요저작이 서원에서 모두 완성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⁶⁶⁾

이렇게도 남송 대 白院의 기록에는 본고가 주목하는 서원조직과 관련된 자세한 기록이 없다. 다행히 명·청대 동주의 계보가 어느 정도 파악되므로 그 대체를 엿볼 수 있을 듯하다. 명·청대 白院을 거쳐 간 동주는 각각 57명과 45명이다. 특히 명대는 1522년(嘉靖)~1619년(萬曆) 41명이, 청대는 1662년(康熙)~1795년(乾隆) 35명으로 이 시기에 집중이 되었다. 두 시기는 白院 발전의 절정기였다.

먼저 명대 白院의 동주 계보는 완벽하게 世傳하지는 않지만, 사료를 다방면으로 취합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재정리하면 <표 4>와 같다.⁶⁷⁾

<표 4> 명대 백록동서원 동주 명단⁶⁸⁾

성명	본적	신분	재임 연간	성명	본적	신분	재임 연간
汪康	江西星子	進士	正統	許惟德	미상	寧國府教授 訓導	嘉靖 연간
方文昌	浙江杭州	訓導	景泰 연간	瞿九恩	安徽黃梅	從耿定向遊	嘉靖 연간
李昊	江蘇南京	鄉貢進士	1458년 天順2	朱勳	安徽滁州	安福訓導	嘉靖 ~萬曆

64) 주세붕, 앞의 책 권5, 「잡록-백록동 임원에게 보낸 답서」, 영주시, 2002.

65) 孫彥民, 『宋代書院制度之研究』, 教育研究叢書(乙鍾), 1963, 103쪽.

66) 이존산 著·김홍수 譯,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의의」, 『안동학 연구』 제11집, 2012, 139쪽.

67) 葉夢晨, 「明清時期白鹿洞書院洞主考論」, 江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11~14쪽.

周孟中	江西吉安蘆陵	進士, 廣東布政使, 左副摺禦使	1466년 成化2	熊敦樸	四川富順	進士, 通判, 書院敎事	萬曆 이후
胡居仁	江西餘幹	布衣	1467년 成化3	趙參魯	浙江寧波	高安典史, 福建提學, 南京刑部尚書	1574년 萬曆2
查杭	江西星子	布衣	成化\연간	鍾譔	江西瑞金	南康府儒學訓導	1575년 萬曆3
袁端	甘肅通渭	劍州 判官	1469년 成化5	周傑	安徽六安	平湖·長興·臨江府學敎授	1575년 萬曆3
丁煉	江西豐城	淳安知縣	1479년 成化15	章潢	江西南昌	布衣	1582년 萬曆10
彭台	江西新餘	미상	1493년 弘治6	周偉	江西星子	星子縣 學訓導	1592년 萬曆20
婁性	江西上饒	進士, 南京 兵部郎中	1498년 弘治11	支如璋	江蘇昆山	舉人, 本府 同知	1597년 萬曆25
黃珠	福建莆田	舉人	弘治 연간	舒日敬	江西南昌	진사, 知縣, 敎授	1617년 萬曆45
董遵	浙江蘭溪	미상	正德 연간	陳琦	福建閩侯 洋頭村	進士, 府學敎授	萬曆 연간
蔡宗克	浙江山陰	진사, 太學助教, 南考功郎, 四川提學僉事, 福建 興化府 入學敎授	1521년 正德16	張三鳳	江蘇鹽城	主洞事, 訓導	萬曆 연간
魏良器	江西新建	布衣	1531년 嘉靖10전	何端表	廣西平樂	訓導	萬曆 연간
吳國倫	江西興國	南康府 推官	嘉靖 연간	譚敬躋	番禺	敎諭	萬曆 연간
劉世揚	福建福州 閩縣	진사, 都察事, 江西布政司照磨	1531년 嘉靖10	陳元琛	江西高安	建昌 敎諭	萬曆 연간
薛應旂	江蘇常州武進	진사, 浙江 慈溪縣 知縣, 江西九江府 儒學敎授	1538년 嘉靖17	劉守成	江西南昌	訓導	萬曆 연간
劉守道	福建福州	南豐縣學 敎諭	1544년 嘉靖23	劉汝芳	湖北宣城	舉人 本府同知	萬曆 연간
馮元	廣東番禺	進士, 南昌府 儒學 敎授	1547년 嘉靖26	楊聯科	河南孟州 河陽	本府訓導	萬曆 연간
崔柏	미상	敎諭	1553년 嘉靖32	陳維智	江西南昌	星子縣學 訓導, 通判	萬曆 연간
王世清	미상	미상	1554년 嘉靖33	黃佑	江西無州 廣昌縣	府學訓導	萬曆 연간
朱資	福建莆田	星子 敎諭	1555년 嘉靖34	唐繼孝	江西興國 湖廣興國	星子縣 學訓導	萬曆 연간

王棟隆	江蘇薑堰	南城縣學 訓導 深州 學正	1558년 嘉靖37	餘文煒	安徽黃山 歙縣	府學訓導	萬曆 연간
胡叔道	江蘇揚州	新喻縣 儒學 訓導	1559년 嘉靖38	李應昇	江蘇江陰	府推官	1662년 天啓2
貢安國	安徽宣城	湖口 訓導	1560년 嘉靖39	管天衢	江西臨川	建昌縣學 教諭	天啓 연간
張拱極	江蘇鎮江 丹徒	舉人	1563년 嘉靖42	朱之屏	重慶銅梁	舉人, 本府推官	天啓 연간
陳女簡	浙江溫州 青田	府學 訓導	1565년 嘉靖44	李明睿	江西南昌	禮部侍郎典司	崇禎 연간
王之臣	貴州省	府學 訓導	嘉靖 연간	唐一魁	安徽績溪	府學訓導	崇禎 연간
李資元	貴州恩南	府學 教授	嘉靖 연간				

명대 白院 동주의 성격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과거 출신 동주가 51명으로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36명은 殿試를 거쳐 여러 관직을 역임한 인사들로 추정된다. 黃珠와 張拱極만 宦歷이 파악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고증되는데 관직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러한 관료 출신 동주는 조정의 교육 통제에 따른 서원의 관학화 흐름에 조응한 현상으로 조정에서 白院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白院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고위관료의 강학자 초빙, 교관 파견, 서원 운영비 보조 등 서원의 본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한 절대적인 힘이 되었다.

명대 초기 동주는 조정에서 임명하지 않고 지역의 포의와 토호나 지방관이 겸임했다. 후기에는 지방관이 겸임하거나 본인의 소관 하에 초빙하는 편이었다. 명대 白院의 동주 관직은 학술 업무에 종사하던 訓導[21명]·敎授[7

68) 선행연구에서 밝힌 사료의 출처는 『康熙新甌縣志』, 『同治嶺縣志』, 『萬曆泰州志』, 『四書人物考』, 『新餘縣志』, 『湖廣通志』, 嘉靖 『永嘉縣志』, 嘉靖 『通許縣志』, 康熙 『高安縣志』, 康熙 『良鄉縣志』, 康熙 『徽州府志』, 乾隆 『濟源縣志』, 乾隆 『棗陽縣志』, 同治 『南康府志』, 同治 『進賢縣志』, 萬曆 『南安府志』, 萬曆 『福安縣志』, 萬曆 『鹽城縣志』, 萬曆 『永安縣志』, 明程汝政 『篁墩文集 卷69』, 明周偉 『白鹿洞書院志』, 吳國富編 『白鹿洞書院』, 章學誠 『瞿九思傳』, 正德 『建昌府志』, 陳敏政 『重建真道橋記』, 『嘉昆山縣志』, 天啓 『贛州府志』, 清毛德琦 『白鹿書院志』, 清錢正振 『白鹿洞書院志』, 清沈佳 『明儒言行錄』이다.

명·教諭4명 등의 순이었고, 기타 지방관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훈도·교수·교유는 명대 유학 교사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훈도는 교유를 보조하거나 직접 강학에 참여하는 직위이고, 교수는 府學에 속한 교관으로 대부분 진사 출신이며, 조정에서 직접 임명했다. 교유는 현학에 속한 교관으로 舉人·貢生 출신으로 藩司가 선임했다. 이들은 동주 부임 이전에는 南康府 유학교수, 星子縣 교유, 부학 및 縣學 훈도로 재직하고 있던 경우가 빈번했다. 이처럼 동주가 관학 출신인 까닭에 명대의 白院은 講學式과 集徒式 서원 양상을 띠게 되었다. 생도들에게 유학을 강론·토론하는 동시에 관학의 학술 정책과 일치화를 도모했기 때문이다.

포의는 비록 과거·관료 출신은 아니나 胡居仁·魏良器·章潢은 서원에 기여한 바가 지대했던 이력자들이다. 예컨대 호거인은 두 차례 동주를 역임하는 동안 서원 관리에 관한 이론지식 체계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 張元禎·周孟中 巨儒들과 자주 연락해 서원학과 과거학 관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서원이 위치한 江西에 적을 둔 자가 대다수로 지역성이 강했던 점도 짚을 수 있다.

다음은 청대는 명대보다는 12명이 적은 45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표 5>가 그것이다.

<표 5> 청대 백록동서원 동주 명단

성명	본적	관직	재임 연대	성명	본적	관직	재임 연대
熊維典	江西 建昌南城	官兵料給事中	1658년 順台12	史珥	江西鄱陽	翰林院庶吉士 改授主事	1769년 乾隆34
何孝先	江西瑞昌	書院編講	順台연간	候學詩	江蘇江寧	進士, 撫州知府	1780년 乾隆45
餘允光	江西奉新	建昌 教諭 書院編講	1660년 順台17	郭輝猷	江西星子	進士, 官通政司, 致仕後主豫章	1785년 乾隆50
張世經	江西南城	府學 訓導 書院編講	順台연간	沈琨	浙江歸安	內閣中書	乾隆연간
李尙珍	江西瑞昌	貢生, 府教授	順台연간	謝啓昆	江西南康	兵部侍郎 都察院 右副都禦史巡撫廣西	1789년 乾隆54
楊日昇	浙江新城	府學教授 書院編講	1662년 康熙원년	楊倫	江蘇和陽湖	進士, 荔浦知縣	乾隆연간

巫之巒	安徽當塗	司理南康兼督洞事	1662년 康熙6	左觀瀾	江西永新	通判, 安定縣知縣	1794년 乾隆59
廖文英	廣東連州	知南康府督洞學	1670년 康熙9	鄧夢琴	江西浮梁	進士, 漢中知府	1797년 嘉慶2 후
汪士奇	湖北湖廣	司理南康兼督洞事	미상	彭良裔	江西南昌	進士, 庶吉士	嘉慶연간
吳一聖	江西星子	舉人, 隱居 40년. 知府 廖文英 延請	1670년 康熙9	馬瑞辰	安徽桐城	星子知縣	1807년 嘉慶12 후
張自烈	江西宜春	廖文英守南康 재임시 동주 초빙, 이후 知縣 부임	1674년 康熙13	吳嵩梁	江西東鄉	國子博士	1814년 嘉慶19
郭燦	江西安福	福泉知縣, 建昌, 南康府教授	1723년 雍正원년	駱應炳	江西九江	進士, 知縣 15년 역임, 廣饒九分 巡道視察轉	1830·1834년 道光10·14
王鼐	江西金溪	長清知縣, 귀향 후 동주 초빙	1727년 雍正5	帥方蔚	江西奉新	探花	1839년 道光19
陶思賢	江西南城	九江府 教授	1733년 雍正11	徐謙	江西廣豐	進士, 吏部主事	미상
章國祿	江西瑞昌	廣東吳川, 廣寧知縣 후 낙향	1738년 乾隆3	湯雲松	江西南豐	道光 10년 進士	1860년 咸豐10
張廷樞	江蘇江陰	進士	1743년 乾隆8	潘先珍	江西星子	進士	1861년 咸豐11
靖道謨	湖北黃岡	庶吉士	1745년 乾隆10	吳曾達	江西南昌	翰林院庶吉士 郎中協戶部主事	1868년 同治7
熊直末	江西南昌	進士, 廣昌知縣	1748년 乾隆13	謝章鋌	廣東長樂	內閣中書	1883년 光緒9
李金台	湖北黃陂	進士	1751년 乾隆16	張賡颺	江西鄱陽	進士, 刑部郎中 山西道禦史	1887년 光緒13
魏定國	江西廣昌	刑部右侍郎	1752년 乾隆17	華祝三	江西鉛山	進士, 禦史	1890년 光緒16
戴第元	江西大餘	進士, 太僕寺 少卿	1762년 乾隆27	陶福祖	江西新建	進士, 授戶部主事, 사직 후 귀향	光緒연간
顧鎮	江蘇常熟	進士, 國子監助教	1766년 乾隆31				

청대 서원의 강학 성격은 '과거 공명'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 조정에서는 이 조건에 적합한 인사를 동주에 선임했기 때문에 전 왕조와는 그 신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서원 강학 정신과 방식 역시 이와 연동해 관학에 가까웠다. 물론 章丘縣 綉江書院의 경우 산장은 “공동으로 추천하며 원래 상관이 간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보이기도 한다.⁶⁹⁾

69) 道光, 『武城縣志』 권4. 이수환, 「朝鮮朝 嶺南과清代 山東의 書院 비교연구- 人的組織과 經濟的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2010, 재인용.

위 표에서 보듯 청대 白院의 동주 중 ‘포의’는 없고, 과거 합격 후 관직 역임자가 대다수이다. 이는 武城縣 弘歌書院 경우에서도 “교육담당 교사는 해당 지역 명사 중에서 文行을 겸비한 甲科 출신을 선임하고, 또 院內에 머물면서 강의할 수 없는 자에게는 그 자리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⁷⁰⁾

동주는 이 가운데에서도 조정에서 직접 특정 관직을 임명했거나 재·퇴임 중 상급자가 동주로 延請해 부임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주의 관직을 열거하면 知縣 8명, 書院副講 5명, 庶吉士 4명, 司理南康兼督洞事·府教授·知府 각 2명 등의 순이었다.⁷¹⁾ 지현과 지부는 지방관으로 배제해도 될 것 같고, 師長인 서원 부장은 그 자체가 관직이다. 사리남강검동독사는 애초 府推官을 거쳐 교관에 겸임시켰다가 본 관직을[督洞儒官] 신설해 현지 우수한 학자를 임명한 뒤 師弟의 녹봉 지급 등의 경제권을 부여했다. 이 관직은 청 조정의 서원 직영과 통제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庶常이라고도 불리는 서길사는 진사 출신에 황제의 조서 작성과 經籍 해설 등을 수행한 한림원 단기직이다. 한편 貢生 출신 6명도 눈길을 끈다. 공생은 府·州·縣의 생원 중 우수자에 선발되어 京師의 국자감으로 진학한 이를 말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韓·中서원의 院任을 비교해 본 것이다. 좀 더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한국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과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인 중국 백록동서원을 교차 검증하였다.

먼저 원임의 일반적인 차이점은 먼저 한국서원은 향촌 내 명망가를 자율

70) 道光, 『武城縣志』 권4. 이수환, 앞의 논문, 『민족문화논총』 46, 2010, 재인용.

71) 나머지 관직은 刑部郎中·官兵科給事中·刑部右侍郎·兵部侍郎·太仆寺少卿·國子監助教·通政司·揚州司理·通判·探花·吏部主事·戶部主事·內閣中書·禦史 각 1명씩이다.

적으로 선임하였으며, 주로 원장-(장의)-유사 체제로 서원 운영을 관장했다. 반면 중국서원은 크게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는 원임으로 구분하여 운영했고, 원장은 지방 관료 또는 대학자 초빙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또 중국서원이 한국서원보다 원임의 직제가 보다 세분되어 있으며, 조직 규모가 더 컸다. 다만 한국서원은 관의 영향력이 강한 중국서원에 비해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었다.

다음은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을 비교해 살펴보았다. 우선 원장-유사 직제를 지향한 소수서원의 『임사록』을 분석한 결과 창건부터 1900년까지 거처간 657명의 원장은 평균 5개월씩 재임하였다. 이들은 주로 입원생 출신들로 2회 이상 원장을 중임한 자가 무려 225회에 달했고, 적게는 2회 많게는 7회나 역임하였다. 규약에는 文官과 司馬 합격자 중에서 원임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유학 신분의 비율이 절반이 넘었다. 한편 이들은 주로 서원 인근 고을에 거주한 인사들이 많은 가운데, 일부 姓貫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노정된다. 그러다가 18세 중·후반부터는 외부 명망가 또는 현직 지방관을 원장으로 삼아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특히 소수서원은 한국의 다른 서원에 비해 官權과 깊은 밀착성을 보인 서원으로 알려져 있다. 유사는 상시 유사를 두면서 서원의 필요에 따라 임시유사를 수시로 선발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어 중국 4대 서원으로 추앙받는 백록동서원은 당대 여산국학부터 남송을 거쳐 명·청대까지 당대 학술을 주도한 입지전적인 서원이다. 여산국학은 국자감 九經박사가 동주가 되어 교수를 관장하며, 과거 인재 양성에 교육 목적을 두었다. 서원이 복원되는 북송 대에는 당대 보편적인 흐름에 따라 관학적 성격을 띠었다. 남송 대는 주자가 서원을 재건하여 백록동서원의 정체성과 특징이 형성된 시기이다. 그는 스스로 초대 동주에 올라 원생을 모집해 강학한 것을 비롯해 堂長과 유명학자 초빙, 강화 업무 관장 등 서원의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백록동서원은 아니지만 송대 建康府 明道書院의 경우 산장·당장·提擧官·堂錄·講書·堂賓·直學·講賓·錢糧官·司計·掌書·掌議·

掌祠·齋長·醫諭 등 총 15종의 직책이 존재한 만큼 이와 유사한 원임 조직을 구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송시기 원임과 관련해 추가적인 기록은 발견하지 못했고, 다행히 명·청대는 동주의 계보를 다소 파악하였다. 명대는 과거 출신 동주가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었다. 이는 조정의 교육 통제에 따른 서원의 관학화 흐름에 조응한 현상이었다. 청대 서원의 강학 성격은 ‘과거 공명’을 주요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조건에 적합한 인사를 동주에 파견했다. 그래서 청대 때는 동주 중 ‘포의’는 없고, 과거 참여 후 관직 역임자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참고문헌】

1. 원문

『四書人物考』, 『武城縣志』, 『嘉昆山縣志』, 『康熙新建縣志』, 『建昌府志』, 『高安縣志』, 『贛州府志』, 『瞿九恩傳』, 『南康府志』, 『南安府志』, 『同治峽縣志』, 『良鄉縣志』, 『萬曆泰州志』, 『明儒言行錄』, 『白鹿洞書院志』, 『福安縣志』, 『소수서원 任事錄』, 『新餘縣志』, 『鹽城縣志』, 『永嘉縣志』, 『永樂大典』, 『永安縣志』, 『濟源縣志』, 『棗陽縣志』, 『重建貫道橋記』, 『進賢縣志』, 『通許縣志』, 『湖廣通志』, 『徽州府志』, 『武城書院志』, 『列邑院宇事蹟』, 『伊山院規』, 『竹溪志』, 『海東雜錄』.

2. 단행본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3. 논문

- 김자은, 「조선시대 소수서원 강학 연구」,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4.
- 李才棟, 「北宋時期白鹿洞書院規模征實」, 『中國書院研究』, 2005.
- 範慧嫻, 「白鹿洞書院的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 孫彥民, 『宋代書院制度之研究』, 教育研究叢書(乙鍾), 1963.
- 송정숙, 「『紹修書院 任事錄』 연구—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8, 2007.
- 안승준, 「소수서원의 건립·운영과 안씨 본손들」, 『소수서원·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葉夢晨, 「明清時期白鹿洞書院洞主考論」, 江西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 이병훈,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양상과 위상 변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이수환, 「조선조 영남과 淸代 山東의 서원 비교 연구—인적 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2010.
- 이수환, 「안동과 휘주의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 이존산 著·김홍수 譯, 「송명이학에 있어서 서원의 의의」, 『안동학 연구』 11, 2012.
-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민족문화논총』 79, 2021.
- 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 研究」, 『역사와 담론』 18, 1990.
- 정만조, 「조선시대 書院志 體例에 관한 연구」, 『한국학논총』 29, 2007.
- 정순목, 「한국서원 교육제도연구」, 『민족문화총서 3』, 1979.
- 주희 著·주자대전 번역연구단 譯, 「백록동서원의 수리를 보고하는 狀」, 『주자대전 4』, 2010.
- 陳聯, 「중국 휘주와 한국 영남지역 서원교육 비교연구」, 『안동학연구』 5, 2006.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ecutives of Seowon in Korea and China

—Focused on Sosu Seowon in Korea and Bailudong
Seowon in China

Chae Gwang-Soo*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executives of seowon in Korea and China through cross validation on Sosu Seowon, Korea's first seowon, and Bailudong Seowon in China which is one of the exemplary seowon in East Asia.

The general difference in the executives is that Korean seowon appointed men of repute in the village voluntarily while the seowon was operated mostly with the system of a director-(jangui)-yusa. On the other hand, Chinese seowon were operated by dividing the executives for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Also, the director was appointed as one of the local officials or an invited great scholar, and it wa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largely. In addition, Chinese seowon had a more subdivided and larger organization about the executives than Korean ones. However, autonomy was guaranteed much more in Korean seowon than in Chinese one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strongly.

The following is a comparison between Sosu Seowon and Bailudong Seowon. First of all, in Sosu Seowon that pursued the organization of a

*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corhkdt911@ynu.ac.kr

director-yusa, 657 directors served for five months on average from its foundation to 1900. They were mostly the enrollees of it, and the cases of those who served as the director twice or more reached up to 225, and they served as few as twice and as many as seven times. The bylaws stipulate the qualifications for being one of the executives among those who passed Mungwan (文官) and Sama (司馬), but more than half of them were Confucian scholars. Meanwhile, many of them were the figures who lived in the villages near the seowon, and it was operated exclusively by some Seonggwon (姓貫). From the mid- or late 18th century, prestigious men from outside or local officials in service were appointed as the director in order to adhere to governmental authority. About yusa, permanent yusa was there while temporary yusa were selected from time to time, too, to take charge of the duties.

Concerning Bailudong Seowon, for Yeosan-gukhak in the Tang Dynasty, the master of Gugyeong (九經) in Gukjagam became Dongju in charge of teaching with a goal of education to cultivate persons of ability then. In the Northern Sung Dynasty when the seowon was restored, it took on characteristics as a national school according to the prevailing trend of the time.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Bailudong Seowon were established by Chu-tzu in the Southern Sung Dynasty. He put himself in the position of the first Dongju and recruited students for teaching and also suggested the direction that the seowon should pursue, for instance, Dangjang (堂長), inviting noted scholars, or supervising the lectures. The most noteworthy part about the Ming Dynasty is that Dongju who had passed Gwageo formed up to 90%. This was a phenomenon in response to the trend of seowon becoming bureaucratic due to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education. Since teaching in the seowon during the Qing Dynasty took 'Gwageo Gongmyeong' as its main principle, the court dispatched a person suitable for this condition as Dongju.

Key word : Korean seowon, Chinese seowon, executives, director, yusa

논문 투고일: 2022. 05. 31 심사 완료일: 2022. 06. 16 게재 확정일: 2022. 06. 20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

이 광 우**

- I. 머리말
- II. 明代와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
- III. 清代와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요 學規를 통해 16~19세기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을 비교·검토한 것이다. 한·중 서원 모두 朱子의 〈白鹿洞書院揭示〉을 학규의 전거로 삼았으나, 서원의 전개 양상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중국 明代에는 心學이 번성하였고, 龍岡書院·大科書院의 학규가 심학자에 의해 제정되었다. 17세기 초반에는 이러한 심학의 말류를 비판하며, 理學의 道統을 강조하는 東林書院의 학규가 새롭게 제정되었다. 한편으로 관료 예비군 층 양성에 주력하는 관학화된 서원이 번성하였는데, 이는 동림서원과 비슷한 시기 학규를 제정한 共學書院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1543년 周世鵬이 최초의 서원인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을 설립하고 학규를 제정하였다. 이때 학규는 관학화된 명대 서원을 모범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후 사대부 문화가 성숙하는 가운데 李滉·李珣 등은 관학화의 길을 걸으며 교육적 내용이 구체화 되는 명대 서원과 달리 과거 공부와 관부의 간섭을 배제한 채 經學 공부 및 사대부가 주도하는 학규를 제정해 나갔다. 청대 초기 이학자들은 명말 심학의 병폐를 지목하며, 이학의 도통을 재정립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ikw38@ynu.ac.kr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康熙 연간 이학자에 의해 제정된 關中書院과 還古書院의 학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雍正·乾隆 연간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 속에 관학화된 서원 제도가 한층 더 정비되어 갔다. 특히 변방에도 행정력과 교화가 미치는 가운데 靑海에서는 三川書院 학규가 제정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신식 학문을 접목시킨 서원이 등장하였다. 中西書院과 格致書院 학규에서는 이 무렵 신식서원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반면, 조선 후기 서원은 교육 보다 향촌 기구 및 제향 기구로서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향촌지배 세력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했다. 17세기 후반부터 서원 철폐령이 있기까지 당대 명현에 의해 여러 학규가 새롭게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復古의 성격이 강하였다. 오히려 유력한 몇몇 서원에서는 입원 자격에 신분적 제약을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제어 : 서원, 학규, 백록동서원, 주자, 퇴계

I. 머리말

조선 시대 사림 세력은 으레 ‘尊道와 ‘尙賢을 기치로 내세우며 서원을 설립하였다. 당초 ‘尊道와 ‘尙賢은 관학의 뜻이었다. 그러나 16세기에 이르러 관학이 쇠퇴하자, 사림과 관료 세력은 土風이 점차 없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사풍을 矯正하는 교학진흥책의 일환으로서, ‘존현’을 통한 독서처를 마련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서원의 발생이다.¹⁾ 즉, 서원 설립의 실질적인 명분은 관학의 쇠퇴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서원 보급에 앞장선 退溪 李滉(1502~1571)은 1549년(명종 4) 豊基郡守로 있으면서 관학의 폐단을 지적하며, 白雲洞書院에 서적과 편액을 내려주고 경제적 기반을 지원해 달라고 上府에 청원하였다.²⁾

1)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32쪽.

2) 『退溪集』卷9, 書, 〈上沈方伯〉, “滉竊見今之國學 固爲賢士之所關 若夫郡縣之學 則徒設文具 教方大壞 士反以游於鄉校爲恥 其利敝之極 無道以救之 可爲寒心 惟

퇴계를 비롯한 사림 세력이 서원 설립의 典範으로 삼은 것은 朱子의 書院觀이다. 중국에서는 唐代 궁중의 修書處로 麗正書院과 集賢書院처럼, 士인이 학업을 닦는 장소는 아니지만 ‘서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기관이 처음 등장하였다. 현종 이후 관학의 기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인들의 독서·강학 풍조가 활발해지며 서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北宋 초 교육 정책에 힘 쓸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에 자발적으로 설립된 서원을 대안처로 삼았다. 서원에 현판과 서적을 내려주고 祿俸을 정해줌으로써, 교학을 진흥시켜 나간 것이다.³⁾ 이로써 차별화된 사학 기관으로서의 서원이 성립하였다.

북송과 南宋 교체기에 관학이 무너지면서, 서원은 남송 理學者들에 의해 다시 주목받게 된다. 기존 서원의 복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북송 시기에 있었던 賜書·賜額·賜田·賜官 등의 조치를 정부에 청원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역시 관학의 쇠퇴를 서원 설립의 명분으로 삼았다. 특히 주자는 성현의 학문을 “義理를 講明하여 그 몸을 닦은 뒤에 이를 미루어 사람에게 미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⁴⁾ 평가하며, 修己治人에 입각한 爲己之學을 서원 교육의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주자는 당시 관학이 爲人之學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⁵⁾ 관학의 博士와 弟子들이 대부분 과거 준비에 몰두하며,⁶⁾ 이른바 ‘務記覽爲詞章’과 ‘以釣聲名取利祿’⁷⁾에 힘쓸 뿐이었다. 이에 주자를 필두로 한

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士風從而不變 習俗日美 而王化可成 其於聖治 非小補也”.

3) 이하 서술되는 중국 서원 역사의 대략은 ‘朱漢民, 『중국 서원의 역사』, 『한국학 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鄧洪波·趙偉, 『白鹿洞書院的建立背景與中國書院的變化—宋元明清—』,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을 참조한 것이다.

4) 『朱子大全』 卷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莫非講明義理 以修其身 然後推以及人”.

5)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 특히 “백록동서원게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80~81쪽.

6) 『朱子大全』 卷79, 記, 〈衡州石鼓書院記〉, “抑今郡縣之學官 置博士弟子員 皆未嘗考德行道義之素 其所受授 又皆世俗之書 進取之業 使人見利而不見義 士之有志爲己者 蓋羞言”.

이학자 집단은 인재 양성, 의리 강명, 그리고 존현의 장소로 서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였고, 그 교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서원 學規를 제정해 나갔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에서 서원은 쇠퇴한 관학의 대안처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서원 등장과 그것의 변모 양상은 양국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지형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다. 서원의 설립 및 운영 배경은 설립 주도 세력의 주장처럼 학문 및 교육의 지향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사에서 서원은 전통 시대 존재했던 가장 완숙한 형태의 私學 기관이다. 서원의 등장은 여러 가지 시대적 요인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체제 정비에 따른 과거 제도의 발전, 사회·경제적으로는 향촌사회에 기반을 둔 관료 지향적 사대부 계층의 성장, 문화적으로는 성리학의 융성을 손꼽을 수 있다.

따라서 서원 학규에는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이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서원 학규는 교육 과정의 전반과 운영 방침을 제정해 놓은 자체 규약이다. 일반적으로 학규라고 통칭되지만, 學습·院規·齋規·齋憲·約束·講規·立約·訓示文·諭示文 등의 명칭으로도 불린다.⁸⁾ 학규는 서원 설립의 지향점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주요 학규를 통해 16~19세기 한·중 서원의 변모 양상을 비교·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明代와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

1. 明代 서원과 학규

중국에서 程朱理學은 元代를 거치면서 더욱 번성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7) 『朱子大全』 卷74, 雜著, 〈白鹿洞書院揭示〉.

8) 박종배,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한국교육사학』 28-2, 한국교육사학회, 2006, 224쪽.

정주이학은 새로 건국된 명대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바탕으로 명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관학 체계를 완비해 나갔다. 이에 전조의 서원을 관학으로 삼았으며, 1436년(정통 1)에는 관학을 정돈하기 위해 提督學校官을 설치하게 된다.⁹⁾ 제독학교관은 인재 선발과 교육 등 관학 내 학정을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교화와 민정 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서원 관리도 제독학교관의 몫이었다. 이들은 정부 허가 없이 건립된 서원을 적발하고 과거 정원을 서원에 배정하였다.¹⁰⁾ 관학 정비에 서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제독학교관 등 관부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서원 본연의 사학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成化[1465~1487] 연간 백록동서원 洞主를 지낸 胡居仁[1434~1484]의 <續白鹿洞學規>도 그 중 하나이다.

백록동서원은 1438년 南康知府 翟溥福에 의해 새롭게 중건되었으며, 이후 관부의 지원을 받고 學田·제기·서적·房舍 등을 차례로 확보하였다. 호거인은 1467년(성화 3)과 1480년 두 차례 백록동서원의 동주를 맡았다. 1480년에는 주자의 <白鹿洞書院揭示>를 따라서 <續白鹿洞學規>를 제정하였다. 그는 6조의 요체로 구성된 <속백록동학규>를 통해¹¹⁾ 과업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異端을 배척함으로써,¹²⁾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고 의리를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명 정부가 관학 발전을 위해 서원의 자율적인 강화 활동을 억제하자, 호거인처럼 정주이학의 전통을 계승한 명유들은 새로운 학규 제정을 통해 주자가 내세웠던 사학 이념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9) 『明史』 卷69, 志, 選舉 一.

10) 박종배, 「중국 역대 제학관 제도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2, 교육사학회, 2010, 94~100쪽.

11) 『敬齋集』 卷2, 雜著, <續白鹿洞學規>, ‘正趨向以立其志’, ‘主誠篤以存其心’. ‘博窮理事 以盡致知之方’, ‘審察幾微 以爲應事之要’, ‘克治力行 以盡成己之道’, ‘推己及物 以廣成物之功’.

12) 『敬齋集』 卷2, 雜著, <續白鹿洞學規>, ‘熹於科舉 自幼便見得輕 今人不去講義理 只去學詩文 已落第二等’, ‘故力排異端 以扶正道’.

그런 가운데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사학 본연의 가치를 내세운 서원 운영이 활기를 띤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송·원대 시기보다 훨씬 많은 서원이 설립되었는데, 주로 嘉靖[1522~1566] 및 萬曆[1573~1620] 연간에 집중되었다. 명초 서원의 관학화를 추진했던 정부 정책과 별개로 정치·경제 발전과 더불어 학문의 발전이 서원 설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중 心學과 理學으로 대표되는 學團 간 경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학자인 王陽明[1472~1529]과 湛若水[1466~1560]는 서원을 자신들의 학술 사상을 전파할 중심지로 삼았으며, 각각 <教條示龍場諸生>과 <大科訓規>를 제정하였다. 이후 심학자에 의해 서원 활동이 왕성해 지자, 심학을 이학으로 돌리려는 이학자의 서원 활동이 전개되는데,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이른바 ‘東林會約’을 제정한 顧憲成[1550~1612]이다.

먼저 왕양명은 지방관으로 있거나 문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龍岡書院·貴陽書院·濂溪書院·백록동서원·稽山書院·萬松書院·敷文書院 등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적극 관여하였다. 그 중에서 용강서원은 왕양명이 貴州 龍場에 유배되었을 때 관여했던 서원이다.¹³⁾ 당시 귀주 사람들은 왕양명을 위해 何陋軒을 지어 주었다. 이에 문생들이 모여들어 하루헌은 용강서원이 되었고, 왕양명은 이곳을 강학 공간으로 삼았다. 그리고 1508년(정덕 3) 용강서원의 학규인 <교조시용장제생>을 제정하였다.

<교조시용장제생>은 ‘立志’·‘勤學’·‘改過’·‘責善’ 4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양명은 이를 서로 살피고 격려하면 학문이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¹⁴⁾ 4개 조목의 내용은 다른 학규와 비교해 매우 淺近한 편이다. ‘입지’

13) 이하 왕양명과 용강서원에 대해서는 ‘박종배, 「명·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50~52쪽; 이우진, 「왕양명의 용장오도 다시 읽기—용장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명학』 59, 한국양명학회, 2020, 27~34쪽 참조.

14) 『王陽明全集』 卷26, 續篇 1, <教條示龍場諸生>, “諸生相從於此甚盛 恐無能爲助也 以四事相規 聊以答諸生之意 一曰立志 二曰勤學 三曰改過 四曰責善 其慎聽毋忽”.

조와 ‘근학’조에서는 성인·현인, 나아가 군자가 되기 위해 목적의식을 세우고 부지런히 공부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개과’조와 ‘책선’조는 배우는 자가 자발적으로 행실을 개선하고 상호 간에 권장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다른 학규처럼 구체적인 학문의 절차나 서원 운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초학자의 학문 지침에 가깝다. 그 까닭은 ‘개과’조의 다음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

諸生은 안으로 성찰하되 만일 이러한 잘못에 가깝다면, 진실로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가책하며 부족하다고 여겨서, 잘못을 고치고 선을 좇으려는 마음을 머뭇거리서는 안 된다. 다만 능히 하루아침에 ‘舊染’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면, 비록 옛날에는 도적이었다고 할 지라도 금일 군자가 되는데 해가 되지 않는다.¹⁵⁾

용강서원이 위치한 귀주 일대는 오랫동안 이민족이 반독립적으로 통치하던 곳이었다. 원대 토착 세력에게 관직을 주는 토시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명대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貴州承宣布政使司를 설치하였다. 명 정부는 토착민을 무력으로 통제하기도 했지만,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회유책을 쓰기도 했다.¹⁶⁾ 유학 장려도 회유책에 해당한다. 그런 가운데 왕양명은 용강서원을 거점으로 귀주 지역에 유학의 기초를 전파하였던 것이다. 왕양명에게 있어 용강서원 강학은 자신의 심학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20년 동안 講會를 통해 적극적으로 심학을 전파하였으며, 아울러 서원도 흥성시켰다. 나아가 왕양명은 주자가 학규를 제정한 백록동서원에서 강학을 하고, 주자의 고향에 소재한 紫陽書院 중수에 관여함으로써, 심학의 영향력을 높여 갔다.

〈대과훈규〉를 제정한 담약수는 “평생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반드시 서원

15) 『王陽明全集』 卷26, 續篇 1, 〈教條示龍場諸生〉, “諸生試內省 萬一有近於是者 固亦不可以不痛自悔咎 然亦不當以此自歉 遂餒於改過從善之心 但能一旦脫然洗滌舊染 雖昔爲寇盜 今日不害爲君子矣”.

16) 김홍길,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동북아역사논총』 58, 동북아역사재단, 2017, 67~75쪽.

을 건립해서 白沙를 제사지내니 從遊하는 자들이 천하에 가득하다”¹⁷⁾라는 『明儒學案』의 평가처럼 50여 년 동안 40여 개의 서원을 설립하며 활발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담약수와 관련된 주요 서원으로는 云谷書院·大科書院·天關書院·明城書院·龍潭書院·獨岡書院·蓮洞書院 등이 있다. 여기서 대과서원은 1517년 담약수가 고향 廣東 增城의 西樵에 설립한 것이다. 대과서원의 학규인 <대과훈규>는 1520년에 제정되었다. 본문은 ‘大科訓規序’, ‘敍規’, ‘訓規圖’, 그리고 60조의 ‘大科書堂訓’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⁸⁾ 그 중 ‘대과서당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하나, 諸生은 학문을 할 때 반드시 먼저 立志를 해야 한다.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먼저 그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옳다. ‘志’는 道에 뜻을 두는 것이다. ‘立’이라는 것은 바로 ‘敬’이다. 匹夫의 ‘志’도 뺏을 수 없다. 뺏을 수 없는 것이 바로 ‘志’이다. 만약 뺏을 수 있다면, 어찌 ‘志’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 한 자에 있다.

하나, 먼 지방과 가까운 곳에 德行과 道藝의 선각자로서 師法으로 삼을 자가 있으면 반드시 講席에 올라 講書해 주기를 공손히 청하여 진보하기를 구해야 한다. 듣지 못한 바를 들으니 공자와 같은 성인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었겠는가.

하나, 초하루와 보름에는 당에 올라가서 선생은 책의 1장 또는 2장을 강의하여 이 마음과 학문을 發明하는데 힘썼다. 諸生은 一場說話로 흘러들지 말고, 또한 반드시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서 神意를 일시에 서로 주고받아 큰 보탬이 있게 한다.

하나, 諸生은 讀書함에 五經과 四書を 익히는데 힘쓸 것이며, 또한 다른 경전과 성리서, 史記 및 五倫書を 旁通하여 지식과 견문을 개발해야 한다. 이 지식과 견해는 외부로부터 와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곧 우리 德性의 지식과

17) 『明儒學案』 卷37, 甘泉 1, <文簡湛甘泉先生若水>, “平生足跡所至 必建書院以祀白沙 從遊者 殆遍天下”.

18) 담약수의 <대과훈규>에 대해서는 ‘박종배, 앞의 논문, 2013, 50쪽; 박종도, 「담약수의 수처체인천리 공부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82-84쪽 참조.

견해이다. 책은 단지 警發해 줄 뿐이다. 모름지기 道를 밝히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면 나머지도 풀려 절로 文章과 科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 仙·佛·莊子·列子 및 諸書가 泛濫하여 明教를 어지럽히고 心術을 무너뜨리며, 精神을 흠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 우리 유학은 유용함이 요구된다. 집안일을 다스리는 일에서부터 兵農·錢穀·水利·馬政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本性 안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 지극한 이치를 가지고 있다. 곳곳마다 모두 格物 공부이다. 이것을 함양하고 성취하면, 다른 날 세상에 쓸 때 착착 행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대과서당훈’의 첫 번째 구절에 “학문을 할 때 반드시 먼저 立志를 해야 한다”라는 대목은 앞서 〈교조시용장제생〉의 첫 번째 조목에서 ‘立志’를 내세운 것과 일맥상통한다. 답약수는 왕양명과 서신을 꾸준히 주고받으며 학문적으로 같은 길을 걸었기에 학문의 시작을 ‘立志’에서 찾은 것이다. 이어 ‘대과서당훈’에서는 스승의 초빙과 강회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서오경과 사기 및 성리서 등에 힘쓴다면, 문장과 과업이 절로 이루어지고 선·불·장자·노자 등의 학문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 배움이 병농·전곡·수리·마정 등 經世에 유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교조시용장제생〉과 〈대과훈규〉는 당시 서원을 중심으로 심학이 번성할 수 있었던 까닭을 보여준다. 명초 이후 여러 명현들은 서원의 관학화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일찍이 주자는 ‘爲己之學’을 위해 서원 학규를

19) 『泉翁大全集』卷5, 〈大科書堂訓〉, “一 諸生爲學 必先立志 如作室者, 先固其基址 乃可 志者 志於道也 立之是敬 匹夫不可奪志 不可奪乃是志 若其可奪 豈可謂之志 自始至終 皆是此一字 … 一 遠方及近處 有德行道藝 先覺之人 可爲師法者, 必恭請升座講書 以求進益 聞所未聞 孔子之聖亦何常師 … 一 朔望升堂 先生講書一章或二章 務以發明此心此學 諸生不可作一場聽聽過 亦必虛心聽受 使神意一時相授 乃有大益 … 一 諸生讀書務令精熟五經四書 又須旁通他經性理史記及五倫書 以開發知見 此知見非由外來也 乃吾德性之知見 書但能警發之耳 須務以明道爲本 而緒餘 自成文章舉業 其仙佛莊列諸書 不可泛濫以亂名教壞心術滅精神 … 一 吾儒學要有用 自綜理家務 至於兵農錢穀水利馬政之類 無一不是性分內事 皆有至理處皆是格物工夫 以此涵養成就 他日用世 鑿鑿可行”.

제정하였다. 이후 이학자들은 서원을 매개로 도통 계보를 확립하였고, 이학은 학문적 사유체계를 넘어 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명초 서원의 관학화로 주자의 서원관과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爲人之學’에 매몰되어 서원의 과업과 명리를 다투는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원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에 앞장섰던 것이 심학자들이었다. 활발한 강학 활동으로 ‘爲己之學’을 실천하고 이단을 배척하는 구심점으로 서원을 선점하였다. 왕양명은 <교조시용장제생>을 통해 변경의 이민족을 교화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서원에서 활발한 강학 활동을 전개했다. 담약수는 <대과훈규>에서 심학이 ‘爲己之學’의 근본임을 드러내었다. 이학 보다 심학이 먼저 서원의 관학화를 극복하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왕양명·담약수와 그 문인 집단의 활동으로 만력 연간까지 서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며,²⁰⁾ 심학도 그만큼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세기 이후 100년 간 심학 계열이 서원에서 진행되는 사학의 전통을 주도하는 가운데, 심학의 末流를 비판하고 정주이학의 재도약을 추진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은 명·청 교체기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강렬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심학의 폐단을 지적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던 것이 고현성과 東林書院이다. 동림서원은 이 무렵 학문적 경향을 심학에서 이학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이른바 東林學派의 중심지였다.

江蘇 無錫에 위치한 동림서원은 북송 때인 1111년(정화 1) 二程의 高弟인 楊時가 처음 설립하였으나, 금의 침략으로 폐쇄되었고 이후 200년 동안 불교와 도교의 사원으로 활용되었다. 1604년(만력 32) 황태자 우립 문제 등으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내려온 고현성은 동지들과 독서 강학의 풍조를 일으키고 程朱의 학문을 계승하고자 관부의 협조를 받아 동림서원을 중건하였다. 그리고 <백록동서원게시>를 계승한 <會約儀式>을 제정하게 된다. <회약의식>은

20) 명대 동안 존재했던 서원 총수는 1,962개소인데, 正德~萬曆[1506~1620] 연간에 건립·복설된 서원이 모두 1,108개소에 이른다. 鄧洪波·趙偉, 앞의 논문, 2020, 277쪽.

일반적으로 ‘동림회약’이라고 불린다.²¹⁾ 모두 11개조로 구성된 〈회약의식〉의 주요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매년 한번 大會를 개최하되 봄 또는 가을에 이르러 결정하며, 보름 전에 첩지를 보내어 통보한다. 매월 한번 小會를 개최하되 정·6·7·12월의 흑한·흑서기는 거행하지 않는다. 2·8월은 中丁에 시작하고 나머지 달은 14일에 시작한다. 강회는 각 3일 동안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자는 오고 모두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하나, 대회 첫날 聖像을 공손히 받들어 강당에 건다. 午時 초에 북을 세 번 울리면 각기 관등에 따라 관복을 갖추고 성상 앞으로 가서 四拜禮를 한다. 이어 道南廟로 가는데 그 예는 이와 같다. 예를 마치면 강당에 들어가 동서로 나누어 앉되, 먼저 各郡·各縣, 다음은 本郡, 다음은 本縣, 다음은 會主 순으로 하되 각기 나이를 순서로 해서 앉고 흑 같은 반열에 들 수 없는 자는 한 자리 물러나 앉는다.

하나, 대회에서는 매년 1인을 회주로 추대하고 소회에서는 매월 1인을 회주로 추대하되, 한 번 돌면 다시 시작한다.

하나, 대회에는 매년 知賓 2인을 두고, 강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미리 지빈에게 알리면 門籍에 등록한다.

하나, 매 강회 때 한 사람을 추대해서 회주로 삼고 四書 한 장을 강설하게 하되, 그 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의논할 것이 있으면 의논한다. 무릇 강회 중에는 각기 허심탄회하게 청강하고 자기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兩下의 강론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 단정히 발표하기를 청하되 어지러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 강회 날 오래 앉은 후에는 마땅히 詩 한두 장을 노래해서 凝滯를 滌蕩하고 性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하나, 매 강회 때마다 모름지기 門籍을 설치하여, 한편으로는 강회에 참여한 疏密을 기록해 지금의 근태를 증험하고, 한편으로는 강회에 참여한 사람이 다른 날 어디서부터 究竟해야 할지를 기록하여 앞으로의 法戒로 삼도록 한다.

21) 이하 〈회약의식〉에 대해서는 ‘박중배,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교육사학회, 2011, 87~88·94~97쪽 참조.

하나, 同志들이 會集할 때는 繁文을 줄이고 실익을 추구한다. 그런 까닭에揖은 半揖만 하고 강회를 마칠 때도 交拜하지 않는다.²²⁾

〈회약의식〉에는 기본적으로 강회의 개최시기와 그것을 주관하는 회주 및 지민의 역할을 뚜렷이 명시하였다. 강회 참석자는 지민이 작성하는 문적에 등록되어 학문적 성취를 점검할 수 있었다. 또한 강회의 의식 절차와 강회 방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회약 의식은 공자의 聖像과 양시를 제향한 도남사에 예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分座와 음례의 절차를 규정해 놓았는데, 設講 다음에는 ‘歌詩’를 거행하였다. ‘가시’는 우리나라 서원에서 볼 수 없는 의식이다. 性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고현성 등 동림학파의 ‘道統’ 의식이 드러난다. 〈회약의식〉 뒤의 〈歌詩〉 편에는 모두 8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작자는 양시·주자·陳白沙·왕양명·邵雍·程顥이다.²³⁾ 그 중 담약수의 스승인 진백사와 왕양명의 시는 2수씩 수록하였다.

앞서 고현성 등은 심학의 폐단을 지적하였지만, 그 대상은 陽明左派로 지목되는 계열이었다. 전통적인 질서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에게 있어서 양명좌파의 儒·佛·道 혼용과 禪學的 경향, 서민 교육 등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고현성 등은 명말의 정치·사회적 혼란도 양명좌파의 극단적인 학문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이들은 말류를 극복하기 위

22) 『東林書院誌』 卷2, 〈會約儀式〉. “一 每年一大會 或春或秋臨期酌定 先半月遣帖啓知 每月一小會 除正月六月七月十二月祀寒盛暑不舉外 二月八月以仲丁之日爲始 餘月以十四日爲始 會各三日 願赴者至 不必遍啓 一 大會之首日 恭奉聖像懸于講堂 午初擊鼓三聲 各具本等冠服詣聖像前 行四拜禮 隨至道南祠 禮亦如之 禮畢 入講堂 東西分坐 先各郡各縣 次本郡 次本縣 次會主 各以齒爲序或分 不可同班者退一席 … 一 大會每年推一人爲主 小會每月推一人爲主 週而復始 一 大會設叩賓二人 願與會者 先期通一刺于知賓 卽登入門籍 一 每會推一人爲主 說四書一章 此外有問則問 有商量則商量 凡在會中 各虛懷以聽 卽有所見 須俟兩下講論已畢 更端呈請 不必攪亂 … 一 每會須設門籍 一以稽赴會之疎密 驗現在之勤惰 一以稽赴會之人他日何所究竟 作將來之法戒也 … 一 同志會集 宜省繁文 以求實益 故揖止班揖 會散亦不交拜”.

23) 『東林書院誌』 卷2, 〈歌詩〉.

해 ‘도통’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 그 방법은 이학과 심학의 조화를 이끌어 내고, 양명좌파를 배척하는데 있었다.²⁴⁾ 이학과 심학의 조화를 추구하던 고헌성의 의지가 바로 〈가사〉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동림서원의 특징 중 하나는 자유로운 강학 분위기였다. 위의 조목에서 보듯이 강회 때 사용하는 교재와 범위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四書 중 한 장을 강의한 후에는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강회는 정치적 담론으로 이어졌다. 사서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적 상황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토론하였다. 명 왕조에 있어 동림서원의 자유 강학은 견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림서원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세력을 東林黨이라고 부른다. 이 무렵 환관 魏忠賢이 권세를 부리자 동림당은 그를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이는 곧 위충현 등 정부 세력에 의한 박해로 이어졌다. 동림당과 연루된 인사들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고, 1625년(천계 5)에는 동림서원 자체가 훼손되기에 이른다.

동림서원 훼손은 서원의 자유 강학에 대한 전제 왕조의 통제로 볼 수 있다. 서원의 자유 강학과 전제 왕조의 정치적 지향점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禁毀의 조령을 내려 28개소에 이르는 서원을 훼손하였다. 그런데 禁毀 조령은 1625년뿐만 아니라, 1537년(가정 16)과 1538년, 1579년(만력 7)에도 있었다. 명 정부는 개창 이후 서원을 관부의 통제 하에 두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심학 및 이학자 집단에 의한 서원 설립과 증건이 이어졌다. 이들 서원에 대한 관부의 통제력은 관학화된 서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하였고, 그 틈을 타 정치적 비판을 동반한 자유 강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거기다 지방 재력의 낭비도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하였다. 이것이 곧 서원 禁毀로 이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명대에는 자유 강학을 추구하는 서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궁정

24) 신현승, 「16~17세기 유교 학파의 관계성에 대한 일고찰-중국 명대 말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7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35~37쪽.

의 도서관식 서원이 있었으며, 관부의 강한 영향력 속에 과거를 준비하던 서원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해 1618년 제정된 福建 福州 共學書院의 〈會規〉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²⁵⁾ 공학서원은 복주 최초의 서원인데, 1594년 福建巡撫 許孚遠이 복주 서문 거리 북쪽에 있던 懷安縣學을 개건한 것이다. 이어 1618년 提學副使 嶽和聲이 대대적으로 서원을 중수하고 〈회규〉를 제정하였다. 즉, 공학서원 자체가 관학에서 출발하였으며, 관부에 의해서 서원으로 확장·개편된 교육 기관이었다.

공학서원 〈회규〉의 강회 형식은 다른 학규와 비교해 자세한 편이다. 동림서원의 〈회약의식〉처럼 강회를 여는 시기와 院長 초빙 규정, 歌詩를 포함한 강회 절차 등이 보다 상세하게 제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회규〉에는 관학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會課는 雲·龍·風·虎·明·照·類·求 八社로 나누어 각기 會長을 두며, 매일 초 3일, 13일과 23일을 기한으로 한다. 전날 저녁 三學이 돌아가며 敎職을 맡아 本道와各司 道府堂, 刑館, 閩·候 두 縣을 차례로 돌며 문제를 수령한다. 새벽에 서원에 들어와 각 유생들이 모두 모이기를 기다려 巳時에 문을 닫고 저녁이 되면 답안지를 거두되, 손수 철하고 밀봉하여 發題處로 보내 직접 채점하게 한다. 혹 主鐸에게 전달하여 대신 채점하게 한 뒤 발제처로 보내 다시 참정하게 하고, 우수한 자는 게시한다. 모름지기 일찍 채점하고 일찍 발표해야만 여러 선비들을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다. 채점이 끝나면 매 20권을 한 질로 철하여 서원 내정에 보내 각 유생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5일 내로 돌려받아 주탁이 보관하여 遴刻에 편리하게 한다.²⁶⁾

25) 공학서원 〈회규〉의 대략은 ‘박종배, 앞의 논문, 2011, 88-89·92~94쪽’ 참조.

26) 『共學書院誌』 卷上, 〈會規〉, “會課分爲雲龍風虎明照類求八社 各立會長 每月以初三十三二十三日爲期 先夕三學中輪一敎職 領題于本道及各司道府堂刑館閩候二縣處 以次相及 黎明入院 俟各生齊集 巳刻掛門 至晚收卷 隨手釘封 送發題處親閱 或轉發主鐸代閱 仍匯送發題處 再行參定 以其尤者揭示之 但須早開早發 方能激勸 多士 閱畢 每二十卷 釘爲一帙 發書院內聽 各生互閱 限五日內匯繳 主鐸收貯 以便遴刻”.

위의 조목은 공학서원의 교육 목적이 인재 선발을 위한 과거 시험 준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교육 방법과 운영에서도 관학과 행정 조직이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시험 채점과 수령을 州·府·縣 三學이 맡았고, 闕·候 두 縣의 禮房이 회강을 준비하였다.²⁷⁾ 강학에 소용되는 비용도 상세하게 제정해 놓았다. 會課 때 유생과 교직에 대한 供給과 主鐸에 관한 급여 등을 명시하였으며,²⁸⁾ 멀리서 온 縉紳에게 公館을 빌려주거나 大會를 主敎한 자에게는 官銀을 지급하였다.²⁹⁾ 공학서원의 일반적인 교육 활동은 철저하게 관부 주도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동림서원의 〈회약의식〉과 달리 공학서원 〈회규〉에는 尊賢과 관련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학적 성격은 다음 두 조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회강 때 時政을 비판하는 것, 남의 과오를 폭로하는 것, 세력과 권리 및 자질구레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 들뜨고 다투거나 희롱하는 것을 경계하며, 會長이 바로 잡는다.

서원에서는 會日에만 회식을 베푸는 것을 허용하며, 술자리를 벌이거나 연회와 악대를 동원하여 도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當道에 신관이 부임하면 院志 1책을 인쇄해 보내 정성을 다하여 지킬 수 있게 한다.³⁰⁾

〈회규〉에서는 회강 때 ‘시정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학문 외적 논쟁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政事에 대한 비판은 이전 학규에서도 금지하던 바이다. 이

27) 『共學書院志』 卷上, 〈會規〉, “院中每遇會講 闕候兩縣禮房 先一日備果餅茶水 同看院門子伺候”.

28) 『共學書院志』 卷上, 〈會規〉, “其會課供給 每生給銀一分五厘 敎職壹員銀一錢 … 主鐸聽有司遴選文行僉長 堪式多士者 用代采幣義二兩 程義一兩敎請”.

29) 『共學書院志』 卷上, 〈會規〉, “大會 遠方縉紳 孝廉過從實證假館者 院長仍以官辦茶飯如會儀款留 … 春秋二大會 院中主敎不可無人 須查照講學往規 先一月禮聘境內外方聞有道者 來主敎席 發明宗旨 動支官銀 用紗幣二端 代程四兩 夫馬敎請”.

30) 『共學書院志』 卷上, 〈會規〉, “會講 戒刺時政 戒暴揚人過惡 戒言勢利瑣屑事 戒浮動浮爭 戒謔渝者 會長舉正之 … 院中止許會日設會饌者 不得張筵置酒及演戲妓吹有傷雅道 凡遇當道新任 卽囑送院志一冊觀覽之 以便恪守”.

는 가장 오래된 呂祖謙(1137~1181)의 麗澤書院 학규에서도 확인된다.³¹⁾ 그러나 비슷한 시기 동림서원에서 격렬하게 시사가 논의된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비교되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공학서원 운영 전반에 관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기에 신임 지방관이 부임할 시 먼저 서원지를 납부하여 수호를 부탁하라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이상과 같이 명 왕조는 정치·학문적 부침 속에 서원에 대한 禁毀를 지시하였다. 반면에 중앙집권적 체제 강화와 이를 보조할 관인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禁毀의 대상은 주로 자유 강학을 추구하던 서원이었으며, 제도적으로 지원 받는 서원은 자연스레 관학화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대 名儒는 으레 사학의 침체에서 그 원인을 찾았지만, 중세 왕조의 발전에 따른 관학의 체계적인 정비가 보다 현실적인 역사적 배경일 것이다.

2. 16~17세기 중반 조선 서원과 학규

1543년(중종 38) 豊基郡守 周世鵬이 옛 順興府 중심지에 설립한 白雲洞書院(紹修書院)이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다. 조선에서 서원의 등장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麗末鮮初 동안 지속된 사학의 발전과 왕조의 교육 진흥책이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백운동서원 건립 1년 전인 1542년 副司果 魚得江(1470~1550)이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렸다.

漢나라 鄭玄은 생도들을 모아 가르쳤고 隋나라의 王通은 河汾에서 강학하였으며, 당나라 李渤은 南唐 때 白鹿洞의 주인이 되니, 배우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무리가 수천 명에 이르렀으므로, 송나라 황제가 九經을 내려 장려했습니다. 周子·張子·程子·朱子에게 각기 문도가 있었

31) 『呂東萊先生遺集』卷10, 學規, 〈乾道四年九月規約〉, “郡邑政事 鄉閭人物 稱善不稱惡”.

는데 그 문헌에서 나온 자는 모두 名公碩儒로서 스승보다 더 나았습니다. 李公擇은 山房에다 만권의 책을 간직하여 학자들과 함께 이용했으며, 朱熹는 武夷精舍를 짓고 自鹿書院을 설립했습니다. 이런 도가 우리나라에는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먼 곳에 있는 유생들이 어디서 학문을 배우겠습니까?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강원도 선비들은 詩書를 숭상하니, 신은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과 경상좌·우도에 각기 한 사찰을 얻어서, 생원·진사를 막론하고 도내의 명유들을 불러 모아 1년의 四仲月에 상하의 齋로 나누어 앉아 독서하게 하는 것을 연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는 州郡의 學田에서 나온 소출로 6월의 都倉 때와 겨울 3개월 동안 모여 독서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옮겨다 사중월의 비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관에서 보태어 항상 40~50인이든 혹은 20~30인이든 많고 적음에 구애되지 말고 모아서, 官秩이 높은 수령을 試官으로 삼아 두 敎授와 혹은 현감까지 세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勸課하여 製造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分數를 따져 생원·진사는 문과의 館試·漢成試·鄉試에 응시하도록 차등 있게 자격을 수여하고, 幼學은 생원·진사시의 覆試에 바로 응시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선비들이 모두 즐겨 따라서 권하지 않아도 저절로 권장될 것입니다.³²⁾

위의 상소문에서 어득강은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 송대 이학자의 서원 설립과 그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어 중국의 서원 제도를 본받은 교육 진흥책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독서 방법, 교육 경비 마련, 과거 시험 대비를 위한 평가 방법이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어득강이 건의한 교육 진흥책은 명대 초 관학화된 서원의 모습에 가깝다. 수령과 敎官이 주도하여 과거 시험을 대비하는 모습은 서원 교육의 목적이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를 보조할 인재 양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조선 정부는 개국 초부터 지방 관학인 향교 진흥을 위해 精舍·書齋·書塾·書堂 등으로 불리던 사학 체계를 관학화 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었다.³³⁾ 어득강을 필두로 한 공신 계열 관료의 서원관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백운동서원 설립 후 주세붕이 제정한 <원규>에

32) 『中宗實錄』 卷98, 37年 7月 乙亥.

33) 이광우, 「고·중세 한국 사학의 전통이 서원 출현에 이르기까지」, 『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53~55쪽.

도 일정부분 드러난다.

백운동서원 <원규>는 모두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항에 5대 강령을 제시해 놓았는데, 차례대로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로서³⁴⁾ 존현과 교육의 기능을 겸비한 서원 유지와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 조목에서는 서원의 주요 경제적 기반인 學田과 實米에 대한 운영 방안을 규정해 놓았다. 서원 재정은 선비 양성에만 집행하고 손님 접대나 경조사 사용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학전·보미의 운영 내역은 장부에 기록하여 매년 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³⁵⁾ 재정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관부가 직·간접적으로 서원 운영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관학적 서원을 지향하는 주세붕의 의도는 열한 번째 조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무릇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司馬일 경우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은 初試 入格者로 한다. 그러나 초시 합격자가 아니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고 操行이 있는 자로서 입학을 원하는 이는 有司가 斯文에게 고하여 맞이한다.³⁶⁾

주세붕은 과거 시험 입격자에게 入院 자격의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입원 자격에서 보듯이 서원 강학의 목적은 과거 시험 준비와 관료 예비군 층 양성에 있었다. 공신 계열인 어득강의 인식처럼 주세붕도 서원의 관학적 기능을 기대하였던 것이다.³⁷⁾ 하지만 당시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사림 세력은 다른

34) 『竹溪志』, 雜錄後, <院規>,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35) 『竹溪志』, 雜錄後, <院規>, “學田所出 每年十一月 院長成冊三件 一件申于官 一件報于斯文 一件留置院中 實米所納 每年正月 成冊三件 其申報如前 必存本取息而用之 若不待存本而先用其息 則在民腹中而未納者 有本之名 無存之實 須先納者 充存其本 然後 用其所息 可也 今夫列邑司馬所 亦多置田立寶 然而送迎婚喪之需 或資於此 故其久保也 鮮矣 若書院則必以養賢爲主 無他耗費 然後 庶可支久 無大闕欠”.

36) 『竹溪志』, 雜錄後, <院規>,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大學 其次初試入格者 雖非入格 其一心向學有操行而顯入者 有司稟于斯文而迎之”.

서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이 주도하는 서원의 전거는 퇴계에 의해 완성되었다.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전임과 달리 서원을 사림 주도의 강학·제향·유식처로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해 1559년(명종 14) 퇴계가 제정한 槩川伊山書院의 〈伊山院規〉 중 다음 조목이 주목된다.

하나, 諸生은 독서 하는데 사서오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門戶로 삼으며, 국가의 인재를 진작시키고 양성하는 방법을 따르고 성현의 친절한 교훈을 지켜서 온갖 썩어 본래 내게 갖추어진 것을 알고 옛 道가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믿어서, 모두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體를 밝히고 用을 적합하게 하는 학문에 힘쓰도록 한다. 여러 史書·子書와 문집, 文章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內外·本末의 輕重과 緩急의 차례를 알아서 항상 스스로 격려하여 타락하지 않게 하고, 그 나머지 사특·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모두 院內에 들어 눈이 가까이해서 道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 서원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 있는 品官 두 사람으로 정하고, 또 선비 중에 사리를 알고 操行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추앙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골라서 상유사로 삼되 모두 2년마다 교체한다.

하나, 서원을 세워서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에서 문교를 숭상하고 학교를 일으켜 인재를 새로 길러 내는 뜻을 받드는 것이니, 누군들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이제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자는 반드시 서원의 일에 대하여 제도를 증가시키고 그 규약을 줄이지 않는다면 斯文에 있어 어찌 다행스럽지 않겠는가!³⁷⁾

37) 김자운,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후기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 『퇴계학논집』 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127쪽.

38) 『退溪集』 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舉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說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以亂道惑志 … 一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 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位縣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

퇴계는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사액 받고 관부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동 시기 명대의 관학적 서원이나 주세붕의 서원관과 달리 서원에서 실제 행해지는 교육 내용과 관부의 개입 정도는 완전히 달랐다.

먼저 퇴계는 원생에게 사서오경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에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물론 史書·子書·문집 및 과거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內外·本末의 輕重과 緩急’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爲己之學’을 서원 교육의 本意임을 내세웠다. 덧붙여 퇴계는 經史 이외의 다른 분야는 서원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이어 서원의 운영 주체인 유사는 지역 品官 중에 선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령의 역할은 제도를 마련해주고 이것을 수호해 준다면 충분하다고 했다. 즉, 퇴계는 관부의 지원만 언급할 뿐, 직접적인 간여를 배제한 채 사대부 층에 의한 서원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듯 서원을 최초로 건립한 주세붕과 보급에 앞장선 퇴계의 서원관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주세붕은 명대 관학화된 서원을 모범으로 삼았고, 퇴계는 남송대 주자의 서원관을 계승하고자 했다. 당연히 퇴계학과의 중심이 된 영남 지역에서는 퇴계의 〈이산원규〉가 향후 제정되는 여러 서원 학규의 전거가 되었다. 퇴계를 제향한 禮安 陶山書院은 〈이산원규〉를 그대로 따랐으며,³⁹⁾ 慶州 西嶽書院과 玉山書院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계시〉와 퇴계의 〈이산원규〉를 저본으로 제정되었다.⁴⁰⁾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학규로는 1604년(선조 37) 鄭逵가 제정한 玄風 道東書院 《院規》가 있다. 정구는 1604년 도동서원 중건을 맞이해 학규를 제정하였다. 해당 학규는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제목 아래에 ‘爲道東作’이라는 부기가 있어 당대에 실제 운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동서원 〈원규〉는 8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목 상단에 표제를

39)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 강화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9, 153쪽.

40) 김자운, 같은 논문, 2019, 158쪽.

제시하고, 다시 그 아래 세부 조항을 기재해 놓았다. 8개 조목은 순서대로 謹享祀·尊院長·擇有事·引新進·定座次·勤講習·禮賢士·嚴禁防이다. 마지막 脩字·點書·考廩·會討 조목은 盧侯가 제정해 놓은 규정을 따른다고 하였다.⁴¹⁾ 여기서 盧侯는 1558년 성주목사 재임 중 迎鳳書院을 설립한 盧慶麟을 가리킨다. 이후 정구가 영봉서원을 川谷書院으로 개칭하였다. 두 서원 모두 정구가 간여한 만큼 학규에도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⁴²⁾ 도동서원〈원규〉 8개조와 노경린의 4개조에는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원규〉에서 5대 강령으로 내세운 謹祀·禮賢·修字·備廩·點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도동서원〈원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조목은 引新進과 勤講習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引新進. 언제나 향사하는 날 신진을 논의하여 영입한다. 누구나 각기 한 사람씩 추천하여 원장에게 올리되 만일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도 된다. 원장은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중론을 모아 정한다. 만일 가하다는 판결이 난 사람을 영입할 경우에는 純點을 맞은 자만 취하고 명단에 그 성명을 기록한다. 천거하여 올리는 대상은 반드시 20세 이상으로서 훌륭한 학행이 있는 자로 한다. 또 비록 弱冠이 채 안 되었더라도 司馬試에 합격하거나 혹은 鄉試에 합격하고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 유익한 벼의 반열에 끼일만한 자는 천거한다. ... 의지가 약하고 헤이해져 더 이상 분발하지 못하는 자이거나 이미 鄉任을 역임했더라도 학문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자는 모두 서원에서 축출한다. 먼 지방의 선비 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비록 그를 추천하는 자가 없더라도 학문과 행실이 성취되었고 특별히 드러난 과실이 없으면 또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새로 글을 배우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20세 이하인 자들은 모두 養蒙齋에 입학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20세가 지났더라도 미처 院儒 선발에 들어오지 못해 양몽재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는 또한 그 요구를 들어준다.

하나, 勤講習. 원장은 벼들을 불러들여 학문을 권하고 강습하는 것을 폐하지

41) 『寒岡續集』 권4, 〈院規〉.

42)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16~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한국서원학회, 2021, 177~178쪽.

않는다. 겨울과 봄에는 五經·四書 및 伊洛의 여러 性理書를 읽고, 여름과 가을에는 역사서, 子書, 문집을 대상으로 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읽도록 한다. 본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과거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 시험 이외에도 옛사람의 이른바 ‘爲己之學’이라는 것이 있다. 만일 저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혹시 이쪽에 마음을 기울여 일상 생활 하는 가운데 타고난 본성 속에서 위기지학을 찾았다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과 힘을 들여야 할 길은 아마도 ‘敬’ 한 자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伊川夫子가 처음 세상에 밝혔고 雲谷夫子께서 크게 천명하였다. 寒暄堂께서 일생 동안 절실히 추구한 것은 다 이 ‘敬’ 자였다. 이에 대해 제군과 함께 노력하고 감히 중단하지 않기를 원한다. ... 조정의利害, 변방의 소식, 관원의 제수, 고을 관원의 장단과 득실, 못사람이 저지른 죄악 등에 관해서는 모두 언급하면 안 된다.⁴³⁾

引新進은 원생 선발과 관련된 규정인데, <이산원규>를 보완하면서도 백은동서원 <원규>와는 다르다. 눈여겨 볼 대목은 서원 운영자들의 추천을 받은 후可否 결정에서 ‘巡黠’을 얻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원을 하고 싶어도 ‘巡黠’을 받지 못하면 20세 이하의 선비들과 함께 養蒙齋에서 공부해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예외를 두어 司馬試·鄉試에 합격하거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입원이 가능하였다. 반대로 鄉任을 역임한 인사라도 학문에 뜻이 없으면 축출하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즉, 입원을 결정짓는

43) 『寒岡續集』 권4, <院規>, “一 引新進 每於享祀之日 議引新進 每人各薦一員 進于院長 如無可薦 不必可舉 院長通可否 採衆議而定之 如用可否 則宜只取純黠 書于案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或已經鄉任 不肯從事於問學者 並聽出院 遠方之士 如有願入者 雖無引之者 學行成就而別無顯失者 亦許入 新學小兒凡在二十歲以下者 皆聽養蒙齋入學 雖二十歲以後 未及入院之選 而願入養蒙齋者 亦聽 … 一 勤講習 院長迎請朋徒 不廢灌講 冬春 五經四書與伊洛諸性理之書 夏秋 史學子集 任其所讀 夫入院之士 雖不能不爲科舉之事 而科舉之外 亦有古人所謂爲己之學者 苟能不全爲彼所奪 而或能用心於此焉 而求之於日用性分之內 則其存心之地 用力之方 庶幾不越乎敬之一字矣 伊川夫子 始表章之 而雲谷夫子 大發明之 寒暄堂一生辛苦 皆是此字 願與諸君共勉而不取已也 … 朝廷利害 邊報差除 州縣官員長短得失 衆人所作過惡 皆不得言之”.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院儒의 공문이고, 하나는 학문적 능력이다. 덧붙여 定座次에서 앉을 때는 序齒로 한다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⁴⁴⁾ 입원 자격의 예외 조항으로 검증된 학문적 능력을 두고, 序齒를 중요시 한 퇴계의 생각을⁴⁵⁾ 뒤 이은 조목에다 명시한 것으로 보아 신분적 제약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원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유의 ‘순접’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비사족 계층의 입원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勤講習에서는 공부할 내용을 규정하였다. 뒤 이은 嚴禁防 조목에서 莊子·列子·老子·釋氏의 책을 금지했듯이⁴⁶⁾ 서원에서는 성리서 위주로 학습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서원에서 정치·사회적 시비를 논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과거 시험에 대해서는 <이산원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원생 스스로가 학문의 목적이 ‘爲己之學’에 있음을 깨달으라고 했다. 이처럼 정구의 도동서원 <원규>는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서원관을 체계화 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⁷⁾

퇴계의 <이산원규>와 더불어 栗谷 李珣[1536~1584]의 학규도 후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율곡은 <學校模範>을 비롯해 <隱屏精舍學規>, <隱屏精舍約束>, <文憲書院學規> 등을 제정하는 등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은병정사학규>는 퇴계의 <이산원규>처럼 16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海州 隱屏精舍는 1578년(선조 11) 율곡이 설립한 것으로 ‘精舍’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지만, 주자를 제향한 祠廟를 두고 실제 서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⁴⁸⁾ 또한 은병정사가 훗날 紹賢書院으로 사액 받게 됨으로써 <은병정사학규>는 자연스럽게 서원 학규가 되었다. 율곡 또한 <은병정사학규>를 통해 교육의 목적과 학습 내용, 입원 자격 및 운영 주체에 대해 규정하였는

44) 『寒岡續集』 권4, <院規>, “一 定坐次 坐必序齒”.

45) 『退溪集』 권23, 書, <與趙士敬>.

46) 『寒岡續集』 권4, <院規>, “一 嚴禁防 莊列老釋之書 棋局博奕之戲 皆不得入院”.

47) 한재훈, 앞의 논문, 2021, 179쪽.

48) 임근실, 「16세기 서원 학규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166쪽.

데, 그 방향은 앞서 살펴 본 퇴계·정구의 학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나, 入齋 규칙은 士族과 庶流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입재를 허락하되, 먼저 재에 들어온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와도 좋다고 한 연후에 입재를 허락한다. 만약 진일에 패악했던 사람이 들어오고자 하면 그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수칙하게 한 다음 그 소행을 자세히 관찰하여 행실이 고쳐졌음을 확실히 안 뒤에 입재를 허락한다. 평소엔 내력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로 하여금 잠시 가까운 마을이나 【혹은 養正齋】 산사에서 왕래하며 공부하도록 하여 그 지취와 조행을 관찰하여 취해도 좋을지를 안 뒤에 입재를 허락한다.

하나, 재 안에서 나이가 많고 유식한 사람 1인을 추대하여 堂長으로 삼고, 또한 儕輩 중에서 학문이 우수한 사람 1인을 추대하여 掌議로 삼는다. 또 2인을 뽑아 有司로 삼고, 또 2인을 차례로 뽑아 直月로 삼는다. 당장과 장의, 유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교체하지 않는다. 직월은 한 달 마다 교체한다. 무릇 재 안의 논의는 장의가 주관하고, 당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하나, 성현의 글이나 성리의 학설이 아니면 재 안에서 읽을 수 없다.【역사책은 읽어도 좋다.】 만약 과거 공부를 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

하나, 直月은 선악적의 기록을 담당한다. 유생들의 거재와 處家 중의 소행을 자세히 살펴 만약 언행이 합리적이거나 학규를 위반한 자가 있으면 모두 기록하여 매일 초하루에 사장에게 보고한다.【무릇 학규를 위반하는 자는 직월이 당장과 장의에게 보고하여 함께 규책하고, 만약 고치지 않으면 사장에게 고한다. 만약 잘못을 고치면 선악적의 기록을 삭제하고 사장에게 고하지 않는다.】 선한 자는 권장하고, 악한 자는 벌을 주어 가르치되, 끝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에서 쫓아낸다.

하나, 고을 사람 중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양정재에 모두 머물게 한다.⁴⁹⁾

49) 『栗谷全書』 卷15, 雜著2, 《隱屏精舍學規》, “一 入齋之規 勿論士族庶類 但有志於學問者 皆可許入 齋中先入者 僉議以爲可入 然後乃許入 若前日悖戾之人願入 則使之先自改過修飭 熟觀所爲 決知其改行 然後許入 素昧平生者願入 則使之姑安近村【或養正齋】 或山寺往來問學 觀其志趣操履 知其可取 然後許入 一 推齋中年長有識者一人爲堂長 又推儕輩中學優者一人爲掌議 又擇二人爲有司 又輸選二人爲直月 堂長掌議有司 非有故則不遞 直月則一月相遞 凡齋中論議 掌議主之 稟于堂

〈은병정사학규〉에 나타난 讀書의 방향도 퇴계·정구의 서원 교육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齋에 들어온 학생은 오로지 성리설과 관련된 책만을 읽을 수 있었으며, 과거 공부는 제한하였다. 독서에 관한 율곡의 인식은 1582년 왕명으로 편찬한 〈學校模範〉의 讀書法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다.⁵⁰⁾ 〈학교모범〉의 3조에서는 ‘『소학』 → 『대학』, 『근사록』 → 『논어』, 『맹자』, 『중용』’ 순으로 ‘독서’의 순서를 규정하였으며, 그 사이 史書와 선현의 성리서를 읽으라고 하였다.⁵¹⁾ 또한 원생 선발과 서원 운영을 담당하는 堂長·掌議·有司·直月 임명에서도 서원의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은병정사학규〉의 특징이라면 庶流의 입학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 유예 시설로서 양정재를 두고 입학 예비생을 이원화 했다는 것,⁵²⁾ 鄉約을 모방하여 직월로 하여금 원생의 善惡籍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병정사학규〉에 명시된 독서의 방향과 과거 공부에 대한 견해, 원생 및 임원에 관한 규정 등은 이후 율곡의 학통을 계승한 서원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16세기 중반 이후 약 100년 동안의 학규는 서원 운영의 대략적인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서원 설립에 관여했던 공신 계열은 동 시기 명대의 관학화된 서원을 모범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서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게 되는 지방의 사대부 계층은 功利에 매몰되어 있던 당대

長而定之 … 一 非聖賢之書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齋中【史學則皆不讀】若欲做科業者 必習于他處 … 一 直月 掌記善惡之籍 審察諸生居齋處家所爲之事 如有言行合理者及違學規者 皆記之 月朔呈于師長【凡違學規者 直月遍告于堂長、掌議 共加規責 若不俊則乃告于師 若俊改則及其籍 勿告于師】善者獎勵之 惡者誨之 終不受教則黜齋 一 鄉中願學者 皆姑接養正齋”.

50) 박종배, 「학규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52~53쪽.

51) 『栗谷全書』 卷15, 雜著2, 〈學校模範〉, “三日讀書 謂學者既以儒行檢身 則必須讀書講學 以明義理 然後進學功程 … 其讀書之序 則先以小學 培其根本 次以大學及近思錄 定其規模 次讀論孟中庸五經 間以史記及先賢性理之書 以廣意趣 以精識見 而非聖之書勿讀”.

52) 한재훈, 앞의 논문, 2021, 176쪽.

학풍을 비판하고, 의리의 강명을 강조한 주자의 서원관을 적극 계승하였다. 서원 운영에 있어서는 관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개입은 최대한 배제한 자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 시기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계시>에 언급되지 않은 대목에 대해서는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원생 자격이다. 일찍이 퇴계가 서원의 운영 주체로 품관을 주목하였듯이,⁵³⁾ 16세기 중·후반 사대부 문화의 성숙에 따라 이들은 향촌 자치 기구인 留鄕所뿐만 아니라, 서원을 통해 자신들 주도의 향촌 지배 질서를 구축해 나가고자 했다. 따라서 조선의 특수한 신분 계층으로 향촌 사회에서 차별을 받던 서얼에 대한 入院 자격 부여 여부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퇴계는 고향 禮女에서의 향약 集會 때 貴賤을 막론하고 序齒에 따른 '鄕坐'를 거론했지만, 그의 후학과 다른 사대부의 반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였다.⁵⁴⁾ 당연히 서원에서도 이 사안은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신분적 제약을 바탕으로 한 배타적 운영은 자발적인 교육·교화를 추구했던 주자의 서원관과 배치되었다. 그러나 당대 조선의 사대부 계층은 엄격한 '신분적 명분'을 정립하고자 했다. 앞서 살펴 본 학규에는 이러한 모순점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 먼저 정구는 도동서원 <원규>에서 입원 자격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원유의 중론을 따른다는 중요한 단서를 달아 놓았다.

반대로 율곡은 <은병정사학규>에서 “사족과 서류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입재를 허락”하라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율곡의 학규는 계열을 달리하던 다른 서원에도 영향을 끼쳤다. 1620년(광해군 12) 南冥 曹植을 제향한 金海 新山書院의 원장 李明志[1565~1624]는 <은병정사

53) 『退溪集』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遞”.

54) 이우성, 「퇴계선생의 예안향약과 <향좌> 문제」, 『퇴계학보』 68, 퇴계학연구원, 1990, 138~141쪽.

학규)를 참조하여 〈新山書院立規〉를 제정하였다. 여기에도 〈은병정사학규〉와 같이 입원 자격에서 서류를 제한하지 않았다.⁵⁵⁾ 이명호가 〈은병정사학규〉를 따라 〈신산서원입규〉를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당색과 학파를 초월해 고대 鄉學 정신을 구현하고자 신분적 제약을 두지 않으려 했던 퇴계의 繩坐法이 계승되는 현상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⁵⁶⁾

그런데 두 학규도 도동서원 〈원규〉처럼 단서가 확인된다. 〈은병정사학규〉는 서류의 입재를 허락하면서도 바로 뒤이어 “먼저 재에 들어온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와도 좋다고 한 연후에 입재를 허락한다”라고 했으며, 〈신산서원입규〉도 “先入者僉議 以爲可入”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율곡은 해주 〈文憲書院學規〉에서 ‘서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만, 학업에 뜻이 있되 名行에 문제가 없으면 院儒僉議를 따라 입원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은병정사학규〉와 〈문헌서원학규〉는 비슷한 시기 제정되었는데, 후자의 입원 규정만 본다면 도동서원 〈원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서원 운영을 둘러싼 사대부 계층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주자가 지향하던 서원관과 모순이 발생하였고, 그 모순에 대한 고민이 당시 서원 학규에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清代와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

1. 清代 서원과 학규

1644년 명 왕조가 무너지고 이민족이 세운 淸 왕조가 중국의 새로운 주인

55) 『梅竹軒集』 卷1, 〈新山書院立規〉, “入院之規 勿論士族庶類 但有志於學問者 皆許入院中 先入者僉議以爲可入 然後乃許入”

56) 정석태, 「신산서원의 강학전통」,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726~729쪽.

57) 『栗谷全書』 卷15, 雜著2, 〈文憲書院學規〉, “一 取士之法 勿論長少 取其有志學業 名行無汚者 院儒僉議許入”.

이 되었다. 새 왕조도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崇儒 정책을 이어 나갔다. 서원에 대해서는 1652년(순치 9) 지시를 내려 별도로 서원을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하였지만, 명초와 같이 서원을 관학화하거나 대규모 금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명대보다 서원 정책이 완화되었다고 평가를 한다. 이에 康熙[1662~1722] 연간에는 황제가 직접 鹿洞書院·嶽麓書院·자양서원에 편액을 내려주는 등 정주이학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간에서도 16세기 이래 이학 도통의 침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雍正[1723~1735] 연간까지 많은 서원이 신설·복설될 수 있었다.

청초 이학자들은 명 멸망의 교훈을 학문적 경향에서 찾았다.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명말 심학의 말류도 그 중 하나였다. 이에 서원을 중심으로 이학의 도통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王澐(1668~1739)는 심학을 비판하고 정주의 뜻을 계승하고자, 1703년(강희 42) 주자의 <백록동서원게시>를 주해한 20권 분량의 『朱子白鹿洞規條目』을 편찬하기도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강희 연간 활기를 띠는데, 대표적으로 西安 關中書院의 학규가 주목된다.

1609년(만력 37) 설립된 관중서원은 명말 關西夫子라 일컬어지던 馮從吾[1556~1627]가 10년 동안 主講했던 곳으로 비슷한 시기 동림서원과 더불어 심학에서 이학으로의 전환에 동참했던 서원이다.⁵⁸⁾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청대 강희 연간 李顥[1627~1705]은 관중서원 <學程>을 제정하였다. 그는 1673년(강희 12) 陝甘總督 鄂善의 초빙을 받고 여러 해 동안 관중서원의 강학을 담당하였었다. 이때 제정한 <학정>은 모두 1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학의 시간·儀禮·방법·내용·목적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하나, 식후 四書의 首章을 보는데, 반드시 본문을 보고 注를 먼저 보지 않는다. 본문이 契合하지 않은 연후에 注와 大畧을 볼 것이다. 한 章을 볼 때마다, 이 章이 자신의 身心과 交涉하는지를 생각하여, 마음으로 체득하고 행동으

58) 박종배, 앞의 논문, 2013, 61~62쪽.

로 증험하는데 힘쓸 것이며,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이것을 규범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현을 모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공연히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하나, 정오에 분향한 뒤 조용히 앉아 헛된 인연과 잡념을 잊는 것으로 夜氣를 이어 나간다. 식후에 『大學衍義』와 『大學衍義補』를 읽는데, 이것은 窮理와 致知의 요체이다. 깊이 탐구하고 자세히 음미하여 정밀히 익숙해지는데 힘써야 하며, 숙달된다면 道德과 經濟가 함께 여기서 나올 것이니, 무릇 이것을 大人의 학문이라 이른다.

하나, 매일 저녁 초경에는 등잔 아래서 『資治通鑑綱目』이나 濂洛關閩 및 河會姚涇의 어록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이어 고요히 앉아서 이날 意念의 邪正과 言行之 得失을 되돌아보고 ... 우리가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古人에 미치지 못할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⁵⁹⁾

관중서원 <학정>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학습 방법을 통한 이학 도통의 재정립이다. 요컨대 四書는 주자가 경서의 지위를 부여한 유학의 주요 경전이며, 注와 大全은 사서에 대한 주자의 해석이다. 『대학연의』와 『대학연의보』는 각각 주자의 학통을 계승한 남송의 眞德秀와 명의 丘濬을 상징한다. 濂洛關閩은 송의 周敦頤·程顥·程頤·張載·주자이며, 河會姚涇은 명의 薛宣·진백사·왕양명·呂柟을 가리키는 것이다.

관중서원 <학정>에 나열되어 있는 학습 서적과 계통은 앞서 살펴본 동림서원 <회약의식>의 <가시>와 비견된다. 먼저 송대 정주이학의 도통을 거론한 후, 명대는 이학과 심학의 주요 인사를 함께 나열하였다. 심학의 극단적 말류를 배제한 채 이학 주도로 심학과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명대 동안 이어진

59) 『二曲集』 卷十二, 關中書院會約, <學程>, “一 飯後 看四書數章 須看白文 勿先觀注 白文不契 然後闕注及大全 凡闕一章 卽思此一章與自己身心有無交涉 務要體之於心 驗之於行 苟一言一行不規諸此 是謂侮聖言 空自棄 一 中晝 焚香默坐 屏緣息慮 以續夜氣 飯後 讀大學衍義及衍義補 此窮理致知之要也 深研細玩 務令精熟 則道德 經濟胥此焉出 夫是之謂大人之學 … 一 每晚初更 燈下閱資治通鑑綱目 或濂洛關閩 及河會姚涇語錄 閱訖 仍靜坐 默檢此日意念之邪正 言行之得失 苟一念稍差 … 吾人苟亦如此 不患不及古人也”.

심학 우위의 학문적 경향을 이학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강희 연간 이학으로 전환된 또 다른 서원으로는 安徽의 還古書院이 있다. 1592년(만력 20) 설립된 환고서원은 명말까지 심학이 활기를 띠었던 곳이었으나, 청초 이학자 施璜의 노력으로 학문적 분위기가 빠르게 변화였다. 그런 가운데 강희 연간 제정된 환고서원 회규의 서문에서는 “國朝에 汪星溪·楊瑞呈 등 여러 선생이 講壇을 깨끗이 하고 正德·嘉靖 연간 이래 ‘致良知’의 宗旨을 썼어 내었다. 新安學會는 文公주재의 天寧山房 會講에서 비롯되었으니, 지금 서원이 紫陽을 따르지 않으면 되겠는가?”⁶⁰⁾라며, 이곳을 이학 부흥의 기치로 삼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⁶¹⁾ 이 회규는 9개조의 〈還古會約〉과 11개조의 〈還古會儀〉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환고회약〉 3조에서는 공자의 학문에 중지를 두고 불교와 도교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⁶²⁾ 이단을 적극적으로 배척함으로써, 도통 계보를 이학에 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청초에는 이학 명유에 의해 학통의 전환을 도모하는 서원 학규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미 명대를 거치는 동안 서원의 상당수가 관부의 통제를 받으며 과거 급제라는 보다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雍正 연간에 이르러서야 서원의 관학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그와 별개로 명대 관학화된 서원의 전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河南 登封의 嵩陽書院은 정호·정이가 강학한 장소로 송대 이학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金·元·明을 거치면서 興廢를 거듭했던 송양서원은 명말에 전란으로 소실되었지만, 1674년(강희 13) 知縣 卞封이 중건을 시작하여, 1677년 登封縣의 명유인 耿介[1623~1693]가 새 모습으로 단장하였다. 이후 경개는 20년 가까이 山長을 맡으며 관부의 협조를 받아 學田을 형성하였

60) 『還古書院志』 卷10, 會規, “國朝用汪星溪楊瑞呈 諸先生擴講壇 洗除正嘉以來致良知之宗旨 以爲新安學會肇自文公會講天寧山房 今書院不遵紫陽可乎”.

61) 박종배, 앞의 논문, 2013, 63쪽.

62) 『還古書院志』 卷10, 會規, 〈還古會約〉, “學以孔子爲宗 孔子十五志學 七十從心 其精進之妙 蓋有人不知而自知者 此千古學脈也 釋老之教 寂滅荒唐 攻乎異端 斯害也 已權謀術數 溺功利而泊本真 學孔子者必不其然”.

고,⁶³⁾ 이 기간 동안 7조의 〈輔仁會約〉, 6조의 〈爲學六則〉, 9조의 〈嵩陽書院學規〉를 제정하였다.⁶⁴⁾ 또한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다수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경개는 〈보인회약〉에서 매월 초3일 원생들이 서원에 모여 과거 시험 과목 중 二藝를 쓰고,⁶⁵⁾ 매월 18일에는 독서한 것을 講課한다는⁶⁶⁾ 규정을 세웠다. 그리고 立志·存養·窮理·力行·虛心·有恒으로 구성된 〈위학육칙〉을 부기해 놓았다.⁶⁷⁾ 〈보인회약〉이 과거 공부를 위한 학규라면, 〈위학육칙〉에서는 과업에 매몰되어 자칫 놓칠 수 있는 修身과 학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인회약〉을 앞에 두고 〈위학육칙〉을 부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위기지학’을 교육의 목적으로 추구한 남송 이학자의 서원 관과 괴리가 있다. 경개는 서원의 목적이 과업 성취에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보인회약〉의 서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학문을 논하는데 있어서, 바로 번거롭게 여러 말할 필요 없이 단지 舉業에 글자를 한 줄 더 붙일 뿐이다”⁶⁸⁾라고 언급한 것이다. 송양서원은 송대 이학의 발원지로 각광을 받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과업 중심의 서원으로 변모하였다.

용정·건륭 연간으로 접어들면서 청 왕조의 서원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1733년(용정 11) 내려진 上諭에서는 서원의 설립 목적이 ‘興賢育材’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어 각 省에 帑金 1,000냥을 내어 주어 서원을 찾는 士子の 독서 비용으로 집행하되, 總督과 巡撫에게 이 일의 奉行을 지시하였다.⁶⁹⁾ 이렇

63) 『嵩陽書院志』 권1, 學田.

64) 이하 경개와 송양서원에 대해서는 궁승도, 「청대 송양서원 생원모집 및 교학활동」,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152~156쪽.

65) 『嵩陽書院志』 卷2, 約, 〈輔仁會約〉, “一 每月初三日 一會嵩陽書院 爲文二藝”.

66) 『嵩陽書院志』 卷2, 約, 〈輔仁會約〉, “每月十八日 一會嵩陽書院 一月來所讀書之書 互相考究”.

67) 『嵩陽書院志』 卷2, 約, 〈爲學六則〉, “所謂爲學六則 附於其後 … 一曰立志 … 一曰存養 … 一曰窮理 … 一曰力行 … 一曰虛心 … 一曰有恒”.

68) 『嵩陽書院志』 卷2, 約, 〈輔仁會約〉, “然則今日論學 正不必煩多其辭 只是於舉業上加一行字”.

계 각 성별로 最高 관학 기구인 서원이 설치된 것이다. 청대 서원은 1736년(건륭 1)의 상유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학화되었다. 이 상유에서는 우선 서원이 ‘옛 제후국의 학교[書院即古侯國之學也]’라며, 그 출발이 관학임을 전제하였다. 또한 서원 교육의 의미가 조정에서 근무할 인재 양성에 있는데, 단순히 擧業을 비판하는 세태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세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성의 총독·순무·學政이 士人의 모범이 되는 자를 ‘書院之長’에 뽑으라고 지시하고 있다.⁷⁰⁾ 이후 추가 조치를 통해 여러 관학과 서원을 하나의 교육 체계로 연결하였고, 재정 운영, 원장 및 원생 규정 등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다. 원장을 비롯해 교육을 담당하는 원임과 일상적 사무를 보는 원임을 구분함과 동시에 관부가 원장 임면을 장악하고 서원 재정을 통제함으로써,⁷¹⁾ 뚜렷한 관학화를 보이게 된다. 한편으로 서원이 설립되는 지역도 늘어났으며, 청 왕조가 새롭게 확보한 변경 지역에도 모두 서원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湖南 악록서원과 靑海 三川書院의 학구가 주목된다.

호남 長沙의 악록서원은 북송 대인 976년(개보 9) 처음 설립된 서원으로 남송 대 주자를 비롯해 여러 이학자가 강학한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러나 청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소실로 옛 모습을 찾지 못했는데, 강희 연간 황제가 직

69) 『欽定學政全書』卷63, 書院事例, “雍正十一年奉上諭 各省學校之外 地方大吏 每有設立書院 聚集生徒 講誦肄業者 … 近見各省大吏漸知崇尚實政 不事沽名邀譽之爲 而讀書應舉之人 亦頗能屏去浮囂奔競之習 則建立書院 擇一省文行兼優之士 讀書其中 使之朝夕講誦 整躬勵行 有所成就 俾遠近士子觀感奮發 亦興賢育材之一道也 督撫士割之所 爲省會之地 著該督撫酌舉行 各賜帑金一千兩 將來士子羣聚讀書 豫爲籌畫 資其膏火 以垂永久 其不足者 在於存公銀內支用”.

70) 『欽定學政全書』卷63, 書院事例, “乾隆二年奉上諭 書院之制所以導進人材 廣學校所不及 我世宗憲皇帝命設之省會 發帑金以資膏火 恩意至渥也 古者鄉學之秀 始升於國 然其時諸侯之國皆有學 今府州縣學竝建 而無遞升之法 國子監雖設於京師 而道里遼遠 四方志士 不能胥會 則書院即古侯國之學也 … 庶人材成就 足備朝廷任使 不負教育之意 若僅攻舉業 已爲儒者末務 … 該部詳行文各省督撫學政 凡書院之長 必選精明行修 足爲多士模範者 以禮聘請 負笈生徒 必擇鄉里秀異”.

71) 이수환, 「조선조 영남과 청대 산동의 서원 비교연구-인적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229-230쪽.

접 편액을 내림으로써 옛 위상을 크게 회복하였다. 이어 1733년에는 전국 20개 ‘省會之所’ 중 하나가 되었다. 악록서원도 1736년 상유 이후 명망 있는 인사를 산장으로 초빙하였다. 그 가운데 호남 寧鄉 출신으로 博學鴻詞科에 급제한 王文淸(1688~1779)은 퇴임 후 악록서원에 초빙되어 9년 간 산장을 지냈으며,⁷²⁾ 1748년(건륭 13)에는 악록서원 원생을 위해 학규를 제정하였다.

하나, 자주 부모에게 문안을 드린다. 하나, 朔望에는 성현을 공손하게 알현한다. 하나, 氣習에서 치우친 곳은 각기 바로 잡는다. 하나, 행동거지는 整齊하고 엄숙히 한다. 하나, 服食은 마땅히 검소함을 따른다. 하나, 바깥일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 걷거나 앉을 때 반드시 나이 순서에 의거한다. 하나, 장점을 들추고 단점을 가리는 것을 통렬히 경계해야 한다. 하나, 損友는 반드시 거절한다. 하나, 쓸데없는 말로 때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나, 매일 經書를 세 번 읽는다. 하나, 매일 綱目的 여러 항을 본다. 하나, 時務와 物理를 밝게 깨우친다. 하나, 古文詩賦를 세 번 읽는다. 하나, 독서한 것은 모름지기 붓으로 쓴다. 하나, 會課는 시간을 살피어 일찍 완성한다. 하나, 夜讀은 늦게 일어나는 것을 경계한다. 하나, 의심나고 잘못된 것은 힘써 다투어서 바로잡는다.⁷³⁾

왕문청의 학규는 〈王九溪先生學規〉라 불리는데, 그 문인들에 의해 비석으로 제작되어 악록서원에 세워졌다. 그 외에도 왕문청은 ‘讀經六法’과 ‘讀史六法’, ‘學箴九首’를 지어 經史를 공부하는 방법과 학문하는 자세를 규정하기도 했다.⁷⁴⁾ 18개조로 이루어진 위의 학규는 원생의 행동 규범을 주로 규정하고

72) 정낙찬, 「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 『동아인문학』 21, 동아인문학회, 2012, 240쪽.

73) 『岳麓書院續志』卷1, 規條 〈王九溪先生學規〉, “一 時常省問父母 一 朔望慕謁聖賢 一 氣習各矯偏處 一 舉止整齊嚴肅 一 服食宜從儉素 一 外事毫不勾干 一 行坐必依字齒 一 痛戒許長毀短 一 損友必須拒絕 一 不可閒談廢時 一 日講經書三起 一 一看綱目數首 一 通曉時務辨物理 一 參讀古文詩賦 一 讀書必須過筆 一 會課對時蚤完 一 夜讀仍戒晏起 一 疑誤定要力爭”.

74) 『岳麓書院續志』卷1, 規條 〈王九溪先生讀經六法〉·〈王九溪先生讀史六法〉·〈王九溪先生學箴九首〉.

있으면서도 학문의 지향을 보여주기도 한다. ‘독경육법’과 ‘독사육법’ 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왕문청은 무엇보다 경사 공부를 강조하였다. 정기적으로 경서와 『資治通鑑綱目』, 古文詩賦를 읽으라고 했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무와 물리에 밝은 인재 양성에 있다.

왕문청 보다 앞서李文昭[1672~1735]가 제정한 〈嶽麓書院學規〉에서도 이와 같은 대목이 제정되어 있다. 이문소는 1717년(강희 56) 약록서원 산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약록서원학규〉를 통해 學者는 반드시 世務에 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史書 공부에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여러 사서를 보는 것은 안 되며 오로지 『자치통감강목』만을 힘써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뒤 이어 문장의 여러 大家를 나열하며 古文을 따르라고 했다.⁷⁵⁾ 또한 매월 3차에 걸쳐 강좌를 열어 書 2편, 經 2편을 공부하는데, 여력이 되면 性理論 1편을 공부하라고 규정하였다.⁷⁶⁾ 이를 본다면 약록서원의 교육은 강희 연간을 거치면서 이미 관학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시험 준비에 八股文이 필수였던만큼 약록서원의 교육 내용도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 즉, 1748년 왕문청이 제정한 학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과거 시험 위주의 정규 교육 과정에 맞추어 개별 원생의 학습 자세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會課에서 시간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대목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원생의 실천 전략에 해당한다. 옹정·건륭 연간 관학화된 서원이 제도적으로 완비되면서, 원생의 행동거지 및 학습 자세와 관련된 학규마저도 과거 시험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청해 삼천서원의 학규도 건륭 연간 서원의 관학화를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75) 『恒齋文集』 卷4, 學規, 〈嶽麓書院學規〉, “學者欲通世務 必需看史 然史書汗牛充棟 不可遍觀 但以綱目爲斷 至于作文 當規倣古文 宜取賈韓歐曾數家文字熟讀 自得其用 制藝以歸 唐大家爲宗 雖大士之奇離 陶庵之雄軍 皆蒼頭技擊之師 非龍虎鳥蛇之陣也 論詩專以少陵爲則 而後可及於諸家 先律體后古風 先五言后七言 庶可循序漸進於風雅之林矣”.

76) 『恒齋文集』 卷4, 學規, 〈嶽麓書院學規〉, “每月各作三會 學內者 書二篇經二篇 有餘力作性理論一篇 學外者 書二篇 有餘力作小學一篇”.

유서 깊은 악록서원과 다소 성격이 다르다. 청해 지역은 청의 변경으로서 전통적인 사대부 세력이 많지 않았다. 왕조 입장에서는 이곳의 이민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급선무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청해 大通의 삼천서원은 1736년 설립된 청해 최초의 서원이다. 당초 청해 대통에는 1725년(옹정 3) 설립된 義學이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부형과 자제 모두 유학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1736년 삼천서원을 설립하였고, 매해 이곳에서 배출된 文武生員 3명을 府學에 입학시켜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했다. 그런 가운데 1738년 西寧府僉事 楊應璠 [1696~1766]는 삼천서원에서의 교육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9개조의 〈皇清塞外大通衛三川書院學約〉을 제정하였다.⁷⁷⁾

하나, 대통은 궁벽한 변방이어서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무릇 編氓의 자제는 스스로 힘을 다해 농사짓고 俯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모두가 밭에서 일하여 예의를 알지 못하며, 편하게 지내지만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으니, 어리석음과 야만스러움이 우려된다. 지금 한 집의 삼형제 중에 俊秀한 자 한 사람을 뽑아 입학시켜서 학업을 익히게 한다. 혹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氣禀이 孱弱하여 농사일에 힘쓰기 어려운 자는 더욱 마땅히 독서와 학문에 부지런하여 奮志靑雲해야 한다.

하나, 다섯 살 이상의 자제는 즉시 義學에 가게 해서 四書와 本經을 외우게 하되, 모름지기 小註와 함께 읽게 한다. 경서 읽기를 마치면 이어서 『小學』을 講明한 연후에 서원으로 보내어 학업을 잇게 한다.

하나, 무릇 서원과 의학에 있는 자에게 만약 집 안의 큰일이 일어나서 父兄이 사실에 의거하여 師長에게 訴明하면 給假를 준다. 만약 핑계를 대고 학교에

77) 『西寧府新志』卷37, 藝文志, 學約, 〈皇清塞外大通衛三川書院學約〉, “大通衛地居塞外人雜番戎自雍正三年始設義學已歷一十三載迄今學不加進業不加修良由爾父兄狃於姑息子弟樂於怠荒故卒無成效今於乾隆元年冬另建書院敦延名師俾晝夜維勤寒暑無間以仰副聖天子興賢育才之至意比歲以來聞諸生讀書漸有進益已詳請制府兼中丞陽湖劉公題擬該衛每科歲考取文武生員三名暫附府學可謂千載一時若作輟不常去來無定將可以應試又將何以立身自茲以往不能不嚴立規條稽考文行爾諸生各宜尚志以慰余望”.

서 도망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사장이 해당 衛에 移送하여, 즉각 父兄을 姑容의 과실로 징계한다.⁷⁸⁾

위의 3개조는 삼천서원 학규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통의 토착민들 대부분은 농사일에 신경 쓸 뿐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기에 양응거는 아들 세 명이 있으면, 그 중 하나는 서원에 입학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서원의 전 단계로 5세 이상의 자제는 의학에 입학시켰다. 만약 의학·서원의 학생이 뚜렷한 사유 없이 학교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 부형을 처벌하였다. 양응거는 반강제적 성격의 학규를 통해 변방 세력의 자제를 ‘의학→서원→부학’으로 이어지는 관학 체계 내에서 관리하고자 했다.

〈황청새외대통위삼천서원학약〉의 한 조항에서는 서원 교육의 목적을 ‘奮志靑雲’에 두고 있다. 변방 자제가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토착적 성격의 지방 세력이 자연스레 왕조의 관료 예비군 층으로 포용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 왕조는 새로 확장한 변경 지역에도 관학화된 서원을 설립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체제 강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19세기 중·후반 바야흐로 西勢東漸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가치관은 위협을 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당연히 근대 교육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서원의 운영 형태도 변화해 갔다. 그런 가운데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 심화되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전하자 교육의 근대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과거제와 팔고문 위주의 교육 내용은 비판의 대상

78) 『西寧府新志』卷37, 藝文志, 學約, 〈皇清塞外大通衛三川書院學約〉, “一 大通僻處荒微 地瘠民貧 凡編氓子弟 自宜戮力耕耘 爲俯仰之籍 然皆事田疇 不知禮義 逸居無教 愚戾堪憂 今定一家三子 擇俊秀者一人 入學肄業 或止生一子 氣稟孱弱 力不能任稼穡者 尤宜讀書勤學 奮志靑雲 … 一 子弟五歲以上 卽令向義學 念書四書本經 須令與小誦司讀 經書讀畢 仍講明小學 然後送書院肄業 … 一 凡在書院及在義學者 如家中果有大事 須父兄據實訴明師長 准給假 倘託故逃學者 師長移送該衛 卽懲父兄以姑容之過”.

이 되었다. 이에 1896년 山西巡撫 胡聘之는 〈請變通書院章程折〉을 올려 서원에서 팔고문 교육을 줄이고 천문·산수·농무·병사 등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자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서원을 學堂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898년(광서 24) 戊戌變法으로 省城·郡城·州縣 단위의 서원을 각각 高等·中·小學堂으로 개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지만, 현실적 문제와 구체제의 반발로 이때의 조치는 무산되었다. 1901년 재차 상유를 내려 서원을 학당으로 모두 개편하였으며, 이해 팔고문도 폐지하였다. 이렇게 1896년부터 1911년까지 전국 1,300여개에 이르는 서원이 학당으로 개편되었다.⁷⁹⁾ 19세기 말 교육정책의 변화는 대내외 정세 변화에 의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었다. 19세기 전반부터 서원 교육을 변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새로운 형식의 서원이 등장하였다.

우선 살펴 볼 廣州 學海堂은 근세 중국 학풍에 큰 영향을 끼친 서원이다.⁸⁰⁾ 이는 학해당서원이라고도 불리는데 漢學으로 명망이 높았던 兩廣總督 阮元 [1764~1849]이 1826년(도광 6)에 비용을 출연하여 설립한 서원이다. 그리고 같은 해 학해당의 운영 지침을 간략히 규정한 8개조의 〈學海堂章程〉을 제정하였다. 학해당 운영에서 가장 특색 있는 점은 산장을 두지 않고 완원이 직접 정한 8인의 學長으로 하여금 교육을 담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덧붙여 공석이 생겨도 절대 산장을 뽑지 말며, 추천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하였다.⁸¹⁾ 완

79) 김유리,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성립과정」, 『동양사학연구』 75, 동양사학회, 2001, 105~107쪽.

80) 학해당 창설 경위는 ‘이학로, 「도광시기 광주신사들의 학문경향과 서정소개－학해당 학장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9, 경북사학회, 1996, 412~418쪽 참조.

81) 『學海堂志』, 文檄, “一 管理學海堂 本部堂酌派出學長吳蘭修趙均林伯桐曾釗徐榮熊景星馬福安吳應達共八人司司課事 其有出仕等事 再由七人公舉補額 永不設立山長 亦不允薦山長”.

원은 과거 시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동 시기 다른 서원과 다른 방향으로 학해당을 운영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산장을 두지 않았으며, 공개적으로 서원을 표방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학해당은 독특한 학풍을 형성하였다. <학해당장정>에는 일반적인 月課가 아니라 季課를 실시하여 학장이 經解·文筆·古詩題를 평가한 후 성적에 따라 膏火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원생을 평가했다고 한다.⁸²⁾ 평가 과목만을 보면 다른 서원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 학습 방식은 철저히 經史詞章의 博習에 있었다. 원원은 시무를 위해 고대 經學을 널리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천문학·산학, 그리고 서양 역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과거 공부나 정주이학의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經史詞章을 강구하는 것이 학해당의 특징적 학풍이었던 것이다. 1834년(도광 14) 宮保督憲이 학해당에 내린 札諭의 첫 번째 조목에서 학장과 諸生 모두 實學에 뜻을 두기를 당부한 것도⁸³⁾ 그 특색이 유지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영 구조와 학통 덕분에 19세기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 속에 경제적 관점을 가진 지식인이 학해당에서 적지 않게 배출될 수 있었다.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되자, 서원에서도 그들의 교육 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원에 신식 교육이 추가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으며, 신식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서원이 중국인 또는 외국인에 의해 설립되기도 하였다. 학규도 교육 내용에 맞추어 변모하였는데, 마지막으로 上海의 格致書院과 中西書院을 주목하고자 한다.

격치서원은 1874년(동치 13) 상해 주재 영국 영사 Water Henry Medhurst [麥華佗, 1822~1885]의 주창으로 영국인 전교사 John Fryer, 士人 徐壽 등이 합심하여 설립한 서원이다. 설립 과정에서 北洋大臣 李鴻章[1823~1901]이

82) 『學海堂志』, 文概, “一 每歲分爲四課 由學長出經解文筆古今詩題 限日截卷 評定甲乙 分別散給膏火 學長如有擬程 可以各集 但不給膏火”.

83) 『學海堂志』, 文概, “一 學長等公舉諸生 務取志在實學”.

설립 기금을 기부하고 門額을 직접 써 주었다. 격치서원은 ‘서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과거 시험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이름만 ‘서원’이었으며 실제로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가르쳤다. 한편, Water Henry Medhurst는 서원 설립 직전인 1874년 3월 5일 15개조로 구성된 〈格致書院章程〉을 발표하였다.⁸⁴⁾

하나, 서원의 이름은 격치서원이라고 한다. 둘, 이 서원을 설립한 原意는 중국 士商과 西國의 人士를 深悉하고 서로 간의 和好를 더욱 돈독하기 위해서이다. 셋, 이 서원은 租界 내에 설립한다. ... 여섯 이 서원은 100인을 정원으로 한다. 만약 정원 외에 오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모름지기 中·西 여러 사람의 추천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 아홉, 서원 내에는 각 省의 현재 및 續曾 刊行한 新報, 西人이 번역한 西國의 經史子集 각종 서적 및 한문 저작, 중국의 각종 經史子集을 구비하고, 天球·地球와 함께 各項의 機器와 기이하고 정교한 圖式을 설치해서 대중으로 하여금 관람케 한다. ... 열 둘, 수시로 西人을 서원에 초청해 機器의 各法과 함께 西國의 各論을 講解케 한다.⁸⁵⁾

〈격치서원장정〉은 서원의 운영 목적과 방침을 대중에게 공고한 것이다. 중국인과 서양인이 함께 설립한 서원이기에 정원 외 입학생은 중국과 서양 양편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했다. 서원 내에는 각 지역의 신문과 번역된 서양 서적이 비치되었고, 서양 인사를 초빙해 서구의 기술과 여러 이론을 가르쳤다. 洋務運動이 한창 전개되는 가운데 격치서원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장소로 활용된 것이다.

84) 이하 〈格致書院章程〉은 ‘장익식, 『청말의 상해 격치서원 : 시대 변화와 그 한계』, 『중국사연구』 117, 중국사학회, 2018, 210~211쪽 참조.

85) 『申報』 第567號, 1874年 3月 5日, “一 書院明格致書院 二 立此書院原意 是欲中國士商 深悉西國人士 彼此更敦和好 三 此院應於界內設立 ... 六 此院限以百人爲滿 如滿數外乃有人欲來者 須得數中西人舉薦方可 ... 九 院內備有各省現時及續曾所刊新報 並有西人所譯西國經史子集各種書卷漢文著作 至中國各種經史子集 聽憑各董議曾列入院內 又設天球地球 並各項機器奇巧圖式 備衆備覽 ... 十二 隨時請有西人來院講解機器各法 並西國各論”.

1882년(광서 8) 상해에 설립된 중서서원도 ‘中’과 ‘西’라는 院號처럼 신식 교육을 위한 서원이다. 격치서원과 달리 중서서원은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教會書院으로서, 우리나라 사람 尹致昊가 공부했던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아편전쟁 이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서원이 확산되었다. 이들 교회서원에서는 근대 교육을 하면서도 중국인의 호응을 얻기 위해 종교적 색채를 내세우기 보다는 전통적인 학문을 포용하였다.

중서서원은 미국 남 감리교회 선교사 출신의 Young John Allen[林樂知, 1836~1907]에 의해 설립되었다. 중서서원에 설치된 과목으로는 수학·화학·지학·西語·萬國公法 등 근대 학문이었지만, Young John Allen은 1881년 〈中西書院課程規條〉를 통해 서학으로 시무를 익힌 후 과거에 급제하면, 이미 배운 서학으로서 더욱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⁸⁶⁾ 입신을 위해서는 과거 공부가 필수였던 중국인 학생을 의식하였던 것이다. 또한 1882년에는 〈中西書院規條〉를 제정하여 원생들에게 서학과 중학을 모두 익힐 것을 규정해 놓았다.⁸⁷⁾ 당시 ‘中體西用’적 관점에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던 양무운동의 주요 인사와 달리 중학과 서학의 조화를 추구하며 서원을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대 서원은 관학화가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으로 교육 기능을 보장 받게 된다. 실제 중앙집권적 체제의 관료 예비군 층을 양성하는 교육이 서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용적 기능에 착안하여 청말 지식인 계층과 외국인은 근대 교육을 수용하는 매개체로 서원을 활용하였다. 서원 운영자도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새롭게 학규를 제정해 나갔다. 이를 기반으로 청대 서원은 근대 학당으로 전면 개편될 수 있었다.

86) 『萬國公報』第666期, 1881年 11月 26日, “習西學以達時務 尤宜兼習中學以博科名 科名既成 西學因之出色”.

87) 박영순, 「상하이 중서서원과 ‘중서병중’의 함의」, 『중국학논총』 59,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8, 206~212쪽; 『萬國公報』第676期, 1882年 2月 4日, “舍西法而專事中法不可, 舍中法而專重西法亦不可”.

2. 17세기 후반~19세기 조선 서원과 학규

청대 서원의 학규는 정부의 정책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에서는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호응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렵다. 朋黨이 고착화되고 교조적 학풍이 지배하는 가운데 학규도 16세기의 것을 답습하였다. 따라서 17세기 후반 이후 예전과 비교되는 새로운 학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강학이나 제의 등 서원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完議나 節目으로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17세기 중반 이후 서원의 교육적 기능은 퇴색되어 갔다. 이와 관련하여 1657년(효종 8) 완성된 『宣祖修正實錄』의 史論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서원 설립은 명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주세붕이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竹溪에 백운동서원을 창설하여 先賢 安裕를 제사지냈고, 그 뒤 풍기군수 이황이 조정에 사액과 頒書를 청원하였다. 당시에는 자못 士子가 講業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잇따라 설립된 것이 나라 안에 겨우 10여 개소에 불과하였다. 당시 이황이 金宗直을 제사지내려 하자 문인 중에 부당하다고 의혹을 가지는 자가 있을 정도로 그때는 尊祀된 자도 적었으며, 서원만 있고 제사지내지 않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 나라 안에서 마구 본받아 “우리 고을에도 제사지낼 만한 賢인이 있다”고 굳이 청하면서 연달아 서원과 祠宇를 세웠다. 그러나 이때는 그래도 그다지 폐단이 심하지 않았는데도 上敎가 이미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서원이 없는 고을이 없고, 제사를 받는 자도 하찮은 사람이 많다. 儒籍이 役을 도피하는 소굴이 되어 絃誦의 미풍이 땅을 쓴 듯이 없어졌으니, 文弊를 운위할 것도 못 된다.⁸⁸⁾

위의 사론은 임진왜란 중인 1595년(선조 28) 선조가 서원을 門弊의 온상으

88) 『宣祖修正實錄』 卷29, 28年 7月 壬申.

로 지목하며 철퇴를 지시했던 기사의 논평이다. 이에 따르면 주세붕과 퇴계에 의해 서원이 운영될 때에는 講業의 효과가 있었지만, 1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尊祀 기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避役의 소굴이 되었다고 한다. 17세기 이후 교육 보다 존사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역·문중·학과에 따라 명현 및 현조를 제향하는 서원이 확산되어 갔다.

따라서 서원 설립에 가장 중요한 명분은 제향 인물이다. 특정 儒賢의 제향을 통해, 그로부터 이어지는 ‘道統’ 계승을 천명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해당 서원을 운영하는 사대부의 정치·사회적 위상으로 이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17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조선 학규는 종전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학규에서는 해당 서원의 당색 및 학맥을 가늠할 수 있는 조항이 확인된다.

먼저 礪山 黃山書院 竹林書院은 율곡·成渾·金長生을 제향한 서인계 서원으로서 1653년(효종 4) 김장생 문인인 俞榮[1607~1664]가 학규를 제정하였다. 〈竹林書院節目〉이라 불리는 학규는 유계가 황산서원 원장으로 있을 때 제정하였는데, 모두 9개조로 구성되어 있다.⁸⁹⁾

하나, 본원은 우리 동방의 道統正脈이 있는 곳으로 事體가 鄭重하고 더욱 自別함이 있다. 출입하여 藏修하는 사람은 이 뜻을 유념하고 더욱 스스로를 면려해서, 혹시라도 尊嚴한 곳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나, 居齋儒生은 … 德性의 薰陶와 志氣의 感發에는 『詩經』과 『禮記』 만한 것이 없다. 〈周南〉, 〈召南〉, 〈明倫〉 1편을 아침에 강하고 저녁에 외워서 날마다 정도로 삼고, 또한 遊息하는 사이에 〈夙興夜寐箴〉, 〈敬齋箴〉, 〈四勿箴〉, 〈白鹿洞規〉를 강독하고 모두 외워서 매일 나아지는 효과를 얻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 거재생 외에 공부에 뜻이 있어 책과 식량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饌物과 燈油를 모두 조치해주고 居接을 허락한다. 비록 舉業을 위한 사람이

89) 〈竹林書院節目〉은 ‘이경동, 「조선 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8, 256~258쪽 참조’.

있어도 이미 詩禮의 장소에 들어왔으니, 아침저녁으로 拜講과 講誦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齋生과 더불어 모두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 春秋享祀·朔望·焚香의 의절은 이미 예전의 규례가 있으니 별도로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 正齋하는 날 直月이 諸生을 거느리고 入齋하여 『소학』과 『孝經』, 程朱의 서적에 뜻을 두고 講究하는데, 文義에 의심나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尤庵[宋時烈]의 거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問目별로 나아가 질의한다.

하나, 色[여성]은 서원에 들어올 수 없고, 서책은 반출할 수 없는 것이 곧 退翁께서 문에다가 걸어두었던 규약이다.⁹⁰⁾

〈죽림서원절목〉에서는 먼저 도통을 강조하고 있다. 스스로 황산서원을 ‘道統正脈’이라 일컬으며, ‘주자·율곡·김장생’으로 이어지는 도통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당색 및 학맥에 대한 황산서원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덧붙여 宋時烈에게 文義를 질문하라는 규정도 당시 서인 계열 학자들의 계통 의식을 보여 준다. 한편으로 여성의 출입과 서책 반출 금지 조목은 퇴계의 〈이산원규〉를 준용하고 있다.⁹¹⁾ 서원에서의 교육은 程朱의 학문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공부를 위해 들어온 유생도 막지 않고 있다. 다만, 원생이 된 이상 과거 공부와 별개로 서원의 의절을 따르라고 규정하였다. 서원에서 과거 공부의 허용 여부는 그전부터 서원 운영자들이 고심했던 대목이다.

서인계 서원의 도통 의식과 과거 공부에 대한 고민은 朴世采[1631~1695]가 제정한 학규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박세채는 1673년(현종 14) 白川 文會

90) 『市南集』卷7, 雜著, 〈竹林書院節目〉, “一 本院吾東道統正脈之所在 則事體雖重 尤有自別 出入藏修之人 着念此意 益加自勉 毋或有貽累於尊嚴之地爲宜 … 一 居齋生外 有意工夫 挾冊裹糧而來者 饌物及燈由一體措置 許其居接 雖爲舉業之人 旣入詩禮之場 則朝夕拜講誦 不可不隨例爲之 與齋生一體做去爲宜 一 春秋享祀 朔望焚香之節 旣有前例 別無更論 … 正齋之日 直月率入齋諸生 小學或孝經 程朱之書 惟意講究 文義誨處 尤庵杖屨 方住邇地 問目就質 … 一 色不入書不出 乃退翁門局上所揭之規也”.

91) 『退溪集』卷41, 雜著, 〈伊山院規〉,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院의 학규인 25개조의 〈文會書院學規〉, 1693년(숙종 19)에는 坡州 紫雲書院의 학규인 21개조의 〈紫雲書院院規〉를 각각 제정하였다.⁹²⁾ 이 가운데 〈문회서원학규〉의 주요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나라에서는 皇朝에서 頻降한 사서오경으로 선비를 양성하고, 또한 『소학』과 『가례』로 시험을 치는데, 이것이 진실로 士子가 평소 講習하는 것들이다. 그 나머지 경전과 諸書·諸史 및 洛閩 諸先生의 遺文은 또한 모두 道學의 原本이자 性理의 淵藪이니, 또한 더해서 강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버리고 가는 것은 모두 正學이 아니니, 서원 안에서 誦讀하는 것을 금한다.

하나, 選士의 법은 少長과 貴賤貴는 上族, 賤은 校生과 庶派의 부류를 일컫는 대을 막론하고 오로지 뜻을 세워 학문에 힘쓰며 名行에 허물이 없는 자로 입학할 허락한다. 근래 고질적인 병폐가 오로지 교생들만 聖廟를 수호하고 사족과 有識者는 함께 하지 않으니, 지금 마땅히 그 습속을 痛革하여 사족과 교생을 막론하고 모두 鄉學에 入籍한 뒤, 그 중에서 학문에 뜻이 있는 자를 골라 서원에 별도로 입학시킨다. 대개 향학은 그 전체를 들고, 서원은 그 정수를 취하니, 각기 마땅히 거둘 바가 있다.

하나, 매월 朔望에 제생은 마땅히 巾服을 갖추고 西祠에 가서 中門을 열고 焚香한 뒤 再拜한다. 다음으로 東祠에 가서 처음과 같이 예를 거행한다. 물러나서 또한 庭珪禮를 거행하고 이어 강당에 올라 좌정한 뒤 〈白鹿洞教條〉와 〈학교모범〉 및 『소학』과 四書, 『근사록』, 『聖學輯要』 등의 책 약간을 통독한다. 차례대로 읽으며 한 번 돌면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 서로 어려운 것을 묻고 勸導한다.

하나, 서원에 들어오는 선비는 향교와 서원에서 議定한 일이 아니면, 절대로 邑率가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 院屬과 하인은 꼭 完護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教諭하고 檢飭하여 院齋의 여러 일이 아닌데, 使喚을 시키고 모질게 질책해서는 안 된다. 募入에 이르러서는 단지 보조를 얻어 모양세를 갖추는 것만 취하고 세속에 따라 널리 점유하여 국가의 大體를 손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

하나, 선현께서 향학 외에 별도로 서원을 설립한 것은 실로 향학에 과거와 법

92) 박세채의 서원 학규는 ‘박종배, 「남계 박세채의 서원교육 사상과 실천」, 『교육사학연구』 24-2, 교육사학회, 2014, 41~52쪽 참조.

령의 번잡함이 있어 강학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서원을 설립했는데, 오히려 옛 습속을 좇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소학교에 끝내 강학할 장소가 없으니, 그 근본이 없어진 것이다. 지금 마땅히 서원 밖에 별도의齋를 설치해서 과거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갑자기 강당 위에 올라 時文을 짓고 大戒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하나, 晦菴 선생이 백록에서 設敎하고 단지 계시를 말했을 뿐이다. 대개 학교에는 규칙이 있어야 하니 오히려 미진함이 있다. 그리하여 그 후 退·栗 등 諸賢이 또한 반드시 명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자 이산·문헌 등의 원규를 제정했으니, 지금 삼가 옛 것을 따라서 아울러 채용하여 이 규약을 이루었으나, 또한 미처 겨를이 없어 다 이루지 못하였다. 모름지기 다시 본 규약 중에 절목의 曲折을 상세히 두루두루 살펴서 소략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⁹³⁾

〈문회서원학규〉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마지막 조항에서 언급하였듯이 〈문회서원학규〉는 새롭게 제정한 것이 아니다. 처음 주자가 〈백록동규〉를 제정하였으나, 미진한 것이 있어서 우

93) 『南溪集』卷65, 雜著, 〈文會書院院規〉, “一 國家依皇朝御經四書五經以造士 又以小學家禮爲考試 此固士子素所講習者 其餘經諸書諸史及洛陽諸先生遺文 又皆爲道學之原本 性理之淵藪 亦不可以不加講習 舍是以往 皆非正學 並勿誦讀於院中 … 一 選士之法 勿論少長貴賤【貴謂上族 賤謂校生庶派之類】 一以立志向學名行無污者許入 第近日痼弊 專以校生守聖廟 而士族有識者不與 今當痛革其習 毋論士族校生 皆入籍鄉學 就中擇其有志學問者 別入于書院 蓋鄉學舉其全 書院取其精 各有攸當也 … 一 每月朔望 諸生當具巾服詣西祠開中門 焚香再拜 次詣東祠 行禮如初 退又行庭拜禮 仍升講堂坐定 通讀白鹿洞敎條學校模範及小學四書近思錄聖學輯要等書若干板 循其次序 周而復始 交相問難而勸導焉 … 一 入院之士 如非鄉校書院議定之事 則切勿干謁邑宰 … 一 院屬下人 切宜完護 且爲之敎諭檢飭 非院齋諸事 不宜便自使喚責罵 至於募入 只取資助成樣 不必循俗廣占 以傷國家大體 … 一 先賢必欲創立書院於鄉學之外者 實以鄉學有科舉令式之繁 不能專意於講學故也 今若立院而猶不免復循舊習 是於大小學校 終無講學之地 其本泯矣 今宜院外別設一齋 以待隸舉業者 使毋得輒升講堂 肆做時文 以犯其大戒 一 晦菴先生設敎白鹿 只日揭示而已 蓋以學之有規 爲猶未盡者也 然其後退栗諸賢 又必因名而責實 爲伊山文憲等院規 今謹略攷而并採之 以成此規 然亦有所未暇盡正者焉 須更就其本規中節目曲折 詳察互考 俾無疏略之歎”.

리나라의 퇴계·율곡이 각각 학규를 마련하였다. <문회서원학규>는 이들 선현의 학규에서 대략을 취하여 보완한 것이다.

둘째, 원생 선발에서 신분적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박세채는 원생을 뽑을 때 貴賤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賤은 향교 교생과 서류를 뜻한다. 당시 향교에는 신분 상승과 피역을 도모하기 위해 입학하는 교생이 많았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사대부 층은 교생을 기피하기도 했는데, 박세채는 이들 모두를 향교 校案에 등재한 후 학문에 뜻이 있는 자를 서원에 入院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율곡의 <은병정사학규>에서 서류의 입학을 제한하지 않은 조항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1693년에 제정한 <자운서원원규>의 원생 선발 기준에서는 신분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⁹⁴⁾ 이는 박세채의 신분관이 변한 것이 아니라, 두 고을 향촌 세력의 영향력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셋째, ‘주자·율곡’으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를 드러내고 있다. 원생들이 서원에서 의례를 마친 후 여러 성현의 서적을 통독하는데, 그 대상은 주자의 저술과 율곡의 <학교모범> 및 『聖學輯要』이다.

넷째, 서원의 독립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入院하는 선비에 대해 수령의 간섭은 배제하고 있다. <자운서원원규>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堂長·유사·장의·色掌 등의 원임 선발은 院儒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임에 의해 서원 재정이 관리되었다. 또한 품관 중에 院監을 뽑아 서원 재정을 감독하게 했다.⁹⁵⁾

다섯째, 지나친 원속 모임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선조수정실록』의 사론

94) 『南溪續集』 卷19, 雜著, <紫雲書院院規>, “一 取士之法 勿論長少 取其有志學業 名行無汙者 院儒僉議許入 會者未滿十員則不得定議 生員進士則直許入”.

95) 『南溪續集』 卷19, 雜著, <紫雲書院院規>, “一 推齋中老成有識者一人爲堂長 又擇年長者一人爲有司 又擇諸生中有志業者二人爲掌議 又擇年少者二人爲色掌 有司以下并備三望 受差于院長 堂長則齋會時推定 凡院中議論 掌議色掌主之 議于堂長而定之 凡院中財穀什物僕隸等事 有司掌之 又擇品官勤幹者一人爲院監 什物出納 多士供饋等事使掌之 逐物皆有記籍 交付于代者”.

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서원은 피역의 소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원은 피역을 도모하는 이들을 원속으로 모입함으로써, 재정 기반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원속이 많을 경우 그들에게 부과되던 균역과 각종 잡역이 다른 양민에게 전과되어 결국 국가 재정의 문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원들은 관권과 결탁하여 원속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었는데, <문화서원학규>에서는 서원 운영을 보조할 만큼만 원속을 지급받으라고 규정하였다. 박세채는 서원 증가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문화서원 스스로 규제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이다.

여섯째, 서원 내에서 과거 공부를 금지하고 있다. 박세채는 당초 서원을 설립한 이유가 과거 공부라 아니라, 도학 탐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과거 공부에 몰두했던 자는 서원에 들어오기 전 별도의 재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옛 습속을 버릴 시간을 가지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서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소학』과 『가례』, 여러 경전과 諸書·諸史, 그리고 성리서이며 나머지는 배척하고 있다.

이처럼 박세채의 <문화서원학규>는 원생의 입학 조건과 원속 모입 등 17세기 후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규정 대부분은 기존 학규를 따르거나 보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대부 계층에 의한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 학맥에 따른 도통 계보를 명확히 하고 있다.

18~19세기 학규도 세부적인 규정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大體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老論 滌論 계열의 학자인 李緯(1680~1784)은 1737년(영조 13) 龍仁 深谷書院의 학규인 18개조의 <深谷書院學規>를 제정하였는데, 도통과 과거 시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하나, 서원은 본래 士子 무리가 머물며 강학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으나, 근래 서원에서 유식하는 자는 다만 춘추향사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까닭에 서원은 선현을 향사하는 장소가 되어서, 그 이름만 남아 있고 실재는

없어졌다. 때때로 居齋하는 자가 있으나 科文을 익히고 雜書를 보는 것에 불과하여 講習의 미풍을 볼 수 없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이 후로 거재하는 자는 異端의 서적으로 보지 말며, 또한 齋中에서 과거 시험을 위한 문자를 짓지 말며, 오로지 의리에 관한 학설에 뜻을 두고 아침저녁으로 익힌다. 하나, 백록동은 서원의 시조이고 朱夫子의 학규는 말이 간략하고 의리가 극진하다. 또한 諸生이 스스로 몸을 닦는 방도로 율곡선생의 학규와 모범, 은병정사 학규와 약속만한 것이 없으니, 아울러 써서 벽에 걸어놓고, 거재 유생과 출입하는 자는 한 걸 같이 이것으로써 법을 삼아 행어나 넘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⁹⁶⁾

〈심곡서원학규〉 역시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배제하고 있다. 이재는 당대 서원의 교육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존사 기능만 남아 있는 것을 직시하면서, 서원에서 科文 공부를 금지하였다. 그는 과문을 異端 및 雜書와 같은 선상에 두고 서원은 도통을 익히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주자의 〈백록동규〉, 율곡의 〈은병정사학규〉와 〈학교모범〉이야 말로 서원에서 공부하는 원생이 꼭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하였다.

이재의 문인인 金元行[1702~1772]은 楊州 石室書院의 학규인 14개조의 〈石室書院講規〉를 제정하였다. 석실서원은 이재가 설립한 寒泉精舍와 더불어 18세기 율곡의 학맥을 계승한 노론 인사들의 대표적인 강학처였다. 〈석실서원강규〉에는 講長 선임, 講案 작성, 학습 교재 등 강회 전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 스승 이재가 제정한 〈심곡서원학규〉의 강회 규정을 발전시킨 것이다.⁹⁷⁾ 강회 후에는 〈백록동규〉, 〈학교모범〉을 읽었으며, 異端雜書는 배척

96) 『陶菴集』卷25, 雜著, 〈深谷書院學規〉, “一 書院本爲士子羣居講學而設 而近來游書院者 但以春秋參祀爲重 故書院只爲先賢享祀之所 有其名而無其實 往往或有居齋者 而不過習科文而觀雜書 未見有講習之美 可勝歎哉 此後居齋者勿讀異端之書 又勿做科業文字於齋中 惟專意於義理之說 朝夕肄習 一 白鹿洞是書院之祖 而朱夫子學規 辭約而義盡 且諸生自修之方 莫上於栗谷先生學規模範 隱屏精舍學規約束 并書揭于壁上 居齋及出入者 一以是爲法 無或踰越”.

97) 박종배, 앞의 논문, 2010, 65~66쪽.

하면서,⁹⁸⁾ <심곡서원학규>처럼 도통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소론계 산림 成近默(1784~1852)은 19세기 전반 무렵 8개조로 구성된 파주 坡山書院의 <坡山書院齋規>를 제정하였다. <파산서원재규>의 첫 번째 조항에는 成渾을 비롯해 파주 출신의 명현으로 파산서원에 제향된 4선생과 성혼의 학맥을 계승한 尹宜擧에 대한 尊崇 의식을 보이고 있다.⁹⁹⁾ 앞서 이재·김원행이 ‘주자-율곡’으로 이어지는 도통 의식을 바탕으로 학규를 제정했다면, 소론계인 성근묵은 자연스레 ‘성혼-윤선기’로 이어지는 학맥을 도통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서인계 서원은 ‘주자-율곡’, ‘성혼-윤선기’로 이어지는 도통 계보를 학규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영남의 남인계 서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南人 계열은 <이산원규>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서원 학규의 전거로 삼았다.

18세기 영남 남인과 퇴계학맥을 대표하던 학자 權相-[1679~1759]은 상주 지역의 남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서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곳에서 권상일은 강학과 알묘 등의 활동을 통해 영남의 남인 세력을 결집해 나갔으며,¹⁰⁰⁾ 여러 서원의 학규를 제정하거나 간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권상일은 상주 道南書院 학규인 9개조의 <道院條約>를 직접 제정하였다.

본원은 여러 선생을 봉안하는 곳으로 이곳보다 斯文의 重地인 곳은 없다. 무릇 원임과 入院儒生은 격려하고 勸發하여, 마음가짐과 일을 행할 때는 완전

98) 『溪湖集』 卷14, 雜著, <石室書院講規>, “一 講後又使直月讀白鹿洞規 學校模範等篇 模範分三節 每會. 以次讀之 又有餘力 則雖非當日所講 亦許紛議疑相質 但勿許異端雜書”.

99) 『果齋集』 卷5, 雜著, <坡山書院齋規>, “一 凡我坡鄉需林 無非尊崇我四先生 則皆吾同志之士也 苟能講習遺書 飭行勸學 則亦莫非聖賢之徒也 魯西先生與坡山齋儒書曰 瞻依松竹之遺逕 游永道德之餘波者 將復見於今日 於不美歟 如或出入斯院 而無向學之實 則將何顏周旋廟宇 依歸門墻乎”.

100) 이수환, 『『정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87~89쪽.

히 의리를 쓰고 말과 행동거지는 오직 예법을 따르되 조금도 放過해서는 안 된다. 朱夫子는 선생의 服으로 服하였고, 선생의 말씀을 말하고 선생의 행실을 행하였으니, 더욱 가슴에 품을 일.

학문을 일으키고 선비를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로 선배께서 서원을 설립한 뜻이니, 다만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낭비와 관련된 것은 모두 줄여서 院中 물력이 풍족해지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일에 전념할 일.

거재유생은 하나 같이 <이산원규>를 따르되, 만약 遵奉하지 않고 마음대로 방자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원임과 齋中이 논별하고 바르게 경계할 일.

원임이 올 때 거재유생과 더불어 경전의 뜻을 강론하는 것 외에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산원규>는 거재 때 중요한 것이나 근래 유생은 文詞와 과거 공부에 힘껏 마음을 쓰고 있으니 비록 거재할 때 독서를 하지만, 단지 문사의 용도와 과거의 재료일 뿐이어서 老先生[퇴계]께서 규약을 세워 선비들에게 권유한 본뜻과 크게 어긋난다. 비록 모두 그만둘 수는 없으나 일제히 모여 通讀해서 의리를 강론하는 것을 더욱 긴요한 일로 삼을 일.

거재하는 정원은 매년 서원 재용의 넉넉함과 부족함에 따라 가감하여 議定하되 많아도 5員을 넘지 않을 일.

원임은 매년 봄과 가을 和暖할 때 斯文의 여러 장로와 배우기를 원하는 데에 뜻을 둔 선비를 奉請하여 통독하면서 강론하되, 날짜에 제한되지 말고 1책을 究竟한 후에 파할 일.

應講과 製術하는 유생은 서원에 머물며 공부하는 것을 허기하지 말 일.

원중에 작을 일로 회집했을 때 쓸데없는 말로 부질없이 보내지 말며, 원중의 서책을 가져와서 강독하고 토론할 일.

과거의 글로써 선비에게 권하는 것은 學宮의 본의가 아니니, 白日場은 절대로 設行하지 말 일.¹⁰¹⁾

101) 『淸臺集』 卷10, 雜著, <道院條約>, “本院 是諸老先生奉安之所 斯文重地 無於此凡院任及入院儒生 瀟灑感發 持心行事 專用義理 言動舉止 惟遵禮法 毋得毫髮放過 而朱夫子服先生之服 言先生之言 行先生之行等語 尤當服膺事 興學養士 是第一件事 先輩立院之意 祇此爲重 凡干浮費 一切裁損 使院中物力贍足 得以專意致力於養士事 居齋儒生 一依伊山院規 若不遵奉而任意恣行者 院任及齋中論罰規警事 院任來時 與居齋儒生 講論經旨外 不得開談嬉話事 伊山院規 以居齋爲重 而近來儒生 着力專心於文詞及科舉 雖居齋讀書 而祇欲文詞之用 科舉之需而已 大有違於老先生立規勸士之本意 雖不可全廢 而齋會通讀 講論義理 尤爲緊切事 居齋禮數 每年院院用豐歉加損議定 而多不過五員事 院任 每於春秋和暖

〈도원조약〉은 권상일이 1725~1727년 도남서원 원장으로 재임할 때 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서원에 머물며 공부하는 居齋儒生의 학문 목적과 자세를 규정해 놓았다. 도남서원이 상주 지역을 대표하는 남인계 서원인 만큼 거재유생은 퇴계의 〈이산원규〉를 따르라고 했다. 서인계 서원에서 〈은병정사학규〉와 〈학교모범〉이 학규의 전거였다면, 남인계 서원에서는 당연히 〈이산원규〉가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해 권상일은 상주 近岳書院의 발문을 쓴 적이 있다. 근암서원은 권상일이 가장 활발하게 출입했던 서원인데, 1732년(영조 8) 여러 인사에 의해 학규의 草本이 만들어졌지만, 관련 인사들이 세상을 떠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초본을 근거로 새로 학규를 제정하였고, 권상일이 발문을 썼다. 권상일의 발문에는 이 학규가 〈백록동규〉와 〈이산원규〉를 근본으로 삼되, 강학과 관련된 절목을 더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⁰²⁾ 〈도원조약〉의 제정 방향도 이와 비슷하여, 〈이산원규〉의 대략을 따르면서도 당시 세태를 감안해 강학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도원조약〉에서 가장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거재유생의 강학이다. 평소 권상일은 강학과 과거 공부를 분리해서, 서원에서는 오로지 강학만하고 과거 공부는 서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¹⁰³⁾ 그렇기에 〈도원조약〉의

時 奉請斯文諸長老及有志願學之士 通講講論 而不限日數 究竟一冊後 乃罷事 應講及製述儒生 不許留院做工事 院中些小會集時 亦勿閒談浪過 出院中書冊 講讀討論事 勸士以科舉之文 非學宮本意 白日場 切勿設行事”.

102) 『淸臺集』 卷11, 跋, 〈近院學規跋〉, “壬子之秋八月初旬 竹厓吳公以本院洞主 奉邀息山李丈 且會士友若干人 講論古書于院之主一齋 又復曾與共公學規 草得十餘條而藏之 相一幸參會末 因竊得以與聞曾損之意 因欲動成是事 又與之相聯會 而其年冬 息翁棄世 翌年夏 公繼歿 竟未得成 … 而及冬 請齋儒讀書 且以草本謄寫他冊 奉藏于院中 後之繼是任者 有所遵仿愆行 而無少廢墜 斯文因是而倡明 多士以是而作興 則豈非茲院之幸耶 公又手寫晦翁之白鹿洞規 退翁之伊山院規 揭于壁上 蓋其草本以兩規爲根本 而就其中 加講學節目 使之論說義理 透明經傳而已”.

103) 이수환, 앞의 논문, 2016, 94~95쪽.

여러 조항에서는 서원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백일장을 실행하는 세대를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산원규>에서는 문장과 과거 공부에 대해 “文章과 과거 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두루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학문의 본말과 경중이 있으니 원생 스스로가 유념하기를 당부했었다. 그러나 권상일은 좀 더 강경한 입장에서 서원에서의 과거 공부를 금지하고 있다. 권상일은 과문 위주의 학습이 당대 세태와 기강의 문란을 낳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퇴계학과 인사에 의해 <이산원규>가 학규의 모범으로 활용된 것은 서원 운영만이 아니었다. 저술과 교육 정책에서도 <이산원규>가 적극 활용되었던 것이다. 예컨대 柳長源(1724~1796)은 家禮學 전문 禮書로서 30권 16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常變通攷』를 저술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學校禮’는 향교·서원 등에서 행하는 각종 의례를 고증한 것인데, <教法> 편에서 주자의 <백록동규>와 퇴계의 <이산원규>를 제시한 후 案說을 통해 “학교를 세우고 가르침을 베푼은 서울이나 지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院規를 ‘서원’ 조에서 따로 드러내지 않고 여기에 붙인다”고¹⁰⁴⁾ 하였다. 또한 柳致明(1777~1861)은 楚山郡守로 재임 중이던 1840년(헌종 6) 관내 향교를 중심으로 문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鄕校榜諭>를 내렸다. 그리고 이때 <백록동규>와 <이산원규>를 베껴 향교에 게시하며 학문의 指南으로 삼기를 당부하였다.¹⁰⁵⁾ 학규의 모범으로 <백록동규>와 <이산원규>를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레 ‘주자-퇴계’로 이어지는 도통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자신의 도통을 학규에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姜必孝(1764~1848)의 <講學立約凡例>가 주목된다. 이 규약은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인들에

104) 『常變通攷』卷27, 學校禮, <教法>, “立學設教 無中外之殊 故此兩院規 不別見於書院而附於此”.

105) 『定齋續集』卷8, 雜著, <鄕校榜諭>, “謹將朱夫子白鹿洞規 退溪先生伊山院規 謄寫一通 俾藏置學中 爲諸君指南 且以區區之意 略書類末于下方 願諸君體兩賢爲人之意 發奮向上 有意濟勸 則其詳具在方冊 願相與讀之”.

계 강학의 지침을 마련해주고자 제정한 것이다. 그 중 제7조는 “학규는 주자의 〈백록동규〉, 퇴옹의 〈이산원규〉와 〈書室儀〉, 西峯의 〈畫一圖〉를 절도로 삼는다”라고¹⁰⁶⁾ 규정하였다. 여기서 〈서실의〉는 성혼의 저서이며, 〈畫一圖〉는 尹拯이 만든 〈初學畫一之圖〉를 뜻한다. 즉, 영남 남인과 소론 계열이 각각 모범으로 삼고 있는 학규와 지침을 모두 학문의 절도로 제시하였다. 이는 강필효의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필효는 안동의 소론계 인사로서, 영남의 주류 학맥인 남인계 퇴계학과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두루 교유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포용적 입장에서 다른 학맥의 학규도 강학의 범례로 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학규는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변모하기 보다는 16세기 후반 각 학파의 명현에 의해 제정된 학규를 답습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전통적인 사대부 계층은 성리학적 이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향촌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백록동규〉, 〈이산원규〉, 〈은병정사학규〉 등 도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학규를 각 서원 학규의 전거로 활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조선의 사대부 층은 시대적 변화 속에 학규를 더욱 보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학규 해석은 서원 운영에 그치지 않았다. 학규가 가지고 있는 교육 본연의 목적과 별개로 구체제 유지와 정치 구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嫡庶 간의 갈등은 학규가 신분 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사례이다.¹⁰⁷⁾ 16~17세기 서원 학규가 제정될 무렵에는 서얼의 서원 입록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은병정사학규〉 등에서는 서얼 출입을 허용하였다. 이 시기

106) 『海隱遺稿』卷11, 雜著, 〈講學立約凡例〉, “一 學規以朱子白鹿洞規退翁伊山院規及坡山書室儀西峯畫一圖爲節度”.

107) 이하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 간의 갈등은 ‘이수환, 「18-19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유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참조.

에는 전통적인 사대부 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컸으며, 입록 가부도 원유의 공론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 서얼 許通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도 성장함에 따라, 서원 입록을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당시 옥산서원은 제향자 李彥迪의 적손 계열이 원임직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서손 계열이 원임직 소통을 요구하자, 적손은 퇴계의 학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다.

대개 옥산서원 원규와 학령은 곧 퇴도 노선생께서 講定하신 것입니다. 퇴도 선생은 이 규령을 먼저 순흥 소수서원에서 시행하였고, 이어 본 고을의 옥산·서악 두 서원에 나누어 가르치셨으니, 주부자의 <백록동규>와 함께 거행하고 삼가 지켜왔었습니다. 대개 그 규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設薦과 取士 제1건은 매우 중하고 엄한 규정입니다. 그 설천하는 법은 반드시 사족 가운데 문벌과 地望을 모두 갖춘 자로 고르고, 공의를 좇아서 가려 뽑으니, 조정에서 瀛館을 淸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父參을 보고, 다음은 母參을 보며, 또한 妻參을 보는데, 만약 三參에서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물리쳐서 薦錄에 끼지 못하게 합니다. 설천과 입록 때의 근엄한 절차는 비록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개 犯庶·犯民을 첫 번째 防限으로 삼습니다.¹⁰⁸⁾

위의 글은 1826년(순조 26) 옥산서원의 적손이 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博文 중 일부이다. 이들은 <이산원규> 외에도 소수서원에 퇴계의 학규가 있으며, 여기의 三參 조항을 근거로 서얼의 원임직 소통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해당 학규의 실체가 불분명하며, 정작 퇴계는 <이산원규>에서 서얼에 대해 전

108) 『玉院事實』 1冊, “慶州玉山書院儒生 幼學權致明李海祥李在佰 呈營門 … 蓋玉山書院院規 學令迺退陶老先生所講定者也 退陶先生 以此規令 先施順興之紹修書院 此以分教於本邑之玉山西岳兩書院 卽與朱夫子白鹿洞規 并行而謹守焉 蓋其爲規 不特一事二事 而設薦取士爲第一件 莫重莫嚴之規 其設薦之法 必取士族中家閥地望全脩者 從公議外 無異於朝家之瀛館淸選也 先觀父參 且觀母參 又次觀妻參 苟有一不足於三參 擯不廁錄 其設薦入錄時謹嚴節次 雖不敢繚縷 而槩以犯庶犯民 爲第一防限”.

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촌 사회에서 序齒에 따른 향좌법 시행을 주장하였었다. 이 향전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는데, 문제가 된 학규의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적인 사대부 계층이 자신들 주도의 신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규에 준법제적 권위를 부여한 사례로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학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보수 유림의 구호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881년(고종 18) 朝美修好通商條約이 추진되자 영남 유림 1만 명이 斥邪를 주장하는 반대 상소문을 올렸었다. 수백 명의 영남 유림이 疏行에 참여했는데, 중도에 결속력을 다지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소유들은 수시로 柑肆禮를 거행한 뒤 <백록동규>를 통독하였다.¹⁰⁹⁾ 특히 <백록동규>는 주자의 <朱子增損呂氏鄉約>과 더불어 19세기 후반 東學과 西學이 확산되는 가운데, 복고적 관점에서 斥邪說을 막고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려는 보수 유림의 구호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 학규의 전개 양상은 청대 서원의 학규와 맥락을 완전히 달리한다. 청대 서원은 관학화 이후 관료 예비군 층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규를 운영하였다. 반면, 조선 서원에서는 전통적인 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학규가 활용되었는데, 특히 각 서원을 운영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학과적 정체성을 학규에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IV. 맺음말

학규는 교육 과정과 운영 방침을 제정해 놓은 서원의 자체 규약이다. 이는 서원의 학문적 지향점과 계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정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109) 『疏廳日錄』, 辛巳 2月 14日, “朝後布陳少場 會員二百人行柑肆禮 使金鼎奎金絢輝 唱白鹿洞規夙興夜寐箴”; 15日, “午到龍仁府站 後開座於少場行肆禮 使金泌模趙永基唱白鹿洞規”.

남송의 이학자들은 으레 관학의 쇠퇴를 지목하였다. 이들은 ‘위인지학’이 아닌 ‘위기지학’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재 양성, 의리 강명, 그리고 ‘존현’의 장소로 서원을 적극적으로 설립하였고, 그 교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학규를 제정해 나갔다. 고려 후기 주자 성리학을 도입한 한국에서도 16세기 이후 주자의 서원관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레 조선의 사대부 층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계시〉를 학규의 전거로 삼고,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서원을 운영해 나갔다.

한·중 서원 모두 남송 이학자가 제정한 학규를 전거로 삼았으나, 서원의 전개 양상은 사뭇 달랐다. 왕조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서원 운영의 주체는 대응을 달리 하였는데, 학규를 통해 그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때로는 학규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도 했으나, 때로는 전통적인 체제를 고수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조선에서 서원이 운영되던 16~19세기를 기준으로 중국 명·청대 서원과 동 시기 조선 서원의 학규를 비교·검토하였다.

우선 명대에는 백록동서원의 〈속백록동학규〉를 통해 서원의 관학화를 극복하려던 정주이학 계승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16세기에 이르러 심학이 번성하였고, 〈교조시용장제생〉과 〈대과훈규〉와 같은 학규가 심학자 주도로 제정되었다. 이에 반해 17세기 초반에는 학문의 전환을 도모하는 이학자 집단에 의해 서원에서의 자유 강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학규로는 ‘동림회약’이 있다. 하지만 당대 많은 서원이 관부의 영향력 하에 관료 예비군 층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림회약’과 비슷한 시기 제정된 공학서원의 〈회규〉는 자유 강학을 추구하는 서원과 관학화된 서원의 이질성을 보여준다.

조선에서는 16세기 중반 백록동서원을 전거로 한 백운동서원이 처음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조선의 당국자들은 지방에서 사학 기관이 발달하는 가운데 명대의 관학화된 서원을 주목하였다. 얼마 후 공신 계열 인사인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설립되고 학규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이후 서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것은 주자 성리학을 발전시킨 사림 세력이다. 이들은

17세기 중반까지 서원을 성리학과 사림 세력의 부식처로 삼고 전국에 서원을 보급하였다. 아울러 각 학파의 명유들은 주자의 〈백록동서원계시〉를 계승한 〈이산원규〉, 〈은병정사학규〉, 〈원규〉[정규], 〈신산서원입규〉 등을 제정하였다. 이 무렵 성리학 발전은 '道統'의 분화로 이어졌으며, 각 학파는 경쟁적으로 서원을 설립하였다. 17세기로 접어들면 서원 학규에서도 학파별 계통 의식이 드러난다. 이에 서원 학규는 교육적 활용과 별개로 '도통'을 표방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는 관학화의 길을 걸으며 교육적 내용이 구체화 되는 명말의 학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청대 초기 이학자들은 명말 심학의 병폐를 지목하면서 서원에서의 자유 강학을 통해 학풍을 쇄신하고자 했다. 그런 가운데 강희 연간 제정된 관중서원의 〈학정〉과 〈환고서원회규〉는 이학으로의 회귀를 도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옹정·건륭 연간 서원 정책은 크게 일신된다. 중앙집권 체제의 강화 속에 지방 행정 조직과 연계하여 관학화된 서원 제도가 한층 더 정비된 것이다. 특히 변방에도 행정력과 교화가 미치는 가운데 서원이 건립되었고, 청해에서는 〈황청새외대통위삼천서원학약〉과 같은 학규가 제정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서세동점의 흐름 속에 신식 학문을 접목시킨 서원이 등장하였다. 이 무렵 제정된 〈중서서원과정규조〉에서는 중학과 서학을 함께 익힌다면 관직에 나간 후 능력을 더욱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서원들이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변모하였고, 결과적으로 서원이 근대 교육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서원은 교육 보다 제향 기능이 중시되었다. 향촌지배 세력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서원을 중심으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고자 했다. 17세기 후반부터 1868·1871년 전국적인 서원 毀撤이 이루어지기까지 〈죽림서원절목〉, 〈자운서원원규〉, 〈심곡서원학규〉, 〈석실서원강규〉, 〈도원조약〉 등의 여러 학규가 당대 명현에 의해 새롭게 제정되었다. 이들은 복고론적 입장에서 경학에 중점을 둔 학규를 제정해 나갔지만, 시대적 변화상을 학규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유력한 몇몇 서원에서는 서원 입원 자격에 신분적 제

약을 강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학규 해석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대적 흐름 속에 서원 학규의 지향점은 양 왕조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竹溪志』, 『常變通攷』, 『玉院事實』, 『疏廳日錄』, 『退溪集』, 『寒岡續集』, 『梅竹軒集』, 『市南集』, 『南溪集』, 『南溪續集』, 『陶菴集』, 『淸臺集』, 『定齋續集』, 『溪湖集』, 『果齋集』, 『海隱遺稿』
- 『明史』, 『明儒學案』, 『欽定學政全書』, 『西寧府新志』, 『東林書院誌』, 『共學書院誌』, 『還古書院志』, 『嵩陽書院志』, 『岳麓書院續志』, 『學海堂志』, 『朱子大全』, 『呂東萊先生遺集』, 『敬齋集』, 『王陽明全集』, 『泉翁大全集』, 『二曲集』, 『恒齋文集』
- 『申報』, 學生書局, 1965
- 『萬國公報』, 華文書局, 1968
- 구본옥, 「석담 이윤우의 사승과 교유에 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5.
- 공승도, 「청대 송양서원 생원모집 및 교학활동」, 『한국서원학보』 5, 한국서원학회, 2017.
- 김자은, 「퇴계의 서원관과 조선 후기 소수서원 강학의 변화」, 『퇴계학논집』 18, 영남퇴계학연구원, 2016.
- _____, 「조선시대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유학연구』 48,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2019.
- 김유리,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성립과정」, 『동양사학연구』 75, 동양사학회, 2001.
- 김홍길, 「명대 귀주성의 설치와 토착민의 저항」, 『동북아역사논총』 58, 동북아역사재단, 2017.
- 鄧洪波·趙偉, 「白鹿洞書院的建立背景與中國書院的變化—宋元明清—」,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박양자, 「주자의 서원관—특히 “백록동서원계시”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5.
- 박영순, 「상하이 중서서원과 ‘중서병중’의 함의」, 『중국학논총』 59,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8.
- 박종도, 「담약수의 수처체인천리 공부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종배,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한국교육사학』 28-2, 한국교육사학회, 2006.
- _____, 「중국 역대 제학관 제도의 변천」, 『교육사학연구』 20-2, 교육사학회, 2010.
- _____, 「학규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 _____,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교육사학회, 2011.
- _____, 「명·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 _____, 「남계 박세채의 서원교육 사상과 실천」, 『교육사학연구』 24-2, 교육사학회, 2014.
- 신현승, 「16~17세기 유교 학파의 관계성에 대한 일고찰-중국 명대 말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73,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8.
- 이경동, 「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8.
- 이광우, 「고·중세 한국 사학의 전통이 서원 출현에 이르기까지」, 『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이수환, 「18-19 세기 경주 옥산서원 원입직 유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 _____, 「조선조 영남과 청대 산동의 서원 비교연구-인적조직과 경제적 기반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0.
- _____,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 이우성, 「퇴계선생의 예안향약과 〈향좌〉 문제」, 『퇴계학보』 68, 퇴계학연구원, 1990.
- 이우진, 「왕양명의 용장오도 다시 읽기-용장의 생활을 중심으로-」, 『양명학』 59, 한국양명학회, 2020.
- 이학로, 「도광시기 광주신사들의 학문경향과 서정소개-학해당 학장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경북사학』 19, 경북사학회, 1996.
- 임근실, 「16세기 서원 학규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한국서원학회, 2018.
- 장의식, 「청말의 상해 격치서원 : 시대 변화와 그 한계」, 『중국사연구』 117, 중국사학회, 2018.

- 정석태, 「신산서원의 강학전통」, 『민족문화논총』 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정낙찬, 「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 『동아인문학』 21, 동아인문학회, 2012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朱漢民, 「중국 서원의 역사」,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 학규의 시기별 경향-16~18세기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3, 한국서원학회, 13, 2021.

Abstract

A Trend of Changes for Korean and Chinese Seowons through the Academic Regulations in 16~19th Century

Yi, Gwang-woo*

This thesis on comparative review of the trend of changes for Korean and Chinese Seowons through the main academic regulations in 16~19th Century. All Korean and Chinese Seowons had the academic regulation established by scholars of South Song Dynasty as represented for 「Baekrokdong Seowon Post」 of Chu-tze as their role model, but the trend of deployment for Seowon displayed different shapes following the historic flows. First of all, during the Ming Dynasty era of China, Simhak was prospering and the academic regulations of Ryonggang Seowon and Daegwa Seowon were established by the Simhak scholars. In early part of the 17th century, a new academic regulation of Donglim Seowon that criticized the decadence end of Samhak and emphasized the enlightening of learnings was newly established.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ized Seowons with the focusing on advancing the government officer reserve class was popular and this could be affirmed in the case of Gonghak Seowon that established the academic regulation in a similar period with Donglim Seowon. In Joseon, Ju Se-bung established the first Seowon, Baekwundong Seowon [Sosu Seowon], in 1543 and established its academic regulation, and the academic regulation at this time had taken the

* Yeungnam University / ikw38@ynu.ac.kr

nationalized Seowon in the Ming Dynasty as its model. However, with the noble scholar culture being matured thereafter, Yi Hwang and others walked the path of nationalized schooling, and unlike the general Seowons in Ming Dynasty where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more concrete, the academic regulation for the study of Confucius classics and led by the noble scholars with the exclusion of past study patterns and interruption of government authority was established. The scholars of early Qing Dynasty pointed out the ill-effected Simhak at the end of the Ming Dynasty and placed effort to re-establish the enlightening of learnings. This type of phenomenon could be found through the academic regulations of Gwanjung Seowon and Hwango Seowon established by the scholars during the reign of Gang Hee. Under the reinforcement of the central power system during the reigns of Ongjeong and Geonryung, the nationalized Seowon system was even more well-established. In particular, with the administrative impact and edification influencing in the regional sectors, Cheonghae had the academic regulation of Samcheon Seowon established. After the mid-19 century, there were Seowons that blended new western learnings, and like Jungseo Seowon, such a trend was reflected in the academic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the Seowons in the later Joseon had its importance as an organization for locale and memorial services rather than educational purposes. The local controlling forces attempted to sustain the traditional values with the Seowons leading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decree to abolish the Seowons, a number of academic regulations were newly established under the well-known sages of the Tang Dynasty, but the contents had strong retro characteristics. Rather, some of the well-established Seowons strengthened the restrictive social status for the admission qualification, and in the process, serious conflicts occurred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such academic regulation.

Key word : Seowon, Academic Regulation, Baekrokdong Seowon, Chu-tze, Yi Hwang

논문 투고일: 2022. 05. 31 심사 완료일: 2022. 06. 14 게재 확정일: 2022. 06. 20

19세기 韓中서원 자료를 통해 본 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慶州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이 병 훈**

- I. 머리말
- II. 19세기 초·중반 경주 옥산서원 방문의 성격
- III. 19세기 말 광주 광아서원의 입원생과 운영
- IV. 맺음말

【국문초록】

동아시아 서원들 가운데 한국의 서원은 방문객의 명단을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 해왔다. 그러나 여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방문객의 수와 신분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入院하여 과거를 준비하였던 학생들의 명단이 일부 남아있어서 서원을 출입하였던 인물들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설립된 중국 廣州의 廣雅書院 《동사록》과 《동성제생하계공과부》를 보면 省내 각 주·부·현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거 입원하여 일정기간 동안 수학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주·부·현 소재 관학생들이지만 監生·貢生·貢士·拔貢과 같이 國子監에서 수학했거나, 舉人和 같이 鄉試에 합격했던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각 지역의 紳士들로서 모두 중앙관료로의 진출을 위한 科擧 준비가 목적이었다. 광아서원은 광주성을 대표하는 省書院으로서 국자감 다음의 지위를 가졌기에 관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많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학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yukhl@ynu.ac.kr

경주 옥산서원은 동방오현으로 추앙받는 회재 이언적을 제향하고, 건립직후 사액을 받으면서 국학에 준하는 지위를 얻었다. 조선의 서원은 원칙적으로 과거준비를 배척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제향과 강학을 통한 원생들의 인성함양을 기본으로 했지만, 과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문접을 시행하였다. 이때는 다른 고을과 원외의 유생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각종 儒會의 장소로서 활용되면서 중국에 비하여 정치·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졌다. 서원의 출입자는 대부분 士族들이었으며, 중앙관료부터 일반 유생까지 다양하였다. 이것은 서원의 위상에 따라서 차이가 컸는데 옥산서원은 영남의 首院으로서 방문객이 매우 많았다.

19세기 옥산서원은 적서 간의 분쟁이 심화되었던 1820년대 초반, 1850년대 중반과 구인당을 중간하여 낙성식을 거행하였던 1840년에 향내외에서 많은 인사들의 방문이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경주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영천·대구·영해·인동·선산·군위·성주 등 영남의 중부지역 인사들의 방문이 많았다. 특히 과거가 있던 해에는 사마시에 입격하거나, 문과에 급제한 후 내방하여 알묘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주로 일족과 동행하였다. 19세기 옥산서원을 방문하는 인물들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이것은 양반수의 증가도 있지만 쇠퇴하는 서원의 교육적·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유지하려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서원, 방문객, 심원록, 옥산서원, 광아서원

I. 머리말

동아시아 각국 서원의 위상은 관립과 민립에 상관없이 내원하는 인물들의 수적 다소와 질적 수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런 수적, 질적 차이에 영향을 준 것은 각국이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국왕의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국왕의 관심은 해당 서원을 대표하는 제향자 내지 건립자, 師儒였는데 모두 학문적 명성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에서는 국가 주도로 건립된 爛柯書院과 崇正書院, 민간이 건립한 福

江書院이 확인된다. 이들 서원은 과거를 통한 관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¹⁾ 이곳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스승의 학문적 위상에 따라서 원생들의 규모에서 차이가 났다. 그래서 해당 스승이 사망했을 때에는 서원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처럼 스승의 권위가 서원의 위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의 유학자인 나카에 후지키[中江藤樹]가 1648년에 건립한 후지키 서원[藤樹書院], 쿠스모토 바타야마[楠本端山]가 1882년 설립한 鳳鳴書院 등이 확인된다.²⁾ 이곳들은 주자학과 양명학을 교육하는 점에서 한중서원과 유사했다. 하지만 강학과 제향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한국서원과 관인양성을 위한 과거 공부를 시행한 중국서원과는 성격이 달랐다. 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유학교육기관 역시 메이지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건립이 되었다. 에도시대에는 무사를 교육하는 藩校와 일반농민·상민의 각 직능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였던 郷校, 寺子室, 私塾이 있었다. 이 가운데 漢學塾에서는 명말청초 東林書院의 新朱子學과 劉宗周의 新陽明學이 학습되었다. 일본의 서원 내지 한학속도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명망에 따라 학생들의 수요가 달랐다. 즉 스승의 명망이 해당 서원의 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다만 일본에는 과거제도가 없었기에 유학교육이 관인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중국의 서원은 국가와 민간에서 건립한 것이 양립하였다. 청대의 省會書院은 중앙의 국가감 다음의 위상을 가졌으며, 국학인 주·부·현학에 비교해도 더 높은 위상을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간 설립 서원은 그 주체에 따라 가족서원과 향촌서원으로 구분되었으며 국학에 비하여 지위가 낮았다. 이런 민간 서원 가운데에도 예외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졌던 서원들은 명망있는 학자가 건립하고, 그의 학통을 이어서 학술적 지위를 확보한 서원들이었

1)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The Netherlands), 2020, 89~125쪽.

2)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61~74쪽.

다.³⁾ 이처럼 중국서원은 건립주체에 따라서 서원의 위상이 구분되었다. 이것은 청대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뛰어난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관립서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수한 스승을 초빙하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서원의 격을 높이고, 나아가 우수한 학생들의 유치로 이어지면서 서원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은 유학을 교육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국의 사회·정치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은 관인양성과 교양 함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뛰어난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그 스승의 학설을 계승하여 학파로 발전하는 모습은 중국에서만 확인된다. 한편, 서원을 출입하였던 자들은 일상생활을 보조하던 인물들을 제외하면 주로 그곳에서 수학하던 학생들로 추정된다. 국가의 관심이 컸던 서원에는 관료와 지방의 유력자들이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국서원의 경우에도 人名簿는 대부분 서원에서 기속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했던 자들의 명단뿐이다.⁴⁾ 이들 자료는 대체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로서 19세기 이전의 서원 출입자는 산장과 훈장 및 의연금을 내었던 기부자들의 명단이 일부 전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들 자료 역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산재되어 있어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던 한국은 유생의 도덕 수양을 교육이념으로 삼았던 주자의 서원 건립취지를 강화와 제향, 그리고 건물의 구성과 명칭 등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실현하였다. 하지만 16세기 중

3) 陳谷嘉·鄧共波, 「第二章 書院的等級差異」, 『中國書院制度研究』, 浙江教育出版社中國, 1997, 55~103쪽.

4) 鄧共波 主編, 『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 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8.

5) 鄧共波, 『書院學檔案』, 武漢大學出版社, 2017; 鄧共波 主編, 앞의 책, 2018.

반 처음 백운동서원이 건립되었던 당시에는 쇠퇴한 관학을 대신하여 관인을 양성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서원의 기본 이념을 강학과 제향을 통한 畵人敎育으로 바꾼 자가 퇴계 이황이었다. 그러나 서원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려는 유생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서원은 외면상 과거를 등한시했지만 실제로는 유생들의 과거 준비를 지원하였다. 조정에서도 서원의 역할을 인정하여 사액을 통해 관학에 준하는 자격과 지원을 하면서 서원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

조선의 서원은 임진왜란 이후 정치·사회적 기능이 커지면서 강학과 제향만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유생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로서도 기능하였다. 하지만 18세기 이래로 서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단이 나타났다. 또한 서원의 남설로 인해 제향 인물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면서 서원의 위상이 추락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서원의 교육·교화적 순기능이 쇠퇴하면서 조정에서는 서원에 대한 통제책을 강력히 시행하였다. 한편으로는 문묘중사 대현을 제향하는 사액서원에는 이전의 혜택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지방관의 지원이 없는 서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였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강학보다는 제향의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 나아가 일반서원은 藏書를 갖추거나 儒齋를 주관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것은 사액서원과 일반서원, 대현 서원과 일반 서원 사이의 위계를 더욱 분명하게 나누었다. 이런 차이는 각 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적, 질적인 면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의 서원도 유명한 학자가 건립을 주도하거나, 강학을 시행하면 많은 유생들이 모여들었다. 제향인의 위상이 높아도 해당 서원을 방문하여 알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서원을 방문하는 자들은 조선의 엘리트계층인 士族들로서 서원에서 강학을 하거나, 謁廟 혹은 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들렀다. 서원 측은 방문객이 증가할수록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방문한 자들의 신분이 높거나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이 많을 경우 그것은 서원의 위상을 提高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방문객의 성명을 『書院錄』, 『到記』로

남겨서 서원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심원록』은 다른 고을 출신으로서 명망있는 가문의 후손만이 성명을 남길 수 있었다. 『도기』는 서원에서 발생하였던 향사 내지 유회 등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명단으로서 그만큼 서원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서원이 위치한 본邑뿐만 아니라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타고을 인물들도 함께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서원 운영을 담당했던 원임과 원생들의 명부도 많이 남아있다. 이처럼 한국서원에는 다양한 목적으로 제작된 인명부가 다수 남아있다.

본고는 서원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가졌던 사회적 위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과 실제 그들이 방문했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을 제외한 중국·일본·베트남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한계로 인해 한국서원을 중심으로 일부 자료가 남아있는 중국서원의 사례를 비교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국의 서원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위와 운영 시기도 유사해야 한다. 이에 영남을 대표하는 경주 옥산서원과 廣州를 대표하는 廣雅書院을 대상으로 하고, 광아서원의 자료가 남아있는 19세기로 시기를 제한하였다.⁶⁾ 당시 양국 서원의 내외부적 여건이 다르고, 현존하는 자료도 질적·양적인 차이가 많이 나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여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양국 서원의 다양성을 확인하는 사례연구로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6) 옥산서원의 자료는 필자가 이전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하였다. 광아서원의 자료는 등홍파 주편(2018)의 『중국서원문헌총간』(제일집) 86책의 「廣雅書院司舍錄」과 89책의 「廣雅書院東省諸生夏季功課部」를 대상으로 하였다. 등홍파 교수는 『중국서원문헌총간』(제이집) 100책과 『중국서원문헌총간』(제삼집) 100책 등 총 300책의 자료를 영인하였다. 필자는 이 가운데 제일집의 100책만을 검토하였다.

II. 19세기 초·중반 경주 옥산서원 방문의 성격

옥산서원에는 서원 방문객의 명단인 『심원록』과 『본향심원록』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각종 행사나 유희에 참석하였던 인사들의 명단인 『到記』도 있다. 『심원록』이 경주 밖 인사들의 명단이라면, 『본향심원록』은 경주내 인사들의 명단이다. 반면 사안에 따라 작성한 『도기』에는 향내외의 인사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서원이 건립되던 1573년(선조 6)부터 기록된 『심원록』은 1875년(고종 12)까지 31,225명이 수록되어 있다. 반면 『본향심원록』은 1756년(영조 32)에 처음 작성되어 1875년(고종 12)까지 22,260명이 수록되어 있다.⁷⁾ 『심원록』의 입록은 타 지역 방문객의 신분과 지위 등을 확인하여, 알묘 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기에 선별된 인사만이 기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약 300년간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했다는 것은 옥산서원을 방문했던 관료 및 지방관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족가문의 인사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나타낸다.

7) 일반적으로 서원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족들이 외부 인사들에 비하여 방문하는 인원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한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은 각종 향례와 유희 등에 참석하기 위해서나 강학과 유람 등의 기타 사유로 수시로 방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향 출신들의 방문시 방문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옥산서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1756년(영조 52)부터 『본향심원록』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첫째, 옥산서원에 출입했던 경주부내 先父老들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내 인사들의 방문 내역을 기록하여 후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는 院僕들의 사기로 폐단이 누적되어 서원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문자들의 성명과 동행한 奴馬, 숙박 유무 등을 기록하고, 그날의 『庫子用下記』를 서로 비교하여 매일의 사용하는 것을 점검할 목적에서 만들었다. 실제 『심원록』에서도 1804년(순조 4) 4월부터 방문객과 동행한 노비와 말의 수를 기재하고 있다. 이 역시 『본향심원록』의 제작 목적과 같이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이병훈, 『조선 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97~111쪽)

〈표 1〉 19세기(1800~1875) 옥산서원 방문객 현황

연도	인원		연도	인원	
	심원	본향		심원	본향
1800	86	79	1838	310	213
1801	117	50	1839	204	99
1802	133	76	1840	215	-
1803	198	61	1841	157	-
1804	157	44	1842	261	-
1805	152	40	1843	201	239
1806	165	212	1844	195	238
1807	222	414	1845	252	129
1808	174	252	1846	151	192
1809	212	342	1847	143	230
1810	223	190	1848	263	331
1811	246	196	1849	196	319
1812	122	216	1850	207	1,229
1813	298	197	1851	230	754
1814	365	201	1852	194	890
1815	351	158	1853	214	506
1816	273	288	1854	318	438
1817	202	237	1855	194	416
1818	264	194	1856	179	202
1819	275	204	1857	300	-
1820	235	236	1858	274	49
1821	194	258	1859	214	557
1822	228	270	1860	-	508
1823	205	67	1861	219	470
1824	204	293	1862	188	468
1825	280	218	1863	152	469
1826	214	200	1864	408	540
1827	294	243	1865	356	299
1828	324	329	1866	294	142
1829	202	280	1867	127	199
1830	191	257	1868	187	282

1831	249	370	1869	214	381
1832	377	422	1870	179	336
1833	667	406	1871	166	-
1834	477	391	1872	187	-
1835	299	54	1873	68	569
1836	368	213	1874	161	547
1837	152	256	1875	30	127
계	심원록	17,203	계	본향심원록	20,782

그런데 19세기에는 75년간 전체의 55%인 17,203명이 방문하여 연평균 229명이었다. 반면 경주부 출신은 20,782명으로 연평균 277명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서원 소재지 인사들의 방문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외부 방문객과 부내 방문객의 수가 비스하다는 것은 부내 인사들의 출입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서원의 경영난을 꼽을 수 있다.⁸⁾ 그래서 부내 인사들의 방문은 삭망분향이나 향회, 원회 등의 모임으로 제한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1846년(현종 12) 3월 이후 『본향심원록』에 기재된 인사들의 방문목적을 보면 삭망분향과 춘추향사 및 향회 등에 집중되어 있다.⁹⁾ 그 이전까지는 ‘與客來宿’, ‘歸路來宿’,

8) 『본향심원록(을해 5월)』, 을해(1815) 9월 1일. “近來院力凋殘 不堪費用 且下記從中弄幻 所謂文簿間多浮濫 自今以後 無論任司有無 到院後其還宿期限 及奴馬有無 亦一一詳書 望有日後 憑據文簿 之地幸甚. 乙亥九月初一日 齋任李(手決)”. 원력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1815년 9월 1일부터 임사라 하더라도 유숙한 기한과 奴馬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한편 옥산서원은 1834년 정혜사 소실로 인한 문집판각 건립, 1839년 구인당 화재로 인한 건물 신축 및 오래된 건물의 개·보수 및 원유 이탈의 가속화 등으로 재정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1839년(현종 5)의 치제는 서원의 위상을 쇠신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원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그 결과 1846년부터 부내 인사들의 서원 출입을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9) 『본향심원록』에서는 1846년 3월 21일의 鄉會이후 4월 1일부터 분향례와 향사, 향회 등 공식적 행사에 참여한 인원만을 기록하고 있다. 기타 유숙하는 인원은 이때부터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憩’, ‘巡使來到時’, ‘墓祀時來宿’, ‘定惠寺去路’, ‘行路留宿’, ‘科行’, ‘滯雨來宿’이라 하여 일상 속에서 편안히 방문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때 부내 방문객은 ‘醮行時祇謁’, ‘帶恩祇謁’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전체 『심원록』(1574~1876)을 보면 1773년(영조 49)부터 방문객이 급증하여서 1774년(영조 50) 423명을 정점으로 평균 방문객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것은 1772년(영조 48)의 서류허통이 허가된 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원래 『심원록』에 기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世族이어야 가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읍 출신 新鄕들에 대하여 모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경주에서는 1775년(영조 51) 옥산의 이전인 후손들이 옥산서원 참알을 요구하면서 적서간의 분쟁이 발발하였다.¹⁰⁾ 당시 곡산한씨를 비롯한 부내의 노론들도 개입하면서 분쟁이 확산되었다. 이에 옥산서원에서 서파의 참알을 막고, 신향들의 도발에 도내 사림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연락한 결과, 춘후를 앞둔 시기에 안동과 예안, 의성 등지에서 119명이 방문하였다.¹¹⁾ 이처럼 1773~1775년 사이 방문객이 많은 것은 조정에서의 서류허통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다. 나아가 1777년(정조 1)의 「서얼허통절목」이 반포되면서 신향들의 서원 참배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세기에도 방문객이 급증했던 1850년대 초반은 신구향간의 대립이 심각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19세기의 방문객 수가 이전보다 고르게 높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족의 수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¹²⁾

『심원록』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하였다. 그렇기에

10) 이수환,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6·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11) 『심원록』(剛), 乙未(1775) 2월 3일. 방문객들은 대부분 의성, 예안, 안동, 의흥, 영군, 순흥, 영천(榮川), 풍기, 예천, 군위, 인동, 함안, 상주, 칠곡, 고령, 밀양, 청송 등지에서 왔다. 특히 안동과 예안, 의성의 인사들이 많았다.

12) 송양섭, 「19세기 幼學層의 증가양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방문객의 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서원의 위상이 높았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문객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족의 증가 외에도 그만큼 서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실제 방문했던 인물들의 출신과 방문목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심원록』에 기재된 모든 인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는 방문자들이 대부분 留宿을 목적으로 한 過客들이었으며, 일부는 滯雨, 질병, 大風, 醜行 등으로 잠시 머물거나,¹³⁾ 친인척을 방문했다가 알묘하는 경우였다.¹⁴⁾

옥산서원 인근에는 龜江書院(이제현, 경주이), 東江書院(손중돈, 경주손), 雲泉書院(이언팔·권덕린, 여주이·안동권), 雲谷書院(권행·권산해·권덕린, 안동권), 三緇祠(이희룡, 이문진·妻김씨, 옥구이), 丹溪祠(권복흥, 안동권) 등의 원사가 산재해있었다. 그럼에도 옥산서원에 과객이 많았다는 것은 경영난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예우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내방객에 대한 음식 공궤는 전란이후인 17세기 초반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유지했었으며 그런 전통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¹⁵⁾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도 큰 피해 없이 건물을 보존하고, 사액이후 국가로부터 받았던 서적들도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된 서원 가운데 옥산서원과 같이 원형을 보존한 것

13) 『심원록(帝)』, 계미(1823) 7월 12일. “海州 崔南憲, 崔璽 聞慶, 七月十二日來宿以病十三日留”; 『심원록(制)』, 임진(1832) 7월 16일. “永陽 崔啓運 以病留宿”; 11월 7일. “密陽 朴天欽, 朴遠浩 以醜行來宿 六奴三馬”.

14) 『심원록(始)』, 기축(1829) 3월 회일. “全義 李在翹 李在翹 祗謁”. 이재환(1780~?)과 이재익(1784~1854) 형제는 성주에 거주했다. 이들은 1828년 이재환이 진사에, 이재익이 문과에 급제한 후 외가(외조부 李鼎宅, 1782 원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서원에 들렀다. 한편, 알묘를 위해서는 복식을 갖춰야 했지만, 1836년 李以會 등은 道服이 없어서 알묘를 못하기도 했다.(『심원록(位)』, 병신(1836) 5월 4일).

15) 1912년 「完議」. 옥산서원은 소작인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이들이 방문객들에게 서원서 제공하는 닭과 음식을 제공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했다.(1912년 「完議」,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은 도산서원과 소수서원 등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을 방문한 자들은 내사된 서적과 이언적의 친필 저서들을 열람하고, 서원의 건물과 편액을 둘러본 후 이언적이 머물고 거닐었던 독락당과 주변 경관을 감상하였다.¹⁶⁾ 이외에도 『심원록』에서 과거에 방문했던 先祖의 서명과 감상을 적은 글을 보고 더욱 옥산서원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그래서 거듭 옥산서원을 방문하거나, 서원을 방문한 소회를 시로 남기는 자들도 있었다.¹⁷⁾

일례로 1818년(순조 18) 10월 30일 서원을 방문한 逸圃 朴時源(1764~1842)은 50여 세가 되어 옥산서원을 방문하게 된 것에 대하여 소회를 적었다. 그는 자신의 선조인 朴承任이 강계에서 화재의 사당 기문을 지은 것과 그 후손인 자신이 옥산을 알묘하는 대를 이은 인연을 말하였다. 또한 서원 내 무변루, 구인당, 체인묘 등 건물 명칭의 의미와 화재의 학문에 대한 사색을 이어갔다.¹⁸⁾ 1818년 3월 22일 옥산서원을 방문한 溍隱 姜必孝(1764~1848)는

16) 『심원록(임진십이월)』 계사(1833) 3월 1일. “瞻先生遺址 三員(李禹圭, 李光林, 李大奎)午後去 三員足困故宿二夜去.”

17) 『심원록(龍)』, 경진(1820) 3월 13일. “潘南 朴綺壽 萊尹동래부사 遞歸路 庚辰三月十三日 祇謁 玉峯千仞秀 喻道未爲尊 有寶非藏櫃 敷榮自晦根 九經精義衍 百世嚴師存 隣近陶山院 嶠南理學源 右萊尹瞻拜之日 題于別簡留置 院中者恐日後混入於休紙 故騰書題名下.”; 4월 10일 “永嘉 權迪 居尙州四月初十日來宿祇謁 玉院謹次萊尹韻 吾道南來久 先生北斗尊周思 □□月後學 躡天根九義開 無蘊十條驗 所存紫奚胤 不書千古淵心源 後學權適敬題.”; 5월 3일 “永川 崔墿 三日午前來宿祇謁 居慈仁 奴馬 謹次萊尹文郁書 海東鳴紫玉廊廟 按時棟幽光退老 闡□晦終無□山 得先生尊儒林 培道根餘教後人 存武夷同一原.”; 7월 21일. “密城 朴廷相 東瞻同月二十一日宿謁 居清道 率奴馬 無邊樓外也遺風 吾道千年自在東 欲濯新纓猶不得 源頭舌水古今同 東瞻敬題.” 이들 외에도 다른 방문객들이 남긴 詩文이 다수 남아있다. 『심원록(炎)』, 신미(1811) 9월 20일 趙始春; 9월 10일 曹允武

18) 『심원록(朔)』, 무인(1818) 10월 30일. “樊南 朴時源 樞實 同月晦祇謁.”; 『逸圃集』 4, 識跋, 「書玉山書院尋院錄後」. “昔吾先祖嘯阜公 嘗撰江界府晦齋先生祠堂記 以爲江州卽先生之一涪江 惟此玉山 實先生之武夷也. 小子每閱先集 采增景慕 私竊以爲江州之祠遜矣. 瞻拜固無路 生於嶺五十餘歲 一未拜玉山廟者 實後學頹頹之致也. 常自訟不暇 是歲之陽 策蹇遊東南 進到于本院 溪山水石 藹然遺馥之襲人 而夜宿求仁堂 朝謁羅體仁廟 書閣叩閣 左瞻右趨 彷徨有洙泚不能去之意 誠幸矣. 朱夫子謁滄溪祠 登光風霽月亭 講太極圖旨義 今此無邊樓 卽光霽亭也. 而韓晉登眺 未

윤증의 학통을 이은 소론계 학자로서 방문 당시 『太極圖說』을 주제로 講會를 개최하였다.¹⁹⁾ 강필효의 강회는 당시 옥산서원에서 文會와 講會, 旬題 등의 강학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이전 강학기능을 상실한 서원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옥산서원의 강학 활동은 서원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방문객의 증가에도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1809년(순조 9) 8월에는 강회가 개설되어 향내에서 26명, 향외에서 6명이 참석하였다.²⁰⁾ 같은 해 6월에는 열린 문화에는 36명이 참석했지만, 1812년(순조 12)에는 42명, 1820년(순조 20) 46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²¹⁾ 순제는 1818년(순조 18)부터 1821년(순조 21)까지 매년 詩賦와 義疑를 구분하여 시행하였다.²²⁾ 이것은 居接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었다. 당시 순제에 응시한 자들은 1818년(순조 18) 60명, 1819년(순조 19) 49명, 1820년(순조 20) 44명, 1821년(순조 21) 89명으로 식년을 앞두고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1821년(순조 21)에는 영일과 흥해에서 14명이 순제에 응시하였다. 당시 구체적인 운영이나 課題, 시상 내역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부남의 용산서원에서 순제가 課試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옥산서원 역시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옥산서원에서 순제는 확인되지 않는데, 그것은 막대한

識無邊之爲甚意思 則顧可論而門太極辨箋旨哉 只喜其伸宿願也 忘其出陋 書此以歸云。”

- 19) 『심원록(朔)』, 무인(1818) 3월 22일. “晉山 姜必孝 仲順 祇謁”; 3월 23일. “夏山 成近默 聖思 同月二十三日 以慶山令 祇謁”. 당시 경산현령이었던 제자 成近默이 배종하였다; 成近默, 『果齋先生集』 卷1, 詩, 「會海隱姜先生于玉山書院 講太極圖西銘 玉山講義及仁說 敬次先生韻 二首, 戊寅」; 卷8, 遺事, 「海隱先生遺事」. “戊寅(1818) 杖屨之遊紫玉山也 小子時任慶山 趨拜於玉山書院 夜讀玉山講義一通 性理名目 得以粗聞也 和明翁玉山詩一絕 又有東京詩五律”
- 20) 『본향심원록』 기사(1809) 8월 1일, 『심원록(河)』 기사 8월 1일. 향외 인사로는 金麟運, 金龜運, 金興壽, 宋文度(칠곡), 崔興發(대구), 柳始春(안동), 張秉德(성주) 등이 확인된다.
- 21) 『본향심원록』 기사(1809) 6월 15일, 임신(1812) 6월 13일, 경진(1820) 8월 12일.
- 22) 『旬題計劃榜目』(戊寅 6月12日 ~ 辛巳 8月17日).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²³⁾

그러나 방문자 가운데에는 제향자인 이언적을 존모하여 謁廟를 목적으로 오기도 했다. 이들은 대체로 신입내지 체임되는 지방관이거나, 巡歷중인 관찰사 내지 과거 급제자들이었다. 특히 과거급제자들은 특별한 연고가 없더라도 동방오현의 일인으로 문묘에 배향된 이언적을 존송하여 내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마시와 문·무과에 급제한 인사들은 경주와 안동을 중심으로 경상 좌도에 대부분 거주하였다.²⁴⁾ 이런 현상은 일반 방문객들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9세기에는 경주를 중심으로 인근의 영천, 영해, 영덕, 흥해, 대구, 울산, 밀양, 청도, 청송, 의성, 선산, 군위, 의흥, 신령, 경산 등지에서 방문이 집중되었다. 이런 현상은 18세기 말 이래로 더욱 심화되어온 현상이다.

옥산서원은 이언적이 이황과 더불어 영남 남인의 정신적 지주였다는데서 일찍이 남인계 입장을 대변했다. 그 결과 인조반정 이후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안동과 상주권 인사들의 방문이 계속 증가했다. 반면 진주권 인사들은 급

23) 옥산서원 역시 1836년을 마지막으로 순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옥산서원은 1804년 백일장 거행시에 65냥 정도가 소용되었다. 그 이후 규모는 줄었다고 하지만 매년 50~60명에 이르는 선발 유생들에게 음식을 공궤하고, 상품으로 종이 1속씩을 지급하는 것은 서원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818년에는 부채가 수백 금에 이르렀으며, 1836년에는 빚을 갚고자 49두락(203냥)에 이르는 많은 양의 전답을 팔아야 했다.(정만조, 앞의 논문, 2005, 165쪽) 옥산서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서원으로서의 위상이 낮았던 옥산서원은 순제(과시)를 통해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 위상을 제고하려고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였던 것이다. 반면, 이미 높은 위상을 가진 옥산서원로서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순제를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적었기에 현전하는 자료로 판단한다면 1821년을 마지막으로 순제를 그친 것으로 보인다.

24) 경주에 거주하는 인사들은 『심원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과거 급제 후 알묘하는 '新恩', '帶恩'은 예외로 하였다. 후손들 중에서도 관직에 있는 이들은 알묘 후 성명을 남겼다. 1827년 윤5월 7일 李鼎秉은 大司諫에 임명된 후 분향했으며, 같은해 1월 4일에는 10대손 李在正이 예산현감으로 正謁禮에 참석하여 분향하였다. 사마시와 문과 급제자뿐만 아니라 무과에 급제한 이들도 알묘를 하였다. 내방한 급제자 현황은 부록의 <표 1> 내방한 급제자 현황(1801~1831)"을 참조.

감하였다. 그 이유는 이연적의 신원과 추송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²⁵⁾ 물론 진주권에서 소수의 인사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남명학파와는 무관한 인사들로 추정된다. 18세기 이후 남인이 몰락하고 서원의 위상과 기능도 쇠퇴하면서 방문객의 범위도 제한되어갔다. 그러던 중 18세기 말 옥산서원에서 치제와 서적 하사가 거듭되었다. 특히 1781년(정조 5) 치제를 계기로 옥산서원은 인근의 영해, 영천, 밀양, 성주, 영덕, 영일, 대구, 울산, 청도, 하양, 의흥 등 경주 인근과 영남 중부권에 위치한 고을에서 방문객들이 급증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안동권에서의 방문객이 많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는 당시 옥산서원과 도산서원에서 같은 날 치제가 시행되었고, 두 서원의 위상이 같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즉 안동권 인사들은 도산서원으로 출입하며 향사에 참석하였고, 경주권과 대구권의 인사들은 옥산서원을 방문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18세기 말 옥산서원은 거듭된 치제와 서적 하사로 위상이 제고되고, 경주·대구·밀양·영해를 비롯한 영남의 중남부지역으로 영향력이 집중되었다. 이런 현상은 19세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특히 영해·영덕·홍해·영천과 같이 경주권의 인사들의 대규모 방문이 있었다. 이들의 방문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신항들의 성장에 따른 신규항간의 대립이 영남 전역에서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족들은 인근 고을의 사족들과 함께 신항들의 도전에 대항하였다.

옥산서원은 18세기 말 이래로 玉山李氏[李奎仁 系]로 대표되는 신항들의 『入院錄』 등재와 院任職 요구가 있었다. 특히 19세기의 서얼허통 청원운동을 경주지역 신항들이 주도하였고, 이들이 옥산서원 소통 문제에 가세하면서 더욱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²⁶⁾ 1850년대 옥산서원 방문객의 폭발적 증가는 1820년대 재발하여 계속 심화되어온 신규항간의 향전 때문이었다.

25) 이수건,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218~226쪽.

2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역주 옥원사실』, 온샘, 2021.

1827년(순조 27) 7월 26일 薦會 당시 『도기』에는 모두 102명이 기재되어 있다. 26일에 61명이 참석하였고, 27일에 41명이 참석하여 28일 오후까지 논의를 이어갔다.²⁷⁾ 당시 친회는 7월 22일 경상감영으로부터 순상 李鶴秀의 데깁이 내려와 薦規에 따라 원생을 천거하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옥산서원은 1826년(순조 26) 정알레에서 設薦할 예정이었지만 庶流의 武斷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신구향간에 감영과 경주부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다.²⁸⁾ 이런 가운데 1827년 7월 22일 감영의 판결과 7월 25일 부윤 林處鎭의 판결에 따라 천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천거하는 일은 신유들의 소란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이에 8월 11일에 감영에서는 부윤이 院會에 참석하여 천거를 진행하도록 명령하였다.²⁹⁾ 그러나 천거는 후보를 추천하고 考講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규정이었는데, 신향들의 방해로 고강을 하지 못한 채 30년이 흘렀다.³⁰⁾

27) 『丁亥七月二十六日薦會時 到記』(옥산서원 소장).

2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021, 47~95쪽. 『심원록(황)』 정해(1827) 7월 14일. 이날 부윤 임치진은 하양현감 金秉淵과 함께 서원을 내방하였다. 당시 옥산서원 사람들은 경주부윤에게 設薦에 대한 의견과 소장을 제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부윤과 교섭한 사람들은 바로 감영에 呈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7월 22일 감영의 데깁이 있고, 3일 후 부윤의 데깁이 연이어 내려오면서 전격적으로 천거를 시행했던 것이다.

2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021, 96쪽. 1827년 8월 11일 감영 데깁.

30) 『본향심원록』 신묘(1831) 4월 28일. 여기에는 당시 薦講하는 일로 서원에 45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여주이 28명, 경주순 4명, 안동권 3명, 경주이 4명, 청안이 2명, 영천이 2명, 창녕조 1명, 김해김 1명 등이다. 이들이 당시의 원유들로서 서원운영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1859년 4월 20일 전 현감 李鍾祥, 전정언 崔斗錫, 유학 李在公 등의 상서에서는 유생들을 천거했으나 고강을 못한지 30년이 흘렀고, 현재의 院儒들은 노쇠했기에 入格한 유생 30여 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감영에 보고하였다.(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021, 153~157쪽). 이처럼 1820년대 이래로 천강이 실시되지 못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면, 이때의 천강도 신유들의 반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유들은 천거뿐만 아니라 분향례와 향사에서도 참여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확산되어 갔다. 이에 신유들의 무단을 막기 위해 서원 측에서도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었다. 1827년(순조 27) 8월의 秋享 당시에는 영해와 흥해·영덕·울산·안동 등지에서 92명이 모였다.³¹⁾ 1820년대의 신구향간 향전은 주로 옥산이씨와 그들과 관계된 인사들만이 동참했기에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1850년대에는 향내의 신향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1851년(철종 2) 최제경 등의 상서로 촉발된 신향들의 향임직 진출 요구는 옥산서원 역시 피하지 못하였다. 1851년(철종 2) 6월과 8월에 경주향교를 장악한 신향들은 옥산서원에 그들의 허통을 요구해왔다.³²⁾

이를 계속 거부하자 1852년(철종 3) 5월 15일의 분향례부터 신향들이 院錄에 입록을 요구하며, 서원에 난입하여 분향례를 방해하였다. 이에 옥산서원 사림들은 6월 1일의 분향례부터 세력을 규합하여 신향들을 저지했다.³³⁾ 하지만 신향측도 세력을 모으면서 8월의 추향도 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실제 8월 추향시에는 신유가 700여 명, 舊儒가 200여 명으로 약 천명이 서원에 모였다.³⁴⁾ 부윤은 將吏를 파견하여 양측의 충돌을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추향을 지낼 시간이 다가오면서 신향들의 향례 참석 요청도 격해졌다. 결국 신향들이 서원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20여 명

31) 『심원록(皇)』, 정해(1827) 8월 24일.

32) 1850년대 신구향간의 향전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021, 163~214쪽을 참고하였다.

33) 『玉院事實』에는 6월 1일에 본손과 鄉儒들 101명이 분향례에 참석하고, 15일에는 79명(본손 68명, 향유 11명)이, 7월 1일에는 80명(본손 67명, 향유 13명)이, 15일에는 73명(본손 61명, 향유 12명), 8월 1일 85명(본손 61명, 향유 24명), 8월 15일 242명(본손 201명, 향유 41명)이 참석했다고 부기했다. 『분향심원록(신해 5월 1일)』에서는 1851년 5월부터 1853년 5월까지 방문한 인사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1852년(임자) 6월 1일 100명, 6월 15일 79명, 7월 1일 101명, 7월 15일 72명, 8월 1일 91명이 확인된다. 8월 15일은 수록하지 않았다.

3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앞의 책, 2021, 202쪽. 옥산서원 사림들은 신유 700여 명으로 보고했지만 장교 김근홍 등은 500~600명으로 보고하였다.

의 장리를 구타하고, 원문을 부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부원은 직접 행차하여 사태를 일단락하고 향사를 진행한 후 주동자 7명을 잡아 가두었다.³⁵⁾ <표 1>의 1850~1852년도 방문객 증가는 당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이외에도 산송과 관련한 일이나³⁶⁾ 무침당 이의운의 곡강서원 추배,³⁷⁾ 蒙庵 李杲(1616~1684)의 문집 간행³⁸⁾ 등과 같이 원내외의 다양한 사안으로 서원에서 각종 모임이 있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참석인원도 차이가 났다. 1843년(헌종 9) 1월 30일 『퇴계집』 중간을 논의하기 위해 옥산서원에서 열렸던 道會는 이전의 원회, 향회에 비하여 참석인원이 그만큼 많았다. 당시 『심원록』에는 안동·청송·영천·밀양·경산·자인·하양·예안·연일·청하·영해·홍해 등에서 24명의 외부인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³⁹⁾ 그러나 1843년(헌종 9) 1월 29일의 『玉山書院道會時到記』에는 외부인사 23명[진영래 제외] 과 경

35) 이들은 국당의 鄭之河(영일), 산대의 李樹權(청안), 산현의 孫耕牧(경주), 석동의 鄭龍一(영일), 호명의 安孝永(순흥), 근곡의 李宇復(경주), 양월의 李宗脩(경주) 등 7인이다.

36) 『심원록(官)』, 을유(1825) 6월 19일; 7월 1일. 1825년 6월 19일에는 圭山의 청룡을 침해당한 일로 산송을 제기하는 일로 보였다. 여기에는 원장 李鼎基와 간입 金最重, 재임 李延祥의 10명이 모였다. 이들이 당시 서원 운영을 이끌던 원유들로서 경주이, 안동권, 경주손, 경주김씨 등이었다. 이후 7월 1일에 판결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장을 올리기 위해 다시 모였다. 이때는 원장을 제외한 재임과 간입 및 여주이씨 4인이 참석하였다.

37) 『본향심원록』 기사(1809) 8월 27일. 이날 논의에는 여주이 19명, 경주손 3명, 경주이 3명, 淸安李 1명, 永川李 2명, 豐川任 1명, 달성서 2명, 경주최 1명, 김해김 1명, 靈山辛 3명 등 총 36명이 참석하였다.

38) 『본향심원록』 임진(1832) 7월 27일. 이날 옥산서원에서 개최된 향회에는 여주이, 경주이, 청안이, 경주손, 안동권, 아산장씨 가문에서 29명이 참석하였다.

39) 『심원록(有)』, 계묘(1843) 1월 30일. 李天裕(안동), 柳進璜(안동), 趙基暹(청송), 趙泰祐(청송), 徐炳奎(경산), 陳永來(연일), 朴九淵(밀양), 尹漢禹(밀양), 權翥(연일), 金塚(청하), 曹相龍(영천), 曹相鼎(영천), 權炳(영천), 南有根(영해), 金(인)錫(영천), 鄭陞準(영천), 金秉奎(하양), 金熙道(영천), 崔錫典(자인), 鄭奎弼(홍해), 金鼎壽(영천), 趙璧祐(청송), 柳夏祚(안동), 李秉寅(예안) 등이다.

주 인사 89명 등 모두 112명이 기재되어 있다.⁴⁰⁾ 이때의 도회는 1842년(헌종 8) 11월 15일 『퇴계집』 중간을 진행하고 있는 안동 鳳停會中에서 보내온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⁴¹⁾ 『퇴계집』 중간은 1837년(헌종 3) 발의가 있는 후 안동과 예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총 30권, 2,200여 개의 목판을 간행하는 일은 한두 고을의 사람만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자금난으로 오랫동안 사업이 지체되는 가운데 1843년 봄에 간행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도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도회를 개최하여 의논하기로 결정하고, 1842년(헌종 8) 12월 15일에는 진양의 덕산서원에서, 25일에는 안동의 향교에서, 오는 1월 30일에는 옥산서원에서 모이기로 정했던 것이다.

이에 옥산서원은 경주와 인근의 교원사 및 문중에 통보하였고, 도회 전날부터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옥산서원도회시도기』에는 1월 30일 도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부기되어 있다. 즉 총 735냥을 목표로 경주·대구·영천·밀양·울산·청도·칠곡·신령·하양·경산·자인·현풍·창녕·영산·언양·양산·기장·장기·영일·홍해·청하·동래 등지에 분배하고, 자금을 모을 收錢都監 35명도 선정하였다.⁴²⁾ 분배전은 각 고을의 규모에 따라서 120~15냥으로 차등하고, 도감도 그에 맞춰 4~1인으로 정하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경주는 120냥에 4명

40) 『癸卯正月二十九日 玉山書院道會時到記』(옥산서원 소장).

41) 「1842년 鳳停會中 通文」,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

42) 분배전은 경주 120냥, 대구 70냥, 永川 60냥, 밀양 70냥, 울산 35냥, 청도 50냥, 칠곡 35냥, 신령 20냥, 하양 15냥, 경산 30냥, 자인 15냥, 현풍 30냥, 창녕 30냥, 靈山 25냥, 언양 15냥, 양산 15냥, 기장 15냥, 장기 15냥, 연일 20냥, 홍해 20냥, 청하 15냥, 동래 15냥 등 735냥이다. 도감은 경주 李彝祥·崔濟定·韓公翼·權魯煥, 영천 曹啓遠·鄭禮休·權炳, 대구 權觀述·朴基哉, 밀양 申錫麟·孫承虎, 울산 李璋燦·李鼎和, 청도 李致暉·朴光天, 칠곡 李以挺·鄭升燁, 신령 曹文敬, 경산 徐炳奎, 하양 金鎭奎, 자인 崔鋤洪, 현풍 郭耐錫·金河運, 창녕 成聲魯, 영산 李元模, 언양 金漢坤, 양산 鄭瑄, 기장 李浩, 장기 鄭斗永, 연일 陳永來·申在泰, 홍해 鄭植弼·李能白, 청하 金壕, 동래 金涎 등 35명이다. 『癸卯正月二十九日 玉山書院道會時到記』)

의 도감이 선정되었다. 당시 배전을 정한 지역들은 옥산서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들은 행정구역상 慶州都會와 경상좌도에 속한 남부지역 고을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19세기 초반 지방관과 관료들의 옥산서원 방문을 보면, 관찰사와 경주부윤 외에도 영일·장기·영덕·청하·흥해·울산·자인·영천·밀양 등 경주 인근에 위치한 고을의 지방관이 많았다. 이외에도 동래·의령·양산·창녕·예천·용궁·함창·榮川·봉화·청도·현풍·경산·개령 등지의 지방관과 경주영장, 송라도, 자여도, 황산도 등의 역로 담당관 등이 확인된다. 다른 고을 지방관은 주로 부임내지 체임하는 경로에 들러서 알묘를 하었는데, 순력 중인 관찰사를 陪從하거나 試官으로 왔다가 알묘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방관은 알묘만 하거나, 독락당 등을 둘러본 후 당일 돌아갔다.

〈표 2〉 『심원록』내 방문 관원(1801~1832)

날짜	성명	신분	비고	날짜	성명	신분	비고
1801.4.4	柳得源	영일현감		1818.9.29	李炫章	自如丞	都會試官
4.22	李尙度	경주부윤		9.29	李鐸遠	현풍현감	都會試官
1802.4.11	李光進	경주영장		1819.4.17	尹羽烈	부윤	
4.11	黃勉基	장기현감		4.	田遇聖	영장	
5.25	崔獻重	경주부윤		4.	閔琬	영일현감	
8.28	南公轍	경상감사		7.4	權虎乘	흥해군수	
8.28	辛景愈	영덕현령		1820.2.26	金炳文	김산군수	
8.28	金命淵	청하현감		2.26	李魯俊	창녕현감	
8.28	柳得源	영일현감	重尋	2.26	金基常	청도군수	
8.28	李薰模	송라찰방		2.26	朴齊尙	영덕현령	
1803.윤2.5	呂東植	京試官		3.13	朴綺壽	동래부사	遞歸路
3.24	李得江	흥해군수		4.24	鄭基直	의령현감	
8.	朴宗羽	밀양부사		5.10	洪冕燮	경주부윤	
9.17	李義教	영천군수		6.25	趙雲豪	경주영장	
9.17	金箕應	예천군수		9.7	金裕憲	양산군수	
9.17	徐有升	대구판관		9.29	李玄始	밀양부사	本邑參試
9.17	洪秉周	울산부사		9.29	李台升	하양현감	本邑參試
1804.4.17	崔獻重	경주부윤		10.10	李光憲	경주부윤	
8.23	金義淳	경상감사	巡路	10.16	李圭德	경주영장	
9.18	閔百勳	자인현감		1822.윤3.	柳策	영해부사	

10.8	尹益烈	경주부윤		윤3.15	金相休	관찰사	巡路
10.8	李得江	홍해군수		윤3.28	趙存卿	홍해군수	
1805.9.1	朴宗京	경주부윤		4.19	李潞	경주부윤	
1806.3.2	尹光顔	관찰사		7.20	李熙壽	松羅丞	
3.2	尹弘鎭	함창현감		8.6	李德鉉	동래부사	遞歸啓(重尋)
3.19	洪恂	경주영장		1823.10.5	陸台錫	자인현감	務來
8.13	徐能輔	南學敎授		1824.3.20	李止淵	관찰사	
1807.4.1	崔光泰	청송부사	後學	3.20	宋在誼	영덕현령	
1808.8.20	鄭東觀	관찰사	巡路	3.20	李台升	하양현감	重尋
9.29	尹光垂	榮川郡守		3.20	李熙壽	송라승	重尋
1809.2.13	韓用儀	備邊郎		3.25	金基常	경주부윤	重尋(20.2.26)
4.22	李南圭	黃山道驛丞		8.7	李寬奎	營將	
8.29	李采	경주부윤		8.9	閔致書	홍해군수	
10.7	洪儀永	京試官		8.9	李正幹	청하현감	
1810.10.10	沈能俊	營將		8.9	李敏德	장기현감	
1811.2.28	朴民淳	청하현감		1825.8.5	趙寅永	관찰사	조 10섬
2.28	徐寓修	송라찰방		8.5	朴基宏	경주부윤	
3.28	金會淵	관찰사	巡路	8.5	朴宗有	신녕현감	秋巡支站時
10.12	曹鳳振	집위관		8.12	洪稷謨	청도군수	
1812.3.8	金魯應	부윤		8.12	趙濟晚	永川郡守	
3.8	沈公俊	영장		8.12	李穆遠	경산현령	
8.17	金履祐	영덕현령		8.12	李正幹	청하현령	
1813.4.28	申澈	부윤		8.12	李佑伯	성현찰방	
1814.5.26	許珩	자인현감		1826.3.9	李叶求	홍해군수	
1815.3.12	洪履簡	부윤		9.7	林顔喆	경주부윤	
4.17	任天常	영해부사		1827.1.4	李在正	예산현감	10대손 (무침당)
8.15	李魯俊	영덕현감		4.8	李淵祥	修撰	駙路
8.15	金秉淵	송라찰방		윤5.7	李鼎秉	대사간	駙路
9.2	李存秀	관찰사		7.14	林處鎭	경주부윤	
9.2	徐有膺	영천군수		7.14	金秉淵	하양현감	
10.23	李度衍	장수찰방		1828.9.8	李元八	경주부윤	
12.10	朴慶德	장기현감		9.30	金魯赫	營將	
1816.1.27	尹弘圭	영덕현령		10.20	高彦佐	영장	
5.3/1817.9.22	李德鉉	부윤		1829.5.5	柳致睦	부호군	1814 문과
5.3	鄭是容	신녕현감		1830.3.23	李勉昇	관찰사	
윤6.13	許容	경주영장		3.24	權曄	청하현감	
8.8	李存秀	관찰사	再尋, 租 50石	3.24	俞鼎柱	영덕현령	
9.11	朴宗稷	영천군수		3.24	全彝煥	송라찰방	

1817.3.18	金魯敬	관찰사	巡路 조 7섬	1831.3.19	朴宗薰	경주부윤	
3.18	任璣材	영일현감		3.19	俞膺煥	홍해군수	
8.19	金遇順	봉화현감		9.3	朴岐壽	관찰사	조 10섬
9.27	李命鉉	松羅丞		10.22	李淵祥	校理	9대손, 1819 문과
1818.3.19	李愚在	부윤		1832.7.16	鄭禮容	경주부윤	
3.23	成近默	경산현령	姜必孝 陪從	9.5	金暉享	按察使	秋巡 조 10섬
9.29	徐胤輔	개령현감		9.5	李淵祥	양산군수	
9.29	閔哲儒	황산丞	都會試官				

일반적으로 감사나 부윤이 방문하여 알묘하거나 유숙할 경우 서원 입장에 서는 위상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⁴³⁾ 실제 1840년(헌종 6) 3월 7일의 구인당 낙성식에는 관찰사 金道禧, 부윤 俞章煥를 비롯한 인근 12개 고을의 수령들이 참석하였다.⁴⁴⁾ 당시 도내에서 1만 여명이 참석하고, 백일장에 8,300여 명이 응시하였다. 이날 참석한 만여 명의 유생들 중 향의 인사는 『揭板時道內到記』에 따르면 976명이었다.⁴⁵⁾ 이중 대구, 영천, 청도, 의성, 홍해, 영일,

43) 서원의 위상 제고는 1755년(영조 31) 「完議」와 같이 방문 소식을 접한 인근 고을의 민원인들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대거 운집하였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본향심원록』을 보더라도 부윤이나 감사가 향사에 참석하거나, 순력하면서 들리는 날에는 평소의 5~6배되는 인사들이 방문 하였다. 옥산서원은 감사나 부윤이 방문했을 때 사족의 권익 보호와 향촌민의 풍속 교화라는 측면에서 사송(詞訟)의 결정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렇기에 옥산서원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싶었던 자들의 방문이 늘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결국 옥산서원의 위상과 직결되었다.

44) 『심원록(圓)』, 경자(1840) 3월 7일. 여기에서는 관찰사 김도희, 부윤 유장환 외에 청송부사 金鎭華, 永川郡守 金東獻, 영덕군수 李章愚, 청하현감 尹日善, 청도군수 李載信, 의령현감 洪良厚, 하양현감 徐有始, 자인현감 金斗明 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구인당중건일기』에는 1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45) 이들은 모두 대구, 영천, 청도, 의성, 홍해, 영일, 영해, 밀양, 영덕, 칠곡, 문경, 창녕, 선산, 상주, 청송, 안동, 신령, 상주, 순흥, 의흥, 자인, 군위, 하양, 영주, 진보, 울산, 양산, 초계, 영양, 예안, 예천, 장기, 인동, 경산, 언양, 청하 등의 37개 고을에서 내원한 자들이었다.

영해 등의 7개 지역에서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앞서 1839년(헌종 5) 12월 13일에 致祭가 있었다. 왕명으로 전국 9개 서원에서 진행된 당시 치제는 영남에서는 도산과 옥산서원에서만 진행되었다. 옥산서원은 경주부윤 유장환, 양산군수 李致五, 청하현감 尹日善, 장기현감 成華鎭, 송라찰방 金馨淳 등이 집사관으로 참여하였다.

1839년(기해) 12월 13일 『賜祭時 到記』에는 12월 8일부터 향내외 인사들이 내원하고 있었는데, 치제 당일에는 모두 425명이 참석 하였다. 특히 향외 인사들은 『심원록』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치제 당일에 집사관을 제외하고 61명의 향외 인사들이 내방하였다. 향외 인사와 집사관을 제외한 359명이 경주의 유생들이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옥산서원과 안강 및 그 주변에 세거하던 가문들이었다. 특히 여주이씨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안동권씨, 청안이씨, 경주이씨, 영일정씨, 아산장씨, 경주손씨 등이 10명 이상 참석하였다. 향외 인사들은 대부분 영천에 거주했으며 언양, 의성, 울산, 선산, 흥해, 영일, 하양, 청도, 칠곡, 자인, 대구, 청송 등지에서도 1~3명이 참관하였다.

지방관의 유숙은 18세기에 일부 확인되지만⁴⁶⁾ 19세기에는 1852년(철종 3) 8월 19일의 추향에 참석한 경주부윤 金養根만이 확인된다. 하지만 당시는 신규향간의 향전이 폭력을 동반한 유흥사태로 확대되면서 부윤이 직접 행차하여 수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이전과 같은 위상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편 지방관의 방문은 물질적 혜택을 동반하기도 했다. 옥산서원 『고양록』을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지원이 이어졌다. 일례로 1816년(순조 16) 관찰사 이준수가 租 50섬을 내려주고, 이어서 김노경, 조인영, 박기수, 김양순, 윤성대 등이 각각 租 7~10섬씩을 내려주었다. 특히 흥재철은 그가

46) 일례로 1749년(영조 25) 10월 4일 경주부윤 趙明鼎은 서원에서 숙박한 후 다음 날 원생들을 대상으로 '夙興夜寐箴'을 講하였다. 1761년(영조 37) 경주부윤 洪良漢은 4월 22일 방문하여 유숙하면서 강회를 열고, 6월에 다시 방문하여 杏壇에서 白日場을 개최하였다. 1752년(영조 28)에는 감사 尹東度가 방문하여 강당의 兩進齋에서 留宿하였다.

재임하는 2년 동안 매년 조 20섬씩을 내려주었다. 부윤은 李元八이 1828년(순조 28) 9월에 조 2섬을 준 것이 확인된다.⁴⁷⁾ 이러한 지방관의 방문은 옥산서원 사림과 긴밀한 상호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1808년(순조 8) 8월 관찰사 정동관이 방문했을 때 49명의 유생들이 관찰사를 만나기 위해 미리 방문하여 대기하였다. 이 가운데 7명은 영천과 연일, 남해에서 왔다.⁴⁸⁾ 이들이 미리 대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옥산서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옥산서원은 관찰사와 부윤의 방문시 민원인으로 인한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서원 출입을 제한해왔었다.

민사의 소송에 연루된 사람은 서원의 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先輩들로부터 이미 정한 규범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전례를 따르지 않으니, 이러한 폐단이 자못 불어나고 있다. 순찰사와 부윤이 서원에 이르는 날에는 소송을 다루는 문자를 많이 가지고 와서 문을 가득 메우고 골목을 술렁거리게 한다. 서원에 끼치는 폐단 중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또한 뜰소문이 오고가서 결속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며,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어 손을 놀리는 것처럼 분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또한 선비의 아름다운 습속이 아니니, 이것이 어찌 행하고 그치는 도리를 생각하고 삼가는 것이겠는가? 이후에는 각자가 잘 생각해서 이와 같은 사람은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⁴⁹⁾

관찰사와 경주부윤의 서원 방문은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서원 측은 수령의 방문을 계기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수령은 서원과 사족들의 협조 하에 향촌지배를 원활히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관이 모든 서원을 방문하여 알모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방관

47) 『攷往錄』, 무자(1828) 9월 일. “府尹李公元八 租貳石上下”

48) 『본향심원록(정묘 정월)』, 1808년 8월 19일. “八月十九日 巡使到院時”.

49) 「1755년(乙亥) 2월 完議」. “詞訟之人 不得出入院門 自是前輩已定之規 而近來不遵前例 此廢胡茲 巡使及土主到院之日 多持爭訟文字 填門熱巷 貽弊院中 此非美事 且聞風奔走 無事聚會 曠日留連 不勝紛如手 又非士子美習 是豈勵慮謹行止之道乎 此後則各自惕念 勿爲如此出入事”

의 서원 방문은 그것으로 인한 통치에서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나아가 서원의 격을 살폈던 것이다. 또한 방문시 각종 민원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경우에 따라 色目の 혐의도 받을 수 있기에 공식 방문을 자제했다. 그렇기에 관찰사의 방문은 더욱 특별하였다. 경주에는 옥산서원 외에도 부남에 서악서원과 용산서원의 사액서원이 있었다. 하지만 관찰사가 방문한 곳은 옥산서원이 유일했다. 경주부윤은 관내의 유력한 서원들이기에 세 서원을 방문하여 부북과 부남의 사족들을 위무했지만,⁵⁰⁾ 대체로 옥산서원의 방문이 많았다. 그것은 문묘종사대현인 이언적을 제향하는 옥산서원에 비하여 두 서원의 대외적 위상과 제향인의 위격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⁵¹⁾

이같이 19세기 옥산서원은 여타 서원과 달리 공론의 수렴처라는 사회적 역할과 문집간행, 문화·강회·순제 등의 강학·출판활동, 건립이래로 전승되어 온 건물과 서적·책판 등의 보존이라는 물질적·정신적 자산의 계승 노력을 통해 높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높은 위상만큼 책임도 동반되었다. 『원록』 입록과 원임직 참여를 둘러싼 신구향간의 대립은 단순히 서원 내부의 문제가 아닌 두 세력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는 영남의 두 세력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가열되어 갔다. 19세기 유학지배질서의 해체라는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문이 이어졌던 것은 그 변화의 갈림길에 옥산서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옥산서원 자체의 전통 계승 노력과 함께 외부에서의 변화 요구가 충돌하면서 각각을

50) 1804년 경주부윤 崔獻重은 4월 17일에 옥산서원을 방문한 후 5월 2일에는 용산서원을 방문하여 백임장을 개최하였다.(옥산서원 『심원록』(海) 4월 17일; 『거점소도록』 갑자년 5월 2일).

51) 경주 서악서원은 김유신, 설총, 최치원을 제향하고 있다. 문묘에 종사된 인물이 있다고 해도 당대의 인물이 아니며 서원의 위상도 부내로 제한적이었다. 용산서원은 무관 출신인 최진립을 제향하고 있었지만 경주최씨의 높은 위상으로 인해 경주 부남일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경주부윤은 원활한 통치를 위하여 이들 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은 드물었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국한되었다.

지지는 자들의 방문과 대립이 이어졌던 것이다.

Ⅲ. 19세기 말 廣州 廣雅書院의 入院生과 운영

1. 청말 서원 개혁과 광아서원의 건립

淸(1636~1912)은 文教정책에 있어서 학교로서 교화의 본원을 삼는다는 明의 舊例를 계승하여 학교를 건립하고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선발하였다. 청나라 초기 서원 정책은 명나라보다 완화된 편이었고, 민간서원의 건립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⁵²⁾ 청나라 초기 서원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은 강희제의 장려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에는 지방관의 요청으로 서원에 서적과 현판을 내려 장려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조정에서는 서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국가의 교육체계에도 편입시키지 않았다. 서원의 관학체제 편입은 옹정(1723~1735)대의 적극적인 서원 지원책에 힘입었다. 특히 1733년(옹정 11)의 조서로 인해 각 省에 창건한 20개의 省會書院은 18개 行성의 수도에 최고학부로 위치하였다. 이후 건륭(1736~1795)대에 이르러 서원정책은 그 교육목적과 운영 방안을 확고히 함으로써 관의 통제 하에 교육기능을 상실해간 학교를 대신하고자 했다.⁵³⁾ 즉 중앙 국가감과 지방 부·주·현학의 학교를 연결하는 위치로 정하고, 유생들의 擧業을 권장하였다. 이것은 서원 교육의 목적이 관인양성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19세기 후반 이래로 同治·光緒연간(1862~1908) 서원은 급속히 증가하여 1,233개소가 신설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문화교육 요청에 맞춰 이 시기 서원은 전통서원의 개조와 새로운 형태의 서원 창건이라는 측면으로 발전

52) 등홍파·조위, 「백록동서원의 설립 배경과 중국 서원의 변화」,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온샘, 2021, 161쪽.

53) 등홍파·조위, 앞의 책, 161~169쪽.

하였다. 당시 중국은 외적으로 열강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해있었고, 내적으로는 자체의 폐단이 심각한 수준으로 쌓여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원의 개혁은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서원의 폐단은 관학화가 심각하여 과거에 종속되어 있으며, 산장이 학문에 관심이 없고 유명무실하여 士人の 기풍이 자만하고 말쑥을 일으키는 발단이 되었다. 또한 많은 과목의 첩시(帖試)는 실용에 보탬이 안 되며, 글 짓는 흥내는 내지만 의지와 취향은 비루하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그 결과 서원 개혁은 운영에 있어서는 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관의 권한을 삭감·한정시키고, 산장의 자격도 제도화했다. 또한 士紳 등의 민간세력과 지방의 재력가를 서원 운영에 참여시켜 재원을 보충하였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실용에 무익한 과업을 經世致用의 학문으로 나아가 新學과 西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阮元(1764~1849)의 詁經精舍와 學海堂 창건은 그 출발점이었다. 그는 과거 중심의 서원 교육을 經史와 實學연구를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1831년(도광 11) 호남 순무 吳榮光(1773~1843)은 학해당 제도를 본받아 악록서원 내에 湘水校經堂을 건립하고 經義, 治事, 詞章의 세 과목으로 교과과정을 나누었다. 이 상수교경당은 1890년(광서 16) 校經書院으로 설립되어 경사의 大義와 時務를 목표로 한 經義齋와 治事齋를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경전을 통하여 실용에 이른다는 교육 목표와 세상을 다스려 나라를 구한다는 정치 현실이 구현되어 있었다.⁵⁴⁾

이러한 전통서원의 개혁이란 흐름 속에서 1887년(광서 13) 兩廣總督 張之洞(1837~1909)에 의해 광아서원이 건립되었다. 廣雅라는 이름은 ‘지식이 넓고 두터우며, 품행이 바른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이다.⁵⁵⁾ 광아서원 건립은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었다. 장지동은 광아서원에 앞서 武昌의 經心書院(1869), 成都의 尊經書院(1873), 太原의 令德書院(1882) 등을 건립했다. 하지만 이들 서원은 전통적인 경세학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광

54) 등홍파·조위, 앞의 책, 169~175쪽.

55) 秦欢, 『清末의 廣雅書院』, 『黑龍江史志』 13, 2015. “書院皆以 廣雅取名 其意即‘廣者大也 雅者正也’ 張之洞又題其講堂爲無邪堂”.

아서원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전통적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시무에 따라 필요한 학문을 익힌 ‘경세치용’형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하였다.⁵⁶⁾ 장지동은 19세기 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군사적 자강과 경제적 부강을 이루려 했던 양무과의 영수가 되었던 인물이다. 실제 그는 광아서원에 앞서 廣東水陸師學堂을 설립하여 文武를 함께 양성하여 자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런 만큼 광아서원의 건립은 이러한 양무운동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라는 목적도 있었다.

장지동은 서원을 건립하여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여타 서원과의 차별성과 뛰어난 스승 및 우수인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서원 건립지를 물색한 후 산천이 빼어나고 풍토가 맑고 한적한 광주성 源寘鄉을 서원 부지로 선정하였다. 그 후 광동순무 吳大澂, 광서순무 李秉衡과 함께 연명하여, 光緒帝에게 서원건립의 윤허를 받았다. 그 결과 광아서원은 광동과 광서성 일대의 최고 학부로 공인되었다. 그 후 장지동은 院舍를 설계하고 서원 規程 초안을 마련한 후 건물 건립비용을 모금하였다. 당시 광주 惠濟堂, 愛育堂, 順德靑雲文社 및 상인단체인 誠信堂, 敬忠堂 등에서 적극적으로 기부하여, 광아서원은 청대의 省級서원 가운데 가장 자금이 많은 곳이 되었다. 이 자금을 토대로 광아서원은 12畝(약 7,200평)의 부지에 1887년(광서 13)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년만에 준공을 하였는데 당시 공사비용은 모두 銀138,800냥이 들었다.

광아서원은 넓은 부지에 藏書樓(冠冕樓)와 講學廳(無邪堂), 會客廳, 東·西齋 등 10여 동의 건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건립되었다. 특히 모든 원생들이 서원에서 생활했기에 기숙사인 동·서재에도 연못과 작은 다리, 조그마한 산으로 조경을 만들어 여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10개의 齋를 건립하여 교사가 생활하는 곳으로 삼았다. 서원은 사방을 높은 담

56) 張之洞, 『請頒廣雅書院匾額折』. “臣設立書院之舉 … 上者闡明聖道 砥礪名節 博古通今 明習時務 期於體用兼備 儲爲國家棟乾之材. 次者亦能圭壁劬躬 恂向鄉黨 不染浮囂近利習氣 足以漱身化俗.”

과 참호로 둘러싼 폐쇄적인 분위기였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장지동은 廣雅書局을 건립하여 수많은 중요 도서와 문헌 자료들을 정리·보존하여 학업을 보조하였다. 그 결과 광아서원은 가장 많은 장서를 갖춘 청말 최대 규모의 서원으로 성장하였다.

1898년(광서 24)에는 무술변법으로 조정에서 학교를 일으키는데 의결하였다. 이를 따라서 광아서원은 西學과정을 증설하고 서학당을 설립했다. 또한 동·서재에 각 5齋씩을 두고 서학 10재를 만들었다. 이후에도 「서원개혁칙령」에 따라서 1902년(광서 28)에 兩廣大學堂으로 서원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시 중국인들은 양광대학당과 함께 장지동이 호광총독 재임시 호복에 건립한 兩湖書院, 自強學堂 및 상해 南洋公學을 '사대학부'로 불렀다. 양광대학당은 1903년(광서 29)에 양광고등학교당으로 고치고 中學兩班을 부설하였다. 이처럼 장지동이 건립한 광아서원은 서원 교육이 전통교육에서 서구식 현대 교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2. 광아서원의 인적구성과 운영

총독 장지동은 1889년(광서 15)에 27條로 구성된 「廣雅書院學規」를 제정하여, 院任의 선발과 예우, 원생의 교과과정과 考課, 생활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⁵⁷⁾ 여기에는 전통서원에서 보이는 尊賢과 관련한 祭享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광아서원 건립목적이 청말의 혼란한 정국에서 시무에 밝은 실용적 인재양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찍이 周敦頤가 광주를 방문한 연유로 서원이 건립된 마을에 '周濂溪祠堂'이 건립되어 있었기에 원생들은 이곳에 奉祀하도록 했다. 이처럼 장지동은 광아서원의 학문 이념 및

57) 27개 규정은 定居, 尊師, 分校, 監察, 分齋, 恤遠, 給假, 敦行, 專業, 日記, 習禮, 考核, 聽講, 課期, 課題, 給書, 掌書, 人役, 門禁, 限制, 院規, 守法, 正習, 附課, 外課, 杜弊, 學成 등이었는데, 후에 조정의 학교정책에 맞춰 10개조를 증설하였다.(龐樸, 『中國儒學』 2, 상해 동방출판사, 1997, 458쪽.)

교과 과정 설계, 교학 관리, 교원 초빙, 그리고 도서 시설 설치 그 모두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 그는 이 서원을 전통 과거제도 아래에 구성된 전통 학당과 차별화시켰고, 젊은 학자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새로운 서원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광아서원은 실제 수요에 맞춘 敎學을 진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육행정조직을 갖추었다. 서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은 1명을 두었다. 원장은 거주지를 막론하고 명망과 학식이 뛰어난 인물을 초빙하였다. 원장은 서원에 머무르며 매일 齋舍를 순시하고, 원생들의 성실함과 나태함을 규찰했으며, 매일의 장부를 검열했다. 아울러 원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강당에 나아가 강론하고 학생들의 성취를 관찰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에 고르게 답변을 하였다. 광아서원의 초창기 원장들은 모두 翰林院 출신으로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었다.

초대 원장은 광동番禺출신의 梁鼎芬(1859~1919)이었다. 1888~1889년까지 재임한 양정분은 1880년(광서 6) 進士출신으로 안찰사와 포정사를 역임했으며, 李鴻章을 탄핵하여 널리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이다. 뒤이어 절강성 출신의 朱一新(1852~1900)이 2대 원장에 취임했다. 1889~1894년까지 재임한 주일신은 1876년(광서 2) 진사 출신으로 한림원 庶吉士를 지냈으며, 주희의 성리학을 추승한 학자이자 관료였다. 그는 원장으로 취임 전에 肇慶 端溪書院의 主講으로 있었다. 1894~1898년까지 재임한 3대 원장 廖廷相(1845~1898)은 광동 남해 출신으로 1876년 진사가 되어 한림원 編修를 역임하였다. 그 후 羊城書院의 주강과 學海堂, 菊坡精舍의 學長을 지냈다. 經史와 文字學 등에 정통했는데, 특히 三禮禮記·周禮·儀禮에 뛰어났다. 이처럼 당시 명망있는 학자들을 원장으로 초빙하여 원생들의 교학을 담당케 함으로써 광아서원의 명성은 광주성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원장의 아래에는 4명의 分校를 두고서 經學, 史學, 理學, 文學부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은 원장의 강의를 도와서 원생들의 학업을 고찰하고 가르침을 주었다. 장지동은 이들 분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광

동과 광서 출신의 거인과 공인 가운데 선발했다. 이는 여러 원생들과 서로 말이 통해야 강의의 이해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으로 처음의 분교에는 번우현 출신의 생원 黃濤, 번우현 출신 舉人 林國賡, 順德縣 출신 생원 馬貞榆, 香山縣 거인 黃紹昌 등이 각기 경·사·이·문학을 담당하였다.⁵⁸⁾ 또 監院 2인을 두고서 동·서재를 나누어 관장하고, 학생들의 訓導와 점검을 담당케 했다. 감원 아래에는 각 재마다 1명의 齋長을 두었다. 재장은 원생 가운데 품행이 바르고 나이가 많으며, 학업이 우수한 자로 뽑았다. 이들 재장은 원장의 敎法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받들도록 했다.

〈표 3〉 廣雅書院 同舍錄

구분 [廣西]	附生	增生	廩生	優廩生	舉人	監生	副貢	拔貢	優貢	增貢生	恩貢生	貢士	廩貢生	계
桂林府 (30)	縣	34	5	6		6	3	2						56
	府	6	1	7										14
	州				1	1								2
柳州府 (7)	현	2		5			1						1	9
	부	1	2											3
	주		1	1		1								3
慶遠府 (5)	현	4		1		2								7
	부	1			1	1		2						5
思恩府 (5)	현	2		2				1						5
	부					1								1
	주	2		3		1								6
泗城府 (2)	현	1												1
	부	1						1						2
平樂府 (8)	현	5	3	2	1			3						14
	부	1		1				2						4

58) 張之洞, 「創建廣雅書院折」, 『張文襄公全集』, 中國書店, 1990; 周漢光, 「廣雅書院是名」, 『張之洞與廣雅書院』, 台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梧州府 (10)	현	4		5	4	1	1	1	1		1			18	
	부	1		2		1		1					1	6	
潯州府 (10)	현		1	9	1	2								13	
	부	1	1	1		2								5	
南甯府 (8)	현	3	2	2		1	1			1			1	11	
	부	1		2				1						4	
	주	1	1	1	1	2		1	1					8	
太平府 (3)	부		1	3										4	
	주	1		1		2			1					5	
鎮安府 (1)	부	1												1	
百色直隸廳 ·歸順直隸州 (1)	기타											1		1	
	廳學				1									1	
鬱林直隸州 (10)	현	4		5		1		2	2				1	15	
	주	4			1									5	
계(100)		81	18	59	11	25	5	9	14	1	1	1	3	1	229

광아서원에서는 광동성과 광서성에서 각각 1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동재와 서재에 나누어 기숙하며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광동의 학생들은 동재, 광서 학생은 서재에 기숙하였다. 입원생들의 신분과 구성에 대해서는 『廣雅書院司舍錄』⁵⁹⁾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현전하는 『광아서원 동사록』은 1894~1899년 사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광서성에서 선발된 학생 229명의 姓名, 字, 別字, 생년월일, 學籍, 世居, 曾祖·祖·父名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보면 광서성내 각 府州별로 인구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定額을 넘는 인원이 선발되고 있었다. 추정나이는 1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20대 후반이었다.⁶⁰⁾ 이들은 광서성내 11개 부에 소속된 각급 縣學·州學·府學에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59) 鄧共波 主編, 「廣雅書院司舍錄」, 『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 86, 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8, 153~245쪽.)

60) 『동사록』이 작성된 추정연대(1894~1899)를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의 신분은 附生, 增生, 廩生, 優廩生, 監生, 舉人, 副貢·拔貢·增貢·恩貢·廩貢, 貢士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들의 정확한 신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청대의 과거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명청시대 과거제는 鄉試의 응시자격을 부·주·현의 학교와 국자감의 학생만으로 제한하였다.⁶¹⁾ 그 결과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이 곧 과거의 예비시험으로 변질되었다.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인 童試는 知縣이 주관하는 縣試, 知府가 주관하는 府試, 각 성의 학교 감독관인 學政이 주관하는 院試 등을 모두 통과해야 했다. 이렇게 합격한 자들을 生員이라고 하였다. 생원은 庠生이라 칭하기도 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생원들에게 시험을 치렀다. 이들은 매월 月考와 3년에 2번 학정이 주관하는 歲試와 科試였다. 매월 치르는 월고는 유명무실했으며, 세시는 향시가 있는 다음해에 실시하여 성적에 따라 附學生, 增廣生, 廩膳生으로 나누었다. 부학생은 동시를 통해 새로 합격한 생원 혹은 세시의 성적 하등자를 일컬으며, 증광생은 중등자, 능선생은 상등의 생원을 지칭한다. 세시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국자감에 추천되었다. 이를 歲貢이라고도 했다. 부학생, 증광생, 능선생은 모두 생원으로서 終身토록 免糧과 요역면제특권을 받았고, 儒服과 모자를 착용할 수 있었다. 또한 향시에 응시할 자격을 가졌고, 성적에 따라 국자감에 진학할 수도 있었다. 그 결과 생원은 서민들과는 다른 사대부의 반열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다.

과시는 향시에 응시하는 자격시험으로 세시에서 1, 2등에 속한 생원만 응시할 수 있었고, 과시에서 다시 1,2등을 얻으면 향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 省別로 향시 합격 정원의 50~100배를 선발하였다. 수도에 있는 국자감은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이곳의 학생인 監生은 생원이 받는 모든 특권을 향유하고, 과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향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나아가 관료에 추천될 수도 있었다. 청대에는 正途監生을 貢生[拔貢·歲貢·恩貢·副貢·優貢]

61) 오금성, 「중국의 과거제-그 이념과 정치·사회적 영향」, 『한국사시민강좌』 46, 일조각, 2010, 255~260쪽. 이하 명청시대 과거제는 이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라고 했으며, 捐納으로 감생이 된 例監生만을 監生이라 하였다. 향시의 합격자는 舉人이라 했다. 거인은 종신토록 會試에 응시할 수 있고 국자감에 들어가 수학할 수도 있었다. 거인은 감생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렸고, 사회적 지위는 감생보다 더욱 높았다. 회시는 중앙의 禮部에서 주관하였고, 북경의 貢院에서 시행하였다. 합격자는 貢士로 불렸으며, 다음 殿試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전시는 궁중에서 치렀으며 策論만을 다루었다. 합격자는 모두 進士로 불렸으며, 제1갑의 1등을 狀元, 2등을 榜眼, 3등을 探花라 하였다. 장원은 한림원 수찬에 방안과 탐화는 한림원 편수에 임명하였고, 그 외 2갑과 3갑의 진사에게는 다시 황제가 직접 '朝考'를 보아서 우수한 자는 한림원 庶吉士로 남기고, 그 외의 진사는 중앙과 지방의 하급관료로 임명하였다.

이처럼 명청시대 생원, 감생, 거인 등의 未入仕 士人들은 사대부의 지위에 오르면서 새로운 특권신분으로 등장하였다. 이들은 명 중기부터 관인층과 더불어 紳士, 紳衿, 士紳으로 불리며, 사회의 지배층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표 3>, <표 4>에 등장하는 부생·중생·능생·우능생 등의 신분은 생원이며, 감생·부공·발공·우공·중공·은공·능공 등은 국자감에 속해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거인, 공사는 향시와 회시의 합격자로서 다른 원생들보다 예우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동사록』에 수록된 이들은 모두 신사층으로서 사회적 특권층이었다. 그런데 『동사록』에 수록된 원생들의 3대조 내에서 생원 이상의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 있는 원생은 10명 미만이다. 이것은 父祖代에 생원의 지위도 가지지 못한 서민출신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⁶²⁾ 그만큼 童試의 경쟁률이 치열했고 진사에 이르기까지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을 짐작케 한

62) 일례로 계림부의 蘇汝喆은 갑오년(1894) 鄉試 中式에 합격한 舉人이었다. 그는 靈川縣 縣學附生 출신으로 六都 龍巖村에 세거해왔다. 그의 부·조·증조의 3대가 모두 本生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현학부생(생원) 출신이었음을 나타낸다. 반면 梧州府 岑溪縣 上化鄉 葛井村에 세거하는 馮錫環은 會試에 합격하여 貢士가 되었지만 그의 3대는 모두 서민이었다. (鄧洪波 主編, 『廣雅書院司舍錄』, 『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 86, 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8, 168·205쪽.)

다. 한편으로는 광아서원에 입원하는 원생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음을 알려 준다. 그렇기에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원장과 이를 보조하는 분교들의 수준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광아서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癸試의 式年[3년을 주기로 서원에서 나가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02년부터 「서원개혁칙령」에 따라 兩廣大學堂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학업을 대성하는 기한을 備齋 3년, 正齋 3년, 專齋 3년 등 9년으로 하였다. 교육과정은 학생 본인의 흥미,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최초의 교육과정은 經學, 史學, 理學, 經濟學의 4부문으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의에 능통하며, 고금을 관통하고, 독실하게 실천하고, 현재 절실히 필요한 것을 체득하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아울러 詞章學도 익히도록 했는데 이는 상세하고 고아함을 체득시키려는 의도였다.⁶³⁾ 이 과정을 통해 학문을 널리 닦아 그 이치를 깨닫고, 절도에 맞춰 예절을 행하는 자질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이를 가르치기는 어렵다고 보고, 1889~1890년 사이 文學 과목으로 고쳤다. 이 네 과목 외에도 아울러 時務도 다루면서 점점 학당의 모습을 갖춰갔다.

실제 1889년(광서 15) 『광아서원동성제생하계공과부』를 보면 당시 원생들이 수학하였던 과목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7명의 광동성 출신 원생들은 사학(史記, 通鑑, 漢書, 左傳, 前漢書, 三國志, 春秋, 明史), 경학(毛詩詩經, 孟子, 論語, 周易易經, 孝經, 尙書書經, 公羊[春秋公羊傳], 穀梁[春秋穀梁傳], 儀禮, 禮記, 左氏[春秋左氏傳], 爾雅), 이학(理學, 朱子學) 및 說文說文解字, 경제, 掌故之學[의례] 등을 익혔다.⁶⁴⁾ 특히 경학과 사학 과목을 수학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 가운데 『毛詩』를 가장 많이

63) 張之洞, 「創建廣雅書院折」, 『張文襄公全集』, 中國書店, 1990. “經學以能通大義爲文 不取瑣細. 史學以貫通古今爲主 不取空論. 理學以踐履篤實爲主 不取矯僞. 文學以翔實爾雅爾雅爲主, 不取浮靡. 其中經齊附于史學 兼及地理.”

64) 鄧共波 主編, 「廣雅書院東省諸生夏季功課部 一卷」, 『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 89, 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18, 1~157쪽.

공부하였다. 경제, 掌故學 및 사장학과 관련된 『爾雅』, 『說文』 등은 1~3명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사학과 함께 공부하였다.

〈표 4〉 1889년 『廣雅書院東省諸生夏季功課部』

성명	자	거주지 [廣東]	신분	나이	학습	검직 학습	入院 기간 광서15(1889)
勞植楠	榮康	廣州府 南海縣	縣學 附生	36	經濟	史記	4월1일~6월30일
趙天錫	魯菴	新寧縣	縣學 廩生	32	史記		상동
顧臧	子洪	番禺縣	監生	18	通鑑		상동
陳桂植	樹八	番禺縣	府學 附生	18	毛詩		상동
趙宗壇	嶧山	新寧縣	縣學 增生	27	毛詩		상동
馮思	儼若	南海縣	監生	19	儀禮		상동
漆葆熙	陸宗	番禺縣	縣學 附生	42	毛詩		상동
桂沾	南屏	南海縣	縣學 優增生	23	禮記		상동
陳慶畝	公陸	番禺縣	縣學 優附生	20	毛詩		상동
易開駿	展穆	番禺縣	監生	21	毛詩	孟子	상동
吳萃英	星蒼	南海縣	縣學 附生	39	毛詩		상동
黃錫光	恕平	南海縣	縣學 增生	48	史記		상동
楊丙龍	廷棟	南海縣	監生	30	史記		상동
伍銓萃	夙葆	新會縣	縣學 優廩生	26	漢書		상동
崔浚榮	明三	番禺縣	監生	28	通鑑	漢書	상동
傅維森	誌丹	番禺縣	縣學 附生	26	左傳		상동
黃僑生	少卿	南海縣	府學 附生	22	漢書	論語	상동
林翻曾	蘭莊	南海縣	監生	27	史記		상동
賴際熙	煥文	增城縣	縣學 增生	20	史記	論語	상동
張壽波	玉濤	香山縣	縣學 附生	22	漢書	左傳	상동
吳功溥	伯庸	番禺縣	縣學 附生	27	漢書	禮記	상동
寥天章	孔懷	番禺縣	監生	27	漢書	左傳	상동
劉鼎元	笏朝	番禺縣	縣學 附生	21	左傳	漢書	상동
馮祖禔	仲麟	肇慶府 高要縣	縣學 附生	31	理學	孟子	4월19일~6월30일
馬呈圖	西鈞	高要縣	縣學 增生	30	毛詩		4월19일~6월30일
馮祖禧	季麟	高要縣	縣學 附生	26	史記	毛詩	
龔炳章	虎臣	廣寧縣	縣學 廩生	29	史記	周易	

區炳泰	子和	高明縣	縣學 優廩生	36	毛詩	周易	
梁寶瑜	集西	高要縣	監生	22	史記	孝經	4월19일~6월30일
鍾樹榮	佩華	高要縣	縣學 廩生	38	毛詩		4월1일~6월30일
邱鸞翎	星渠	高要縣	縣學 附生	21	周易	史記	3월1일~6월30일
羅樹修	灃月	嘉應州 興寧縣	縣學 拔貢生	30	毛詩	禮記	4월1일~6월30일
張祖元	贊庭	興寧縣	縣學 優附生	33	毛詩		상동
熊曜宗	守元	嘉應州	州學 附生	29	史記	漢書	상동
張資溥	稚威	嘉應州	州學 增生	23	爾雅	毛詩	상동
胡其煥	鳳生	羅定州	州學 附生	31	毛詩		상동
蕭憲章	學周	駐防漢軍正藍旗	廣州府學附生	33	毛詩		상동
傅球林	韻石	羅定州 西寧縣	縣學 廩生	40	毛詩		상동
江逢辰	孝通	惠州府 歸善縣	縣學 廩生	30	毛詩		상동
楊壽昌	果菴	歸善縣	縣學 廩生	22	朱子學	毛詩	상동
寥佩珣	君栗	歸善縣	府學 附生	24	毛詩	理學	상동
張慕衡	許齋	博羅縣	縣學 附生	24	漢書	禮記	상동
許壽田	鶴壽	歸善縣	府學 附生	27	通鑑	孟子	상동
祝慶祥	雲岑	歸善縣	府學 增生	27	左傳	漢書	상동
平遠	蘊山	駐防鎮藍旗	廣州府學附生	26	毛詩	掌故之學	상동
顏麟	朗圻	連平縣	州學 附生	46	史記		5월25일~6월30일
顏怡澤	子白	連平縣	州學 廩生	27	尙書	漢書	4월1일~6월30일
曾述經	月樵	潮州府 揭陽縣	縣學 廩生	30	史記		상동
陳倬雲	壽仁	大埔縣	縣學 廩生	26	史記		상동
曾習經	剛甫	揭陽縣	縣學 附生	22	毛詩 儀禮	爾雅 說文	상동
饒從龍	紆雲	大埔縣	縣學 增生	21	公羊	爾雅	상동
譚偉祺	俊生	廉州府 靈山縣	歲貢生	42	毛詩	易經 書經 孝經	6월2일~6월30일
黃佐槐	午齋	合浦縣	縣學 廩生	32	毛詩	前漢書	4월1일~6월30일
劉潤綱	維三	合浦縣	乙酉科拔貢生	28	毛詩	三國志	상동
王士宗	希曾	欽州 直隸縣	州學 廩生	25	左傳		상동
饒雲翔	雁賓	潮州府 大埔縣	乙酉科拔貢生	39	史記		상동
吳鏗壽	洛符	高州府 吳川縣	縣學 附生	29	毛詩	儀禮	상동
梁統高	文三	信宜縣	縣學 廩生	26	史記	左氏春秋	상동

林鶴年	樸山	茂名縣	縣學 附生	32	毛詩		1월24일~6월30일
梁宗柏	式如	茂名縣	府學 增生	27	尙書		2월30일~6월30일
梁成久	樾壽	雷州府 海康縣	乙酉科拔貢生	27	史記 漢書	穀梁	4월1일~6월30일
李書田	戩穀	海康縣	府學 優廩生	30	理學	孟子	2월27일~6월30일
王德均	小筠	韶州府 曲江縣	府學 附生	32	論語	說文	6월3일~6월30일
林成藻	翔若	雷州府 徐聞縣	縣學 附生	25	毛詩	禮記	4월3일~6월30일
劉樹杰	拔三	韶州府 仁化縣	縣學 廩生	22	毛詩	說文	2월10일~6월30일
黃興賢	策軒	韶州府 曲江縣	府學 附生	29	儀禮	毛詩	2월7일~6월30일
卓椿齡	夢吟	雷州府 海東縣	縣學 附生	26	毛詩		2월26일~6월30일
黎元莊	辰約	嘉應州	州學 優廩生	35	禮記	明史	3월19일~6월30일
莫世壩	梓園	南雄州 直隸縣	南雄州學廩生	28	毛詩	史記	4월1일~6월30일
李稽堯	冠唐	南雄州	州學 廩生	30	詩經		상동
尹自琛	憬淮	南雄州 直隸縣	州學 增生	28	論語	史記	상동
龍喬剛	柔仲	連州 直隸縣	州學 優廩生	35	毛詩		2월5일~6월30일
鍾凌漢	履崖	嘉應州	州學 附生	25	左傳		4월1일~6월30일
梁應奎	星元	高州府 茂名縣	縣學 附生	30	尙書		4월3일~6월30일
吳應星	均台	瓊州府 儋州	縣學 優廩生	33	禮記		4월8일~6월30일
李國藩	翰純	肇慶府 高要縣	縣學 附生	24	禮記	理學	5월9일~6월30일
陳聲瓏	葱玉	高州府 化州	州學 增生	36	周易		4월15일~6월30일

광아서원은 건립된 후 廣州海關의 외국 주재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1891년 12월 31일, 프랑스 국적의 세무사 레일러스가 총세무사에게 제출한 내부 총결산 자료인 『粵海關十年報告』(1882~1891)에는 장지동 총독이 광주에 광아서원을 세웠으며, 그곳의 시험이 매우 엄격하다고 보고하였다.⁶⁵⁾ 광아서원의 입학생들은 빼어난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총독이 주관하는 특별 시험에 통과해야만 했다. 각 과목의 시험은 관에서 시험하는 官課와 스승이 시험하는 師課가 있었다. 사과는 분교의 齋課를 칭한다. 관과는 총독과 순무가 맡아서 매월 初旬에 거행하고, 사과는 掌敎가 맡아서 매월 중순에 거행하였다.⁶⁶⁾ 매달 치르는 관가와 사과의 시험 후에는 결과에 따라서 작문이 우

65) 『每日頭條』, 「張之洞創廣雅書院：備受國外勢力關注」(2017.02.15).

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1냥에서 3냥까지 차등 지급하여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였다.⁶⁷⁾ 이와는 별도로 3년의 학습을 거친 뒤에는 진급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를 떠나야 했다.

엄격한 교학 관리도 두드러진다. 內宿制를 시행하여 모든 원생은 반드시 동·서재[기숙사]에서 생활하고, 매월 5냥의 생활 수당을 받았다. 원생들은 서원 밖에서 밤을 보내서는 안 되었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서원을 떠날 수 있었다. 이처럼 서원의 경비는 사생들의 생활비, 공역 식비 및 잡비로 사용되었다. 그 재원은 정부 지출 자금 일부분과 충당이 필요하면 공토 임대료 외에도 관료, 관상의 기부를 받아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이 광아서원은 19세기 말 광주충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관민의 기부금으로 건립비용과 운영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자금의 규모가 컸던 만큼 청나라 말기 전국 최대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품행과 학문이 뛰어난 인물을 원장으로 초빙하여 원생들의 교육과 생활 전반을 관리하였다. 서원은 철저히 외부와 폐쇄된 형태로 건립·운영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출입한 이들은 매월 시험을 위해 출입하는 관료들과 서원에서 생활하는 원생과 원임을 제외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이들 원생의 신분은 생원 이상의 사회 특권층에 속했다. 광아서원은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엄격한 시험과 장학제도를 통해 원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제고해 나갔다. 아울러 학제개편에 따른 교과 신설과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갔다.

66) 등홍파 주편, 『廣雅書院諸生課題 一卷』, 앞의 책 86, 2018, 1~152쪽. 이 책에 수록된 관과와 사과는 매월 4~9개의 과제를 출제하였으며, 覆試라 하여 탈락한 원생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사과는 齋課라 표기하여 분교별로 출제를 하였으며, 관과는 督憲, 撫憲으로 표기하여 충독과 순무가 출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67) 등홍파 주편, 『廣雅書院文稿』, 앞의 책 86, 2018, 249~454쪽. 우수한 답안을 제출한 원생은 이들 답안을 엮어서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였다. 이때 각 답안지의 題名 아래에 시험이 출제된 月과 종류(官課, 齋課) 및 순위(超等 1·2·3), 성명, 출신지, 신분(廩生) 등을 기재하였다.

IV. 맺음말

19세기 동아시아는 전통 유교질서가 붕괴되고 서구문명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조류가 만들어지던 시기였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동아시아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서원의 역할과 위상 변화를 한중서원을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하지만 옥산서원과 광아서원은 건립시기와 자료의 상이함으로 인해 비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19세기 초·중반은 한국 서원의 사례를 통해 전통서원의 모습을 살펴보고, 19세기 후반은 중국서원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조류에 대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옥산서원은 16세기 후반 건립된 이래로 높은 위상을 유지해왔던 곳이다.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19세기는 200여 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 다양한 신분과 지위에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서원을 출입한 목적도 모두 달랐다. 그러나 신향과 구향을 막론하고 사족이라는 사회 지배층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서원의 입원 자격과 운영권을 두고 치열히 대립했다. 또는 지방의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제향을 존중하여 방문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과객이라도 옥산서원을 방문한 것은 유구한 역사를 품은 건물과 서적, 이언적의 흔적이 남은 주변의 경관과 유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과객에게 숙박이라는 예우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옥산서원은 강회, 문회, 순제 등의 교육적 기능도 수행하면서 19세기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여타 서원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도 서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증대에 일조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혼란이 확산되던 시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옥산서원은 각종 향회와 도회 등을 통해 현안을 논의하고, 여론을 만드는 곳으로서 역할 하였다. 또한 내부적 결속을 위한 문집 간행과 현양 사업에도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비록 신향의 성장에 따른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상적 활동이 어렵기도 했지만 그 결과의 영향이 영남전역에 미칠 정도로 여전히 사회적 위상이 높았다.

중국의 광서서원은 19세기 말 서양 문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시기에 건립되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할 지식과 품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통서원의 교육방식을 탈피하였다. 양광총독 장지동은 당시 최대 규모의 서원을 건립하여 우수한 학자를 원장으로 초빙하고, 광동과 광서의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하였다. 서원 내 제향시설을 없애고 대규모 장서루와 기숙사를 설립하여 서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오로지 학문을 익히는데 전념하도록 했다. 원생들은 모두 동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신사층이자, 사회 지배층이라는 점에서 한국 서원과 동일하다. 교육과정에서 경학, 사학, 이학 등을 가르친 것은 기존의 전통서원과 유사하지만 경제학, 지리학, 사정학 등을 두고서 시무에 밝고 인품이 단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매월 강도 높은 시험을 두 차례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상벌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서원개혁정책에 따라 교명과 학제를 개편하여 근대학교로 전환되어 갔다.

일반적으로 한국서원은 19세기에 이르러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고, 대원군의 훼철을 겪으면서 그 지위가 하락하고 만성적인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는 훼철되지 않은 서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또한 개항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학문의 수용보다는 전통 유교교육을 고수하였다. 중국의 서원들도 대부분 한국 서원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각 성을 대표하는 성회서원들은 지방관과 지역의 부상 및 유력자들의 기부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학제로 개편하여 그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에 따라 19세기 서원은 전통의 유지와 변화라는 두 방향으로 나아갔다.

【참고문헌】

1. 자료

「完議(1912), 『書院錄』, 『本鄉書院錄』, 『旬題計劃榜目』
『丁亥七月二十六日薦會時 到記』, 『癸卯正月二十九日 玉山書院道會時到記』
李彥迪, 『晦齋集』
張之洞, 『張文襄公全集』(中國書店, 1990).

2. 단행본

鄧洪波, 『書院學檔案』, 武漢大學出版社, 2017.
鄧洪波 主編, 『中國書院文獻叢刊(第一輯)』 86·89, 國家圖書館出版社·上海科學技術
文獻出版社, 201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譯註 玉院事實』, 온샘, 2021.

3. 논문

이수진,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 『민족문화논총』 2·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周漢光, 「廣雅書院是名」, 『張之洞與廣雅書院』, 台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83.
陳谷嘉·鄧洪波, 「第二章 書院的等級差異」, 『中國書院制度研究』, 浙江教育出版社
[中國], 1997.
이수환, 「경주 옥산서원 원임직 소통을 둘러싼 적서간의 향전」, 『고문서연구』 16·
17, 한국고문서학회, 2000.
송양섭, 「19세기 幼學層의 증가양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
실』 55, 한국역사학회, 2005.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국
학연구소, 2007.
오금성, 「중국의 과거제- 그 이념과 정치·사회적 영향」, 『한국사시민강좌』 46, 일
조각, 2010
秦欢, 「清末的廣雅書院」, 『黑龍江史志』 13, 2015.
이병훈, 『조선 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과 역할』,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등홍파·조위, 「백록동서원의 설립 배경과 중국 서원의 변화」,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온샘, 2021.

Nguyễn Tuấn-Cường, 「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The Neyherlands), 2020.

4. 기타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s://yn.ugyo.net>)

『每日頭條』, 「張之洞創『雅書院』：備受國外勢力關注」(2017.02.15).

Abstract

Access to the seowon and its meaning from the
19th century Korean–Chinese seowon data
–Focused on Gyeongju Oksanseowon
and Guangzhou Gwangseowon–

Lee, Byounghoon*

Among the seowons in East Asia, the Korean seowon has maintained a separate list of visitors. However, in other countries, it is impossible to ascertain the number and identity of visitors because such data do not exist. However, some of the lists of students who prepared for the past remain, so we can guess the identity of those who entered the seowon. Although it is a record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ccording to the Records of Gwangseo Wondong and the Summer Engineering Department of Gwangseo Wondong, students from each Chubu Hyeonhak(州府縣學) in the province were hospitalized and studi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ost of these students were students of Chubu Hyeonhak(州府縣學), but there were those who studied at Gukjagam(國子監), Gamseng(監生) Gongseng(貢生), Gongsu(貢士), and Balgong(拔貢), or entered the Hyangsi(鄉試) like Geoin(舉人). These were the leaders of each region, and their purpose was to prepare for the past to advance into the central bureaucracy.

Gyeongju Oksanseowon was a representative ancestral rite for Lee Eon-jeok, one of the five prefectures of the East, as well as a seowon representing Yeongnam. In particular,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a Confucian academy of Namin ancestry, there were many visits by Noron and Soron dignitaries.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in Yeungnam University / yukhl@ynu.ac.kr

People who visited the seowon simply heard about it while passing by Gyeongju, or learned about Seon-hyeon(先賢) when they went to take it in the past or passed it. Or, they visited to attend ceremonies and geojae, or to attend various banquets such as hyanghoe(鄉會) and city meetings. In the case of a local officer, he visited as an example of Seon-hyeon(先賢) when he was newly appointed, and he also adjudicated various civil complaints at this time.

In Oksanseowon, there is “Bonhyangsimwonrok(本鄉尋院錄),” which is not found in other seowons. Persons who have visited within Gyeongju are listed here. In particular, it is useful to identify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Confucianism between the Confucianists and the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Confucianism and the Spring Festival in the 19th century. Through this, the range of powers that were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the seowon can be confirmed. In addition,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visitors who participated in irregularly held large projects such as Chije(致祭) and heavyweight, so a separate Dogi(到記) was written and recorded. In the 19th century, Oksan Seowon was visited by many people from inside and outside Hyangsa(享祀) in the early 1820s and mid 1850s, when the dispute between Jeokseo intensified, and in 1840, when Guinang was reconstructed and inaugurated. By region, Gyeongju had the largest number of visits, followed by people from the central region of Yeongnam, such as Yeongcheon, Daegu, Yeonghae, Indong, Seonsan, Gunwi, and Seongju. In particular, in the past year, there were many people who entered Samasi(司馬試) or came to visit after taking a high grade in the Department of Liberal Arts, and they mostly accompanied the clan.

In the 19th century, the number of people visiting Oksanseowon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is can be seen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yangbans, but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symbolism of the Confucianism as a base for Confucianism that remained even when Daewongun's original samurai was destroyed and the hearts of Confucian students who felt sorry for the decline of Confucianism.

Key word : Seowon, Visitors, Shim Won-rok, Oksanseowon, Gwangseowon

논문 투고일: 2022. 05. 31 심사 완료일: 2022. 06. 15 게재 확정일: 2022. 06. 20

■ 논문

-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
- 조선시대 서원과 비교 관점에서 -
- 講學과 經世 : 李顥의 書院講學과 社會教化
-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 강서(江西) 일대 서원을 중심으로
- 明清河南書院祭祀研究
- 以河南府和開封府為例
- 죽음을 통한 젊은 유학자의 성장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

—조선시대 서원과 비교 관점에서—

정수환**

- I. 머리말
- II. 明清, 幕藩, 後黎 시대 서원 활동
- III. 조선시대 서원 활동의 다양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 중 서원이 차지하는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의 같은 시대 서원에 대한 성격을 상호 비교 분석했다. 연구 범위는 대한민국 학계에 소개된 국내와 국외 학자들의 동아시아 서원과 관련한 성과와 조선시대 서원의 몇 가지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동아시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른 교육 기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원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서원에서의 교육 내용이나 정부와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지역적 다양성은 존재한다. 서원 제도와 현대교육과의 연결성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과 단절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날 동아시아의 다양성을 위한 하나의 배경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그리고 이 글은 2022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한국서원학회·중국서원학회에서 주관하고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민족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제9회 동아시아 서원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서원 문화의 지역성과 운영 실태”(2022.5.20.~21) 발표문을 수정한 결과이다. 익명의 심사자들 의견은 원고의 보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swan@aks.ac.kr

되었다고 하겠다.

주제어 : 동아시아, 서원, 사숙, 강학, 조선시대

I. 머리말

대한민국의 조선시대 서원 연구는 지역사회의 구조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지식인의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런 측면에서 영남학파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서원을 중심으로 전개한 학문 활동과 서원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¹⁾ 지역사회에서 양반이 주도한 서원에서의 학술 활동에 대한 주목은 중앙정계와의 관련성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서원 운영 배경을 정치적 의미에서 해석했다.²⁾ 그리고 서원 운영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여론의 형성과 향권의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19세기 이후 제향 인물을 정점으로 한 특정 문중이 서원을 주도하는 문중서원의 특징이 확인되었다.³⁾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서원 연구의 확장을 위해 자료 발굴과 연구 전환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⁴⁾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정

1)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101~107쪽;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19~42쪽;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29~39쪽; 정수환, 「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位田 경영의 '中正' 한 가치추구」, 『民族文化論叢』 67, 2017, 157~159쪽.

2) 鄭萬祚,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3)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4)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道東書院誌』, 嶺南大學校出版部, 1997. 이 외에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집성』은 서원 자료를 지속 공개하고 있다. 서원 연구 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의 연구성과가 대표적이다.

정만조, 「韓國 書院의 歷史」, 『한국학논총』 29, 2007; 이수환, 「2000年 이후 한

책 제도와 서원 운영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다면적 접근을 성취한 대한민국 서원 연구는 세계사 그리고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서원의 의미와 가치를 비교할 필요성에 마주하고 있다.

서원 가치의 탐색을 위해 동아시아 서원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시도되고 있다. 중국의 서원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를 시작으로 청과 조선 서원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⁵⁾ 이러한 관심은 소수서원과 백록동서원 공간과 서원에서 간행한 서원지의 의미와 교육 활동의 특징에 대한 비교 성과로 이어졌다.⁶⁾ 2000년 이후, 중국 학자의 연구성과가 한국 학계에 소개되면서 한·중 서원의 연혁과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가 본격화했다. 중국 서원의 교육과 운영의 흐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⁷⁾ 이러한 중국서원에 대한 연구성과는 한국과 중국 서원에 대한 비교 연구로 연결되었다. 중국 서원 제도를 도입한 조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선 서원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⁸⁾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중국 학자들에 의해 주자학에 바탕 한 한국 서원의 특징을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다.⁹⁾

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民族文化論叢』 67, 2017; 김인걸, 「서원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과제」, 『韓國書院學報』 1, 2011.

- 5) 金相根, 「書評: 中國書院制度研究」, 『中國學研究』 14, 1998; 박중배, 「중국 서원 연구의 동향과 전망」, 『한국교육사학』 30-2, 2008; 李樹煥, 「朝鮮朝 嶺南과清代 山東의 書院 비교연구-人的組織과 經濟的 기반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46, 2010.
- 6) 조인철, 「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의 비교 고찰: 건립배경과 자연환경의 풍수적 특징을 중심으로」, 『道敎文化研究』 50, 2019; 임근실, 「16세기 한중 서원지의 지식사적 의미」, 『民族文化論叢』 79, 2021; 정낙찬·김홍화, 「한·중 초기서원 교육 비교」, 『비교교육연구』 15-3, 2005.
- 7) 朱漢民, 「中國 書院的 歷程」, 『한국학논총』 29, 2007; 朱漢民, 「書院教育和 湘學 學統」, 『韓國書院學報』 3, 2015; 謝豐, 「岳麓書院 연구 집단과 20세기 말 중국서원 연구」, 『韓國書院學報』 3, 2015; 張曉新·鄧共波, 「晚清書院藏書制度研究」, 『韓國書院學報』 13, 2021.
- 8) 鄧共波·趙偉, 「조선왕조 서원제도 수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 『韓國書院學報』 9, 2019.
- 9) 張品端, 「朱子書院文化與韓國書院的發展」, 『韓國書院學報』 11, 2020.

중국과 한국 서원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베트남에 관한 연구성과 공유는 제한적이다. 일본 서원에 대해서는 연구 현황을 소개하거나 서원에 대한 개념 논쟁 그리고 장서와 교육 활동이 일본 교육제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에 소개되었다.¹⁰⁾ 일본의 사례에 비해 베트남 서원과 관련한 제도 및 교육에 대한 연구성과 소개는 손에 꼽을 수 있다.¹¹⁾

중국 서원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서원에 대한 국내·외의 성과가 한국에 축적되면서 동아시아 서원의 특징을 추적하기 위한 비교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다. 동아시아의 가치 중 하나로 유교가 현대사에 끼친 영향이 한때 주목받은 사실이 있다. 유교와 관련한 가치에서 ‘서원’은 교육과 사회활동에 있어 아시아의 유교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학계의 연구 동향 - 해외 연구성과의 소개 포함 - 을 바탕으로 서원 가치 발견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중국의 명청시대, 일본의 막번체제 및 베트남의 後黎시대의 서원을 상호 검토하여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추적한다.

II. 明清, 幕藩, 後黎 시대 서원 활동

1. 중국 명청시대, 관이 주도하는 서원

중국 명청시대 서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0)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 29, 2007; 야구 마코토, 「일본서원의 장서구축」, 『韓國書院學報』 13, 2021; 김대식,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인 공동체와 도주서원」, 『아세아연구』 139, 2020; 이우진, 「오시오 추사이(大鹽中齋)의 洗心洞 강학 연구」, 『韓國書院學報』 7, 2018; 이진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일어일문학』 32, 2006.

11) 이우진,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韓國書院學報』 10, 2020.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다. 이시기 서원의 장서, 강회, 정치활동의 특징을 살펴보고 전·근대 교육제도 전환에 있어 서원의 역할을 분석한다.

16세기 중국 고대 서원에 뿌리를 둔 백록동서원의 장서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¹²⁾ 이 서원은 주희에 의해 중건된 상징성을 갖는 서원으로 명·청대에 11종의 서원지를 편찬하였으며, 이 중 16세기 편찬한 『백록동서원지』 장서목록을 토대로 서원의 출판과 도서관 기능을 가늠할 수 있다. 장서는 주희의 학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정자→주희→육구연’으로 이어지는 지식 계보를 보이면서 같은 시기 조선 서원의 도학 계보를 정립하는 견해와 유사했다.¹³⁾ 그리고 16세기 백록동서원과 조선의 백운동서원, 도산서원 등 영남지역 6개 서원 장서를 비교한 결과 『성리대전』, 『주자대전』 등 20종의 공동 장서를 확인하여 같은 시기 지식의 공유모습을 유추했다.¹⁴⁾ 16세기 명나라와 조선은 서원을 통해 도서 간행과 장서 확보를 통한 지식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 측면이 있었다.

명대 서원의 핵심 요소를 강회로 규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조선 서원과 비교할 수 있다.¹⁵⁾ 명 중기 이후 왕양명(1472~1528)과 제자들의 활발한 서원 강학 활동은 명대에 1,500~2,000여 개의 서원이 신설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¹⁶⁾ 명대 서원 會規를 토대로 강학 활동을 강회 개최 시기인 會期, 주관자 會主, 강회의 내용 會講, 의식절차 會儀를 정리할 수 있다. 유생들이 과문을 짓고 평가하는 행위를 會文·會課로 명명하며 경서에 대해 쌍방향적이고 집단적인 토의로 진행되는 부분이 강회였다. 서원 강회에 있어 조선 서원과 차별적인 부분은 강회 의식에서 엿볼 수 있다.

12) 임근실, 「16세기 明 白鹿洞書院 藏書의 특징과 의미」, 『서강인문논총』 58, 2020.

13) 임근실, 앞의 글, 136~137쪽.

14) 임근실, 앞의 글, 144~145쪽.

15) 박종배,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2011.

16) 박종배, 앞의 글, 2011, 82쪽.

반차에 따라 자리를 잡고 상읍 한다. 이러한 절차는 조선후기 서원 강회에 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에는 명대서원 강회만의 독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歌詩’라는 절차인데, 순서상으로 상읍 이후에 가시하고, 행강 이후에 다시 가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⁷⁾

강회의 의절은 조선과 차별성을 크게 찾기 어렵지만, 중간에 시를 읊는 가시 절차는 명대 서원의 독특한 의절 중 하나로 강조되었다. 이 가시의 의미를 “막히거나 걸린 것을 씻어내고, 성령을 개발한다.”라고 부여하여 명대 서원의 독특한 의절로 평가했다. 조선 서원과 강학 활동에서 부분적 차이는 서원의 정치화 양상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강학 활동을 바탕으로 학파간 대립 그리고 정치화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동림서원이다.

스승의 行誼와 심성론의 오묘한 강의는 실로 한 개의 학파를 형성하기에 족하였고 그들 동지의 진퇴와 존망은 천하의 정세와 유관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서원의 이름은 政黨의 지목을 받게 되었는데, 송·원·명청 4대에 걸쳐 여러 서원이 이를 저울질하였으나 동림서원보다 지나친 곳은 없었다.¹⁸⁾

인용문은 서원에서의 강학 활동이 명대 중기에 활성화하면서 명말에 서원이 정치세력화한 대표적 사례로 동림서원을 서술하고 있다. 동림서원은 학문적 동지들 사이 강회를 진행하였는데, 1604년 중건 이후 양명학에서 주자학으로의 전환과 시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학문적·정치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는 社團性 서원 또는 ‘강회식 서원’의 전형으로 전국적 영향력을 확보했다.¹⁹⁾ 그리고 주자학 우위의 양명학 비판과 정치적 파벌 형성으로 환관과 집권세력에 의해 ‘동림당’으로 규정되고 탄압을 받는 정치사건으로 비화하기에

17) 박종배, 앞의 글, 2011, 93~94쪽.

18) 柳誥徵, 『江蘇書院志初稿』(辛炫承, 앞의 글, 357쪽 재인용).

19) 박종배, 「명, 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60~62쪽.

이르렀다. 이러한 동림서원과 동림과는 명말 최대의 정치적 사건으로 왕조가 교체되는 단초가 되었으며, 유교적 학술담론이 정치와 연결되면서 미완의 학술·정치공동체로 평가된다.²⁰⁾ 동림서원의 이러한 전개는 조선시대 서원의 정치화 경향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청대 서원 활동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청대의 서원은 지방관에 의해 설립되어 관의 개입을 통한 경영과 교육 운영이 있었다. 특히, 옹정 청대 서원의 대부분은 관에 의해 설립되어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련성으로 관학적 성격을 띠고 서원이 민간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²¹⁾ 이런 경향성은 악록서원이 1652년(순치 9) 중건하여 1903년(광서 29) 학당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청대 전·중·후기로 구분하여 추적한 연구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懋台~乾隆 전기)에 이르는 청대 전기 교육은 程朱理學 중심의 학풍과 과거에 대응한 활동이었다. 악록서원은 공립서원으로 官方철학인 정주이학 교육을 수행했는데, 이 부분은 1717년(강희 56) 원장李文燾(1672~1735)가 『백록동규계시』를 바탕으로 제정한 『악록서원학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원이 사서육경을 중심으로 『사서집주』 등 송대 학자의 저서에 대한 독서를 강조하고 과거를 대비하여 『통감강목』 등의 사서와 고체시 학습을 강조한 사실은 이 시기 서원의 특징적인 성격을 보여준다.²²⁾

18세기 중엽에서 1850년(乾隆 중기~道光) 청대 중기 악록서원은 經史考據를 강조하는 漢學을 위주로 하면서 과거에 대응했다. 이 당시 악록서원의 3대 변화는 정주이학에서 경사의 고거와 훈고를 중시하는 한학의 대두, 정부

20) 辛炫承, 앞의 글, 359쪽. 신현승은 명대말기 양명학 유행에서 청대 고증학으로의 학술적 전환에는 동림서원의 학술과 정치담론의 후과에 따라 학술과 정치담론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하고 문자 고증에 바탕을 둔 고증학으로 전환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21) 정락찬, 「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 『東亞人文學』 21, 동아인문학회, 2012, 231~232쪽.

22) 정락찬, 앞의 글, 234~235쪽.

의 서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강화로 인한 서원의 관학화 그리고 한학 위주의 과거시험 경향에 대한 대응이었다.²³⁾ 건륭제는 서원의 교육방침, 산장초빙, 생도선발, 과정보법 등을 규정하는 詔勅을 내렸는데, 여기에서 서원 산장으로 하여금 팔고문과 경학, 사학, 치술 등을 강학하도록 해서 기술을 갖춘 예비관료로 육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²⁴⁾

1851년에서 1908년(咸豐~光緒) 청대 후기 악록서원은 대내·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치용을 위한 학문을 견지했다. 광서 연간 악록서원 산장 王先謙은 교육 과정을 개혁했는데, 내용은 1897년(광서 23) 月課改革手諭에 잘 나타나 있다.

교육과정을 경학, 사학(지리학 포함), 掌故學, 수학, 譯學 다섯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경학, 사학, 장고학은 산장이 관리하고 수학은 재장이 그리고 역학은 교사를 초빙하여 관리하도록 했다.²⁵⁾

경학, 사학과 같은 전통과목을 유지하면서도 서양 신문학 과목을 증설했다. 그리고 외국어 교사로 하여금 譯學會를 조직하게 하고 3년 기한의 영어과정을 제정하여 서구문물 수용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현했다.²⁶⁾ 이처럼 청대의 서원은 악록서원의 사례와 같이 관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서원이라는 전통 교육 기반은 중국이 서양식 신교육으로 전환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중국 근대교육 전환에서 서원 연관성은 1898년 무술변법에서 1900년 신정개혁을 전후한 시기 일련의 정책에 대한 연구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98년 무술변법운동 당시 康有爲는 강희제에게 과거제를 폐지하고 서원을 일괄 학당으로 개편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관철했다.

23) 정락찬, 앞의 글, 236쪽.

24) 정락찬, 앞의 글, 237~238쪽.

25) 정락찬, 앞의 글, 243~244쪽 재인용.

26) 정락찬, 앞의 글, 245쪽.

京師大學堂과 經濟特科는 모두 중·소 학당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데 각 성에는 증소학이 거의 없으므로, 각성 부주현 및 향읍의 公私 서원·義學·社學·학숙을 모두 中西學을 겸습하는 학교로 고치되, 성회의 대서원은 고등학, 부주현의 서원은 증등학, 의학과 사학은 소학으로 고치도록 건의하였다.²⁷⁾

교육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서원 등의 교육 기관을 학당으로의 개편을 시도했다. 중앙의 경사대학당을 설치하고 현실에 필요한 학문으로서 算學·譯學과 같은 경제 분야의 교육을 위한 경제특과를 설치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단위에 따라 학당을 설치하고 소·중·고등학으로 편제했다. 그렇지만 1898년 9월 江陰의 南菁書院이 1898년 9월 남청고등학당으로 재편되는 부분적인 성과에 그치고 무술정변으로 이런 개편은 후퇴하였다.²⁸⁾ 다만 이듬해 9월 중앙의 경사대학당과 주현, 각부 및 省급 서원을 소·중·고등학당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山東巡撫 袁世凱가 가장 먼저 山東大學堂을 설립하고 「山東大學堂章程」을 보고하여 개편의 모델을 제시했다.²⁹⁾

서원을 학당으로 개편한 배경은 관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점도 있었다. 20세기 초, 청말 근대교육 전환 과정에서 서원의 학당 개편의 전개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청말 근대교육의 발전과정은 학당으로 대변되는 서양식 신교육의 도입과정이자, 서원·義學·私塾 등 전통교육 기구가 학당으로 개편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 1901년 청조가 八股文을 폐지하고 각성의 서원을 일률 학당으로 개편하도록 명한 것은 청조 지배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관리육성교육의 중심이 서원제에서 학교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1902년과 1904년 청조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제를 제정·반포하고 1905년 과거제를 즉시 폐기한 것은 그에

27) 「康有爲請飭各省改書院至祠爲學堂折(광서24년 5월 15일)」(김유리, 「清末 書院의 學堂改編과 近代學制의 成立過程」, 『東洋史學研究』 75, 동양사학회, 2001, 84쪽 재인용).

28) 김유리, 앞의 글, 86쪽.

29) 김유리, 앞의 글, 93~94쪽.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³⁰⁾

서원의 학당 개편이 신교육의 도입과정이었으며 이는 과거제 폐지와 연동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초는 이어지는 부침이 있었으나 1905년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제를 마련하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청말 신학문의 도입과 근대교육 적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원의 학당 개편을 통한 근대교육 기관으로의 전환이 청대 서원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일본 幕藩體制 전후 私塾과 서원

서원과 관련해서는 幕藩體制를 전후한 시기 교육의 특징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일본 서원 특징과 관련하여 이우진은 藤樹書院을 초기 私塾의 전형으로, 양명학 서원의 독자성을 지닌 洗心洞學堂 그리고 근세와 근대교육의 교량으로 기능한 사숙으로 適塾과 松下村塾으로 의미를 부여했다.³¹⁾ 이러한 서원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일본 교육의 특징을 참고할 수 있다. 17세기 초~19세기 후반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한 幕藩體制 동안 무사는 藩校에서 文武를 학습하고 농민과 상인 등 서민은 郷校에서 교육받았다. 19세기 막번체제 붕괴 후에는 서양 열강의 침공에 대응하여 지방의 번교와 향교가 새로 건립되면서 초등교육을 위해 약 3,000종의 私塾과 家塾이 개설되었다.³²⁾ 서원에 대입할 수 있는 막번체에 전후한 시기의 용어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숙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일본 서원이 중국과 한국 서원과 지니는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일본이 과거가 없고 무사와 서민의 고정적인 계급 차이로 관료가 세습되는 특징에 주목한다. 중국과 한국 서원이 과거제와 관련한 중앙 집권제를 갖추고

30) 김유리, 앞의 글, 81~82쪽.

31) 이우진, 앞의 글, 2018, 151쪽.

32) 難波征男, 앞의 글, 61~62쪽.

있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특히 조선과 비교하기에 거리가 있다. 일본에 藤樹書院, 鳳鳴書院과 같은 서원이 있지만, 주자학과 양명학 등을 교육하는 사숙에 해당하는 점에서 전형적 서원으로 규정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³³⁾ 이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한국과 중국의 서원에 해당하는 개념이 일본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일본에서 조선과 같은 교육과 향사를 위한 서원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일본 서원은 書齋를 갖춘 건물로 지칭하면서 ‘書院塾’라는 주택 양식이 사용되었으며, 사립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단어는 ‘私塾’이 일반적이다. 교육 기관에 대해 관학과 사학 혹은 교육 내용과 대상에 따라 사숙을 서원에 비견할 수 있으며, 중앙집권적 특징이 희박한 막번체제의 특징과 관련하여 藩校도 서원의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³⁴⁾ 이로 본다면 조선의 서원에 견줄 수 있는 광의의 개념으로 먼저 사숙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일본에 존재했던 사숙의 몇 가지 사례 연구가 있다.

에도시대 사숙에서 출발해 근대까지 운영한 문고를 서원의 관점에서 파악한 사례가 있다.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는 1662년 교토 자택에 호리카숙(堀川塾) 혹은 古義堂이라는 사숙을 설치하고 1906년까지 240여 년 동안 장서를 구축하고 관리했다. 고의당은 출판물을 간행하면서 유교 경전 강의를 진행하여 교토를 대표하는 사숙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문인도 황실·귀족부터 藩士·농민까지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민간 학원으로 존재했다.³⁵⁾ 고의당에서 기원하는 이 사숙의 학풍은 주자학에 반대하면서 공자를 극도로 존중했다. 진사이의 ‘古義學’은 도쿠가와 막부의 관학이었던 주자학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경전 해석으로 학풍을 확립했다.³⁶⁾ 그의 비판 의식은 名物學, 本草學으로 이어져 醫學派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토 가문의 후손들이 塾主를

33) 難波征男, 앞의 글, 2007, 63쪽.

34) 이우진, 앞의 글, 2018, 146~149쪽.

35) 야규 마코토, 앞의 글, 51쪽.

36) 야규 마코토, 앞의 글, 55~57쪽.

세습하면서 고의당의 학문을 계승했다. 이러한 학문 경향은 이후 일본 사숙이 조선의 서원과 다른 특징 중 하나로 주목된다.

에도시대 학자의 학문과 후학 육성이 사숙, 서원의 건립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에도시대 유학자로 일본 양명학의 기조인 나카에 도주(中江藤樹, 1608~1648)의 교육 활동을 하고 문인들이 계승하여 서원을 경영한 사례이다. 그는 29세부터 세상을 떠나는 41세까지 문인 15명을 육성하고 장례 때 300명이 조문했다고 전한다. 문인 교육은 居家形으로 찾아온 문인이 원하는 내용을 가르치면서 의학서도 교육했는데, 교육 방법은 素讀, 講義, 會業을 실시하며 문답으로 정리하는 유교의 전통적 교육 형태를 계승했다.³⁷⁾

나카에 도주는 문인 육성을 위해 서원에서 강학고 문인이 계승했다. 그는 32세 때 문인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藤樹規, 學事左右戒를 마련했는데, 전자는 「白鹿洞規」를 차용하고 성인의 가르침 실천을 강조했으며 후자는 장유유서에 따른 문인들의 화목을 강조했다.³⁸⁾ 나카에 도주가 기틀을 다지고 사후에 그의 후손들과 문인들에 의해 도주서원이 운영되었다. 서원 형태는 다음과 같았다.

도주서원은 한 채의 일본 전통 가옥 형 건물로서 나카에 도주가 태어나 생활하던 자택의 舊址 바로 옆에 있다. 도주서원의 내부에는 제단이 위치한 사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단에는 나카에 도주와 그의 부인 등의 신위가 안치되어 있다.³⁹⁾

1647년 나카에 도주가 41세에 문인들의 지원으로 완성한 도주서원을 설명하고 있다. 강학과 향사가 강당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형식적으로 조선의 그것과 상이함이 있다. 향사 대상도 가족으로 확대하고 있었다. 나카에

37) 김대식, 앞의 글, 109~111쪽.

38) 김대식, 앞의 글, 112~113쪽.

39) 김대식, 앞의 글, 118쪽.

도주는 이곳에서 6개월 동안 강학하다 종신했는데, 초기의 강당이 1727년 즈음 서원으로 명명되고 1763년 편액을 갖추면서 서원이 되었다.⁴⁰⁾ 이처럼 도주서원은 거가형 문인 교육으로 출발하여 문인들 주도로 서원으로 확대되고 강학과 제향 공간이 되고 있어 조선 서원과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다.

서원 교육 관련 비교를 위해 강학의 방향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오시오 추사이(大鹽中齋, 1793~1837)의 洗心洞 강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는 막부에 대항한 일본 양명학의 거두로 세심동 학당 강학으로 제자를 육성했다.⁴¹⁾ 그는 24세이던 1816년에 양명학에 입문하고 이듬해부터 세심동 학당을 설립하고, 1825년 교육의 방향과 생활을 제시했다. 오시오 추사이는 세심동 학당에 「學堂東揭」, 「學堂徐揭」, 「學堂揭示」를 동·서재 등에 게시했다. 내용은 왕양명의 문장이나 그가 양명학에서 얻은 전거 그리고 왕양명 제자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명학적 가르침’을 향하고 있었다.⁴²⁾ 이러한 방향에 따른 세심동 학당의 일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경에 마무리한다. 기상과 함께 자리 정돈하고 용모를 바로 하고 스승 앞에서 양명학 서적을 읽는다. 읽고 자기 방에 돌아와 10번 더 읽고 의심나는 부분은 스승에게 묻고 바로 잡는다. 양명학 서적을 공부한 다음에는 주자학 서적을 공부한다.⁴³⁾

제가형 교육으로 일과와 운영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과를 갖추고 독서와 문답으로 공부하는 형식이었다. 공부 내용은 양명학을 바탕으로 하면서 주자학을 참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도 조선 서원과는 다른 양상 중 하나이다.

일본의 서원으로 볼 수 있는 사숙에서 진행한 교육은 근대교육으로 연계되었다. 막부 말기 2개의 사숙에 대한 사례 연구 성과는 사숙 교육이 근대교

40) 김대식, 앞의 글, 119쪽.

41) 이우진, 앞의 글, 2018, 35-36쪽.

42) 이우진, 앞의 글, 2018, 44쪽.

43) 「兒童日課大略」(이우진, 앞의 글, 2018, 43쪽 재인용).

육으로 전환한 실재를 보여준다.⁴⁴⁾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의 데키주쿠(適塾)와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손카손주쿠(松下村塾)가 그 사례이다.

오가타 고안의 데키주쿠의 사례이다. 데키주쿠는 막부 말기 蘭學으로 대표되는 대표적 양학 교육 기관으로 문하생이 1,000명에 이르렀다. 오가타 고안은 1816년 오사카에서 蘭醫 나카텐유(中天游)의 시시사이주쿠(思思齋塾)에서 4년 동안 난학을 배운 뒤, 에도와 나가사키에서 蘭學塾 안카이도(安懷堂) 등에서 8년간 서양의학과 네덜란드어를 습득하고 1838년 오사카로 돌아와 데키주쿠를 열었다.⁴⁵⁾ 이곳에서는 의학과 兵學, 本草, 化學 등과 관련한 네덜란드 문헌을 해독하고 교육했다.

요시다 쇼인의 손카손주쿠 사례이다. 그는 2년 동안 쇼카손주쿠에서 막부 말기 藩校에서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92명의 塾生에게 전수했다. 1830년 출생인 요시다 쇼인은 가학 교육을 받은 뒤 22세가 되는 1851년 洋學者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의 문하생이 되었으며, 1854년 옥중에서 『맹자』 등을 독학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1857년 고향으로 돌아와 쇼카손주쿠의 主宰者가 되었다.⁴⁶⁾ 쇼카손주쿠는 그가 어린시절 공부한 家塾이기도 했다. 쇼카손주쿠의 교육은 정해진 인원, 수업과목, 통학 규칙과 같은 교육과목이나 신분 구분 없이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개별 지도를 실현했다.⁴⁷⁾ 교육 내용에 대한 개방성이 일본 사숙 교육 활동의 특징으로 이는 조선 서원과 달리 근대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근대교육의 전환에 사숙이 참여했다. 일본은 1862년(명치 5) ‘學制’ 반포를 계기로 전근대의 학교 藩校·郷校·塾·寺子室이 근대화 교육으로 전환했다. 봉건제도 각 藩의 지방분권에 맡겨져 있던 문교사업에 대해 중앙집권적으로 정리하고 무사와 서민에 대해 서구형의 근대화 교육을 실현하면서, 전근대

44) 이건설, 앞의 글, 2006.

45) 이건설, 앞의 글, 2006.

46) 이건설, 앞의 글, 8쪽.

47) 이건설, 앞의 글, 10쪽.

서원적 성격의 기관이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교육을 조화시키고 새로운 동아시아 교육을 이루어 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⁴⁸⁾ 일본도 중국의 사례와 같이 근대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서원, 사숙을 포괄하고 있었다.

3. 베트남 後黎시대 서원

베트남 서원에 대한 한국의 연구성과는 제한적이다.⁴⁹⁾ 다만, 18세기 후반 응우옌 후이 오한(阮輝(瑩)의 福江書院의 사례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서원은 도서관의 의미를 지니면서 교육 기관으로서의 의미는 제한적인 특징이 있다.

현존하는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爛柯書院, 崇正書院, 복강서원 정도가 확인되며, 이들은 부분적인 학교 기능을 수행했다. 난가서원은 찐(陳) 왕조(1226~1400)에서 건립한 서원으로 유학자 찐통(陳穉)을 원장으로 명명하여 생도를 교육한 대표적 서원이다. 이 부분에서 베트남 서원도 도서관이 아닌 교육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베트남의 서원 사례는 승정서원과 복강서원이다. 승정서원은 띠이선(西山) 왕조(1778~1802)의 광중(光中)황제가 설치한 서원이다. 황제는 학자이자 정치가인 응우옌 띠엵(阮浹, 1723~1824)을 위해 그가 은퇴한 지역 '응헤 안'에 그를 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서원을 건립했다. 서원은 유교 경전을 찌놈(字喃)으로 번역하고 출판하여 유교를 확산하는 거점이 되었다. 여기에는 팡쑹황제가 응헤 안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 서원이 띠이선

48) 難波征男, 앞의 글, 65~67쪽.

49) 이하의 서술은 이우진(앞의 글, 2020)의 논문을 정리하였다. 그는 응우옌 쿠안 쿠옹(Private Academies and Confucian Education in 18th-Century Vietnam in East Asian Context: The Case of Phúc Giang Academy, *Confucian Academies in East Asia*, Brill, 2020)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술했다.

왕조의 중앙서원으로 기능한 데에도 요인이 있었다.

북강서원 사례이다. 이 서원은 지방의 외진 지역에 해당하는 응허 틈을 대표하는 사설 교육 기관이다. 서원은 서원 설립자 응우엔 후이 오한이 북경에 사신으로 악록서원 등을 방문한 경험으로 설립되었다. 그는 악록서원에서 서원 건립과 육성에 이바지한 인물을 배향한 육군자사(六君子祠)에 주목하고 귀국 후 서원교육과 향사를 위해 서원 건립을 시도했다. 부친이 운영하고 있던 사설 학교를 토대로 1732년 악록서원의 가치를 담은 학교를 개설하고 후에 북강서원으로 확장했다.

북강서원은 운영 면에 있어서 조선 서원과 유사점이 있다. 응우엔 후이 오한은 전국 각지에서 사설 학교로 수학하기 위해 학생들이 모이자 가난한 학생들의 수업료 지원을 위해 書院學田에 해당하는 ‘科名田’을 마련했다. 서원은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되어 문중서원의 면모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서원은 응우엔 후이 오한 등의 개인 저술을 비롯하여 유교 경전을 간행하여 ‘서원본’을 확산했다. 서원전 운영, 문중서원의 성격 그리고 도서출간은 조선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학규는 다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767년 응우엔 후이 오한은 「북강서원규례」를 독자적으로 마련했다.

- ①교육 시작 의례, ②졸업자 및 모범자 축하례, ③연간 서원에서 행하는 각종 의식 규정, ④학생의 도덕적 요구, ⑤유학에서 찾은 교육 및 도덕 관련 격언⁵⁰⁾

이원규는 18세기 후반의 내용으로, 의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백록동규」와 완전히 벗어나면서 베트남의 독자성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규 외에도 서원의 기능에 있어 차별성도 있다. 베트남은 스승의 가르침을 천착하는 ‘師法’ 사상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서원에서도 유교 경전에 대한 탐구보다 과거를 위한 지식 제공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급제자를 배출했다.⁵¹⁾

50) 이우진, 앞의 글, 2020, 157쪽 요약 재인용.

베트남 서원은 사례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관학과 사학의 성격을 보여준다. 사학의 경우 교육과 향사 그리고 운영에 있어 조선 서원과 관련성을 엿볼 수 있겠으나, 서원이 주도하는 사회 변화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제한적이다.

Ⅲ. 조선시대 서원 활동의 다양성

1. 공의에 의한 경영, 소수서원

조선 최초의 서원으로 알려진 백운동서원 그리고 사액서원으로서 소수서원은 지역사회 공의에 의해 설립하고 운영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⁵²⁾ 이 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1495~1554)이 1543년(중종 38) 중국의 백록동서원을 참고로 백운동서원을 건립하고 안향(1243~1306)을 향사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성리학을 함양하는 공간으로서 서원, 그리고 주희(1130~1200)가 무이정사에서 서원 강학을 실시했던 전고를 적용한 결과였다. 백운동서원, 즉 소수서원이 중국의 사상과 제도의 도입 결과였으나, 서원의 경제적 경영에 있어 구성원의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는 조선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

서원 경영의 중요 재원 중 하나인 곡물에 대한 운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소수서원은 원장이 정점이 있었음에도 독단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경영되지 않았다. 1582년(선조 27) 서원 곡물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논의 사례가 있다.⁵³⁾ 이웃 고을 서원의 대여 곡물에 대한 이자율이 1말에 3되가 기준임에도 소수서원만 5되를 적용하자 시세에 맞추자는 결의로 입의(立議)를 완성

51) 이우진, 앞의 글, 2020, 158쪽.

52) 이하의 서술은 정수환(「소수서원의 설립살이: 서원 경영의 조선적 모델」, 『소수서원 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의 논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53) 『雲院雜錄』, 1582년(선조 27) 2월 27일 立議

했다. 그 뒤 1629년(인조 7) 사립입의(士林立議)를 통해 서원 대여 곡물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은 유사로 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영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1637년(인조 25) 서원의 곡물 운영에 대한 결의는 소수서원의 집단 의사결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서원의 곡물 30석에서 28석을 지출한 뒤에 쓸 것이 부족하다. 그러니 목면 10필로 미를 사서 유생의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정축년 9월 초2일. 전 현감 安, 박사 黃, 원장 南, 유생 權·南·秦·郭·黃·南·南·徐·秦·南·安·黃·權·秦·黃⁵⁴⁾

서원 운영을 위한 곡물 중 절대다수가 지출되자 목면을 이용하여 재원 보충을 결의했다. 운영에 참여한 인사는 원장을 비롯하여 전·현직 관료와 유생을 포함한 18명의 사문(斯文)이었다. 서원 재원 운영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방향은 토지도 마찬가지로였다. 같은 시기 서원 경영의 주축인 학전(學田) 수호 노력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둔전(院屯田)을 서원 유생이 훅시라도 억눌러 감하는 일이 있거나 수직하는 이가 제멋대로 경작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이를 범하는 자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만력 42년 정월 일. 安·安·郭·權·郭·黃·黃·黃·黃·郭·金·金·郭·郭·金⁵⁵⁾

학전, 즉 관으로부터 면세로 처분받은 토지이거나 서원에서 매득한 전답으로서 서원의 토지에 대한 관리 지침을 합의한 입의이다. 17세기 이들 서원전이 월생이나 원예에 의해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었다. 이 시기 경상도 현풍도 동서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모습 중 하나이기도 했다.⁵⁶⁾ 여기에 서원 구성원 15인이 연명으로 서원 구성원에 의한 침탈을 방지

54) 『雜錄』, 1637년(인조 25) 9월 2일 院中立議

55) 『雲院雜錄』, 1614년(광해군 6) 정월 院中立議

56) 정수환, 앞의 글, 2017.

하는 결의, ‘원중입의(院中立議)’를 도출했다.

소수서원은 강학이 약화하고 서원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도 흩어지고 있었다. 서원전에 대한 인근 사족들의 침탈이 증대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하여 입의와 완의에 대한 보완으로 대응했다. 서원을 둘러싸고 변화하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의 가치, 즉 서원 휘철 정책과 首院으로서 영향력의 한계가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서원 향사 인물 후손들이나 특정 문중이 서원의 경영을 오로지 하며 나타난 ‘문중서원’이 대두하기 시작했다.⁵⁷⁾ 그러나 소수서원은 서원 구성원의 합의와 결의에 의거한 경영을 지속하였다.

2. 정치적 상징 공간, 신항서원

서원이 정치활동의 수단과 배경이 된 사례는 신항서원으로 사액 받는 유정서원이 있다.⁵⁸⁾ 충청도 청주 유정서원의 정치화는 송상현(1551-1592)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향사 및 신항서원 사액과 관련 있었다. 임진전쟁 초기에 송상현이 동래부사로 왜적에 항전하다 전사하자, 17세기에 그의 죽음을 충절로 평가하면서 전국에서 송상현 현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정서원이며, 여기에는 17세기 당쟁에 따른 이해가 작용했다.

송상현의 현창과 유정서원 배향 그리고 신항서원으로서의 사액은 청주지역 사림과 여산송씨 문중 그리고 중앙정계의 동향이 연계한 결과였다. 송상현의 후손 여산송씨는 청주를 기반으로 지역의 엘리트 사족 중 정치적으로 서인세력과 혼인으로 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가문은 서인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큰 학자 성혼(1535-1598)과 학통으로 연결되면서 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57) 이해준, 앞의 책.

58) 신항서원에 관한 서술은 정수환(「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송상현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9, 2019)의 논고를 참고했다.

가질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을 성취하고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한 서인세력, 그리고 청주지역의 서인 사림 세력은 송상현에 대한 현창에 집중했다.

17세기 서인에 의한 송상현 현창 활동과 서원과의 관련성은 서인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兩宋, 즉 송시열(1607~1689)과 송준길(1606~1672)의 활동에서 간취할 수 있다.⁵⁹⁾ 인조반정 직후 1624년(인조 2) 송상현이 세상을 떠난 동래에 忠烈祠에 대한 사액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恤典이 검토되었다.⁶⁰⁾ 그리고 1650년(효종 1)에는 산림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했던 양송의 노력으로 송상현이 유정서원에 배향되었다. 이를 위해 송준길은 송상현 향사의 당위성과 여론을 결집하는 통문을 완성했다.

관리와 사림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모두가 (송상현)선생의 행적이 이미 하늘과 땅에 우뚝하고 달과 태양처럼 빛난다고 한다. (중간생략) 그러므로 승후은 어디에 물어보아도 의심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⁶¹⁾

송준길은 송상현이 전쟁에서 순절한 사실을 강조하고 그를 사표로 삼아 유정서원에 향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던 양송의 협력으로 1654년(효종 5년) 사액을 추진하여 1660년(현종 1) 신항서원으로 사액이 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주지역에서는 정치적으로 서인을 표방하는 세력과 남인·소론 성향 인사들과의 갈등이 드러나기도 했다.⁶²⁾ 신항서원은 송상현의 현창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의 정치권력의 활동 공간이 되고 있었다.

서인 정치세력의 송상현에 대한 현창 활동은 당쟁 정국에서 우위를 차지

59) 이들 둘은 본관이 은진으로, 여산송씨 송상현과는 혈연적 연관성이 없다.

60)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0월 계묘;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3월 계유.

61) 宋浚吉, 『同春堂集』 권16, 雜著-淸州書院泉谷宋公追享通文 代牧自作.

62) 李政祐, 「17-18세기초 淸州地方 士族動向과 書院廻轉」, 『朝鮮時代史學報』 11, 1999, 101~102쪽.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시기 서인 세력은 정몽주에 대한 추송을 통해 충효 가치를 선점하여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고 있었다.⁶³⁾ 이런 배경에서 송시열은 송상현의 행적을 정리하여 1657년(효종 8) 송상현 신도비명을 지었으며,⁶⁴⁾ 그의 입장은 같은 해 서인 주도로 다시 편찬한 『선조수정실록』에 반영되었다.⁶⁵⁾

신항서원으로 사액 된 다음에도 송준길 주도로 송상현을 비롯하여 신항서원에 향사한 인물에 대한 추송이 이어졌다. 1665년(현종 6) 신항서원에 향사한 명현과 더불어 송상현에 대해 현종의 치제가 내려졌다.⁶⁶⁾ 그리고 1670년(현종 11) 즈음 송시열은 서인의 영수로 「東萊南門碑記」에 송상현의 순절 가치를 정리했다.

남문 위에 항상 보랏빛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에 뻗쳐서 여러 해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중간생략) 직장이 이 행렬을 우연히 만나자 말에서 내려 경의를 드러내었다.⁶⁷⁾

송상현의 죽음과 관련한 일화를 정치적 권위로 사실로 확정하고 충절의 가치를 높이고 서인의 정치적 명분의 우위를 확보했다. 이로써 송상현이 향사된 신항서원에 대한 의미를 배가하는 효과로 지역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었다. 송시열과 송준길의 송상현과 신항서원에 관한 관심은 서인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63) 김학수,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圃隱學研究』 10, 2012, 224~228쪽.

64) 『忠烈祠志』 卷1, 「東萊府使贈吏曹判書泉谷宋先生行狀(宋時烈)」; 宋時烈, 『宋子大全』 159, 碑-泉谷宋公神道碑銘 并序.

65)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계묘.

66) 『현종개수실록』 권13, 현종 6년 5월 임인.

67) 宋時烈, 『宋子大全』 卷171, 碑-東萊南門碑.

3. 이념과 경영의 연결, 도동서원

서원의 교육 가치가 서원의 경제적 운영 방향과 결합한 사례가 있다. 서원의 중심건물에 서원교육과 활동의 가치가 담겨있다는 가정에 따라 이를 추적할 수 있다.⁶⁸⁾ 경상도 현풍의 도동서원 사례이다.

쌍계서원이 도동서원으로 증건되었다. 김굉필을 주향으로 성리학적 가치를 담아 1568년(선조 1) 현풍 일대 사림 주도로 쌍계서원이 건립되었다. 임진전쟁 이후 정구(1543~1620)가 1605년(선조 38) 도동서원으로 증건했다.⁶⁹⁾ 서원 건립과정에서 그는 서원의 공간 설계에 직접 관여하고 강당을 ‘中正堂’으로 명명했다. ‘중정당’에는 도동서원이 지양하는 활동 방향과 서원 경영에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구가 명명한 ‘중정’의 가치는 그가 이이(1537~1584)에게 보낸 편지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근본과 적용으로 삼아 밝게 통하여 공정하고 넓어 기울거나 치우침이 없게 한다면 일을 도모 할 때 자연스럽게 ‘中正’하고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⁷⁰⁾

정구는 이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잘 살펴 공정하면서도 한쪽으로 기울어짐이 없는 생활과 학문 자세를 ‘중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는 『중용』에서 ‘時中’과 연결되며,⁷¹⁾ 이런 점에서 정구가 제시한 서원의 지향점 ‘중정’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정확하게 대응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68) 도동서원의 운영 등과 관련한 특징은 정수환(「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立田 경영의 ‘中正’한 가치 추구」, 『민족문화논총』 67, 2017)의 논고를 다시 정리한 결과이다.

69) 鄭述, 『寒岡先生續集』 권2, 雜著-書道東書院額板下.

70) 鄭述, 『寒岡先生續集』 권2, 書-答李叔獻珥.

71) 『中庸』 第2章; 李基東, 『大學·中庸講說』,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8, 212쪽.

도동서원의 학문 가치가 서원의 경제적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서원 소유의 각종 잡물에 대한 정리를 실현한 『雜物傳掌記』가 있다. 이 자료는 1693년(숙종 19)부터 1752년(영조 28)까지 약 120년 동안 서원의 회계를 인수인계한 기록을 담고 있다. 기록은 정구가 세상을 떠나고 그가 1678년(숙종 4) 도동서원에 향사 된 이후가 대상이다.

『잡물전장기』를 통해 도동서원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국가의 서원에 대한 통제는 1714년(숙종 40)부터 사실 서원에 대한 휘철이 시도되어 1741년(영조 17)까지 이어지고 있었다.⁷²⁾ 이런 기조가 이후에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18세기 전반 도동서원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환을 요구받았다. 이런 환경은 서원의 ‘중정’ 가치에 따른 대응을 예고했다. 내용은 『잡물전장기』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 기록내용에 대한 세분화로 ‘중정’의 가치를 적용했다. 17세기 말 『잡물전장기』 기록 기강은 와해하여 있었다. 서원은 1693년(숙종 19)까지 제기, 그릇, 전답의 3항목을 전여 하다가 1695년(숙종 21)~1697년(숙종 23) 파손이나 구매와 같은 변동사항만 기록하여 간소화했다. 서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록도 변화했다. 1698년(숙종 24)부터 전여와 전수에 참여한 유사들의 성과 이름을 밝히고 서압을 함으로써 회계의 책임성을 높였다. 그리고 17세기 말 3개 항목에 대한 기록에서 1698년(숙종 24)~1730년(영조 6) 7개로 내용을 세분화했다.

문서 기록의 책임성과 항목의 세분화는 변화하는 서원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정’의 실현이었다. 이에 대한 의미는 문서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임원이 다만 종이에 쓰인 내용으로만 전여하고 실제 수량을 정확하게 살피

72) 鄭萬祚, 「朝鮮後期 書院의 財政運營 문제에 관한 一試論」, 『龍山書院』, 집문당, 2005, 253~267쪽.

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간생략) 문서 중에 앞서 잃어버려 지금 없는 것은 다시 기록하지 않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을 구별하고, 가려 적어서 전장한다.⁷³⁾

1738년(영조 14) 6월 25일 『잡물전장기』 기록이다. 18세기 중엽 지속하고 있는 서원에 대한 불안한 현실에서 기존 『잡물전장기』 기록의 정리가 엄밀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대응이었다. 실존하지 않는 물종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도동서원 경영을 위한 기반을 확인하고 후일을 대비했다. 그리고 기존 7개 항목으로 세분한 전장의 내용도 이러한 사실확인 관계를 거쳐 ‘講堂雜物’과 ‘藏中雜物’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구가 17세기 도동서원을 증진하면서 강당에 담은 ‘중정’이라는 학문의 방향에 대한 지침은 이후 계승되었다. 이 가치는 서원의 경영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사실은 18세기를 전후한 시기 국가의 서원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잡물전장기』의 회계 기록을 엄격화 한 사실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4. 사회의 일상 지식으로서 서원, 금오서원

서원과 관련한 정보가 하나의 일상 지식으로 사회에서 유통되면서 조선시대 서원이 시대적 가치를 담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는 선산지역 서원과 관련한 정보 정리와 유통이다.⁷⁴⁾ 선산 일대에는 1572년(선조 5)에 길재(1353~1419)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여 3년 뒤 사액 받은 금오서원 등이 산재해 있다. 조선시대 금오서원을 중심으로 선산지역 서원과 관련한 연혁이 지식으로 유통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읍지 기록과 관련이 있었다.

선산지역 서원 정보를 수록한 가장 오랜 읍지 중 하나는 『일선지』이다. 이

73) 『雜物傳掌記』, 戊午 6月 25日 傳與傳受.

74) 이하 금오서원을 중심으로 한 선산일대 서원과 서원 지식에 대한 서술은 정수환(『조선후기 선산일대 서원에 대한 기록과 지식 그리고 일상지식』, 『민족문화논총』 78, 2021)의 논고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읍지는 지역 지식인 최현(1563~1640)이 1618년(광해 10) 초본을 만들고 1630년대 중반까지 보완한 결과이다.⁷⁵⁾ 여기에는 사액서원 금오서원을 비롯하여 월암서당을 수록했다. 『일선지』에서 금오서원에 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아은 길재선생은 충효를 모두 갖추고 성리학을 더하였으니 유학에 역시 큰 공이 있습니다. 지금 만일 선생께서 노년을 보낸 곳에 사당을 세우고 서원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금오산 기슭이 선생이 제사를 흠향하고 학생들이 고요히 학문을 닦는 곳으로 아주 좋으니 ...⁷⁶⁾

최현을 비롯한 선산지역의 지식인들은 길재가 성리학적 가치를 몸소 실천한 학자이자 지역의 선현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길재의 유적지에 서원 건립을 결의하고 수학 공간으로 성역화했던 내력을 기록으로 전했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 지식인 최응룡(1514~1580)을 중심으로 1572년(선조 5) 길재를 위한 묘우 건립과 서원 향사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일선지』에 담았다.⁷⁷⁾ 『일선지』에는 이런 사실과 더불어 임진전쟁 뒤 서원을 이군하는 과정과 관련한 일화와 김종직(1431~1492) 등을 병행하는 사실도 모두 수록했다. 17세기 선산지역 지식인에 의한 금오서원에 대한 가치 부여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유형원(1622~1673)이 1656년(효종 7) 『동국여지지』를 편찬하면서 『일선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선산의 지식이 외부와도 공유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⁷⁸⁾

18~19세기 서원과 관련한 정보는 여전히 일상 지식으로 생성되고 유통되었다. 18세기 중엽 편찬한 『여지도서』와 『연려실기술』에는 선산부에 서원과 영당 5개를 수록했으며, 서원은 금오서원을 포함해 4개로 증가했다. 금오서원과 더불어 월암서원, 낙봉서원, 무동서원을 추가하였다. 내용은 위치와 더

75) 박인호, 『인재 최현』, 에드게이트, 2021, 83~87쪽.

76) 『一善志』 권1, 「學校第五」 書院

77) 『一善志』 권1, 「秩祀第六」 金烏書院奉安祭文(崔應龍).

78) 朴仁鎬, 「柳馨遠의 東國輿地志에 대한 一考察」, 『淸溪史學』 6, 1989, 50~51쪽.

붙어 사액 여부 그리고 향사인 내역을 포괄하여 서원 관련 정보가 일상지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19세기 서원 관련 기록은 『동국문헌』, 『대동지지』 그리고 「선산읍지」에 남아 있다. 앞의 두 자료는 김성은(1765~1830)과 김정호(1804~1866)가 전국 의 서원과 사우 현황을 정리한 결과이다. 이들은 금오서원과 월암서원 그리고 낙봉서원의 건립과 사액 그리고 향사인 정보를 대상으로 수록했다. 1832년(순조 32) 전국 읍지 상송령에 따라 지역에서 정리한 『경상도읍지』에 포함된 「선산읍지」에는 5개의 서원 정보를 포함했다. 이러한 수록 대상 서원의 차이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보 선택과 지역 동향에 대한 비대칭적 정보 수집의 결과였다. 19세기 서원 정보의 범위는 「선산읍지」의 금오서원에 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금오서원. 처음에 금오산 아래에 있었다. 만력 을해년(1575) 사액 받았다. 임진 병화로 묘원이 폐허가 되었다. 임인년(1602)에 사림이 부사 김용에게 청원하여 선산부 동쪽 15리의 남산 남쪽으로 이건 했다. 아은 길재, 점필재 김종직, 신당 정붕, 송당 박영, 여헌 장현광 5현을 입학 했다.⁷⁹⁾

「선산읍지」는 금오서원, 월암서원, 낙봉서원, 무동서원, 송산서원 등 5개의 서원 현황을 수록하면서 지역 상황을 이처럼 적확하게 반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용문에서 보듯이 서원의 위치와 건립 연혁과 그에 따른 주도 인물을 비롯하여 향사인에 대한 내용을 중요 정보로 수록했다. 이로 본다면 이들 내용이 서원과 관련한 주요 정보로서 당시 일상지식으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문중 이해를 반영하는 서원, 오천서원과 덕남서원

조선시대 서원의 다양한 양상과 더불어 19세기 특징으로 이른바 ‘문중서

79) 『慶尙道邑誌』, 「善山府邑誌」 學校鄉校.

원'의 성격이 규명되었다.⁸⁰⁾ 문중서원 사례로는 영일의 오천서원과 밀양의 덕남서원을 살펴볼 수 있다.

서원 건립 초기부터 향사를 우위에 두고 문중과 결합한 사례가 오천서원이었다.⁸¹⁾ 이 서원은 오천정씨, 혹은 영일(연일)정씨의 시조 정습명을 향사하는 서원으로 조선시대 이들 문중의 결집 공간이었다. 출발은 정습명(1094~1150)의 분묘가 실전된 상황에서 그의 20세손 정몽주(1337~1392)가 조선 성리학의 원류로 추앙되고 1517년(중종 12) 문묘에 종사되면서 전국에 그를 향사하는 서원 건립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 있었다.⁸²⁾ 이에 따라 정몽주의 고향이자 그의 선조 정습명의 관향지인 영일 오천에 오천서원을 건립했다. 이 서원은 1588년(선조 21) 창립되어 1613년(광해군 5) 사액 되었다.⁸³⁾ 오천서원은 출발부터 오천정씨와 관련한 인연이 있었다.

17세기 오천서원은 영일 및 영천지역의 사림과 정씨 일가의 결집으로 운영되었다. 임진전쟁으로 서원이 소실되자 이견과 사액하면서 정구, 장현광(1554~1637) 등 17세기 대표적 학자들은 정습명과 정몽주를 충효의 상징으로 승화했다.⁸⁴⁾ 여기에는 이 시기 지역의 대표적 학자이자 오천정씨 일족인 정사물(1574~1649), 정극후(1577~1658) 형제가 이들 학자와 깊은 연결성을 갖추고 있었던 인연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18세기 서원 운영은 경상도 일원의 오천정씨와 더불어 전국에 산재한 일족의 상징 공간이 되었다. 특히, 정사도(1318~1379)와 정철(1536~1593)을 서원에 추향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영남 남인이 주도하던 오천서원에 서인을

80) 이해준, 앞의 책.

81) 오천서원의 문중서원 기능은 정수환(「조선후기 오천정씨 가문의 전통 발견-정습명 묘단 설치를 중심으로」, 『圃隱學研究』 15, 2015)의 논문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82) 김인호, 「정몽주 숭배의 변화와 위인상」, 『역사와 현실』 77, 2010, 260~262쪽.

83) 『新增東國輿地勝覽』, 迎日縣, 書院條

84) 鄭述, 「祝文-烏川書院重新奉安文」, 『寒岡先生文集』 권11; 張顯光, 「祝文-烏川書院合享祝文」, 『旅軒先生文集』 권11.

주축으로 한 중앙정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다.

정사도는 정몽주에게 일족의 존속으로 道德이 아주 드러나서 정몽주에게 뒤지지 않는데 (중략) 정사도 또한 정습명의 후예이고 정몽주에게도 이 또한 동종의 선배입니다. (중략) 만일 끝내 불가능하다면 비록 별묘를 세워서 향사 하는 것도 또한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⁸⁵⁾

정사도의 경우 정습명과 계통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관향지를 공유한다는 이유가 전면에 강조되고 심지어 정사도를 정습명의 후예로 강조하면서 명분을 쌓았다. 정습명, 정사도, 정몽주를 동종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에 의해 1740년(영조 16) 오천서원에 향사 되었다. 이로써 오천서원은 서원이 경사도 지방은 물론 전국의 오천정씨 추모의 공간으로 문중서원으로 운영되었다.

19세기에 건립된 밀양의 덕남서원도 오천서원과 같이 대표적 문중서원의 성격을 보인다.⁸⁶⁾ 밀성박씨는 1833년(순조 33) 덕남사를 창건하고 종종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밀양 유림의 공의를 얻어 이듬해 덕남서원으로 승격했다. 서원은 여말선초 활동했던 문중의 대표 인물 박익(1332~1398)을 비롯하여 그의 두 아들 박용(?~1424), 박소(1347~1426)와 같은 성리학자를 봉안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원을 결집하고 문중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다.

덕남서원 운영 내용에서 밀성박씨 문중 활동과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에서 서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있었다. 1833년 사우를 서원으로 개편하기 위해 밀성박씨 문중은 밀양의 향교와 인근의 오봉서원을 비롯하여 김해, 진해, 감사 일대의 서원 10곳에 통문을 발송했다. 이듬해 서원으로 승원한 다음에도 밀성박씨 문중은 고려말 박익의 충정에 대한 포증을 청

85) 『승정원일기』 권600, 영조 1년 9월 2일 丙申.

86) 이하 서술은 박병련·정수환의 원고(「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 『古文書集成』 76-密陽 密城朴氏·德南書院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49쪽·65~66쪽)를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다.

원 활동을 덕남서원 이름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다른 서원의 전례에 따라 밀양부로부터 향사에 필요한 제수를 확보하여 서원의 위상을 높이고 문중의 격을 유지하고자 했다.⁸⁷⁾

IV. 맺음말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가치 중 서원이 차지하는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의 조선시대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의 서원에 대한 성격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범위는 대한민국 학계에 소개된 국내와 국외 학자들의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서원 사례에 대한 성과가 대상이다.

명청대 중국 서원의 활동이다. 명 중기 이후 왕양명과 그 제자들에 의해 전국적인 서원 중간과 강학이 펼쳐졌다. 강회에서는 歌詩라는 의절이 특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서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 전개하는 강학의 특징이 있었다. 청대 서원은 관의 개입을 통한 강학 과목과 운영으로 민간교육이 진행되면서 과거가 중심에 있었다. 19세기 말 외부 학문의 도입을 위해 算學과 譯學 등의 교육을 시도했다.

일본의 막번체제를 전후산 시기 서원 관련 내용이다. 일본은 서원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私塾을 사립 교육 기관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앙집권화된 체제와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古義堂 사숙과 같이 도서를 출판하고 장서를 갖추어 강의를 진행한 사례가

87) 밀양지역의 19세기 전후한 서원 사례는 창녕조씨 주도로 건립한 오봉서원이 있다. 1780년(정조 4) 오봉사를 건립하고 밀양의 향중 공의를 도출하여 1796년(정조 20)에 오봉서원으로 승격하다 1868년(고종 5) 훼철되었다. 서원은 1815년 8월 밀양 향교로부터 오봉서원 원생이 납부하는 예납전을 면제받는 완문을 확보하였다(박병련·정수환, 「밀양 창녕조씨·의령남씨의 가계와 고문서」, 『古文書集成』 70-密陽 昌寧曹氏(五峯書院)·宜寧南氏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45~48쪽).

대표적인데, 교육에 있어서는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도 주자학 일편도가 아니었다. 교육 내용에는 양명학을 비롯하여 문인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범위도 외국어와 의학 등과 蘭學으로 대표되는 서구학문까지 포괄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서원 사례는 제한적이다. 북강서원 사례는 장서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고 교육 기관의 기능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서원 설치가 황제 등 국가에 의해 주도하였으며, 교육도 스승의 학문을 천착하기보다 과거에 경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은 교육과 향사를 위한 반관·반민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서원 사례를 통해 시대적, 내용적 다양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사회의 지식인과 학파에서 교육을 위한 사회적 공유재로서 건립하고 운영했다. 신항서원 사례에서 일부 서원은 향사인 선정과 추송 과정에 정치적 의미와 배경이 투영되기도 했다. 그리고 도동서원은 성리학적 교육 이념을 경영과 연계하여 서원의 시대적 역할과 가치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17세기까지 서원의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은 지식인의 일상지식으로 작동하면서 구미와 선산의 읍지를 통해 서원 정보가 유통 및 소비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19세기 이후 오천서원과 덕남서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 가문 중심의 향사 기능이 중시되면서 휘철로 인해 소멸을 다하기도 했다.

동아시아는 각국 역사적 배경에 교육 기관 전통으로 서원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교육 내용이나 과거와의 관련성 그리고 공간 구성에 있어서 지역적 다양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은 관에 의해 관립대학 교육으로 계승되고, 일본은 시숙이 사립대학 등으로 전개하여 서원과 근대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특징이 있지만, 조선의 서원은 근대 교육 기관으로 연결되지 못한 차별성은 존재한다.⁸⁸⁾ 이점과 관련해서는 아시아의 서원과 근대교육의

88) 조선시대 서원이 근대교육으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최근 제기되었으

측면에서 후속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나(정수환, 「일제강점기 현풍 도동서원의 현실과 대응」, 『大東漢文學』 71, 2022),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續大典』,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東國輿地志』, 『玉山誌』, 『一善志』
『忠烈祠志』, 『雜物傳掌記』(도동서원)
宋時烈, 『宋子大全』
張顯光, 『旅軒先生文集』
- 김대식, 「나카에 도주(中江藤樹)의 문인(門人) 공동체와 도주서원」, 『아세아연구』
13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20.
- 김유리, 「清末 書院의 學堂改編과 近代學制의 成立過程」, 『東洋史學研究』 75, 동양
사학회, 2001.
- 김인호, 「정몽주 숭배의 변화와 위인상(偉人象)」,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
회, 2010.
- 김학수,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圃隱學研究』 10, 포은학회,
2012.
- 難波征男, 「일본의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학교 한
국학연구소, 2007.
- 박병련·정수환, 「밀양 밀성박씨의 가계와 소장 고문서」, 『古文書集成』 76-密陽 密
城朴氏·德南書院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 박병련·정수환, 「밀양 창녕조씨·의령남씨의 가계와 고문서」, 『古文書集成』 70-密
陽 昌寧曹氏(五峯書院)·宜寧南氏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4.
- 박인호, 『인재 최현』, 에드게이트, 2021.
- 박종배, 「명, 청시기 서원 강회의 발전 과정에 관한 일 고찰」, 『한국교육사학』 35-3,
한국교육사학회, 2013.
- 박종배, 「회규를 통해서 본 명대의 서원 강회 제도」, 『교육사학연구』 21-2, 교육
사학회, 2011.
- 辛炫承, 「명대 말기 학술공동체와 정이 네트워크 연구-동림과 복사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5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 야구 마코토, 「일본서원의 장서구축-이토 진사이(伊藤仁齋) 가문과 고의당문고
(古義堂文庫)」, 『韓國書院學報』 13, 한국서원학회, 2021.
- 이건상, 「근세말 시주쿠(私塾) 교육의 특징- 데키주쿠(適塾)와 소카손주쿠(松下村
塾)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32, 대한일어일문학회, 2006, 10쪽.

- 이수환, 「2000年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民族文化論叢』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 李桂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 이우진, 「오시오 추사이(大鹽中齋)의 세심동(洗心洞) 강학(講學) 연구(研究)」, 『韓國書院學報』 7, 韓國書院學會, 2018.
- 이우진, 「일본과 베트남의 서원 연구 현황과 제언」, 『韓國書院學報』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임근실, 「16세기 明 白鹿洞書院 藏書의 특징과 의미」, 『서강인문논총』 5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 정락찬, 「청대 악록서원의 교육과정 변천」, 『東亞人文學』 21, 동아시아문화학회, 2012.
- 정수환, 「17세기 淸州 莘巷書院과 宋象賢 추모의 정치적 함의—송상헌 祠廟와 書院을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9, 2019, 韓國書院學會.
- 정수환, 「18세기 玄風 道東書院 院位田 경영의 ‘中正’한 가치 추구—학문적 가치의 경영원리 적용」,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 정수환, 「소수서원의 살림살이: 서원 경영의 조선적 모델」, 『소수서원 병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 정수환, 「조선후기 선산일대 서원에 대한 기록과 지식 그리고 일상지식」, 『민족문화논총』 7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정수환, 「조선후기 오천정씨(烏川鄭氏) 가문의 전통 발견—정습명(鄭襲明) 묘단(墓壇) 설치를 중심으로」, 『圃隱學研究』 15, 圃隱學會, 2015.

Abstract

Seowon, Universal and Pluriversal Values in East Asia

Jung, Su-hwan*

In order to track the meaning of Seowon among East Asian valu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eowon in China, Japan, and Vietnam based on the Choson Dynasty in Korea.

East Asia has educational institution traditions according to each country's historical background,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included as a confucian academy. However, there is regional diversity in educational content, relevance to the past, and spatial composition. Paradoxically, the characteristics of continuity and disconnection in the connection between Seowon and modern education have become a background for the diversity of East Asia today.

Key word : East Asia, Seowon, Confucian Academy, Choson, Education

논문 투고일: 2022. 05. 31 심사 완료일: 2022. 06. 14 게재 확정일: 2022. 06. 20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Chief Researcher) / swan@aks.ac.kr

講學과 經世 : 李顥의 書院講學과 社會教化*

정 병 석**

- I. 들어가는 말
- II. 經世의 실천 방식인 講學
- III. 「關中書院會約」에 보이는 강학
- IV. 悔過自新을 통해 본 강학의 성격과 사회 교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明清의 교체라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遺民 李顥의 근본 문제의식은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儒家사상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웅은 당시 사람들이 학문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科擧에 치중하여 개인의名利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것을 俗學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여기에서 正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正學은 단순히 개인의 명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밝히고 백성과 사회를 교화하는 학문을 말한다. 正學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웅은 書院 講學에서 찾고 있다. 그가 말하는 강학은 다름 아닌 경세관의 기본적인 실천 내용이고 방식이다. 강학을 통해서 민중과 사회를 教化하는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明體適用的 經世觀이다. 이웅이 주장하는 講學의 내용이나 방향은 어떤 사상이론을 傳播하려는 것이 아니라 心身을 올바르게 하거나 절제하는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다. 즉 유학이론을 구체화하고 실천화하는 방식을 통한 사회교화 혹은 민중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강학 활동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웅은 사회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悔過自新이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 seok@ynu.ac.kr

는 관점을 제기한다. 회과자신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한다는 말이다. 悔過自新의 제기는 직접적인 救世가 아니라 救心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救世의 간접적인 방식인 동시에 가장 근원적인 明體適用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李顥은 회과자신이라는 自我點檢의 수양방법을 靜坐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런 자아점검을 위한 靜坐의 공부법이 바로 默坐澄心이다. 이옹은 회과자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靜坐法을 중요하고 그것을 효과적인 수양방법으로 삼고 있다. 이옹의 정좌에 대한 강조는 어떤 의미에서 고도의 복잡한 유가의 철학적 사유 체계들을 日常生活化하고 公共敎學化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통 사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유학의 실천화와 대중화를 의미한다.

주제어 : 이옹, 서원 강학, 경세, 자아점검, 정좌

I. 들어가는 말

손기봉(孫奇逢), 황종희(黃宗羲)와 더불어 이옹(李顥)은 청초(淸初)의 3대 유가로 불리는데 그는 명나라 희종(熹宗) 천계(天啓) 7년(1627)에 태어나서 청나라 강희(康熙) 44년(1705)에 졸했다. 그의 자는 중부(中孚)이고 섬서(陝西)성 주질(盩厔) 출신으로 사람들은 보통 이곡(二曲)선생¹⁾으로 부른다. 그는 벼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생동안 강학(講學)에 주력하면서 회과자신(悔過自新)이나 명체적용(明體適用)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체계를 말하고 있다.

명청(明淸)의 교체라는 가혹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유민(遺民) 이옹이 가지

1) 주질(盩厔)은 지금의 섬서(陝西)성 주지현(周至縣)을 말한다. 이옹의 호인 이곡(二曲)이라는 말은 “산세가 구불구불한 것을 주(盩)라고 하고, 물이 굽이치는 것을 질(厔)이라고 한다(山曲曰盩, 水曲曰厔)”는 산곡(山曲)과 수곡(水曲)을 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명(地名)으로 호를 대신하는 경우로 매우 큰 존숭(尊崇)을 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예들은 많이 보인다.

고 있었던 근본적 문제의식은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는 오랑캐에 의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기존의 유가(儒家)사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한 오해와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에서 이옹은 기존의 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의 공능(功能)을 최대한 발휘하여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송명리학(理學)이 비록 심성(心性)을 고도로 이론화하여 철학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높게 발전시켰지만, 현실에 무용(無用)하고 공소(空疏)한 학풍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이옹은 말한다. 정주(程朱) 이학이나 육왕(陸王) 심학(心學)은 600여년의 발전과 변천을 겪은 후에 많은 폐단을 낳았고 특히 그들은 현실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유가들은 명이 망한 역사적 교훈에 대해 반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당시 사상계의 공통과제였다. 이러한 사상적 분위기 속에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주장하는 경향이 자연스레 출현하게 된다.²⁾ 백성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자임(自任)하는 사상가로서의 이옹은 당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문제의식과 우환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철학적 사색 역시 이런 과제 위에 집중하고 있다.³⁾

이옹 역시 경세치용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의 경세관이 말하는 핵심은 현실의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들을 직접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체(體)를 밝히는 방식을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명체적용(明體適用)이다.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체를 근본으로 삼는 것으로 명체(明體)를 통한 적용(適用)을 말한다. 이옹은 체를 용의 기초로 보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내성

2) 양계초(梁啓超)는 “청대 초기 학술사상의 주요한 추세는 이론을 배척하고 실천을 제창하는 경세치용이었다”고 하였다. 『中國近三百年學術史』, 山西古籍出版社, 2001년, 1쪽.

3) 정병석, 「이옹(李顥)의 회과자신설(悔過自新說)과 치료적 사유」, 『철학』 98, 한국철학회, 3~4쪽 참조 바람.

외왕(內聖外王)·명체적용·도덕경제(道德經濟)의 범주는 모두 전자를 후자의 필요 단계로 간주하는 것으로 적용은 반드시 명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명체의 최종 목적은 적용에 있다는 점이다.⁴⁾ 이용의 명체적용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 혹은 정신을 바로잡거나 혁신하는 사회 교화의 방식을 통한 경세관을 말한다. 이런 관점은 이용이 왜 강학(講學)을 경세의 효과적인 형태 혹은 주요한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이용의 기본적인 시각은 사람들 마음(人心)의 잘못이 국가 멸망과 사회부패를 초래하는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회의 고질적인 병통(痼痛)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실천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 그는 국가의 흥망치란의 근본 이유는 인심의 그릇됨과 올바름(邪正)에 달려있고, 인심의 사정(邪正)은 학술의 밝고 어두운 것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인심의 그릇됨과 올바름, 학술의 밝고 어두움과 천하의 치란(治亂) 사이에 내재적인 필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인심의 그릇됨과 바르지 못한 학술이 사회 병통의 원인이고 이런 사회병통의 원인이 되는 ‘인심을 깨우치기(醒人心)’ 위해서는 ‘학술을 바르게 밝히는(明學術)’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출발점이라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이용이 강조하려고 하는 올바른 학문의 목적이나 방법과 공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용은 당시 사람들이 학문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과거(科擧)를 위한 사창(詞章)을 익히는 데에 치중하여 개인의 명리(名利)만을 추구하는 것을 속학(俗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여기에서 올바른 학문인 정학(正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학은 단순히 개인의 명리를 추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사회를 교화하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밝히는 학문을 말한다. ‘인심을 깨우치고(醒人心)’ ‘학술을 바르게 밝히는(明學術)’ 정학을 실현하

4) 정병석, 「이용(李黼)의 회과자신설(悔過自新說)과 치료적(治療的) 사유」, 4~5쪽 참조 바람.

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옹은 강학(講學)에서 찾고 있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경세(經世)의 핵심이다.

본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이옹이 말하는 학문의 기능과 목적 및 방법을 당시의 유학 경향에 대한 비판과 그것의 지양(止揚)으로서의 정학(正學)과 강학(講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문제를 그가 쓴 「관중서원회약(關中書院會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아울러 회과자신이라는 관점을 통해 그가 말하는 강학의 성격과 사회교화라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II. 經世의 실천 방식인 講學

이옹은 평생 동안 청빈한 삶을 살면서 벼슬을 거부하고 강학에만 집중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학자이다. 이런 그의 특이한 이력은 유학(儒學)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격에 대한 그의 분명한 견해와 관련이 있다. 말하자면 국가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학문이 올바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 역시 올바르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여기에서 이옹은 기존 유학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 유학이 가지고 있는 병폐와 무력함을 ‘입으로만 성현을 말하는 구두성현(口頭聖賢)’과 ‘책 위에서만 도학을 하는 지상도학(紙上道學)’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직 언어문자에 기대어 방만하게 세월을 보내며 구두성현과 지상도학만을 하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실천하지 못하고 몸만 늙어가니 ...⁵⁾

5) 李顥 撰 陳俊民 點校, 『二曲集』(中華書局, 1996, 北京) 卷十九 「題跋·急務」, 230쪽. “惟度言語文字漫度光陰, 作口頭聖賢, 紙上道學, 因循猶豫, 以老其身 …”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밝히고 자기의 본성을 보며 자신에게 절실한 큰일을 완결하는 데에 있다. ... 어찌 저술을 귀하게 여기겠는가. 구두성현과 지상도학은 바로 배우는 사람들의 공통된 병폐이다.⁶⁾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당시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언어문자에만 기대어 고상한 이론을 주장하고 도덕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은 학문을 하는 목적이 단지 문장을 외우거나 입으로만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학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효용을 실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구두성현이나 지상도학은 지적이해의 단계에만 머무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절실한 '실천적 활동'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학문정신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용은 당시 지식인들의 무용(無用)한 구두성현이나 지상도학의 태도를 비판하고 유학의 진정한 핵심인 경세정신⁷⁾을 회복하여 시대적 필요성에 적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임을 강조한다. 이런 경세관의 주요한 내용이 바로 명체적용(明體適用)이다.

유자(儒者)의 학문은 체를 밝히고 용을 적절하게 맞추어 쓰는 명체적용의 학문이다. 진한 이래로 이 학문이 밝지 못하여 순박한 자는 장구(章句)에 얽매이고 재주 있고 명석한 자는 헛된 사장(詞章)에 빠졌다. ... 유학이 (본래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선비들이 힘쓰는 것은 사장이나 기송(記誦)과 같은 말단이니, ... 백성들이 조금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세운(世運)이 어찌 막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⁸⁾

6) 『二曲集』 卷十六 「答徐門一第二書」, 158쪽. “人生喫緊要務, 全在明己心, 見己性, 了切己大事. ... 何貴著述! 口頭聖賢, 紙上道學, 乃學人通病.”

7) 『二曲集』 卷十四 「蓋屋問答」 122쪽. “吾儒之教, 原以經世爲宗.”

8) 『二曲集』 卷十四 「蓋屋問答」 120쪽. “儒者之學, 明體適用之學也. 秦漢以來, 此學不明, 醇樸者枯於章句, 俊爽者流於浮詞, ... 儒學晦, 則士之所攻者, 辭章記誦之末技, ... 生民毫無所賴, 而世運寧有不否.”

이용은 명체적용을 경세관의 철학적 근거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학의 핵심내용으로 간주한다. 명체적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유학이 장구의 해석이나 사장의 말단에 빠지게 되면서 세운(世運)이 막혀 결국 멸국(滅國)의 참화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유학의 핵심인 경세치용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이다. 체(體)와 용(用)에 대해 이용은 “체용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명덕(明德)이 체이고, 명명덕(明明德)이 명체이다. 친민(親民)이 용이고, 천하에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적용이라고 하였다.”⁹⁾ 그는 명덕과 ‘명명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명덕은 바로 심(心)이고, 심은 본래 지극히 영묘(至靈)한 것으로 그 영묘함을 어둡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명명덕이다”¹⁰⁾고 하였다. 명체는 바로 심을 바로잡고 일깨우는 ‘명명덕’이라는 행위이다. 적용(適用)은 ‘명명덕’의 과정을 통하여 천하에 명덕을 밝히고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을 말한다. 명체적용의 관점에서 이용은 그의 경세관을 ‘학술을 바르게 밝히고(明學術)’ ‘인심을 깨우치는(醒人心)’ 사회적 교화라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은 사람들의 마음[人心]보다 더 큰 것은 없고, 천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한다면 오직 학술을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를 바로 잡는 첫 번째 핵심적인 임무이다.¹¹⁾

치란(治亂)은 사람들의 마음[人心]에서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질서 있는 세상[世]을 이룰 방법이 없고, 학술이 밝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급한 일은 학술을 밝혀서 천하 사람

9) 『二曲集』 卷二十九, 「四書反身錄·大學」 401쪽 “問體用? 曰..明德是體, 明明德是明體, 親民是用, 明明德於天下, 作新民是適用.”

10) 『二曲集』 卷二十九, 「四書反身錄·大學」 402쪽 “明德即心, 心本至靈, 不昧至靈, 便是明明德.”

11) 『二曲集』 卷十二, 「匡時要務」, 104쪽. “夫天下之大根本, 莫過於人心. 天下之大肯綮, 莫過於提醒天下之人心. 然欲醒人心, 惟在明學術, 此在今日爲匡時第一要務.”

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¹²⁾

이옹은 사회의 혼란과 부패의 근본 원인을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찾고 있고, 사회의 병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일깨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고 깨우치기 위해서는 먼저 학술을 바르게 밝히는 일이 급선무라고 이옹은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옹이 비판하는 당시 학술의 문제점은 과거를 위한 장구(章句)에 얽매이고 사장(詞章)에 빠져서 “마음을 알고 성을 깨닫는(識心悟性)”¹³⁾ 위기지학(爲己之學)은 버려두고 모두 “부귀영달을 도모하여 이름을 내리는”¹⁴⁾ 명심(名心)에 있다. 이런 왜곡된 학문적 분위기에 의해 사람들 역시 개인의 명리(名利)만을 추구하게 되는 심각한 병을 얻게 되라는 것이다. 이 병이 결국은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런 병을 어떻게 치료하여야 하는가? 그가 제시한 치료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여 교화시켜 나가는 강학(講學)이다.

이옹이 제기한 강학은 다름 아닌 그의 경세관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내용이고 방식이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려고 하는 강학이 노리는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학술을 바르게 천명하는’ 것이고, 이런 실천방식이 바로 그의 경세관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옹의 문집인 『이곡집(二曲集)』은 그의 문인인 왕심경(王心敬)이 편찬한 것으로, 그 중 「회과자신설(悔過自新說)」·「관감록(觀感錄)」과 「관중서원회약(關中書院會約)」만이 자저(自著)이고 나머지는 모두 문인들이 모은 것이다. 그 중의 많은 부분들은 서원에서 강학한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들이다. 강학의 중요성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 『二曲集』, 「附錄三·年譜」, 601쪽. “治亂生於人心, 人心不正則致治無由, 學術不明則人心不正. 故今日急務, 莫先於明學術, 以提醒天下之人心.”

13) 『二曲集』 卷十四, 「鰲屋問答」 120쪽

14) 『二曲集』 卷三, 「常州府武進縣兩岸彙語」, 28쪽. “富貴利達之名.”

사람들을 서게 해주고 사람들의 일을 이루게 해주는 것은 모두 강학(講學)에 달려있고, 풍속을 변하게 하는 것도 전부 강학에 있고, 혼란함을 제거하고 질서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모두 강학에 있고, 천하의 형세를 변화시키는 것도 전부 강학에 달려있다.¹⁵⁾

이용은 강학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립하고 일을 이루게 해(立人達人)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강학을 통해서 풍속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난세를 벗어나 질서를 회복하여 천하의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들을 서게 해주고 사람들의 일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은 『논어』에서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민중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인자(仁者)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나온 것이다.¹⁶⁾ 인자의 궁극적 목표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민중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제해 주는” 경세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풍속을 변하게 하는 것”·“혼란함을 제거하고 질서에 돌아오게 하는 것”과 “천하의 형세를 변화시키는 것”은 모두 경세의 주요 내용들이다. 이런 경세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식이 강학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용이 말하는 강학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강학은 단순한 강서(講書)가 아니다. 이용은 “곧 앞장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름은 강학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여전히 장구를 뽑아내고 책의 뜻을 이야기할 뿐이다. 이같이 하는 것은 단지 책을 강론하는 강서이지 강학이 아니다”¹⁷⁾라고 하였다. 그러면 강학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그는 “강학이라는 것은 바로 부자군신(父子君臣)의 도리를 강구하여 밝히고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¹⁸⁾라고

15) 『二曲集』 卷十二, 「匡時要務」, 105쪽. “立人達人, 全在講學., 移風易俗, 全在講學., 撥亂返治, 全在講學. 旋乾轉坤, 全在講學.”

16) 『論語』 「雍也」,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17) 『二曲集』 卷三, 「兩庠匯語·常州府武進縣兩庠匯語」 28쪽. “乃有挺身號召, 名爲講學者, 及察其實, 仍舊只是掣章句 論書旨. 如此只是講書 非講學也.”

18) 『二曲集』 卷十二, 「匡時要務」, 106쪽. “講學者, 正講明其父子君臣之義, 提醒其

하여 백성 혹은 사회 교화(教化)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강학에서 말하는 학(學)의 내용에 대해 “학이라는 것은 사장이나 기송(記誦)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을 보존하고 본성을 회복하여 인도의 마땅히 그러함(當然)을 온전히 다하는 것이다”¹⁹⁾라고 하여 학의 주된 내용은 바로 본심과 본성을 회복하는 도덕적인 실천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강학의 구체적 실천방식에 대해 이용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하나는 학교 혹은 서원 등의 강학하기 위한 공간의 필요성이다. “명륜당(明倫堂)은 가르침을 시행하는 공간이다. 교화는 반드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²⁰⁾ 대중의 교화 혹은 사회교화를 위해서는 서원이나 학교 등의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다.²¹⁾ 다른 하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형의 공공(公共) 강학인 회강(會講)²²⁾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용은 대중의 교화 혹은 사회교화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바로 경서(經書)와 학교 혹은 서원이다. “경서가 전하는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학교를 설립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연계하여 회강(會講)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한 것이다.”²³⁾ “서원을 세워서 회강(會講)하는 구역으로 삼고 ... 사람들의 의견에 따

忠君愛國之心。”

- 19) 『二曲集』 卷十一, 「東林書院會語」, 96쪽. “學非辭章記誦之謂也, 所以存心復性, 以盡乎人道之當然也.”
- 20) 『二曲集』 卷三, 「兩率匯語·常州府武進縣兩率匯語」 24쪽. “明倫堂爲設教之地, 教化必自學校始.”
- 21) 학교와 서원의 중요한 차이는 학교가 관학(官學)이라면 서원은 사인(私人)이 설립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용은 이 둘의 구별이나 차이는 거의 말하지 않고 강학의 공간이란 점에서만 말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王涵 主編, 『中國歷代書院學記』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20년) 「引言」 11쪽 참조 바람.
- 22) 회강(會講)과 강회(講會)를 구분하기도 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구별한다면 회강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학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강회는 ‘모여서 강학하는 하나의 조직’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陳來의 『中國近世思想史研究』 (三聯書局, 北京, 2010) 375쪽 참조 바람.

라서 서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아호서원과 백록동서원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본떠서 시간을 정해서 회강할 수 있게 되기를 엿드려 바랍니다.”²⁴⁾

『이곡집』을 통해 보면 이옹이 여러 곳에서 강학 활동을 한 기록이 많고, 특히 회강을 한 기록과 회강한 내용들이 도처에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명한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회강한²⁵⁾ 내용을 기록한 「동림서원회어(東林書院會語)」이다. 이런 이옹의 강학 혹은 회강에 대한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문장은 「관중서원회약(關中書院會約)」이다.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Ⅲ. 「關中書院會約」에 보이는 강학

관중서원은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명나라 만력 37년(1609)에 창건되었다. 관중(關中)의 저명한 학자 풍종오(馮從吾, 1557~1627년, 소허少墟선생으로 불림)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강학활동을 하였다. 청나라 이후 강희(康熙) 12년(1673)에 섬서 총독 악선(鄂善)의 주도하에 관중서원은 중수(重修)되어 이옹을 주강(主講)으로 초빙했고, 여기에서 이옹은 「관중서원회약」을 지었다. 이옹은 “관중서원은 풍종오 선생 이후 학회(學會)의 전통이 끊어진지가 오래되었다. … 여러 사람들이 학회에 규약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나에게 그 대략적인 것을 드러내 보일 것을 재촉하여 정리(淸理) 상 고사할 수 없었다”²⁶⁾고 하여 이 글을 짓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다.

23) 『二曲集』 卷十二, 「匡時要務」, 104쪽. “經書垂訓, 所以維持人心也. 學校之設, 所以聯羣會講, 切劘人心也.”

24) 『二曲集』 卷十, 「附·請建延陵書院公呈」, 93쪽. “請修書院以爲會講之區, … 准令修葺, 仿娥嶺胡白鹿成規, 以時會講.”

25) 『二曲集』 卷十一, 「東林書院會語」 95쪽. “초이튿날 해질녘에 읍내에 도착했다. … 다음날 동림서원에서 회강을 하였다.(初二日, 薄暮抵邑. … 次日, 會講於東林書院)”

「관중서원회약」은 모두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유행(儒行)·「회약(會約)과 「학정(學程)이다. 특이한 것은 「유행」을 제일 앞에다 두고 있다. 이 문장은 『예기(禮記)』의 「유행」편을 그대로 전재(全載)하고 있다. 왜 이용은 「유행」편을 「관중서원회약」의 제일 앞에 두고 있는가? “공부깨나 한 사인(士人)들이 유가의 말을 쓰고 유가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모두 유(儒)라고 이름 한다. ... 유가의 말을 쓰고 유가의 복장을 하고 있다고 반드시 참된 유가(眞儒)는 아니다. 유가의 행동을 하여야 비로소 참된 유가이므로 「유행」편을 거울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다.”²⁷⁾ 이 말에 비추어보면 「유행」을 제일 앞에다 두고 있는 것은 당시 유자들의 세태를 비판하고, 강학을 통해 참된 지식인인 진유(眞儒)가 되기를 바라는 원망(願望)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행」편을 제일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유자로 자처 하면서 유학의 종지(宗旨)를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용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는 “우리 유가의 가르침은 원래 경세(經世)를 종지로 하지만 종지를 전달함에 어두워서 사실이 횡행하여 그것이 변하여 공리의 누습(陋習)으로 되고 다시 변하여 혼고의 누습으로 변하였다. ... 유가가 유가인 바가 이름만 있고 실체는 사라져 버렸다”²⁸⁾ 이용은 여러 문장에서 당시의 명리만을 추구하는 속학(俗學)과 속유(俗儒)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다만 사장이나 기송과 같은 말단에 빠져 있는 자가 바로 속유이다.”²⁹⁾ 심지어 그들을 “경학(經學)의 도적이요, 세상도리를

26) 『二曲集』卷十三, 「關中書院會約·會約」113쪽. “關中書院, 自少處馬先生而後, 學會久已絕響. ... 衆謂會不可以無規, 促顯揭其概, 誼不得固辭.”

27) 『二曲集』卷十三, 「關中書院會約·會約」110쪽. “士人儒服儒言, 咸名曰儒, ... 夫儒服儒言, 未必眞儒, 行儒之行, 始爲眞儒, 則儒行篇不可以不之監也.”

28) 『二曲集』卷十四, 「周至答問」제122쪽. “吾儒之教, 源以經世爲宗, 自宗傳晦而邪說橫, 於是一變而爲功利之習, 再變而爲訓詁之習. ... 而儒之所以爲儒, 名存而實亡矣.”

29) 『二曲集』卷二十九, 「四書反身錄·大學」401쪽. “徒泊沒於詞章記誦之末, 便是俗儒.”

좁먹는 벌레일 뿐이다”³⁰⁾라는 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유행」편에서는 유가의 올바른 16가지 ‘유행’을 열거하고 있다. 그것을 논술한 특징은 모든 각각의 유행에 대하여 하나같이 “유자는 ... 함이 있다(儒有...)”라는 표현으로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 에는 이와 같은 것이 있다(其 ... 有如此者)”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유가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용은 「유행」편을 모두 전제하고 난 뒤에 “앞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한 것은 행동을 바로잡는 표준으로 삼기 위함이다”³¹⁾라는 자신의 말을 덧붙여 「유행」을 「관중서원회약」의 첫머리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은 관중서원의 교학 혹은 강학의 근본 목적은 바로 진유(眞儒)를 양성하는 데 있음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회약(會約)」이다. 「회약」은 모두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은 주로 서원의 강학 시기, 내용, 방법, 지켜야 할 의례규범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회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매년 2월·5월·8월과 11월에 회강(會講)을 한 번 개최한다. 강학이 있는 날에는 오시(午時)가 되면 북을 세 번 두드려 소리를 내고 모두 격식에 맞는 복장을 갖추고 지성(至聖) 앞에 가서 사배례(四拜禮)를 드리고 뒤이어 소호(少壩) 풍종오(馮從吾) 선생의 위(位)에 가서 같은 예를 행한다. ... 앉는 자리의 순서를 나이에 따라 나누고 ... 강학이 끝나면 경쇠를 세 번 두드리고 마찬가지로 지성(至聖) 앞에 가서 엄숙하게 읊하고 물러난다. 선배 강사가 개강하면 배우는 자들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들뜬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먼저 삼일을 제계하고 예를 익히고 난 다음에 강학을 듣게 만들었다. 먼저 단정히 앉아 마음을 살피고 ... 잠시 동안 묵좌(默坐)하여야 비로소 강론을 펼칠 수 있다. 선배 강사가 큰 강당에서 개강하면 다만 위학(爲學)의 대강만 통론(通論)하기 때문에 의심나는 문제에 질문하고 의혹이 있는 것을 밝히려 하지만 분명히 온전하게 다 해설 수는 없다. ... 대강당의 통론 외에 만약 더 연구하고 싶은 뜻이 있으면 다음

30) 『二曲集』 卷三十八, 「四書反身錄·論語」 489쪽. “乃經學之賊, 世道之蠹也.”

31) 『二曲集』 卷十三, 「關中書院會約·會約」 113쪽. “右揭此, 以爲制行之準.”

날 강자(講者, 이옹)가 머물고 있는 숙소로 와서 서로 꺼릴 것 없이 함께 주고 받아 속마음을 털어 놓고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³²⁾

위에서 언급한 「회약」은 기본적으로 서원의 대형 공공(公共) 강학 혹은 회강에 있어서 필요한 강의 규정의 운용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회강은 정기적으로 열리고, 회강은 당일 기본적인 예에 따라 강진(講前)과 강후(講後)에 성현들에 사배(四拜) 의식을 거행하고 예에 따라 자리를 정한다.
- 2) 회강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진작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여야 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들뜨기 때문에 3일 전부터 재계(齋戒)하여야 한다.
- 3) 심지(心志)를 수렴(收斂)하고 단정히 앉아 마음을 살피고 잠시 동안 묵좌(默坐)를 한 다음에 집중하여 강학을 청강한다.
- 4) 큰 강당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의심나는 문제에 즉시 질문하고 의혹이 있는 것을 밝힐 수 있지만 온전하게 다 해소될 수 없기에 우소(寓所)에 가서 자유롭게 토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옹이 말하고 있는 서원의 공공(公共) 강학 즉 회강은 일반적인 의미의 강연(講演)이나 강서(講書)보다는 오히려 집체적인 정신 훈련 혹은 조련 과정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개인의 마음을 바로잡거나 정신을 조련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왜 공공 강학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는 우선적으로 이옹의 기본적인 주장에 비춰보면 집체로서의 사회와 민중을 교화시키기 위한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대형의 공공 강학인 회강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32) 『二曲集』卷十三, 「關中書院會約·會約」 113-4쪽. “一每年四仲月, 一會講. 講日, 午初擊鼓三聲, 各具本等服帽, 詣至聖前四拜禮, 隨至馮恭定公少墟先生位前, 禮亦如之. … 以齒爲序分, … 講畢擊磬三聲, 仍詣至聖前肅揖而退. 先輩開講, 恐學者乍到氣浮, 必令先齋戒三日, 習禮成而後聽講, 先端坐觀心, … 默坐片晌, 方可申論. 先輩大堂開講, 只統論爲學大綱, 而質疑晰惑, 未必能盡. … 大堂統論之外, 如果真正有志進修, 不妨次日枉顧顯寓, 從容盤桓, 披衷相示.”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 공공적이고 집체적인 대형 회강을 통하여 이용이 노리는 것은 혼자 공부하는 독학(獨學)의 위험성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회강의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홀로 있으면 생각이 전일하지 못하고 나쁜 기운이 쉽게 편승하고, 쉽게 시작했다가 또 쉽게 포기해 버리지만, 집체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계발해주고 권면해 주어 서로 이끌어 도움이 된다”³³⁾고 말한다. 즉 학습과정에서 서로 상보상성(相補相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용은 기본적으로 공공 강학과 개인의 공행실천 둘 다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형의 공공 강학도 중요하지만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공행(躬行)실천이다.³⁴⁾ 강학의 근본 중지는 ‘인심을 깨우치는醒人心’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수양하여 나가는 자수(自修)의 과정이 필요하다. 「회약」의 내용이 주로 대형의 집체적인 회강의 강의 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라면, 「학정(學程)」이 말하려는 것은 개인 스스로의 자수(自修) 학습 과정에 대한 운용 방법이다.

매일 꼭 여명(黎明)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잠시 정좌하고 ... 밥을 먹은 후에는 사서(四書) 중의 몇 장을 읽고 ... 정오에는 분향하고 목좌하며 ... 밥을 먹은 후에는 『대학연의(大學衍義)』와 『연의보(衍義補)』를 읽는다. ... 신시(申時)와 유시(酉時)가 교차하는 오후 다섯 시 즈음에는 정신이 나른하고 산란해지는 때이니 시문(詩文) 중에 통쾌하고 정신을 깨우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여 ... 큰 소리로 읽어서 흥미하고 나태해진 정신을 고조시킨다. 매일 저녁 일곱 시에서 아홉 시 사이의 초경에는 등불 아래에서 『자치통감강목』이나 염락관민(廉洛關閩)

33) 『二曲集』 卷三十九, 「四書反身錄·論語」 486쪽. “獨居則遊思易乘, 易作易輟. 羣居則交發互礪, 以引以翼.”

34) 『二曲集』 卷三, 「兩宰誼語·常州府武進縣兩宰誼語」 29쪽. “진실로 기꺼이 확실하게 몸소 행하면 하루도 강학하지 않을 수 없다. 강학하면 기색이 생동감이 있어 날로 정미하고 날로 진보하지만, 강학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다가 스스로 그치고 제멋대로 하여 감감한 곳으로 가게 된다.(誠肯着實窮行, 則不可一日不講. 講則神青媿媿, 日精日進. 不講則自作自輟. 率意冥行.)”

및 하회요경(河會姚涇)³⁵⁾의 강학 어록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정좌하고 ... 매일 삭·망에 두 차례 모여 서로 덕행을 살피고 학업에 대해 물어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을 도와준다. 공적으로 장부 하나를 장만하여 매일 동인(同人)들의 언행의 득실을 기록한다.³⁶⁾

「학정(學程)」은 주로 경전이나 시문(詩文)을 읽는 독서 및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는 정좌(靜坐)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매일 이루어지는 소회(小會)의 시간·의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학정」에 보이는 하루 동안의 공부 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 아침(早) : 여명에 일어나 잠시 정좌하고, 이어서 사서 등의 책을 읽는다. 정좌하는 이유는 ‘야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定夜氣)’이다.
- 2) 낮(午) : 식사 전에 두 번째 향을 올리고 묵좌한다. 목적은 ‘야기를 이어가기 위한 것(續夜氣)’이다. 식사 후에 『대학연의』 등을 읽는다. 신시(申時)와 유시(酉時)가 교차하는 오후 다섯 시 쯤에는 정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좋은 고문(古文) 등을 읽는다.
- 3) 저녁(晚) : 초저녁에는 『자치통감강목』이나 송명시대의 강학 어록을 읽는다. 그 후 정좌하여 자신들의 생각에 잘잘못이 있었는지, 언행을 되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분향하고 오래 꿇어앉아 스스로를 책망한다.

위에서 말한 하루 동안의 「학정」의 학습 과정은 크게 독서와 정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인 학습 과정을 실천하고 난 뒤 또 매일 두 번씩 따로 모여 그 동안의 학습 상황을 서로 점검하면서 상보상성(相

35) “濂洛關閩”은 주돈이(周敦頤)·이정(二程)·장재(張載)·주희(朱熹) 등을 말하고, “河會姚涇”은 설선(薛宣)·진헌장(陳獻章)·왕양명·여남(呂柟)을 가리킨다.

36) 『二曲集』 卷十三, 「關中書院會約·學程」 116-8쪽. “每日須黎明即起, 整襟危坐少頃, … 飯後看四書數章, … 中午焚香默坐, … 飯後讀大學衍義及衍義補, … 申酉之交, 遇精神懶散, 擇詩文之痛快醒發者, … 從容朗誦, 以鼓昏惰. 每晚初更, 燈下閱資治通鑿綱目或濂洛關閩及河會姚涇語錄. 閱訖, 仍靜坐, … 每月朔望兩會, 相與考德問業, 夾輔切劘. 公置一簿, 以記逐日同人言行之得失.”

補相成)하는 촉진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학정」의 주요 구성 내용이다. 「학정」을 통하여 이옹이 말하려고 하는 공부법(工夫法)은 이른바 “반일정좌(半日靜坐), 반일독서(半日讀書)”라는 관점을 생각나게 만든다. 주자는 “하루에 반은 정좌하고 반은 독서하여 이런 식으로 1-2 년을 한다면 발전하지 못할 것을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³⁷⁾라고 하였다. 명대의 고반룡(高攀龍, 1562~1626)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³⁸⁾ 이옹은 정좌와 독서를 어떻게 결합하여 운용할 것인가를 「학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왜 이옹은 「학정」에 독서 이외에 매일삼좌(每日三坐)하는 정좌법을 적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노리고 있는 목적이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IV. 悔過自新을 통해 본 강학의 성격과 사회 교화

강학은 서원이 가지고 있어야 할 주요한 교육 기능 중의 하나이다. 서원이 가진 교육적 기능인 강학을 통하여 어떤 학파의 사상이나 이론을 호교론적(護教論的)으로 수호하고 전도(傳道)하기도 한다. 서원이 가진 교육적 기능은 학파의 이론을 전도하는 것 이외에도 문화 지식을 전파하는 일반적인 교화(敎學)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어떤 학파의 사상과 이론을 전파하는 강학 형식은 일종의 전도강학(傳道講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남송 이후 매우 활성화되었다. 이런 형태는 어떤 대학자의 제자나 재전제자들이 자신들의 스승이 주장한 특정 사상과 이론을 전파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전도강학의 전형적인 경우는 상산(象山)서원이나 백록동서원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³⁹⁾ 그렇다면 이옹이 행하였던 강학의 형태는 무엇인가?

37) 『朱子語類』 卷一百一十六. “用半日靜坐, 半日讀書, 如此一二年, 何患不進!”

38) 高攀龍 『高子遺書』 卷一 “하루에 반은 정좌하고 반은 독서하여 삼년을 한다면 진보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半日靜坐, 半日讀書, 如此三年, 無不進者.)”

이옹이 행한 강학활동은 단순히 문화적 지식을 전파하는 일반적인 교학 활동도 아니고 동시에 어떤 특정한 사상과 이론을 전파하려는 것도 아닌 제3의 형태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옹의 철학이 양명학이나 주자학이나를 두고 논란을 벌이지만, 오히려 그 둘을 종합하고 소통시키고 있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재(張載)와 풍중오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關學)의 예교(禮教)와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도강학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지만 결코 적극적 전파라는 성격은 보이지 않는다. 이옹의 강학이나 철학에서 학파 귀속(歸屬)이나 학술 전파라는 점은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이옹의 강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도덕 교화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백성과 사회를 교화하려는 시도에서 찾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이옹이 주지(主持)한 강학의 상황을 「연보(年譜)」의 기록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섬서(陝西) 충독(鄂善을 말함)·순무(巡撫)·포정사(布政使)와 안찰사(按察使)를 비롯하여 문지기와 순라군 등 하급 관리까지 모두 망라하고 명사·명현·진사·거공·문학 및 공부를 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강당의) 안과 밖을 모두 둘러 싸 채우니 (강학)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수 천 명 이었다. 선생은 학규(學規)와 회약(會約)을 정하시어 예의로 절제하고 심신(心身)을 가지런히 삼가 하도록 하였다. 석 달 만에 또 한 번 거행하여 사람들이 (마음을) 연마하도록 자극하니 사람들의 풍습이 크게 변하였다.⁴⁰⁾

위의 내용은 이옹의 나이 47~49년 사이에 섬서(陝西) 충독인 악선(鄂善)의 요청에 의해 관중서원에서 강학한 상황에 대한 묘사와 또 그것이 끼친 영향이 어떠한가를 묘사하고 있다. 우선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강학에 참

39) 전도강학의 형태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鄧洪波의 『中國書院史』(東方出版中心, 上海, 2004) 155에서 156쪽을 참조 바람.

40) 『二曲集』「附錄三·年譜」667쪽. “公與撫軍藩臬以下, 抱關擊柝以上, 及德紳、名賢、進士、舉貢、文學、子衿之衆, 環階席而侍聽者幾千人. 先生立有學規、會約, 約束禮義, 整肅身心. 三月之內, 一再舉行, 鼓蕩靡厲, 士習不變.”

가한 청중들은 총독이나 순무사 등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부터 문지거나 순라군 등 하급관리 및 여러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포함된 수 천 명이 모인 대형 공공(公共) 강학이라는 점이다.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강학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고관·하급 관리나 초학자와 일반 평민 모두 청중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또 강학의 내용이나 방향이 어떤 사상이론을 전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가지런함과 절제 등의 실천적인 측면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학의 이론을 구체화하고 실천화하는 방식을 통한 사회 교화 혹은 민중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강학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옹은 사회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회과자신(悔過自新)이라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회과자신은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새롭게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공자의 개과설(改過說), 즉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過則勿憚改)”와 『대학』의 ‘일신(日新) 설을 결합하고 있다. 그는 “고급의 명유들이 세상을 구할 것을 제창한 것은 하나가 아니었다. … 비록 각 학파들의 중지가 다르지만 요약하면 모두 회과자신이라는 이 네 글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⁴¹⁾고 하였다. 이옹은 모든 유가들이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회과자신에 있다고 말한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옹은 국가멸망이나 사회 부패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근원을 인심(人心)의 바르지 못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음의 잘못이 바로 국가멸망과 사회부패의 근본원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로 잡는 회과자신이라는 실천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이다. 즉 사회적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속의 도적을 쳐부수는 것(破心中賊) 혹은 마음을 개혁하는 혁심(革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회과자신의 관점과 공부법을 그는 서원의 강학이나 회강(會講)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데 「관

41) 『二曲集』 卷一, 「悔過自新說」 3쪽. “古今名儒倡導救世者非一, … 雖各家宗旨不同, 要之總不出悔過自新四字.”

중서원회약」의 「학정」에도 이런 내용이 보인다.

읽기를 마치면, 다시 정좌하여 이 날 하루의 마음 씀이나 생각이 올밭랐는지, 말이나 행동에 과오가 없었는지에 대해 고요히 점검해보고, 한 가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었거나 말 한 마디와 행동 하나가 조금이라도 법도를 어긴 것이 있으면 곧 분향하고 오래 꿇어앉아 절실하게 스스로를 징벌한다. 이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오래되면 저절로 덕이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의식이나 생각에 잘못이 없고, 언행에 과오가 없었다면 또 매일 밤 내가 오늘 어떤 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여, 만약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날로 새로워진 것(日新)이니, 이것을 일러 성덕(盛德)이라 하는 것이다.⁴²⁾

이옹은 이론적 지식보다는 몸소 실천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여, 자신의 심신을 먼저 점검(點檢)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가 말하는 회과자신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언행을 올바르게 점검하고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여 치료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회과자신은 바로 자아점검(Self-scrutiny)의 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하고 날로 성장하여 자아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회과자신이다. 회과자신의 관점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적은 시대와 사회가 처해 있는 병폐나 문제를 바로 잡는 것에 있다. 이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적으로 사람들 마음을 점검하고 바로 잡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그는 극력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옹은 학문이나 사람됨의 문제는 물론이고 경세의 문제까지도 모두 회과자신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역설한다.

「관중서원회약」의 「학정」에서 이옹은 회과자신이라는 자아점검의 수양방법을 정좌(靜坐)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런 자아점검을

42) 『二曲集』卷十三, 「關中書院會約·學程」 117쪽. “閑訖, 仍靜坐, 默檢此日意念之邪正, 言行之得失, 苟一念稍差, 一言一行之稍失, 卽焚香長跏, 痛自責罰. 如是日消月汰, 久自成德. 卽意念無差, 言行無失, 亦必每晚思我今日曾行幾善, 有則便是日新, 日新之謂盛德.”

위한 정좌의 공부법이 바로 “정좌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묵좌정심(默坐澄心)이다. 이옹은 회과자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좌법을 중요하고 그것을 효과적인 수양방법으로 삼고 있다.

내가 여기에서 논하는 학(學)에는 본래 정해져 있는 법이 없고, 공부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요령이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각자 스스로 입문(入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 오로지 각자가 스스로를 비추어 돌아보고, 스스로 각자가 병든 곳을 찾아내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곧바로 스스로 그 병을 고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입문이고 착수하는 것이다.⁴³⁾

여기에서 이옹은 정해진 공부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비추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병을 찾아내고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면 곧바로 그 병을 스스로 고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이옹의 학문적 태도는 다분히 치료적(治療的) 사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개인이 가진 병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료방법 역시 동일하지 않다. 증세가 다르면 치료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마치 사람이 병에 걸려 증세가 다르기 때문에 약을 투여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것과 같다⁴⁴⁾”고 하여 다양한 병증(病症)에 따른 치료방법이나 투약(投藥) 역시 다르게 조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치료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 즉 과오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좌법 혹은 관심(觀心)을 말한다. 이 정좌법은 유가에서 보편적으로 행하던 공부법이지만, 이옹이 정좌를 강조하는 이유는 특별하다.

43) 『二曲集』卷三, 「常州府武進縣兩宰彙語」 27쪽. “我這裏論學, 本無定法, 本無一定下手之要, 惟要各人自求入門. … 只要各人回光返照, 自覓各人受病之所在, 知有某病, 卽思自醫某病, 卽此便是入門, 便是下手.”

44) 『二曲集』卷十, 「南行述」 76쪽, “正如人之患病, 受症不同, 故投藥亦異.”

높은 근기(根器)를 가진 상사(上士)는 잘못에 대해 그것은 모두 나의 마음이 말미암은 것을 알고는 곧장 근원으로 향해 잘못을 제거하기 때문에 힘쓰는 것이 쉽다. 보통의 근기를 가진 중재(中材)는 약간 어렵겠지만, 정좌와 관심(觀心)으로 시작하면 되는 것으로, 정좌하면 잘못을 알 수 있고 잘못을 알면 잘못을 뉘우칠 수 있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면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다.⁴⁵⁾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보면, 이옹의 정좌법은 유학의 난해한 철학적 이론을 모르는 일반인이나 보통의 근기를 가진 사람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이다. 왜냐하면 근기가 높은 사람은 바로 곧장 회과(悔過)하여 자신(自新)할 수 있지만, 보통의 근기를 가진 사람 또는 일반의 평민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는 고요히 정좌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회과자신의 실천에 착수(着手)할 것을 말한다. 정좌는 학문이 있는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 누구나 시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부법이기 때문이다. 이옹의 정좌에 대한 강조는 어떤 의미에서 고도의 복잡한 유가의 철학적 사유 체계들을 일상(日常) 생활화하고 공공(公共) 교학화(敎學化)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통 사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기획 혹은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름 아닌 유학의 실천화와 대중화를 의미한다.

V. 맺음말

난삽한 신유학의 이론체계들은 일반 사람들의 접근을 그리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도(天道)·심체(心體)와 성체(性體)의 의미를 체인(體認)하도록 하는 것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진정으

45) 『二曲集』 「附錄二·二曲先生窆石文」 611쪽. “上士之於過, 知其皆由於吾心, 則直向其根源剷除之, 故其爲力易. 中材稍難矣, 然要之以靜坐觀心爲入手, 靜坐乃能知過, 知過乃能悔過, 悔過乃能改過以自新.”

로 완성한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많은 유자들은 방안에서 구두성현과 지상도학만을 외치고 있을 뿐이고 또 다른 유자들은 명리(名利)를 얻기 위해 과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옹이 묘사한 당시 유학의 상황이었다. 이런 유자들의 학문을 그는 속학(俗學)이라고 비판하고 정학(正學)의 수립을 강조한다. 정학은 단순히 개인의 명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밝히는 것을 통해 백성과 사회를 교화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공능이고 의미이다. ‘인심을 깨우치고’ ‘학술을 바르게 밝히는’ 정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옹은 서원 강학에서 찾고 있다. 그가 말하는 강학은 다름 아닌 그의 경세관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내용이고 방식이다. 강학을 통해서 민중과 사회를 교화하는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경세의 핵심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명체적용이다.

『이곡집』에서 이옹이 행한 강학의 방식으로는 문답이 주로 많이 이용된다. 강학에 정해진 형식·역할 행위가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적인 대형 강학 이외에 사제(師弟)간의 임강(臨講)도 있고, 붕우(朋友) 서로간의 절차(切磋)를 도모하는 강학도 있다. 강학의 형식은 서원뿐만 아니라 몇 명의 동도(同道) 혹은 동지 간에 서로 모여 소규모로 호강(互講)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강학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면, 왕학(王學) 지식인들이 견지한 ‘유교무류(有教無類)’라는 원칙이 이옹에게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독 등의 고관에서 순라군 등의 하급관리와 학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상공가(農商工賈)가 다 모여서 몰래 청강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⁴⁶⁾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감동시키고 분발시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일깨우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경(經)이나 학리(學理)를 주입해서는 결코 효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다양한 역사 고사나 이학자들의 품행이나 생각들을 쉽고 흥미 있게 풀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누구나 쉽게 자기 자신을 돌

46) 『二曲集』 卷十「南行述」 76쪽, “先生在車都, … 卽農商工賈, 亦環視竊聽”

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회과자신의 실천 공부 방법으로 이용은 “정좌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묵좌정심(默坐澄心)을 말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이나 강학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용이 말하는 강학은 그 자체로 이미 ‘학술을 바르게 밝히는’ 활동 과정이고, 또 유학의 복잡한 사유 체계들을 일상 속에서 생활화하고 실천하여 누구나 쉽게 ‘마음을 바로잡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공공적인 대형 강학 방식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 사회와 민중을 교화하고 계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참고문헌】

『高子遺書』 『論語』 『朱子語類』

李顥 撰 陳俊民 點校, 『二曲集』, 中華書局, 北京, 1996년.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上海, 2004년.

梁啓超, 『中國近三百年學術史』, 山西古籍出版社, 太原, 2001년.

王涵 主編, 『中國歷代書院學記』, 首都師範大學出版社, 北京, 2020년.

陳來, 『中國近世思想史研究』, 三聯書局, 北京, 2010년.

정병석, 「이옹(李顥)의 회과자신설(悔過自新說)과 치료적 사유」, 『철학』 98, 한국철학회.

Abstract

Lecture and Confucian Statecraft : Liyong's Lecture in Academy of Classical Learning and the Edification of Society

Jung Byung-Seok

In the historical condition of the replacement of the Ming and Qing dynasties, Liyong's fundamental problem consciousness begins with reflection on reality. He starts with a reflection on Confucianism, the root cause that resulted in the collapse of the country. Liyong criticizes that the content or purpose of what people studied at that time was to pursue only personal honor and interests by focusing on passing the imperial examination, and that it was a vulgar study. He emphasizes the need for correct learning here. Correct learning does not simply pursue individual honor and interests, but refers to learning that fully reveals one's mind and enlightens the people and society. Liyong is looking for the most effective way to realize the correct learning in his lecture at Academy of classical learning. The lecture he refers to is the basic practice content and method of the statecraft. This is the doctrine of statecraft in the making practical use of truth(mingtishiyong), which he claims to teach the people and society through lectures at Academy of classical learning. The content or direction of the lecture that Liyong argues is not intended to spread any theory of thought, but rather to focus on the practical aspect of correcting or restraining the mind and body. In other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Yeungnam University / seok@ynu.ac.kr

words, it is a lecture activity with a strong social enlightenment or popular enlightenment character through a method of embodying and practicing the theory of Confucianism. In this context, Liyong raises the view of Huiguozixin for the purpose of social enlightenment. It means that you repent of your mistakes and renew yourself. Huiguozixin can be seen as a change of direction to saving of the mind, not direct saving the world, which is both an indirect method of saving of the world and the most fundamental method of the making practical use of truth(mingtishiyong). Liyong is talking about practicing method of self-scrutiny, called Huiguozixin itself, through sit still as a form of therapy(Jingzuo). This method of self-scrutiny is to sit still and cleanse the taste buds. He uses the Jingzuo method as an important and effective method of training in practicing Huiguozixin. In a sense, Liyong's emphasis on sit still as a form of therapy(Jingzuo) can be said to be an attempt to make it easy for ordinary people to practice through the process of daily life and publicizing highly complex Confucian philosophical thinking systems. This means the practice and popularization of studying Confucianism.

Key word : Liyong, Lectures at Academy of classical learning, Confucian Statecraft, Self-scrutiny, Sit still as a form of therapy

논문 투고일: 2022. 05. 26 심사 완료일: 2022. 06. 16 게재 확정일: 2022. 06. 20

일제 말 경주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

조 명 근**

- I. 머리말
- II. 규약 제정과 운영체제 정비
- III. 재정 현황과 서원 재산의 신탁 관리
- IV. 맺음말

【국문초록】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인 경주 옥산서원은 일제강점기 들어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원노비와 원속 등을 상실하였고, 관의 원조를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옥산서원은 오로지 소작료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서원 소유 토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송비를 감당하기 위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옥산서원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산서원은 1940년 서원 운영의 기본 원칙인 규약을 다시 제정하여 운영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규약의 핵심은 재정을 전담하는 이사를 두고 평의회를 새로 설치하여 서원의 각종 현안을 심의하는데 있었다. 이후 옥산서원은 평의회 의결을 통해 채무 조정을 단행하여 기존의 고리채 개인 차입을 조선신탁주식회사 저리 차입금으로 차환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또한 이 기회에 증가 재산을 서원 측에서 관리하고자 했으나 종가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서원의 채무 정리와 더불어 서원 재산을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위탁 관리하였다. 일제 말 옥산서원은 일련의 제도 정비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 서원의 존속을 도모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 / cmk3@yu.ac.kr

주제어 : 옥산서원, 규약, 원임, 평의회, 조선신탁주식회사

I. 머리말

서원은 선현제향과 강학을 통한 학문연구를 위해 사람들이 주도해서 설립한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서원은 단순히 제향과 강학이라는 자체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재지사족의 향촌 자치운영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서원은 사림세력의 향촌 운동의 일환으로 그 건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봉당정치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서원은 학연의 매개체로서 각 당파에서는 지역의 서원을 자파세력의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이는 광해군 대 집권한 복인세력과 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세력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17세기 산림세력의 등장으로 서원의 정치적 성격은 더욱 농후해졌는데 서원은 향촌 여론 형성의 중심지가 됨으로써 중앙 정치계와 긴밀히 연계되었다. 재지사족 역시 서원을 통해 중앙 정치권과 연결을 맺어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점에서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서원은 숙종대 이후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18세기 후반에는 문중서원 건립이 주를 이루게 된다. 조선후기 일반화한 동족마을은 문중활동의 기본 단위가 되었는데, 각 가문은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문중활동을 전개하였다. 각 가문은 현조의 영당이나 재실을 건립하면서 문중의 내적 결속을 다진 후 문중기구의 모체로 서원과 사우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가문의 위세를 과시하려 하였고, 서원을 구심점으로 삼아 향촌사회에서 지위 유지 및 백성의 통제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러한 문중서원의 건립으로 서원은 기존 강학이나 선현제향의 기능보다는 문중의 우위권 경쟁이나 사회경제적 권

력기반으로 변모되었다.¹⁾

이와 같이 가문의 지위 유지 수단으로서 문중서원이 남설되자 서원의 폐단은 더욱 심화되었고, 1871년 흥선대원군은 전국 47개소의 원사(서원 27개소, 사우 20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훼철하였다. 그러나 훼철 이후에도 서원의 복설과 신설이 꾸준히 추진되었는데, 영남과 호남지역의 사례 연구를 보면 절대다수가 문중서원이었고,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원이 활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복설 혹은 신설된 원사도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자결한 송병선, 송병순, 이주환을 배향한 거창의 성암사(聖巖祠), 이순신과 관련 인물을 배향한 여수의 오충사(五忠祠),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배향한 장성의 오산창의사(鰲山倡義祠)의 복설을 들 수 있다. 신설 원사 중에도 최익현을 배향한 곡성 오강사(梧岡祠),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순국한 33위를 연벽으로 배향한 진안 영광사(永光祠)가 있는데, 오충사와 창의사, 오강사는 일제의 탄압으로 훼철되기까지 하였다.²⁾

경주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을 제향하는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았던 서원이다. 서원 훼철 이후인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까지 향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세기 전반의 향전이 원임 내지 교임직을 둘러싼 신분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19세기 말 향전은 서원의 훼철로 결집력이 약화된 양반 내부의 분열과 위기 속에서 가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가문 간의 우위 경쟁은 원사의 복원, 효열의 포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런 변화된 환경

1)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16~41쪽.

2) 윤선자,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 사우의 신설과 복설」, 『한중인문학연구』 22, 2007;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훼철 이후 서원 연구는 양적으로 매우 적다. 호남과 영남지역에서의 신설 및 복설 추이를 정리한 위 연구와 덕천서원 복설 과정에서 일어난 추향 문제, 유림과 문중 간의 갈등 등을 다룬 연구가 있을 뿐이다(오이환, 「일제시기의 덕천서원」, 『동양철학』 32, 2009).

에서 옥산서원은 구심점을 잃은 지역 내 가문들이 결집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다. 한편 각 가문에서 선조 현양사업을 시행할 때 옥산서원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는데, 옥산서원의 위상을 통해 조정의 인준을 대처한다는 인식 하에서 그 권위를 이용하여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³⁾

본고에서는 옥산서원 소장자료⁴⁾를 활용하여 조직과 운영체제, 재정 상황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옥산서원은 1940년에 규약을 새롭게 제정하여 조직과 운영체제를 정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가장 큰 현안이었던 재정정리를 단행하였다. 2장에서는 신규약과 조선시대에 작성된 기존 원규와의 비교를 통해 제정 목적, 운영의 기본 내용과 특질 등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옥산서원의 채무 실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차입금 신청, 그리고 서원 재산의 신탁 관리 등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서원의 경제 기반과 운영을 검토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규약, 평의회 회의록, 예산안, 기채신청서 등 각종 문서를 활용하여 일제 말 옥산서원의 운영 실태를 미시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옥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식민 지배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서원이 어떻게 대응하려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 규약 제정과 운영체제 정비

조선시대 서원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원규를 통해서 제시하였다.⁵⁾ 옥산서원 원규는 경주에 최초로 건립되었던 서악서원과 그 내용이 동일한데, 서악서원은 소수서원과 이산서원의 원규를 혼용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옥산서원

3)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2017, 45~48·57~59쪽.

4) 玉山書院 『往復書類綴』(1940년 9월 30일~1942년 12월 15일).

5) 이하 조선시대 옥산서원의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이수환 편저,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24~41쪽;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 원임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67, 2017, 34~43쪽을 참조하였다.

원규는 총 17개조로 1조부터 5조까지는 원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산서원의 것을 차용하였고, 6조부터 12조까지는 서원 운영 일반과 관련된 것으로 소수 서원의 원규를 차용하였다. 원생의 입원(入院) 자격은 사마 또는 사마시의 초시입격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발된 유생이 서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드물고 강회가 있을 때 교대로 입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서원 재산의 보존 관리 및 원내의 질서유지와 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치들도 강구되어 있었는데, 가령 원생들의 향사 불참과 원임의 직무 소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과실에 대한 경계 조항이 삽입되었다. 그런데 원규에는 강학과 더불어 서원의 양대 기능인 제향의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옥산서원의 향례 절차는 별도로 훈기(筭記)로 작성해두었다.

서원 운영은 일반적으로 원임으로 불리는 원장과 유사(有司)가 담당하였다. 원장은 대외적으로 서원을 대표하고 원중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원장에는 향내에 명망있는 인사가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영남 지역 서원의 경우 원장은 현직 관료는 많지 않고 생원·진사·참봉·유학(幼學) 및 전직 하급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절대다수는 유학이 차지하였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 혹은 노론계 서원에서 중앙 권력과 연결된 고위 관료가 원장으로 추대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⁶⁾ 옥산서원의 원장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공사원(公事員)⁷⁾

6) 영남 남인계 서원의 원장은 대부분 향중(鄕中) 인사가 맡았으며 인맥·학맥 관계로 도내의 인사가 선출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원장은 임기제로 재임 및 중임은 허용되었지만 겸임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서인계 서원의 원장은 대체로 중앙정계의 고위관료가 추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임기는 종신제로 겸임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또한 영남 남인계 서원의 원임이 '원장-유사' 체제인데 반해,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은 대체로 '원장-장의(掌議)-유사' 체제인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수환, 「영남 지역 서원건립 상황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78, 2021, 98~101쪽).

7) 원임의 선거인이자 유생을 선발하여 유안(儒案)에 올리는 추천인.

이 한 명을 선출하였다. 원장은 경제적 문제와 유생의 입원 및 교육에 대한 감독, 원임 및 원속들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원장의 임기는 대체로 1~2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단축되고 있었다. 원중의 실질적인 대소사를 운영해 나가는 자가 유사로 옥산서원 원규에 따르면 유사는 제사 봉행, 빈객 접대, 건물 수리, 물자 비축, 서책 점검, 원생 추천 등의 일을 맡아서 감독하도록 했다. 옥산서원 유사는 매월 서원의 회계 출납을 정리하여 원장에게 감사를 받고, 서원 건물 보수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계절마다 노비의 신공과 전답의 소출을 거두고, 서원 주변의 숲도 보호할 임무도 부과되었다. 옥산서원 장서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포쇄하는 등의 일도 유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옥산서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전담하는 전곡유사(典穀有司)를 별도로 두었다.

18세기 이후 대부분의 서원은 수입이 점차 감소되어 수입원의 유지와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입원 감소는 노비들의 광범위한 도망과 원위전 경작자의 불법행위 또는 이들의 몰락으로 인한 수세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초기 서원의 경제력 확보에 크게 일조한 관의 조치가 철회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수입 감소는 유사가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였고, 따라서 서원은 관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옥산서원 소장 각종 문서를 보면 대부분 관의 수결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서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상서·소지·서목 등을 올려 관에게 서원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이 점에서 보면 옥산서원의 운영은 원장과 유사가 책임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방관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옥산서원은 일제 말기인 1940년에 규약을 새로이 제정하였고, 1941년에 일부 개정하였다. 제정 이유를 시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서원 기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유럽대회에서 옥산서원 원규를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부표 1>을 보면 규약의 제1~3조에서 옥산서원의 설립 목적 및 구성원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서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소개하

고 있다. 옥산서원은 유생을 선발하고 한 달에 두 번, 15일과 마지막 날에 사당에 분향례를 올려야 한다. 또 원장은 춘향, 추향제에 제주(祭主)로서 향사를 행하고, 독행자와 불량자에 대한 상벌을 내리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즉 제향과 유생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원의 존립 의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제5~8조는 옥산서원의 조직 구성에 관한 것으로 우선 옥산서원의 역원은 원장 1인, 이사 1인, 유사 1인, 고문 2인, 평의원 12인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시대와 다른 점은 이사와 평의원의 존재이다. 우선 원장은 서원을 대표하는 자로 서원 전체를 통할하고, 유사는 원장을 보좌하면서 향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유사가 서원의 대소사 전체를 주관하였다면 이 규약에서는 오로지 제사만으로 그 업무를 한정하였다. 반면 이사는 재무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하여 재정경리라는 특정한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의 전곡유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사는 전곡유사보다 훨씬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특히 1941년도 규약 개정에서는 이사의 위상을 제고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 1940년의 경우 원장, 유사, 이사의 순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원장, 이사, 유사의 순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개정 규약에서 서원은 “원장 또는 이사가” 대표한다고 하여 이사가 원장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도록 하였고, 원장을 보좌한다는 내용도 삭제하였다. 원장이 사실상 명예직임을 감안하면 이사가 서원 내 각종 업무를 통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사의 주임무가 제례에 있다면 이사는 서원 재정 관리에 있었고, 이 점에서 옥산서원은 서원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남뿐만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던 서원인 옥산서원조차 생존에 최우선을 두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다른 서원은 그 상황이 더 열악했음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 전담직인 서기 2인을 두고 그 임명과 해임 역시 원장과 이사가 행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옥산서원 규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평의원회의 존재이다. 평의원회는 1년 4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는데, 의결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10~12조는 경리에 관련된 것으로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산을 평의회회에 보고하며, 세입출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는 10년간 보존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옥산서원이 일제 말에 제정한 규약에는 서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이 규정되어 있으며 평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도 설치하였다. 또한 원장-이사-유사-평의원-고문으로 서원 운영의 구성원을 다양화하였고, 각 역원별로 역할을 확실히 구분, 분담하고 있었다. 특히 이사는 서원 재정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서원 재산을 유지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옥산서원은 해방 이후에 특별원규를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다. 「옥산서원임시특별원규」⁸⁾(이하 ‘특별원규’)이라는 이름으로 1946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특별원규를 제정한 이유를 “시대의 진운”에 따른 서원의 사무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해방이라는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원으로 이사 1인, 별유사 1인, 원의원 12인, 고문 3인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단 별유사는 임기가 없다. 이전 원규에 비하면 임기가 4년에서 1년 줄어든 것, 별유사의 신설, 평의원을 원의원으로 개칭한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사는 재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전 원규와 동일한데, 재정경리에 “두뇌”가 있는 자로 그 자격을 제시하였다. 이사 업무는 이전의 규약과 별 차이가 없으며 현금은 금융조합에 예입하되, 1천 원 이하는 현금으로 보유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별유사는 원장 및 유사와 이사를 보좌하는 자로 특히 서원 사무에 능통한 자를 그 자격요건으로 들고 있다. 원의원은 향원(鄕員)을 대표하여 서원의 중요 사안을 심의하고 원장, 유사 기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원규에는 볼 수 없는 내용인데, 1940년 규약에서는 역원은 유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제7조). 즉 선거로 서원 임원을 선출하겠

8) 「玉山書院臨時特別院規」. 이 특별원규의 마지막에 그 시행일을 “丙戌 正月 初5 日”이라고 지정한 것으로 보아 1946년임을 알 수 있다. 이 원규는 한글로 작성되었다.

다는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 원규를 다시 되살린 것이다. 이사, 별유사, 원의원, 고문은 향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고문은 재무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로 회계사무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위 임시특별원규 이외에 「옥산서원특별규약」⁹⁾(이하 ‘특별규약’)도 존재하는데, 일시는 확인되지 않으나 한글로 필사되었고, 내용도 앞의 원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해방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이 특별규약의 제정 목적이 “재정 처리”에 있음을 밝힌 점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원의 경우 앞의 특별원규와 동일한데, 다만 고문은 약간명으로 하여 그 수를 한정하지 않았고 그 중 1인은 옥산서원 유사가 맡도록 하였다. 이사·별유사·원의원·고문은 향회 또는 평의회 석상에서 선임한다고 하여 앞의 임시특별원규에 없던 평의회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사와 별유사의 임원 자격에 신규 학력 혹은 학식이 있는 자로 규정한 점은 눈에 띈다. 서원이라도 신학문을 배척하지 않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사는 역시 재정경리에 능통한 자로 재정을 일체 처리하는 자이며 별유사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원리(院里) 거주자 중에서 사무취급자를 선정하여 이사와 재산경리의 연락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원규와 규약은 별도로 작성되었지만 상호 보완적인 내용으로 해방 이후 서원 운영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한 시도로 여겨진다.

III. 재정 현황과 서원 재산의 신탁 관리

조선시대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크게 서원전과 원노비로 구성되었다. 서원전은 초창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관에 의한 획급 등의 형태로 확보되었고, 이후에는 문중 차원에서의 매득이 주류를 이루었다. 영남지역 서원전의 규모를

9) 「玉山書院特別規約」.

보면 초창기인 16세기 중반~17세기 초까지 건립된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의 경우, 초창기 5~6결 정도에서 18~19세기에는 약 20~40결로 확대되었다. 반면 17세기 후반에 남설된 미사액 서원·사우 등의 서원전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작았다. 옥산서원의 경우 17세기 말 약 30결 정도, 18세기 중반에는 32결 정도였으며 서원전은 경주, 영일, 청도, 밀양, 경산 등에 분포되어 있었다.¹⁰⁾ 원노비는 서원전과 함께 서원 경제를 구성하는 2대 재산으로 인정되었는데, 옥산서원의 경우 17세기 후반 100구를 넘긴 이후 18세기에는 150구를 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노비는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관의 조치와 매득 및 투탁 노비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에 힘입은 것이었다. 한편 서원은 노비 외에 광범위한 원속(院屬)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원속은 신분적으로 노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역을 피하기 위해 서원에 투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양인의 범주에 해당된다. 이들은 원속에 입록함으로써 서원의 영향력으로 각종 잡역을 면제 받았으며 그 대가로 서원 내 여러 잡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전 및 현물 등을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서원측은 경제력의 확대를 위해 이러한 원속의 확보에 적극적이었다. 옥산서원의 원속은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었는데, 1774년 126명에서 1863년에는 244명으로 약 9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다. 원속들은 대부분 서원 주위의 안강현 일대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당 수호 등 서원 내 잡역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신역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¹¹⁾

그런데 한말 이후 서원은 원노비와 원속 등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고, 서원경제는 서원전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조선시대와 같이 관의 원조를 전혀 받을 수 없었고, 독지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로지 토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재정경리를 보면 이를 분

10) 이수환, 앞의 책, 2001, 157~170쪽.

11) 이수환,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2, 1992, 104~123쪽.

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옥산서원의 구체적인 재정 실태는 <부표 2>의 옥산서원 세입출 예산 편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옥산서원의 세입은 전적으로 소작료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이 소유한 토지는 논이 약 56,600평, 밭이 약 13,400평인데, 논은 평당 소작료 10전, 밭은 3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논에서의 소작료가 약 5,660원, 밭이 401원으로 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은 500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으나 그 이자는 2.5%에 불과하여 그 수입은 연간 12원에 불과했다. 특히 1940년은 전시기 자금통제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채 소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금리 역시 최저한도로 묶어두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예금은 사실상 자산으로서 그다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 시기 옥산서원은 약 1만 2천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이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상당한 고금리였다(표 1). 따라서 이 고리채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조선신탁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액수가 18,000원에 달하였다. 즉 옥산서원 1년 수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액수로 옥산서원 재정이 상당히 취약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1941년도에는 2,000원을 역시 조선신탁주식회사에서 차입했는데, 일반 금융기관이 아닌 조선신탁주식회사와 거래한 이유는 당시 옥산서원이 보유한 농경지를 위 회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지출 구조를 보면 1940년에는 구채상환비 18,000원을 제외한 실제 지출 내역은 6,073원으로 옥산사립학교¹²⁾ 지원금 1,300원이 21%로 가장 높은 비

12) 옥산학교는 옥산서원이 소유한 전답을 재원으로 설립된 초등교육기관이다. 경북에서 서원 재산을 토대로 설립된 학교로는 도산서원의 보문의숙과 삼계서원의 조양학교 등이 있다. 보문의숙은 진보이씨 가문에서 기부한 가옥과 의연금, 그리고 도산서원 소유 전답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었고, 조양학교도 삼계서원 부지를 재원으로 하였다(권대웅, 「한말 경북지방의 사립학교와 그 성격」, 『국사관논총』 58, 1994, 35·38쪽). 옥산학교는 현재 옥산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는데, 설립 연도를 두고 1907년 10월 4일(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1910년 3

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용인(傭人) 고용비 1,000원, 조선신탁주식회사 상환금 644원의 순이다. 그런데 서원의 중대 행사인 제사비가 472원으로 전체 지출에서 8%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인 것이 특징이다. 즉 서원의 양대 기능인 제향과 강학 중 특히 조선후기로 갈수록 전자의 기능이 강화되고 후자는 약화되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제향에 들어가는 재정은 매우 소액임을 알 수 있다.¹³⁾ 오히려 서원의 일반행정에 지출되는 사무비가 제사비보다 2배 이상 높는데, 인건비와 여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한편 교육과 관련된 학교 지원금이 상당액에 달한다는 것은 옥산서원이 지역사회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40년에는 한 차례의 예산 경정이 있었는데, 이는 후술하겠지만 회재 증가 지원과 관련있다. 원래 회재 증가 지원금으로 책정되었던 1,600원이 완전히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생긴 여유분은 용인료와 교육비로 전용되었다. 1941년도 세출 예산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조선신탁주식회사에서 옥산서원 재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총 금액의 10%를 신탁보수로 지급한 것이다. 나머지는 소소한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우선 연부상환금이 약 1,9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40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은 거치기간이 끝났기 때문으로 전체 세출 중 약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옥산사립학교 지원금 1,200원이 있다.

다음으로 옥산서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평의회 회의록을 통해

월(권대웅, 위의 논문, 31쪽)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 13) 당시 조선총독부는 서원의 제사비 지출을 극력 억제하고 있었다. 1941년 7월 29일자로 경주군수가 옥산서원 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현재 조선에서 문묘 제사는 양력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봄에는 4월 15일, 가을에는 10월 15일에 거행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유림은 전날 오후에 모이고 당일날 오후 전부 해산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서원에서는 제사 4, 5일 전에 모여서 그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시(傳時)라는 현 시국에서 당국은 “소비절약은 물론 근로작흥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원에서 문묘제사를 시행할 때에는 절약개선함으로써 일반인에게 모범을 보일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주군 직원을 파견하여 향사 기일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書院祭祀舉行二關スル件』, 玉山書院, 『往復書類綴』.

살펴보자. 옥산서원은 규약 제정에 따라 제1회 평의회를 1940년 10월 10일 강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사 최윤(崔潤)과 평의원 9인이 참석하였고, 3인의 평의원이 결석하였다.¹⁴⁾ 그리고 평의회 현장에 경찰관이 임석하여 회의를 감시하고 있었다. 이사인 최윤이 사회자로서 회의 서두에 옥산서원이 1940년 원규를 개정하여 평의회라는 기구를 새로 설치한 것은 재정정리라는 서원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서원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옥산서원은 서원 토지 명의자 한 사람이 분규를 일으켜 5~6년간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계속되어 재정이 고갈될 지경으로 큰 타격을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39년 경주군수인 모리 요사스케(森芳介)를 추대하여 이 정리에 힘을 얻고자 하였다고 그 내력을 밝히고 있다.¹⁵⁾ 이사 최윤이 언급한 분규는 1934년에 일어나 토지 방매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재 신문 기사를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확인 되는데, 1931년 경주군 안강수리조합이 설립되자 몽리구역에 속하게 된 서원 전답의 가격이 폭락될 것이라고 하면서 옥산서원 재산 소유자도 아닌 노당리 김모, 이모 등 여러 명이 협의하여 비밀리에 서원 소유 논을 매각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전답 3만여 평을 평당 33전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안 옥산서원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회재 12세손이 소송 주체가 되어 “사재”를 털어가면서 “옥산서원 재산을 원상대로 회복해달라”고 진정하는 등 백방으로 재산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¹⁶⁾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신탁주식

14) 「玉山書院第一回評議會會議錄」, 玉山書院, 『往復書類綴』.

15) 모리 요사스케는 1917년 전라남도 광주군에서 관직을 시작한 이래 주로 경상남 북도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1936년 11월 경북도 회계과장에서 경주군수로 부임하였고, 1940년 3월 30일 자로 퇴직하였다.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森慶州郡守勇退に決定』, 『釜山日報』, 1940.4.5.

16) 「評議委員의 玉山書院 不動產去就가 問題」, 『동아일보』, 1939.11.18.

회사 부산지점에 기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것이었다.

〈표 1〉 옥산서원 채무액 조사(1940년 10월 말 현재)

원금(원)	차입월	이율(%)	지급 이자액(원)	채권자	
				주소	성명
100	1937년 4월	무이자	0	옥산리	옥산이씨 派中
6,000	1937년 8월	18	3,420	경산군	許湛
200	1938년 7월	36	162	경산군	許湛
1,000	1937년 12월	30	850	경산군	許湛
400	1937년 12월	36	408	경산군	許湛
200	1938년 8월	36	156	옥산리	李紀韶
500	1938년 8월	18	195	대구부	許鐘
100	1938년 8월	24	52	옥산리	李秉赫
200	1939년 9월	24	52	옥산리	李秉赫
100	1939년 2월	30	50	옥산리	李宗○
50	1939년 2월	30	25	옥산리	李洛求
300	1939년 2월	24	120	옥산리	옥산학교 교장
200	1939년 8월	30	70	옥산리	孫士章
150	1939년 8월	22	38	영천읍	某內地人
200	1939년 8월	24	80	옥산리	庫子
1,500	1939년 10월	30	450	대구부	李錫欽
450	1939년 10월	24	108	옥산리	李鎮奎
200	1940년 2월	24	32	옥산리	옥산학교 교장

출전: 「玉山書院第一回評議會會議錄」, 玉山書院, 『往復書類彙編』(1940년 9월 30일~1942년 12월 15일)

비고: 원자료에는 이율이 월리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연리로 환산하였다.

〈표 1〉은 평의회 개최 시점 옥산서원의 채무액으로 대부분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사회자는 언급하였다. 채무는 총 18건으로 원금 총액은 11,850원, 지급한 이자 총액만 6,268원으로 3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 원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 이자로 지불되고 있었던 것이다. 경산군의 허담에게서만 7,600원, 전체 채무액의 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였다. 이

율을 보면 연이율 36%가 3건, 30%가 5건, 24%가 6건, 22%가 1건, 18%가 2건, 무이자가 1건으로 연 30% 이상의 고리대가 전체의 44%를 차지할 정도로 고율의 이자 부담을 감당해야만 했다. 기간이 대체로 2년 내외라고 보면 상당히 높은 이자를 지불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옥산서원 재정을 매우 어렵게 만든 요소일 것이다. 이 고리채를 저리의 부채로 차환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 채무액에 대해 평의원 1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빚을 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유사는 기존의 관행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남아있지 않고, 관련 장부는 현재 소송 관계상 검사국에서 보관하고 있어 최근 2~3년의 현금 출납부를 별책으로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다시 이 출납부에 따르면 채무액 중 지출 내역이 분명한 것은 4,847원이고, 나머지 7,000원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니 밝히려고 재차 요구하였다. 이에 유사는 회재 선생의 제전(祭田) 경매와 관련하여 3천 원, 그리고 종손 이대원(李大源)씨의 체면 유지비로 5,150원을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평의원 1인이 종손 채무 8,150원을 서원이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으나 옥산서원과 회재 종가는 그 존망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가 동의함에 따라 묵살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다음으로 「1940년도 옥산서원 세입출 예산 편성에 관한 건」과 「이회재 선생의 종가 및 묘위(墓位) 토지 영구 유지 관리에 관한 건」, 「옥산계정 수호 보조에 관한 건」은 그 성격이 같다는 이유로 하나로 묶어 심의하였다. 당시 평의회의 기본 입장은 종가의 재산 관리를 서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평의원이 지금 서원 자체도 재정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종가의 재산까지 관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서원 및 종가는 함께 공존해야만 하는 것으로 회재 선생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그 선후책으로 종가 재산을 전부 서원 명의로 하고, 이를 신탁회사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그 시급성을 강조하는 의견

이 제출되었다. 또한 장래에 어떤 후손이 나오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하면서 그 시행을 서두를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서원에서는 종가의 체면유지비를 매년 지급하고 있고, 또 제전은 그 자손 중에 개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어 유지 관리상 큰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괄하여 서원 명의로 역시 신탁회사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함에 따라 결국 화재선생 종가와 서원이 오랫동안 제대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급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다수의 평의원이 동의하였다. 사회자인 최윤 이사는 화재선생 종가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에 힘입어 부호에 손색없을 정도의 경제 기반을 보유하고, 이를 토대로 선생의 유품을 현창하고 유림 종가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이전과 같은 특전과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가 자연히 궁핍하여 가업은 점차 기울어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종가가 경제적 곤궁에 빠진 이유는 화재 종가는 유림의 대가(大家)로서 다수의 내빈 접대 및 빈번한 제례 의식 등에 지출할 부분이 많아 소유 재산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화재선생을 숭배함에 있어 종가의 존망을 절대적으로 등한시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서원과 종가가 공존공립을 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원 재산으로서 종가를 구제하는 것은 전조선에 걸쳐 늘 있었던 일이기에 별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한다. 최근의 실례를 들면 안동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서 서원 재산 수십만 원을 종가의 생계유지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으로는 첫째, 화재선생 종가 체면유지비로 옥산서원에서 매년 600원을 영구히 지급할 것, 둘째, 화재선생 종가 소유 재산을 전부 옥산서원 명의로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후세에 어떤 종손이라도 절대로 이 재산을 침해치 못하게 하여 영구히 유지 관리할 것(단 서원 재산과 구별하여 별도 경리함), 셋째, 화재선생 묘위토지도 옥산서원 토지와 같이 유지 관리를 안전하게 하여 후세까지 봉사함에 유감이 없도록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

히 이 토지는 등록시 지손 중 개인 명의로 분산되어 현재 유지 관리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본원 명의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영구히 선생의 유지를 받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체면유지비 600원을 영구히 지급한다는 것에서 ‘영구’라는 글자는 너무 무제한적이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삭제하였다. 또한 옥산계정은 회재선생이 거처하던 장소로 그 의미가 큰데, 이 계정 수호도 역시 선생을 위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므로 그 보조비로 1천 원을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옥산서원의 역원 비용 변상 및 직원 급료 및 여비 규정 제정에 관한 건」을 심의, 확정했는데, 역원이 평의회에 출석할 때에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원장 및 이사는 3원, 유사 및 평의원은 2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비 규정¹⁷⁾도 정했으며, 서기의 급료를 연 60원 이내로 하였다.

제1회 평의회가 개최된 후 20일 만에 제2회 평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렇게 한 달도 안되어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은 평의회 결의안에 대해 회재 증가에서 반대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이었다. 1940년 10월 29일 제2회 평의회를 옥산서원에서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는 이사 1인, 유사 2인, 서기 1인, 평의원 9인이 참석하였고, 3인의 평의원이 결석하였다.¹⁸⁾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이 임석하였다. 의안은 제1회의 제3호 의안인 「이회재 선생의 증가 및 묘위 토지 영구 유지 관리에 관한 건」의 정지로 증가의 이대원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하였다. 이 편지에서 이대원은 평의회에서 장손인 자신에게 매년

17) 여비규정

구분	기차 운임	기선 운임	차마 운임 (1리당)	군내		군외		도외	
				당일	숙박시	당일	숙박시	일당	숙박료
원장	2등	2등	30전	1원	2원	1원50전	3원	2원	5원
이사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유사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평의원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상등
서기	3등	3등	20전	80전	1원50전	1원	2원	1원50전	4원

18) 「玉山書院第二回評議會會議錄」, 玉山書院, 『往復書類綴』.

유지비를 보조하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사실이기 이를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종손이 자력갱생할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옥산정계 수호보조비 역시 편지에는 쓰지 않았지만 구두로 이대원씨가 정지를 요청했기에 역시 이도 취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 경정도 진행되어 '회재선생증가 위전유지비' 600원과 '계정수호비 보조' 1,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증가 지원비를 공식화 한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옥산서원의 증가재산 관리를 거부한 것이다. 사실상 제1회 평의회 결의의 핵심은 옥산서원이 증가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대신에 매년 일정액의 품위유지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평의회에서는 이전과 달리 서원이 증가재산까지 관리할 겨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증가 축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사회자는 서원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업으로 속히 실현할 사항이라고 강조하였고, 일부 평의원도 서원으로서는 긴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의결을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힘을 얻지는 못했다. 이와 같이 옥산서원 평의원회에서는 서원 재산을 신탁관리함과 동시에 증가재산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한편 평의회 결의에 따라 당시 조선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차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이사 최윤이 이름으로 1940년 11월 22일자로 작성된 신청서가 남아 있다.¹⁹⁾ 신청서에는 우선 그 목적을 고리부채 정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로 위 <표 1>의 개인에게서 차입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재금액은 1만 8천원, 차입선은 조선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하고, 차입시기는 1940년, 즉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 해인 1941년 3월까지를 거치기간으로 하고, 상환은 1941년 4월부터 1959년 3월까지 19개년을 희망하였다. 당시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

19) 「起債額申込二關スル件」, 玉山書院 『往復書類綴』.

되어 이듬해 3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위 방식을 취한 것이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기간을 19년으로 설정했지만 서원 재정 형편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거나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달았다. 옥산서원은 연부상환액을 1,288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상환 재원은 서원의 기본재산 수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옥산서원의 재정 현황표를 첨부하였다.

<표 2> 차입부터 상환기한까지 각연도 세입출 예산

수 입		
	금액	
토지수입	4,795	답 56,598평, 1평당 8전, 4,527원 84전 전 13,379평, 1평당 2전, 267원 58전
예금이자	5	현금 매일재고 평균 125원, 연 4%의 이자 1개년분.
합계	4,800	
지 출		
향사비	400	춘향비 200원, 추향비 200원
대제비	200	회재선생 대제비 1회분 200원
향계비	72	1회 평균 3원, 24회분 72원
회의비	100	유림총회 회비 50원, 역원비용변상 50원
잡비	70	접대비 50원, 제잡비 20원
서기급료	120	서기급료 120원, 1인 월액 평균 5원, 2인 1년분.
여비	250	역원 및 서기 여비 250원
수용비	100	지필문구류 80원, 통신비 20원
원유건물유지비	100	
용인비	720	용인급료 720원, 1인 월평균 15원, 4인 1년분.
교육비	1,200	옥산사립학교 경리비 1,200원
공과금	30	
院續연부금	1,228	상기분 644원, 하기분 644원
일시차입금 이자	66	
예비비	144	
계	4,800	

옥산서원은 신청서에 토지수입을 예산보다 적게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논외의 경우 평당 8전, 밭외의 경우 2전으로 예산에 비해 각각 2전과 1전씩 감액하였는데, 향후 소작료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옥산서원이 조선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차입을 요청한 것은 이 회사가 서원의 재산을 신탁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1년도 예산 지출 항목에 신탁보수 항목을 신설하고 재산관리액의 10%를 계상하였다. 당시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신탁보수율은 일반적으로 소작료 수입의 10% 내외를 취하고 있었다. 가령 1941년도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신탁보수율은 평균 9.37%였는데, 회사에서는 소작료를 징수하여 자기 몫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신탁수익금으로서 지불하고 있었다.²⁰⁾ 그런데 이 수입은 조선신탁주식회사가 소작료를 거둔 직후가 아닌 다음 해 5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1941년 7월에 조선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에 2천 원 차입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지주 등 개인 뿐만 아니라 향교나 서원 등도 소유 농경지를 신탁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주로 하는데, 대체로 금전신탁이 50~70%, 부동산신탁이 30% 내외를 점하고 나머지는 유가증권신탁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신탁의 경우 농경지는 소작인의 선정, 경종법의 개선 및 지도, 소작료의 징수 및 처분 등에 이르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및 소작 관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 인수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지만,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창업 이래 부동산 신탁, 그중에서도 농경지의 신탁에 주력하였다. 1942년 하반기 말 수탁면적

20)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신탁보수율은 타회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부동산신탁회사인 불이흥업주식회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작료 수입의 20%를 보수로 받고 있었다고 한다(김용섭, 「한말·일제하의 지주제-사례 5, 일제하 조선신탁의 농장경영과 지주제변동-」, 『동방학지』 70, 1991, 18~19쪽).

은 4만 882정보에 달했고 그중 86.2%, 즉 3만 5,250정보는 논, 밭 등의 농경지였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농경지 관리를 위해 21개소의 농장을 설립하고 기술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농사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미 1932년 조선신탁주식회사 설립 당시부터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책의 일환으로 신탁 경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²¹⁾

그런데 이 시기에는 일제의 전시 통제정책이 강화되면서 강제저축이 진행되고 있었다. 소위 천인저축(天引貯蓄)이라고 하여 임금이나 급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일종의 강제공제저축을 실시하였다. 1940년에 들어 강제공제저축 대상은 봉급, 급료, 수당, 상여, 배당, 이자, 지대, 가옥임대료, 매상금 등 계속적 수입과 각종 임시적 수입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에서의 쌀 공출 대금도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²²⁾ 이에 따라 옥산서원의 수입 역시 천인저축의 대상이 되었다. 일반 지주의 경우 매상대금의 10~15%를 금융조합에서 강제로 저축토록 하였는데, 조선신탁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토지의 경우는 당국과 협의하여 금전신탁의 형식으로 강제 예금하도록 하였다. 물론 기관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동일한데, 조선신탁주식회사 산하의 농경지는 당연히 그 매각 대금이 일차적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한 것이다. 당시 옥산서원에 소장된 문서를 보면 조선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보낸 금전신탁 신청서 및 계약서에 날인한 후 다시 반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금전신탁의 예금이율이 1개년 이상의 경우 연 3.9%, 2개년 이상의 경우 연 4.1%, 3개년 이상의 경우 연 4.3%이라고 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이율에 비해 고이율이라고 주장하였다.²³⁾

이상과 같이 옥산서원은 유일한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농경지 관리를 조선신탁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농경지 이외에 노비나 원

21) 朝鮮洋託株式會社, 『朝鮮洋託株式會社十年史』, 1943, 108~110쪽.

22) 문영주, 「1938~45년 '국민저축조성운동'의 전개와 금융조합 예금의 성격」, 『한국사학보』 14, 2003, 391쪽.

23) 「朝鮮洋託株式會社 釜山支店→玉山書院(1941.1.18)」, 玉山書院, 『往復書類綴』.

속 그리고 관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 시기에는 오로지 소작료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서원 소유 토지가 산재해 있었고,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신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전시기 식량 증산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에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지주 대신 농경지를 관리하여 전시 농정에 기여해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대원군의 서원 훼철 이후에도 서원과 사우의 복설과 신설이 꾸준히 추진되었는데, 대부분 문중인사를 제향하는 문중서원이었다. 문중을 중심으로 양반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은 영남을 대표하는 미훼철 서원으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서원의 존속을 도모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은 일제 말기인 1940년에 규약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규약에는 서원의 설립 목적 및 구성원, 주요 업무, 운영 방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옥산서원의 역원은 원장 1인, 이사 1인, 유사 1인, 고문 2인, 평의원 12인으로 구성되는데, 조선시대 원규에는 보이지 않는 이사와 평의회 설치가 핵심 내용이다. 옥산서원은 평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통해서 운영되었는데, 특히 이사는 서원 재산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사의 권한을 매우 강력하게 설정함으로써 서원 재산을 유지하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사 는 그 업무가 제시만을 주관하는 것으로 하여 이전보다 축소되었다.

한말 이후 서원은 원노비와 원속 등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고 조선시대와 같이 관의 원조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외부 독지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오로지 농경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재정 실패는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옥산서원의 세입은 전

적으로 소작료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출에서는 옥산사립학교 지원비, 사무비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서원의 핵심기능인 제향에 관련된 제사비가 전체 지출 중 8%도 되지 않는 소액이라는 점이 조선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운영실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옥산서원은 1930년대 중반 서원 토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 채무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이율이 20~30%에 달할 정도의 고금리였고, 이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어 서원 재정은 고갈된 상태였다. 옥산서원은 이 고리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조선신탁주식회사에서 18,000원을 차입하였는데, 이 금액은 옥산서원 1년 수입 약 6천 원의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조선신탁주식회사의 차입금은 19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정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 또한 옥산서원은 회재 종가의 체면유지비에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는데, 재정정리를 단행하면서 이 항목을 실제 지출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그 배경에는 종가 재산을 서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는데, 종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옥산서원은 서원 재산을 신탁관리함과 동시에 종가재산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옥산서원은 서원 소유 재산을 조선신탁주식회사 부산지점에 위탁하여 운영하였다. 그 비용으로 조선신탁주식회사에는 소작료 수입의 10% 내외를 신탁보수로 지급하였다.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일본의 신탁회사가 금전신탁을 주로 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신탁에도 역점을 두었다. 옥산서원 소유 토지가 산재해 있었고,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신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전시기 식량 증산이 절대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에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지주 대신 농경지를 관리하여 전시 농정에 기여해야만 했던 시대적 상황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부표 1〉 옥산서원 규약

제1조	옥산서원은 이회재(李晦齋) 선생을 향사(享祀)하는 서원으로 한다.
제2조	옥산서원은 이회재 선생의 유훈을 준수함과 함께 존현양사(尊賢養士)를 하고, 유도(儒道)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옥산서원은 유림으로 조직한다.
제4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매년 유림 중 학식, 인격, 문벌 등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여 옥산서원에 종사하게 하고, 청금안(靑衿案)에 등록한다. 2. 매월 15일 및 말일 2회에 걸쳐 옥산서원의 유사는 그 묘우(廟宇)에 향알(香講)을 시행한다. 3. 서원의 원장은 매년 춘계, 추계에 걸쳐 제주(祭主)가 되어 유림과 함께 엄숙히 향사를 시행한다. 4. 유림 중 독행자에 대해서는 이를 표창하고 불량자에 대해서는 이를 징벌한다.
제5조	옥산서원은 다음의 역원을 둔다. 단 역원은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유사 1인 이사 1인 평의원 12인 고문 2인 → (개정) 원장 1인 이사 1인 유사 1인 고문 1인 평의원 12인
제6조	원장은 서원을 통할하고 이를 대표한다. → (개정) 서원은 원장 또는 이사가 통할 대표한다. 유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향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개정) 이사는 재무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재무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개정) 유사는 원장을 보좌하고 향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평의원은 원장, 유사, 이사가 부의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고문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참여한다.
제7조	원장 및 역원은 다음의 자격자로 하고 유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원장은 학덕, 문벌, 명망이 현저하여 유림의 원로가 될 수 있는 자 유사 및 이사, 평의원은 학식, 문벌, 인격 등이 우수한 자 → (개정) 이사 및 유사, 평의원은 학식, 문벌, 인격 등이 우수한 자
제8조	본원에 서기 2명을 두고 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 (개정) 본원에 서기 2명을 두고 원장 및 이사가 임명과 해임을 한다. 서기는 유사 및 이사의 명령에 따라 사무에 종사한다. → (개정) 서기는 원장, 이사, 유사의 명령에 따라 사무에 종사한다.
제9조	옥산서원은 다음과 같이 정기평의원회 및 임시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실시사항을 평의 결정한다. 정기총회는 1월 5일, 춘향(春享), 추향(秋享), 이회재 선생 기제일 등에 이를 개최한다. 임시평의원회는 임시 필요함에 따라 개최한다. 회의의 의장은 원장으로서 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

	<p>이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 (개정) 회의의 의장은 원장 또는 이사 및 유사로 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에 따른다. 단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로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이사가 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개정) (삭제)</p>
제10조	옥산서원의 경비는 기본재산의 수입 또는 독지자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경비는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연도말에 결산을 마치고 평의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세입출은 관회계장부 및 수입지출증빙서를 보존하고 10년간 증빙해야 한다.
부칙	<p>본 규약은 1940년 4월 2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개정) 본 규약은 1941년 6월 8일부터 이를 시행한다.</p>

출전: 「玉山書院規約」, 玉山書院 『往復書類綴』(1940년 9월 30일~1942년 12월 15일)

〈부표 2〉 1940~41년도 옥산서원 세입출 예산(단위: 원)

세 입				
항목	세부항목	1940년도 예산액	1941년도 예산액	내역
1. 재산 수입	소작료	6,061	6,061	답: 56,598평 (평당 10전의 비율 5,659원 80전) 전: 13,379평 (평당 3전의 비율 401원 37전)
	소계	6,061	6,061	
2. 잡수입	예금이자	12	12	예금이자 12원 77전. 경비예금 매일 재고 평균 500원 일보 7리의 비율(연리 2.555%)
	소계	12	12	
3. 차입금		18,000	2,000	
	합계	24,073	8,073	
세 출				
항목	세부항목	1940년도 예산액 (경정예산)	1941 년도 예산액	내역
1. 제사비	향사비	200	400	추향비 200원
	대제비(大祭費)	200	200	
	향알비(香謁費)	72	120	1회 평균 3원 24회분 72원 (1회 평균 6원, 12회분)
	소계	472	720	
2. 회의비	회의비	100	96	유림총회비 55원 비용변상 45원 : 원장 3원, 이사 3원, 유사 3원, 평의원 36원(12인분 1인당 3원). 비용변상 96원 ·원장 1회 3원 3회분, 이사 1회 3원 3회 분, 유사 1회 2원 3회분, 평의원 1인 2원 3회, 12인분 72원.
	잡비	70	50	접대비 50원 제잡비 20원 접대비 50원
	소계	170	146	
	서기 급료	60	120	1인 평균 30원 2인분(반년분) 1인 평균 60원 2인분
3. 사무비	여비	200	150	역원 및 서기 여비
	수용비	250	150	비품비 100원 소모품비 100원 통신운반비 30원 잡비 20원

				비품비 50원 소모품비 50원 통신운반비 30원 잡비 20원
	원유건물 유지비	100	50	
	용인비(傭人費)	360 (1,000)	750	용인료 1인 평균 30원 3인분 (용인료 1인 평균 100원 10인분) 용인료 1인 평균 150원 5인분
	소계	970 (1,610)	1,220	
4. 사업비	교육비	800 (1,300)	1,200	옥산사립학교학교 경리비
	소계	800 (1,300)	1,200	
5. 잡지출	공과금	10	5	
	구채상환비	18,000	0	
	연부상환비	644	1,897	연부금 1,288원의 반(半)연부금 1941년도 9월·1942년 3월 상환 각각 948원 27전.
	신탁보수		607	
	회재선생 증가 위전유지비	600 (0)	0	
	계정수호비 보조	1,000	0	
	잡비	100	100	
	소계	20,354 (19,754)	2,609	
6. 예비비		1,307 (767)	2,178	
	합계	24,073	8,073	

출전: 「昭和十五年度玉山書院歳入歳出豫算」·「昭和十六年度玉山書院歳入歳出豫算」, 玉山書院 『往復書類綴』(1940년 9월 30일~1942년 12월 15일)

비고: 내역의 윗 칸은 1940년도, 아래 칸은 1941년도분임.

【참고문헌】

玉山書院 『往復書類綴』(1940년 9월 30일~1942년 12월 15일)
『동아일보』, 『釜山日報』

김용섭, 「한말·일제하의 지주제－사례 5, 일제하 조선신탁의 농장경영과 지주제
변동－」, 『동방학지』 70, 1991.

오이환, 「일제시기의 덕천서원」, 『동양철학』 32, 2009.

윤선자, 「일제하 호남지역 서원, 사우의 신설과 복설」, 『한중인문학연구』 22, 2007.

이병훈, 「19~20세기 영남지역 향촌사회와 경주 옥산서원의 동향」, 『한국서원학보』
4, 2017.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 원입의 구성과 성격」, 『민족문화논총』 67, 2017.

이수환,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2, 1992

이수환 편저,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수환, 「영남지역 서원건립 상황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78, 2021.

朝鮮洋言託株式會社, 『朝鮮洋言託株式會社十年史』, 1943.

최성한, 「한말·일제강점기 영남지역 서원·사우의 건립 양상」, 영남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2021.

Abstract

Actual Condition of Operation of Oksan Seowon, Gyeongju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Cho, Myung-Keun*

Gyeongju Oksan Seowon is a representative Seowon in Yeongnam dedicated to Hoejae Lee Eon-jeok, and served as the center of the society of country villages. However, its status declined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changed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and in particular, it was in a very difficult state financially. Lost the Seowon slaves, who were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Seowo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could not receive any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al office, Oksan Seowon could not but rely solely on income from farm rents. In the mid-1930s, disputes over land arose, and in the process, the Oksan Seowon's finances deteriorated further as they owed large amounts of debt to cover the costs of litiga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Oksan Seowon re-enacted its rules, the basic principles of Seowon operation, in 1940 to reorganize the operating system. The core of these rules was to have a director in charge of finance only and to deliberate on various issues of the Seowon through a council. Thereafter, Oksan Seowon convened a council to carry out debt adjustment to drastically reduce the burden of interests by replacing the existing high-interest loans with low-interest loans from Chosun Trust Company. In addition, on this opportunity, the Oksan Seowon tried to manage the head family's proper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Yeungnam University
/ cmk3@yu.ac.kr

but it was not successful due to the head family's refusal. Along with the settlement of the debts of the Oksan Seowon, the Seowon's property was entrusted to the Chosun Trust Company. It was the result of satisfying the interest of Oksan Seowon which was trying to solve various problems through the policy goal of wartime agricultural administration of increasing rice production during the war period and consigned administration.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Oksan Seowon tried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 and promote the survival of the Seowon through a series of system reorganization.

Key word : Oksan Seowon(옥산서원), Academy Rules, Academy Director, Council, Chosun Trust Company

논문 투고일: 2022. 05. 31 심사 완료일: 2022. 06. 14 게재 확정일: 2022. 06. 20

제향 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

-강서(江西) 일대 서원을 중심으로

배 다 빈**

- I. 들어가는 말
- II. 서원의 설립
- III. 서원지의 출현
- IV. 서원 지식의 전개
- V. 결론

【국문초록】

동아시아 서원 문화의 본원(本源)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서원 문화는 당대(唐代)로부터 오랜 기간 변화를 겪으며 발전과 확장을 거듭해왔다. 그 발전의 배후에는 민(民), 관(官)으로 구분되는 운영 주체의 상호 협력과 유(儒), 불(佛), 도(道)의 긴장 및 융합, 그리고 유가 학술 사조의 변천이라는 다양한 요소 및 역사적 사건들이 변화 기제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중국의 여러 지역 가운데 전통 서원 문화 완비의 중심지이자 송명(宋明) 신유학과 함께 발전한 강서(江西)지역의 주요 서원에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각 서원 제향 인물의 변천 양상을 확인, 상호 비교해봄으로써 강서지역의 사상적 특징과 지역성을 고찰해본다. 강서지역 서원 문화의 대표성과 지역성은 중국 서원 문화의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선진 유학, 정주이학 및 양명학이라는 다양한 유가 사상의 역사적 지층(地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철학과 객원교수 / qoekqls1@naver.com

주제어 : 중국 서원, 유학, 제향 인물, 제사, 강서(江西)

I. 들어가는 말

본고의 목적은 중국 강서성 일대 주요 서원의 제향 인물과 그 변천 양상 파악을 통해 중국 서원의 사상적 보편성과 지역성을 도출해보는 것이다. 서원의 제향 인물은 곧 그 서원의 학술적 정체성과 학문 경향, 그리고 학맥의 정통성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서원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 테마이다. 그러나 중국 서원의 핵심 기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동일 테마의 한국 서원 관련 연구성과에 비하면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현승(2021)은 강서성과 서원 문화라는 연구 테마와 관련해 본 연구 주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으며,¹⁾ 범혜한의 논문은 강서 백록동서원의 연혁과 운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밝힌다는 점에서 많은 직접적 참고 자료를 제시한다.²⁾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중국 서원 제향 문화를 직접적으로 토론하는 연구는 중국 현지에서도 그리 많지 않거니와 국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필자는 강서지역 주요 서원의 제향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서 일대의 유학 학풍과의 관련성 및 주요 서원의 성격을 알아보고, 나아가 제향 대상의 변천으로부터 발견되는 일련의 사상적 보편성과 지역성에 그 이론적, 실질적 당위성을 기하는 해석을 부여해보려 한다.

필자는 우선 ‘강서’, ‘제향 인물’, ‘지역성과 보편성’, 그리고 ‘사상적 변천’

1) 신현승, 「중국 강서의 문화지리와 유교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61,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2) 範慧姍,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이라는 용어로 연구 범위를 특정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연구 지역에 관하여 말하면, 강서성³⁾은 중국에서 명-청대에 걸쳐 가장 많은 서원이 설립된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힐 뿐만 아니라, 전통 서원의 형태와 학술적 의미를 정초한 주희(朱熹)의 백록동서원이 소재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두 사실은 강서 일대의 서원 조성과 발전이 중국 전체의 서원사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서원의 제향 인물은 한 서원의 건립 이념, 학술 경향 및 정통 학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서, 서원의 원임 계보 및 강학 내용과 더불어 그 서원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지역성’과 ‘보편성’은 일종의 상대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지역성’은 시공(時空)의 변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각 서원의 개성적 특징을 의미하고, ‘보편성’은 각 서원이 지리적, 구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 특징을 의미한다. ‘사상적 변천’은 곧 필자가 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강서성 일대 주요 서원 제향 인물의 보편화 양상 및 지역성의 유지 가운데 ‘사상적 특징’으로 규명할 수 있는 변화를 말한다.

사실 이처럼 시공적, 주제적 특징을 충분히 밝히는 것은, 기존의 한국 서원의 제향 인물에 관한 연구 접근법을 중국 서원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그 연구 범위 및 단계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대상 범위를 고려해보면, 중국 서원의 최대 부흥기였던 명, 청대 강서 일대에 건립, 유지된 서원은 각각 221, 282개소⁴⁾에 달한다. 따라서 강서지역에 소재한 서원들의 모든 제향 인물을 열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니와, 이로부터 귀납할 수 있는 연구 결론 또한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각 서원의 제향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선현(善賢), 선유(先儒) 및 향

3) 현재 강서는 ‘성(省)’급 행정단위로 분류되어 강서성이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당대(唐代)부터 강서성의 지역 구획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여, 이하 ‘강서지역’ 혹은 ‘강서 일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표현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한다.

4)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啓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10쪽 도표 참조.

현(鄉賢), 명환(名宦)의 양상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부(府), 현(縣) 단위로 그 범위를 좁히게 되면 그 지역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갖는 중국 서원의 특징을 고찰해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연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서 연구 단계의 시의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내에서는 아직 중국 특정 지역의 향현, 명환의 출신, 학맥뿐만 아니라, 그들과 주요 유가 학파와의 긴밀한 연관 관계가 사료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 서원에 관한 연구가 여러 방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서지역 내부에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서원을 위주로 그 사례를 확인해봄으로써, 나름의 연구 정당성과 내용적 가치 및 연구 결론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소위 강서 4대 서원으로 알려진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백로주서원(白鷺洲書院), 예장서원(豫章書院), 아호서원(鵝湖書院)을 비롯하여, 송대 유학자 육상산(陸象山)을 조사(祖師)로 삼는 상산서원(象山書院)과 여러 서원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포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시론적이거나 중국 전통 서원의 제향 특징, 지역성, 보편성을 다각도로 확인해볼 것이다. 이는 향후 중국 서원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국 서원과의 비교 연구에도 유의미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중국 서원의 발생부터 서원 기능의 완비

중국 서원의 제향 인물의 특징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서원의 변영 시기 및 그 원인, 그리고 경과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시대에 따른 서원 제향 인물의 변화 양상은 각 시대의 서원 발전도 및 그 배후의 서원 건립 주체, 교학 이념과 같은 근본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중국 서원의 역사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서원의

시초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⁵⁾, 대부분 중국 연구자들은 당대(唐代)에 존재했던 몇몇 서원들을 그 시초로 보고 있으며, 시기를 구분하면 당대 전체-오대(五代) 말기(618~960년)를 서원사의 초기로 간주한다.

당시만 하더라도 서원은 중국 전역에 걸쳐 거의 설립되지 않았고, 설립 주제 또한 민(民), 관(官)으로 각기 달랐다. 당연히 건립 목적 또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최초의 민간서원으로 알려진 유현(攸縣) 광석산서원(光石山書院)은 당시 사인(士人)들이 사적으로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하던 곳으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서원의 기초적인 제도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비하여 관(官)에 의해 설립된 여정서원(麗正書院), 집현서원(集賢書院) 또한 사실 조정의 서적을 관리, 보관하는 목적으로 건립, 운영되었던 기관이다. 즉 이 시기 '서원'이라는 명칭은 상이한 두 학술 조직을 아우르는 동일한 표현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두 기관 모두 강학(講學), 제사(祭祀), 학전(學田)과 같은 오늘날 서원의 주요 기능은 공유하지도 않았거니와 거의 갖추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당대 서원 체제는 북송 시기로 넘어가면서부터 정부의 주도 아래 새로운 변화 양상을 보인다. 북송 초기, 중앙 정부가 관원을 양성하는 관학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관원을 양성하기 위한 일종의 변통으로서 서원을 관방 교육의 대체재(代替財)로 적극 활용하였다. 물론 당시 서원의 건립 주체들은 민, 관을 막론하고 다양했으며, 이때부터 점차 강학 기능이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경 아래, 서원의 강학 내용은 조정의 관원 양성이라는 수요에 조응하였고, 따라서 비교적 정형화된 과거지학(科擧之學)이 주를 이루었다. 아울러 서원 또한 운영 측면에서 정부로부터 사서(賜書), 사액(賜額), 사전(賜田) 등을 포상 형식으로 원조받으면서 발전했다. 이후 조정이 관학 체제를 완비하게 되자, 활용도가

5) 이 기원에 관한 다양한 견해는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12~13쪽에 압축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떨어진 수많은 서원이 다시 훼손(毀撤)되거나 아예 관부 소속 교육기관으로 편입되고 만다.⁶⁾ 대표적으로 북송 말엽 이미 드높은 명성을 자랑했던 응천부서원(應天府書院), 석고서원(石鼓書院)은 각 급 지방 행정 구역의 관학으로 예측되었고, 강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은 아예 훼손되었다.

그러나 북송 시기에 정부로부터 집중적으로 교육 재원 및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오늘날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기능이 확립된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강학(講學), 장서(藏書), 학전(學田), 그리고 제사(祭祀)라는 4대 기능이 관학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서원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또한 중앙 정부 혹은 지방 관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북송 후기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많은 서원이 훼손, 방치되기 전까지, 관학과 더불어 완비된 북송 서원의 주요 기능들은 남송 이후 서원 재건 과정에서 다시 전승된다.

북송 시기 중국 서원의 보편적 특징을 관학화된 교육기관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남송의 서원 제도와 건립은 과거와 확연한 대비를 이루는 또 다른 동력 및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관련 연구자들은 이학자 주희(朱熹)의 학술 정신과 그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재건 작업이 핵심 기점이 되었다고 본다. 말하자면 남송 시기는 민간 사학으로서 중국 서원 전통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확립된 시기로, 이에 이르러 비로소 원임 구성 방식이나 경비 마련 경로 등 후대 서원 내부 요소들을 확립하는 데 모범이 된 체계적인 틀이 조성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는 강학 내용, 장서 자료, 제향 인물 모두에 이학적 특징이 스며들게 된 학술적 전환기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백록동서원은 강서 소재 서원일뿐만 아니라, 강서 4대 서원, 나아가 중국 전체에서도 ‘천하 4대 서원’으로 꼽히는 대표 서원이다. 그러므로 강서의 유풍(儒風) 전승, 이학의 집대성과 보급, 그리고 민간 사학으로서의 중국 서원의 풍부한 기능 완비와 확산이라는 세 가지 요소는 상호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강서지

6) 鄧洪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年, 77쪽.

역을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이 영향력은 이후 명, 청대에 이르러서도 유학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더욱 증폭된다.

Ⅲ. 강서 지역의 학풍(學風)과 서원의 변영

중국사 전체를 조망해보면, 대부분 왕조에서 국가의 정치 이념이자 학자들에 의해 심화된 주류학술 사조는 바로 유학(儒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대(漢代) 이후로는 갖가지 사회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에 당면하여 유학자들의 사상적 반성 혹은 학술적 회의(懷疑)가 있었을지언정, 유학 자체는 결코 관학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지역적인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공자가 출현하고 선진 유가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제로(齊魯) 지역, 즉 산둥(山東) 일대가 줄곧 유학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송대 이후 왕조의 교체로 인해 정치적 중심이 남방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리고 사상적 패러다임의 변혁과 더불어 중국 남방 지역이 유학 중흥의 거점이 된 시기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북송 주요 이학자(理學者)로부터 발발하여 남송(南宋) 주희(朱熹)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新儒學)이 탄생한 11-13세기의 송대(宋代)이다. 그리고 강서지역은 이 신유학의 발전과 중국 서원의 발전에 있어서 모두 핵심적인 사건과 활동이 발생한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서는 중국의 주요 사상인 유(儒), 불(佛), 도(道)가 모두 흥성했던 지역이다. 예컨대 중국 불교 정토종(淨土宗)의 근원인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나 도교의 근거지인 용호산(龍虎山)이 모두 강서지역에 속해 있으며, 당대(唐代) 이래로 수많은 사찰과 사원이 이 지역에 건립, 운영되었다. 강서지역에서는 불교, 도교가 유학보다 더욱 일찍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남송 시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중건하고자 결심한 데에도 이러한 당시 풍토가 하나의 주요 동기로 작용하였다. 『백록동서원지』에는 주희의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산(廬山)에

불로(佛老)의 사원이 거의 백여 곳이 있었는데, 병화(兵禍) 이후 남은 것들이 점차 부흥하여 대부분 그 원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오직 이 유관(儒館)만이 가시덤불에 우거진 모양새였다.”⁷⁾ 이러한 비교 언급 속에는 당시 쇠락한 유풍(儒風)의 부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식이 깃들여 있다. 그러나 강서 출신 유학자 가운데, 남송 이전부터 역사에 이름을 남긴 명인들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저명한 구양수(歐陽脩), 증공(曾鞏), 왕안석(王安石)이 모두 강서 출신이다. 이들은 시문(詩文), 역사, 그리고 사상 방면에서 모두 강서를 대표하는 명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생전에 풍부한 정무 업적으로도 명성을 남긴 인물들이다. 아울러 신현승에 따르면 당대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왕조에서 강서 출신 진사는 총 10,495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비율의 10.99%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장원급제자가 48명이다. 동시에 『명사·유림전(明史·儒林傳)』에서는 총 115명의 저명한 유학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강서 출신이 35명으로 가장 많다.⁸⁾ 그러므로 강서지역이 고래로 전통 있는 유풍(儒風)을 가진 지역이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남송 이래 강서지역의 유학이 더욱 발전, 확장은 곧 서원의 부흥과 직결되며, 그 중심에는 주희의 백록동서원 중건(重建)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학(理學)의 기초를 닦은 주돈이(周敦頤)를 비롯하여, 장재(張載), 이정(二程)이 활동하던 북송 시기만 해도, 서원이라는 민간 교육기관과 이학의 관계는 그리 긴밀하지 못했다. 주돈이가 생전에 교육 전파를 위해 강서 남창부(南昌府)에 염산서원(瀝山書院)⁹⁾을 건립하고 학자들을 초빙하였지만, 이학 자체는 관학화된 대부분 서원과는 기능적으로 결이 맞지 않았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실 자체가 북송대 이학 발전 및 보급에 큰 영향은 끼

7) 毛德琦, 『白鹿書院志』 卷二, 「乞賜白鹿洞書院救額: “此山佛老之祠, 蓋以白數, 兵亂之餘, 次第興葺, 鮮不復其舊者, 獨此儒館, 莽爲荊蒺榛.”

8) 신현승 「중국 강서의 문화지리와 유교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61,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46쪽.

9) 후대의 강서 염계서원(瀝溪書院)의 전신(前身)이다.

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송 시기에 주희가 중건한 백록동서원은 당대(唐代)부터 존재했던 여산국학(廬山國學)을 기원으로 본다. 이후 역사적 굴곡 끝에 순희(淳熙) 6년(1179년), 주희가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로 부임한 뒤 황폐화된 백록동서원 부흥에 착수하면서 서원의 원규, 강학 교재, 방법 및 학전 유치, 사우 건립 등 거의 모든 구성요소에 개입, 혁신을 이루었고, 이 모든 요소가 곧 남송 이래 중국 서원의 전형(典型)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조선의 서원 건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희가 백록동서원 중건 당시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작성한 『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는 이후 거의 모든 서원의 원규 작성의 모범이 되었다. 이 게시문은 사인(士人)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근본, 즉 오륜(五倫)의 뜻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수신(修身)법에 대해 환기,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이는 금계(禁戒)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종래의 서원 원규(院規)와는 질적으로 다른 교육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공명(功名)과 이록(利祿)을 추구하는 과거시험을 위한 주춧돌의 기능에서 벗어나, 서원이 생도들에게 있어 유학자로서 진정한 수신(修身)과 궁리(窮理)에 힘을 쏟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주희의 교육관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울러 『백록동서원게시』는 주희가 직접 편찬한 사서(四書)의 내용을 선별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이학(理學)이 유학의 적통 학문이라는 그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나아가, 주희가 채택한 강학 교재나 강학, 집무를 위해 초빙한 유학자 모두 이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당시 서원의 발전과 교류는 이학의 발전과 함께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10)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 254~255쪽: 「白鹿洞書院揭示」,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右五教之目, 堯舜使契爲司徒, 敬敷五教, 卽此是也. 學者學此而已, 而其所以學之之序, 亦有五焉. 其別如左: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右爲學之序, 學問思辨四者, 所以窮理也. 若夫篤行之事, 則自修身以至於處事接物, 亦各有要, 其別如左: 言忠信, 行篤敬, 懲忿窒欲, 遷善改過. 右修身之要, 正其誼不謨其利明其道不計其功, 右處事之要; 己所不欲, 勿施於人. 行有不得, 反求諸己. 右接物之要.

남송 이래 서원 발전의 중심이 주희였고, 그 교학, 운영의 사상적 기초(基調)가 이학이었다는 점은 바로 신유학의 학문 수양 및 학술 전파의 거점이 백록동서원이 위치한 강서 일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주희는 생애 수많은 서원을 건설, 중수하였는데, 그가 복원과 건립에 관여한 서원만 67개소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위 ‘서원과 이학의 일체화’ 양상이 서원 문화 발전의 핵심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학 전통은 중국 남방 전체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원의 건립과 운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백록동서원을 기점으로 한 강서지역의 활발한 발전 양상이 실제로 드러난다. 아래 표는 당대(唐代)부터 서원이 존재했던 중국 각지의 역대 신설 서원 통계이다.

〈표 1〉 중국 당~원대 신설 서원 개수¹²⁾

	강서	사천	절강	광둥	호남	하남	북건	섬서
당(唐)	5	2	3	2	6	1	5	1
북송(北宋)	23	4	4	4	8	5	3	1
남송(南宋)	94	15	60	17	26	0	47	0
원(元)	53	6	36	3	22	16	15	0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까지만 해도 서원 개소 분포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송·원대에 접어들면서 강서 일대에 신설된 서원은 중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히 많다. 이러한 강서지역 우세 양상은 서원이 제도화 및 사회적 영향 각 방면에서 완비되었다고 평가되는 명대에 이르러서도 서원 자체의 변형과 더불어 절정을 맞이한다. 명대 중국 전역에서, 서원이 최소 100개소 이상 존재했던 지역은 여덟 곳이다. 그 서원 분포 수는 아래와 같다.

11)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羅爽, 『從白鹿洞書院看宋代書院的發展』, 『語文教學與研究(大眾版)』, 2011年 第2期 참고.

12) 당대부터 서원이 존재했던 지역만 표기함. 白新良, 『明清書院研究』, 古宮出版社, 2012年, 2-45쪽 참고.

〈표 2〉 명대 중국 서원 분포수(100개소 이상 지역)¹³⁾

강서	광둥	북진	절강	안휘	강소	호북	호남
221	207	180	170	144	119	112	100

북-남송 양대에 걸쳐 서원의 기본 제도와 강학 이념 등이 완비되었고, 아울러 남송 시기에 전개된 ‘서원건설운동’에 힘입어 서원 건립이 크게 확산하였다. 그러나 명대 홍무(洪武)-선덕(宣德) 연간(1368~1435년)에는 조정에서 문교(文教) 사업을 중시하여, 관학과 이에 부합하는 과거제도 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서원의 강학 기능이 감퇴하는 한편, 금천서원(金川書院), 안호서원(安湖書院)과 같은 강서 서원은 사우(祠宇)를 새로 건립하거나 아예 이름을 명현사(名賢祠)로 고치는 등, 그 주요 기능을 제사 위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정통(正統)-홍치(弘治) 연간(1436-1505년)에는 다시 관학이 점점 쇠퇴하면서 서원이 다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인다. 정덕(正德)-만력(萬曆) 연간에는 또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즉 양명학의 전파와 확산이 무르익어감에 따라 발전을 거듭했다가, 또 국조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정치적 불안정과 더불어 쇠퇴하는 굴곡을 보인다. 이렇듯 강서 서원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더욱 뚜렷하게 주류학술과 국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청대에 이르면 강서지역에만 282개 소의 서원이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강서 일대의 많은 서원과 이로부터 이루어졌을 활발한 학문적 교류가 주희와 그의 이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중국 서원사에서 서원 문화의 발전은 강서 이학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선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국 서원 문화는 그 주류 사조의 일관성에 부합하여, 줄곧 주자학을 모태로 다양한 학술 전승을 진행하고 또 각 지역 재지사족의 학맥 특성을 보여주었

13)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啓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11쪽.

던 반면, 중국 서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송, 원, 명, 청 각 왕조와 민간에서 전파된 다양한 주류 학문 및 민간 신앙의 영향을 끌고루 섭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정주이학(程朱理學)과 육왕심학(陸王心學)은 서원의 원입, 강학, 제사 각 방면에 반영되어 그 실제 운영 내용에 있어 더욱 다기(多歧)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문에서는 특히 제사 방면에서 그 변천 양상을 확인해볼 것이다.

IV. 강서 서원의 제향 인물의 역사적 변천과 그 함의

1.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과 특징

앞서 중국 서원의 원시 형태의 기능에서 엿볼 수 있었듯이, 서원 초기 주요 기능 가운데 제사는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었다. 서원 내부에서 중요 인물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서원이 본격적으로 관학의 영향을 받게 된 북송대부터였다. 이학(理學)이 아직 흥성하지 못했던 북송대까지만 해도 서원의 제향 인물은 대부분 공자 혹은 공자와 그 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공자 제자에 대한 배향은 또 사배(四配), 십철(十哲), 심지어 72제자 규모로 나뉜다. 사배는 안회(顔回), 증삼(曾參),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가리키며, 십철은 당대(唐代)에 정립된 공자의 뛰어난 고제(高弟) 10명, 즉 안연(顔淵), 민자건(閔子騫), 염백우(冉伯牛), 중궁(仲弓), 재아(宰我), 자공(子貢), 염유(冉有), 계로(季路), 자유(子遊), 자하(子夏)를 가리킨다. 72제자는 공자 문하에서 뛰어났다고 전해지는 72인이다. 이상 공자와 공문(孔門) 주요 제자를 배향하는 것은 각 서원의 학파적 개성과 건립 이념과는 별개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제향 인물 구성의 차이는 남송 이후 전국 각 서원에서 선진제유(先秦諸儒) 뿐만 아니라 서원과 관련된 이학자를 제향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 우선

남송 이래 중국 전통 서원의 핵심 기능과 운영 모델 형성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한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오국부(吳國富)가 편찬한 『신찬백록동서원지(新纂白鹿洞書院志)』 제사(祭祀) 항목에는 아래 장문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백록동에서 제사를 지내는 선유(先儒) 선현(先賢)은 선진(先秦) 제유(諸儒)와 이학(理學) 명유(名儒), 그리고 현지의 명현(名賢) 및 공헌이 있는(有功) 이들로 나뉜다.

선진 제유(諸儒)는 공자 및 그 제자들, 특히 사배십철(四配十哲)이다. 사배(四配)는 안희, 증삼, 자사, 맹자이며, 십철(十哲)은 안연, 민자건, 염백우, 증공, 재야, 자공, 염유, 계로, 자유, 자하이다. 그 전체로 말하면 72 제자이다.

... 이학(理學) 명유(名儒)의 제사로는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가 있다. 개희(開禧) 원년(1205년), 산장 이중주(李中主)가 주돈이, 이정 및 주희 선생을 강당(講堂)에 합사하였다. (명대) 적부복(翟溥福)이 군수가 되자, 주돈이, 주희에 대한 제사를 멈추었으며, 소보(邵寶, 1460~1527)가 주자를 따라 백록동에서 강학하였던 14인을 배향하였다. 이 14인은 임택지(林擇之), 채심(蔡沈), 황간(黃幹), 여염(呂炎), 여도(呂燾), 호영(胡永), 이번(李燾), 황호(黃灝), 팽방(彭方), 주사(周耜), 팽려(彭鏞), 풍의(馮椅), 장합(張洽), 진복(陳宓)이다. 제학(提學) 조연(趙淵)이 이에 더하여 육구연(陸九淵)을 배향하였다. 만력 31년, 제학 전기(錢欝)가 왕양명을 함께 제사 지냈으며, 진호(陳縞) 또한 더하여 배향하였다. 청 강희 연간에 자양사(紫陽祠)를 따로 건립하여 주문공(朱文公)을 제사 지냈고, 14명의 제자와 진호 또한 옮겨서 배향하였다. 또한, 정호, 정이를 함께 제사 지내고, 장재, 소용을 추가하였다. 홍치(弘治) 연간 이전에, 이학 명유 및 현지 명현이 한 곳에 합사(合祀)되었다. 소규(蘇葵, 1450-1509)¹⁴⁾가 이발(李勃)의 위패를 별실로 옮겼다. 종유사(宗儒祠), 선현사(先賢祠) 두 곳으로 나누어 배향하였다. 주희 또한 자양사와 종유사로 나누어 모셨다.

현지의 명현(名賢)과 공(功)이 있는 유학자로는 도연명(陶淵明), 류환(劉煥), 이상(李常), 류서(劉惔), 진관(陳攢) 5인으로, 이들은 광산(匡山) 명현(名賢)들이다. 또 제갈량(諸葛亮)은 주문공(주희)이 찬양하였기에 함께 제사를 지냈다. 또 이발(李勃), 이선도(李善道), 주필(朱弼), 명기(明起), 류원형(劉元亨)이 있다. 사

14) 명대 강서 첨사(僉事). 백록동서원을 증수하였다.

신행(查慎行)이 여산(廬山)을 유람할 때, 이섭(李涉), 안익(顏翊), 주필(朱弼), 황이(黃翼), 탕래하(湯來賀)를 더하여 제향하였다. 이 10명은 백록동서원의 인물들이다. 또 왕위(王禕), 이령(李齡), 호거인(胡居仁), 소규(蘇葵), 진진(陳鎰), 소보(邵寶), 채청(蔡淸), 이몽양(李夢陽), 당용(唐龍)이 있다. 사신행이 여산을 유람할 당시, 왕위는 백록동 사우(祠宇)에서 배향하지 않았으며, 전문시(錢謙詩)를 더하여 배향하였다. 이 10명은 백록동서원에 공이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모두 선현사에 함께 모셨다. 만력(萬曆) 연간에 충절사(忠節祠)에 제갈량과 도연명을 따로 모셨다.¹⁵⁾

이상 기록에는 남송 이래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들이 망라되어 있다. 비록 각 제사 인물에 대한 정확한 배향 시점을 기록해놓지는 않았지만, 제향 주체의 생물연대를 통해 대략적으로 그 선후 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은 공자를 비롯한 선진시대 공문(孔門) 유학자들, 저명한 이학자, 그리고 강서지역이나 본원(本院) 관련 인물 총 세 분류로 크게 나뉜다.

그런데 우선 지적할 점은, 선진제유(先秦諸儒) 가운데 사배(四配)에 포함된 인물 구성이다. 상술하였듯 공자와 그 제자들은 선성(先聖, 또는 先師)과 선현(先賢)으로 분류되어 북송 시기 전국 서원 대부분에서 이미 그 제향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성(亞聖)이라 불리는 맹자와 술성자(述聖子)로 기록된 자사(子思) 두 사람은 후대에 알려진 소위 사맹학파(思孟學派)로, 공자의 직전제자군(直傳弟子群)이 아니라 공자 사후 송대 이학과의 정통성, 연속성을 함의하는 개별 학파에 속한다. 이는 중당(中唐) 한유(韓愈)로부터 시작되어, 주희에 의해 정립된 정주이학의 도통(道統) 관념이 반영된 흔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배(四配)는 최소한 남송 이후에 생겨난 제향 기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초영명은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중수할 때 공자와 십철의 상을 세웠다. ... 그러나 순희(淳熙) 8년(1181년), 주희가 백록동서원 중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도, 서원의 제사 대상은 여전히 공자와 그 제자들뿐

15)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 341쪽.

이었다. 이는 곧 당시의 서원 제사 대상이 여전히 공자 등 선진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¹⁶⁾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주희 생전(1130~1200)에는 공자와 십철의 제사만 이루어졌을 뿐, 공문의 사배(四配) 4인이나 주희가 사숙했던 선배 이학자들은 아직 제사 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반면, 공문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 그룹을 지칭하는 소위 사과십철(四科十哲)은 『논어·선진』편에 나오는 뛰어난 10인의 공자 제자에 관한 언급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대부터 존재했던 일종의 고제(高弟) 분류법이였다. 따라서 이 분류법은 북송 시기부터 존재했던 제향 방식이었다고 보더라도 시기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학 명유로는 주둔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 4인이 먼저 등장한다. 이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희 사후 1205년 무렵 당시 백록동 산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합사(合祀) 형태이다. 특별한 이유는 확인할 수 없지만, 북송오자 가운데 소옹과 장재는 명대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제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¹⁷⁾ 그리고 나머지 배향 인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백록동서원만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배향 인물들로, 주희와 더불어 백록동에서 강학하였던 14명의 유학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당대의 이발(李渤)¹⁸⁾ 이하 10인은 모두 백록동서원의 창건, 중수에 관련이 있는 선비, 지방관이거나 역대 산장에 해당한다. 그리고 14인 가운데 육상산(陸九淵)은 후일 육왕심학(陸王心學)의 개조

16)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235쪽.

17) 이와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희가 백록동서원보다 더욱 일찍 서원의 제사형식을 완비한 곳으로 평가받는 죽림정사(竹林精舍)의 제향 인물이다. 주희는 소희(紹熙) 5년(1194년) 죽림정사에서 공자, 안희, 증자, 자사, 맹자뿐만 아니라 송대 이학이 개창된 시기의 몇몇 주요 인물들, 즉 주둔이, 이정 형제뿐만 아니라, 소옹, 사마광, 장재, 그리고 자신의 스승 이동(李侗)을 포함하였다.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236쪽.

18) ‘백록동’이라는 명칭의 기원에 해당하는 인물로, 남당(南唐) 시기 여산학관에서 흰 사슴을 길렀다 하여 백록동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開祖)로 알려져 주희를 대표로 삼는 정주이학과는 사상적, 학문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인물이나, 백록동서원 중건 당시 주희가 초빙하여 『중용』을 강학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육상산의 제향은 학문적 차이를 떠나 당시 저명한 학자 가운데 백록동서원에서 강학을 진행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백록동서원에서 제갈량(諸葛亮)을 제향하였다는 점인데, 오국부(吳國富)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주희가 생전에 제갈량을 찬미하였기에 원내에 제향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후한 인물인 제갈량은 강서 출신이 아니거니와, 당연히 백록동서원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주희를 추존하는 수많은 서원 가운데에서도 백록동서원만의 특징으로 보인다. 제갈량과 더불어 충절사에 합사된 도연명의 경우, 원래 강서 출신 명인으로 향현(鄉賢)에 속하기에 제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다른 한편으로, 시대사조의 변화에 따른 백록동서원의 제향 인물의 보편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가 사상의 변천이라는 각도에서 정주이학, 육왕십학이라는 뚜렷한 구분이 발생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존의 제사 대상들이 출향되지 않고 양가(兩家)를 모두 통섭하는 양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서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학술 사조의 보편화’ 또는 ‘회통(會通)’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 변화의 일례를 살펴보자면, 명 만력 연간은 양명학이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에 만력 31년에 제학(提學) 전가(錢價)가 왕양명을 제향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청대 강희(康熙) 연간에 이르면, 백록동서원은 각급 지방관의 관리, 개입을 거치면서 중수를 거듭하는데, 원내에 자양사(紫陽祠)를 건립하여 주희의 직속 문인들을 제향하고, 기존의 종유사(宗儒祠)에는 주자학, 양명학이 학파적 구분을 두지 않고 선유(先儒)를 제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주렴계, 정명도, 정이천, 장황거, 소강절, 육상산, 왕양명 등 여러 선생을 제사 지냈다.”²⁰⁾ 이처럼, 강서 백록동서원 제향 인

19)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年, 362쪽 참조.

물의 구성과 변천은 중국 서원사에서 백록동서원이 갖는 선구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봤을 때 기타 서원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강서지역에 소재한 다른 저명한 서원의 제향 구성 또한 살펴보고록 하겠다.

2. 기타 강서 주요 서원의 제향 인물과 특징

강서성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저명한 서원들이 많지만, 특히 오늘날 강서사대서원(江西四大書院)으로 여겨지는 주요 서원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4대 서원은 앞서 언급한 여산(廬山) 백록동서원을 포함하여, 길안(吉安) 백로주서원(白鵞洲書院), 연산(鉛山) 아호서원(鵝湖書院), 그리고 남창(南昌) 예장서원(豫章書院)이다. 비록 각 서원에 따라 기록이 완전히 일실(逸失)되거나 간접 기록 또한 상대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 엄밀한 상호 비교는 어렵지만, 주요 반열에 오른 서원인 만큼 그 대강의 사료는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백로주서원이 소재한 길안(吉安) 지역은 일찍부터 많은 유학자, 명신이 배출된 곳으로, 이 지역에 건설된 역대 서원만 거의 300개소에 달한다. 남송 순우(淳祐) 원년(1241), 길주(吉州) 지군(知軍) 강만리(江萬裏)가 백로주서원을 창건하였다. 강만리는 주희의 재전제자(再傳弟子)였으며, 그 창건 목적 또한 정주이학의 전수에 있었다. 강만리는 서원 창건 즉시 주요 제향 인물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묘(文廟), 영성문(櫺星門), 그리고 육군자사(六君子祠)를 세워 공자 및 선진제유, 그리고 6명의 이학자를 배향하였다: “또 사당을 세워, 이정(二程) 선생들을 제사 지내고, 주렴계, 장재, 소옹, 주자를 더하여, 이로써 육군자사(六君子祠)로 지었다.”²¹⁾ 백로주서원 창건 당시 강만리에

20) 周偉,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 1995年, 1082쪽: “今祀周濂溪, 程明道, 程伊川, 張橫渠, 邵康節, 陸象山, 王陽明諸先生.”

21) 劉鏞, 『白鵞洲書院志』卷一, 『建置』, 清同治十年白鵞書院刻本, 『中國歷代書院志』, 江蘇教育出版社, 1995年版, 第2册, 568쪽: “又建祠祀二程夫子, 益以周張邵朱爲

의해 구성된 여섯 명의 제향 인물은 북송오자와 주희로, 곧 순수하게 정주이학을 전승하려는 서원의 학술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상술한 백록동서원과 유사한 제향 인물의 변천이 드러난다. 『백로주서원지(白鷺洲書院志)』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원대 지원(至元) 3년, 고심사(古心祠)를 증축하였다. 명 가정(嘉定) 임인년에 서원을 인수산(人壽山)으로 이관하였다. 병오년에 이각(李珣), 남속아정(納速兒丁), 황중명(黃宗明)을 고심사에 배향하였다. ... 만력 병술(丙戌)년에 양명사(陽明祠)를 성내에 지었다. 백로주 동곽에는 추 선생과 이하 12공을 배향하였고, 고심사를 양명사로 고쳐 동편(東偏)에서 약간 남측으로 배치하였다. 이각 이하 삼공(三公)을 이렇게 배향하였다. 임진년에 서원을 원래 위치로 이관하였는데, 이정 선생을 모시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음풍농월(吟風弄月)”의 뜻을 취하여 풍월루(風月樓)에 모셔 제사 지냈으니, 일봉(一峯), 정암(整菴) 두 나(羅) 선생을 제향하였다.

육군자사(六君子祠) : 주돈이, 장재, 소옹, 정명도, 정이천, 주희.

명유(明儒) : 왕수인(王守仁), 나륜(羅倫), 나흠순(羅欽順), 추수익(鄒守益), 구양덕, 섭표(聶豹), 나홍선(羅拱先), 왕사(王思), 류괴(劉魁), 류양(劉陽), 구양유(歐陽瑜), 윤일인(尹一仁), 류문민(劉文敏), 류방채(劉邦采), 주녹(周祿), 왕시괴(王時槐), 류원경(劉元卿), 하지(賀止), 진가모(陳嘉謨), 증고(曾阜), 류봉익(劉鳳翼), 그리고 또 류일승(劉日升), 감우(甘雨), 윤학공(尹學孔)을 제사 지냄.²²⁾

명대 이전 사전(祀典)이 수시로 증보, 수정되었고 제사 인물 또한 수시로 달라졌다. 명유 24인은 명환(名宦) 및 향현과 병렬되어 있으며, 따로 제사를 지내거나 제향한 위패(木主) 또한 각기 어디에 두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제사지냈다”고 적은 3인은 어떠한 근거로 그리하였는지 알 수 없다. 지금 인산서원(仁山書院) 경현사 내부에서는 명환과 향현을 나누어 합사하고 있다.

강공사(江公祠), 사공사(四公祠), 현후사(賢侯祠)에 명환, 향현을 따로 나누어 배향하였다. 강공사에는 서원 창건자인 길안 태수 강만리를, 사공사에는 원명(元明) 시기 서원을 수복, 증건한 인물들을, 그리고 현후사에는 명대 길안 태수

六君子祠”

22) 원문에는 모두 성(姓)+명(名)+자(字)+선생(先生)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편의상 성명으로 표기함.

(太守) 4인과 송대 현령(縣令)을 1인 제향하였다. …(이하 생략)²³⁾

이상 서원지의 내용은 원, 명대 이후 백로주서원 제향 인물의 변천 과정을 간명하게 보여준다. 이각, 남속아정, 황중명은 모두 원-명대에 서원을 보수, 증건한 현지 지방관이다. 그보다 눈에 띄는 점은, 만력 14년(1586년) 서원 측면에 양명사를 건립하였고 동곽에는 추수익 이하 12공을 배향하였다는 것이다. 양명사의 명칭은 왕양명에서 비롯된 것이며, 추수익은 왕양명의 제자이다. 서원지에는 명유(明儒) 항목을 따로 분류하여 24명의 유학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뒤의 제향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언급된 세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양명의 제자이거나 양명학파의 문인들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기록은 송대 이전부터 수시로 증보, 수정된 것으로, 각 인물이 정확히 언제 제향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명 만력 이후부터는 백로주서원에서 송대 유학자 6인을 ‘송대유(宋大儒)’, 명대 유학자 24인을 ‘명유(明儒)’로 분류하여 모두 제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대 말기 본 서원의 운영과 교학 이념에 있어서 정주이학과 양명심학의 구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이학(理學)이라는 대범주로 서원 제향이 진행되었음을 좌증한다.

이러할 뿐만 아니라, 만력 20년(1592년), 지부(知府) 왕가수(汪可受)가 서원을 다시 백로주로 이건하면서, “선현사(先賢祠)를 지어 이정(二程)에 대해 제사 지내고 나룬(羅倫), 나흠순(羅欽順)을 배향하였다. 또 이학(理學), 충절(忠節), 명신(名臣)이라는 불후방(不朽坊) 삼 개소를 건립하였다.”²⁴⁾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학방에는 구양수(歐陽脩), 주필대(周必大) 등 26명을 배향하였고, 충절방에는 진교(陳喬), 양방의(楊邦義) 등 61명, 명신방에는 관련 명신 37명을 배향하여 위패를 안치하였다. 여기에서 구양수, 주필대, 진교, 양방의 등은 모두 길안(吉安) 혹은 현지 출신 명인들에 속한다. 호장춘은 지부 왕가

23) 高立人 主編 『白鷺洲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08年, 17~18쪽.

24) 劉驥 『白鷺洲書院志』 卷一, 江蘇教育出版社, 『中國歷代書院志』, 1995年 판본.

수의 이러한 대대적인 증축을 통해 이루어진 현지 유현(儒賢) 및 관인 배향 작업은 곧 당시 제향의 중심이 더는 양명학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지적한다.²⁵⁾ 즉 남송 이래로 백로주서원은 정주이학자-양명학자-이상 유현(儒賢)을 포함한 다수의 향현, 명신 배향으로 그 규모가 극대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백로주서원이 주로 제향한 인물을 크게 구분해보자면, 송대, 명대 이학자 및 서원과 관련된 향현과 명신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청대 이후에는 현지 명신 이외에는 저명한 인물의 제향 변동이 없고 다만 일련의 제향 장소의 변화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상 송·명대 정주이학과 양명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제향이 줄곧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호서원과 예장서원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자. 아호서원도 다른 서원과 마찬가지로 공자를 우선적으로 제향하였다. 그러나 타 서원과는 달리, 아호서원에서는 문묘(文廟), 대성전(大聖殿)과 같은 공자를 전문으로 모시는 사우가 한 차례도 건립되지 않았고 다만 서원 강당(講堂)에 공자의 위패를 안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호서원만의 특징은 바로 1175년 아호서원이 건립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아호사(鵝湖寺)에서 학문의 방법을 두고 발생한 아호논변(또는 아호지회(鵝湖之會))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당시 논변의 주역이었던 주희, 육구령, 육구연 형제 및 여조겸 4인을 제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호논변은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학문을 할 것인가라는 교학(敎學)과 수양(修養)의 구체적인 방법에 역점을 두고 있는 중국 철학사에 한 획을 긋는 논변이다.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강조하여 선현의 경전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과 이치의 궁구(窮究),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과 학습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후대 양명 심학의 이론적 모태가 된 육구연, 육구령은 내심(內心)의 체인(體認)을 더욱 중시하여 본심을 밝히는 것이 바로 학문의 요지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다독(多讀), 외재 사물에 대한

25) 胡長春, 「江西古代書院中的祭祀活動及其社會功能」, 『中國書院論壇』第十輯, 2017年, 135쪽.

궁구(窮究)는 우선 사항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실 양자는 실재 학문과 심득(心得)을 모두 중시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학(爲學)의 ‘근본’에 있어 그 경중의 견해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내심의 덕성을 밝히는 것이 중심인가, 아니면 구체적 학문의 철저한 실행이 우선인가라는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의 분계가 논변의 형태로 발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서원은 태생적으로 고유한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아호서원 창건 당시부터 사현사(四賢祠)가 건립되어, 청대 말기에 서원이 학당으로 개조될 때까지 이 4명을 주로 배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예장서원은 강서 남창(南昌) 지역에 건립된 서원이다. 당시 주희 이학의 영향 아래 정주이학을 전파하는 거점이 되었다. 예장이라는 명칭은 서원이 건립된 지역이 고대로부터 예장이라는 지역으로 불리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예장 나씨(羅氏) 가운데 저명한 이학자 나중언(羅從彥)의 학문을 특별히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중언은 양시(楊時)의 제자로 생전에 정이천과 교류하였으며, 이후 이동(李侗)을 가르쳤다. 이동은 주희의 스승이므로, 나중언은 정주이학의 학맥상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정좌(靜坐), 무욕(無欲) 등 수양법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창하여 예장 학파를 이루었는데, 예장서원을 건립한 것 또한 나중언의 후대(後代)와 그 제자들이었다. 예장서원의 제향 인물에 관해서는 『남창부지(南昌府志)』 「예장서원기(豫章書院記)」에서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남송부터 명 만력 사이에 순무사 준운익(凌雲翼), 반계훈(潘季馴)이 서원을 보수하였다. 사우(祠宇)를 송, 원, 명의 여러 유학자를 모시는 곳으로 바꾸면서 ‘예장24선생사(豫章二十四先生祠)’로 이름을 고쳤다. 강희 28년, 순무 송락(宋榮)이 이학명현사(理學名賢祠)로 이름을 고쳤다. 31년, 순무사 마여룡(馬如龍)이 사우(祠宇)를 보수하였는데, 서원이 오래되어 무너졌다. 56년 순무사 백황(白潢)이 옛터에 서원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측에는 강당을, 좌측에는 사당으로 삼았으니, 여전히 선현(先賢), 명유(名儒)를 배열하여 사관(舍觀)이라 불렀다.²⁶⁾

여기에서 예장 24선생은 나중언(羅從彦), 삼육(三陸), 이번(李燾), 황호(黃灝), 장흡(張洽), 오징(吳澄), 오여필(吳與弼), 나륜(羅倫), 호거인(胡居仁), 장원정(張元禎), 구양덕(歐陽德), 추수익(鄒守益), 나홍선(羅洪先), 위양필(魏良弼), 서분(徐芬), 나흠순(羅欽順), 호직(胡直), 나여방(羅汝芳), 왕시괴(王時槐), 등이 찬(鄧以贊), 이재(李材), 등원석(鄧元錫)이다. 이 제향 인물 구성은 사상적으로 정주이학, 육왕심학을 막론하고 모두 강서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장서원의 지역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나중언은 송대 신유학 형성의 과정에서 핵심으로 추존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대의 이학, 심학과 같은 학문적 분계는 간단히 해소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청 강희 연간, 순무사 송락이 이 사우를 ‘이학명현사’로 고치면서 기존 24인에 범녕(範寧), 한유(韓愈), 범중엄(範仲淹), 구양수, 주돈이, 주희, 장식(張栻), 황간(黃幹) 등 23명을 더 추가하여 총 47명을 제향하기 시작했다.²⁷⁾ 이들은 동진(東晉) 시기부터 당, 북-남송대에 걸쳐 활약한 저명한 유학자들로, 그 출신 지역 또한 모두 다르다. 특히 범녕, 범중엄은 이학(理學)과 사상적인 관계가 없으며 각각 동진, 북송 시기의 저명한 유학자이자 정치인일 따름이다. 심지어 건륭 8년(1743년)에는 “순무사 진평모(陳宏謨)가 다시 정호, 정이, 웅직(熊直), 섭표를 추가로 제향하여 총 51명이 되었다.”²⁸⁾는 기록도 있다. 여기에서 웅직은 강서 출신 거인(舉人)으로, 명대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생졸 연대는 불명확하다. 섭표(聶豹)는 생전에 양명을 사숙(私淑)했음을 자처한 인물로 양명학자에 가

26) 『南昌府志』卷十七, 『豫章書院記』, 清同治十二年刻本, 942쪽. “自南宋末萬曆間巡撫凌雲翼, 潘季馴, 先後修葺, 改祀宋元明諸儒, 稱豫章二十四先生祠, 國朝康熙二十八年, 巡撫宋榮改立理學名賢祠, 三十一年巡撫馬如龍復葺祠右, 書院歲久傾圮, 五十六年巡撫白潢即舊址重建書院, 有記, 右爲講堂左爲祠, 仍祀先賢名儒旁列, 號舍觀”

27) 胡長春, 「江西古代書院中的祭祀活動及其社會功能」, 『中國書院論壇』 第十輯, 2017年, 136쪽.

28) 『南昌縣志』卷十五, 中國方志叢書本, 1935年版: “巡撫陳宏謨, 復增祀程瑨程頤熊直聶豹, 共五十一人.”

까우며, 지현(知縣),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한 고관이었다. 그러므로 예장 서원 또한 타 서원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유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제향 인물이 점점 보편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제향 인물의 확대 및 학과의 회통 양상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가? 초영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록동서원의 경우, 명대에도 주돈이, 주희, 육상산 세 사람을 종유사(宗儒祠)에서 함께 제사 지냈다. 이처럼 주희, 육상산을 함께 제사 지내는 현상은 (당시) 학술계에서 주희와 육상산이 서로 화합하는 흐름을 보이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 즉 그들의 이론적 가치는 일치하며, 다만 위학(爲學) 방법, 그리고 도를 구하는(求道)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학문의 목적은 동일했다.”²⁹⁾ 오늘날에도 육상산과 주희가 생전에 학문적 차원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그들의 사상이 이론적으로 모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위학(爲學)의 중점과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근본적인 학문 목적이 동일했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명대 당시 다양한 학술 사조의 공존 양상에 빗대어 도출된 일종의 ‘합리적 추론’이라 의심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판단 속에 종유사에 주돈이, 주희, 육상산이 합사될 수 있었던 까닭을 설명하는 근거 사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변화의 직접적 원인은 남송-명말 기간에 발생한 유가 주류학술 사조의 일대 전환에서 그 구체적인 실마리를 추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왕양명은 명 정덕 15년, 16년(1520, 1521년) 두 차례 백록동서원에 찾아와 강학하였다. 당시 백록동서원 산장은 그의 문인이자 태학조교(太學助教), 입학교수(入學教授)를 지낸 채종연(蔡宗兗)이었으며, 양명은 직전제자 추수익에게도 각지 문도(門徒)를 이끌고 백록동서원에서 강학하고 학문을

29)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238쪽.

뉘는 것을 권하였다.³⁰⁾ 이러한 사실에 관련하여, 등홍과는 양명이 용장오도(龍場吾道) 이후 정덕 12년 무렵부터 순무(巡撫) 신분으로 강서 각지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서원 강화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자신의 문도(門徒)들을 통해 주자학의 성채였던 백록동서원을 왕학의 진지(陣地)로 만들고자 하였다”³¹⁾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등홍과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사실 명대 백록동서원 제향 인물의 확대와 학파적 회통은 양명의 적극적인 서원 활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른 한편으로, 명대 이후 백로주서원에서 양명학자를 제향하게 된 것은 그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백로주서원지』 「서원사사기부(書院祠祀起附)」에는 “명 만력 14년 지부(知府) 양유교(楊維喬), 지현(知縣) 전일본(錢一本)이 북성(北城) 백로서원에 양명사(陽明祠)를 세웠다.”³²⁾라는 기록이 있다. 이 문장 속에서 전일본이라는 인물은 양명의 재전제자인 왕시괴(王時槐)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은 관리이다. 비록 이러한 간접적 연관성은 정주이학을 근본으로 하는 서원의 왕학화(王學化)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명대 말기 당시 서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지방관들 가운데 학자로서 양명학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 의사 결정 또한 지방관 개인의 학술 경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강서의 모든 서원이 이러한 학파적 회통 양상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 명, 청대에 새롭게 건립되었음에도, 정주이학을 추존하여 주희 혹은 정주이학자만을 제사 대상으로 삼는 서원이 있었고, 또 양명을 추존하는 서원의 경우에도 그러한 학파적 특색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강서지역에서는 존라서원(尊羅書院), 임여서원(臨女書院), 근성서원(近聖書院), 복진서원(復眞書院), 종렴정사(宗濂精舍), 매강서원(梅江書院), 호동서원(湖東書院), 지산서원(芝山書院), 망산서원(芒山書院), 자양서원(紫陽書

30) 王守仁, 『王陽明全集』 卷五, 「與趨謙之」, 上海古籍出版社, 1992年, 178쪽.

31) 鄧邦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 307쪽.

32) 高立人 主編, 『白鷺洲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08年, 21쪽.

院), 문강서원(聞講書院), 호산서원(湖山書院), 백운서원(白雲書院) 등은 주희 혹은 정주이학자를 주로 제향하였던 서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고서원(復古書院), 양명서원(陽明書院), 복진서원(復眞書院)은 양명과 그 문인을 주로 제향하는 서원에 속한다.³³⁾ 이처럼 명대 이후에도 제향 인물상에서 명확한 학파적 특색을 줄곧 유지하였거나 창건된 서원 또한 적지 않다.

이 외에도, 시대의 추이에 따라 강서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독특한 대상이 있다. 청 강희 56년(1717년), 아호서원에 어서루(禦書樓)가 건립된 후, 그 좌측 단층 건물에 문창제군(文昌帝君)을, 그리고 우측에는 관성제군(關聖帝君)을 제향하였다. 문창제군은 복두칠성의 제1성부터 제4성 사이 여섯 별을 신격화한 것으로, 도교 신앙 문화에서 비롯된 신앙 대상이다. 문창제군은 학문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과거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명-청 시기에 입시를 준비하는 유생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에 관한 또 다른 일례로 상산서원(象山書院)을 눈여겨볼 만하다. 남송 순희(淳熙) 14년(1187년)에 건립된 이 서원은 육구연이 강학한 귀계(貴溪) 상산정사(象山精舍)를 그 전신으로 삼는 곳이다. 이 서원은 육구연 사망 후 1231년에 삼봉산(三峯山)에 재건되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상산 후학들의 제사 대상은 육구연, 육구령(陸九齡), 육구소(陸九韶) 삼 형제였고, 그 강학 교재도 육구연의 심학 사상이 담긴 저서가 많았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상황과 병화 등 여러 사유로 이진(移建)과 쇠퇴를 거듭한 상산서원은 청 동치 2년(1863년)에 이르러 비로소 재건되는데, 이때 기록을 살펴보면 재건을 주도하였던 현령(縣令) 주가포(周蔭浦)는 완내에 다른 사우는 특별히 재건하지 않았지만, 문창궁(文昌宮)을 새로 지었다.³⁴⁾ 이러한 현상에 대해, 범리연은 명, 청대 서원에서 문창각(文昌閣), 괴성루(魁星樓) 등을 지어 제사를 지낸 것은 서원이 점점 과거시험을 위한 부수적 용도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보편, 정형화된 현상이라 보고

33)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啓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42~46쪽 참고.

34) 王立斌, 『象山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7年, 101쪽.

있다.³⁵⁾ 그리고 관성제군은 후한말 촉의 장군 관우(關羽)를 가리킨다. 관우 또 한 민, 관을 막론하고 충(忠), 의(義)의 대명사로 존경받았으며, 신격화된 인물이다. 그렇다면 당시 중국 각지 서원에서 이러한 도교적 성분이 깃든 신(神)을 모시는 행위는 비교적 보편적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도, 서원, 그리고 도교와 유학의 융합 현상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호서원지』에서도 문창제군을 제사 지낸 것은 학자들의 과거급제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관성제군은 사인(士人)의 충의(忠義) 사상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고 소개되어 있다.³⁶⁾ 이러한 도교 신앙에서 비롯된 존재를 제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초기 서원의 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시 유생들의 입신양명의 관문이었던 과거시험의 중요성과 민간 신앙에 대한 서원의 개방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V. 나가는 말

중국 서원 문화는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변화, 발전을 겪었다. 당, 송, 원, 명, 청에 이르기까지 각지 서원은 운영에 있어 민-관의 융합, 종속,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그 근저에는 주류학술 사상의 전환과 국가 정책의 영향도가 다분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서원의 경우 그 문화의 본산인 만큼 대량의 서원이 대륙 각지에서 발생,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중국 특정 지역 서원들의 운영 특색과 이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분석 모델이 요청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서원이 제향 인물은 각 서원의 건립 이념, 구성원이 추구하는 학술적 풍토, 그리고 민관의 협력 관계 변천 양상을 입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서원의 특색을 밝히는 데

35)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啓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年, 17쪽.

36) 陳連生 編, 『鵝湖書院志』, 黃山書社, 1994年, 118쪽.

유용한 시각이다. 본문에서는 제사 인물의 변천 양상을 통해, 강서지역 주요 서원들의 사상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고찰해보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원 제향 인물의 특징이 도출된다.

첫째, 강서지역 서원은 남송 주희 이래 가장 주도적으로 신유학과의 일체화가 이루어진 곳인 만큼, 그 제향 인물 또한 대부분 저명한 이학자가 많다. 이들은 생전에 강서에서 활동하거나, 강서 이학의 발전과 보급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강서 서원의 이학자 제향은 외부적으로는 강서 이학의 보편적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현지 출신 명인임과 동시에 저명한 이학자를 제향함으로써 그 지역성을 부각하고 있다. 강서 4대 서원 제향 인물들이 모두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예장서원의 24인 제향 활동이 그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강서 서원 문화의 지역적 핵심성과 보편적 영향력은 주희와 백록동서원이 그 시발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대와 주류 사상의 추이에 따라, 강서 주요 서원들에서도 제향 인물의 변화가 나타난다. 북송 이전까지는 대부분 서원이 공자와 문인을, 남송 이래로는 정주이학자와 육상산을, 그리고 명 중후기 이후로는 양명학파를 제향하기 시작하는 변화로 나아간다. 그리고 각 서원의 건립 이념과 학술 경향에 따라 정주이학 혹은 육왕심학자를 위주로 제향하는 서원도 지속 출현한다. 이러한 서원 제향 인물 구성의 다양한 형태는 주류 사상 간의 회통과 분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명대 서원 운영에 있어 양명과 그 문인들이 서원 운영에 강력하게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이학자 제향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은, 정주이학과 육왕심학이 사상사적인 차원에서는 침예한 독립 구도를 형성하였으나 서원 운영 과정에서는 여전히 양대 대기(大家)들에 대한 존숭(尊崇) 의식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양명학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명대에도 정주이학자만을 제향하는 서원이 지속 출현하였다는 점 또한 명대 유학 사조의 다양성에 대한 방증이다.

셋째, 명-청대에 이르러 서원 곳곳에서 도교 신앙에서 비롯된 문창제군과

관성제군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이는 한국 서원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 서원의 독특한 현상으로, 당시 중국 서원의 문화적 개방성을 다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³⁷⁾

이상 서원 제향 인물의 특징 분석은 유학의 주류 사상의 변천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각 서원의 제향 의도와 변화 원인 또한 그 사상 간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추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프레임은 서원 제사 대상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집단인 향현과 현지 명환(名宦) 분석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현과 명환 분석을 통한 지역성과 학맥 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차후 강서 현지의 서원을 둘러싼 지역 사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더욱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로써 강서 서원 제향 인물에 관한 연구 또한 더욱 완전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7) 사실 중국의 서원 연구자들은 중국 서원이 역사상 줄곧 불교, 도교 학관의 다양한 기능들을 적절히 흡수하면서 발전하였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서원의 강학 방법인 승당강설(升堂講說)은 불교 선종(禪宗)이나 선림(禪林)이 행하던 교학 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李勁松, 「論朱熹興復白鹿洞書院的歷史淵源及其教學改革」, 『江西社會科學』, 2008年 4月, 131쪽.

【참고문헌】

- 신현승, 「중국 강서의 문화지리와 유교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고대학』 61, 동아
시아고대학회, 2021.
- 範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
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15.
- 陳連生 編, 『鵝湖書院志』, 黃山書社, 1994年.
- 王立斌, 『象山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7年.
- 高立人 主編, 『白鷺洲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08年.
- 鄧共波, 『中國書院史』, 東方出版中心, 2004年.
- 劉澤, 『白鷺洲書院志』卷一, 江蘇教育出版社, 『中國歷代書院志』, 1995年.
- 周偉, 『白鹿洞書院古志五種』, 中華書局, 1995年.
- 吳國富 編纂, 『新纂白鹿洞書院志』, 江西人民出版社, 2015年.
- 白新良, 『明清書院研究』, 古宮出版社, 2012年.
- 範莉娟, 「明清時期江西書院祭祀活動及其啓示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9
年.
- 胡長春, 「江西古代書院中的祭祀活動及其社會功能」, 『中國書院論壇』第十輯, 2017
年.
- 肖永明, 戴書宏, 「書院祭祀與時代學術風尚的變遷」, 『東南學術』, 2011年 第6期.
- 羅爽, 「從白鹿洞書院看宋代書院的發展」, 『語文教學與研究(大眾版)』, 2011年 第2期.
- 李勁松, 「論朱熹興復白鹿洞書院的歷史淵源及其教學改革」, 江西社會科學, 2008年,
4月.

Abstract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onfucian Academy through the Change of figures in ancestral rites

—Focusing on the Confucian Academy in the Jiang-xi region

Bae, Dabin*

Chinese confucian academ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rigin of East Asian Confucian academy culture, has undergone long-term changes since Tang dynasty and has continued to develop and expand. Behind its development were various factors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government agencies as the founders, tension and converg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is paper, among many regions in China, attention is paid to major Confucian academies in Jiang-xi, which are the center of the completion of the traditional Confucian academy culture and share the development and history of Confucianism. Among them,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locality of Confucian Academy in Jiang-xi area are examined by confirming and comparing the changes of figures in the ancestral rites of each Confucian academy. The representation and locality of the Confucian academy culture in the Jiang-xi region embodies the openness and diversity of the Confucian academy culture in China, as well as the ideological strata of Pre-Qin Confucianism, Cheng-Zhu Li xue, and Yang Ming Xue.

* 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Yeungnam University / qoekqls1@naver.com

Key word : Chinese Confucian Academy; Confucianism; Figures in ancestral rites;
memorial ceremony; Jiang-xi Region

논문 투고일: 2022. 05. 22 심사 완료일: 2022. 06. 14 게재 확정일: 2022. 06. 20

明清河南书院祭祀研究

—以河南府和开封府为例

刘明明*

- I. 序言
- II. 明清河南书院概况
- III. 明清河南府和开封府祭祀内容
- IV. 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意义
- V. 结语

【抄錄】

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在明清河南书院发展史中占有重要地位, 具有代表性。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数量大, 名书院众多, 祭祀内容详实。祭祀是书院的重要活动, 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对象包含孔孟、程朱、地方名宦、文昌帝君、奎星等。二府书院具有祭祀规章详密, 祭祀仪式制度化等特点。书院祭祀活动的开展, 需要坚实的祭祀经费支持, 其中学田收入对祭祀活动影响较大。二府地方官员也积极通过捐资等方式支持书院祭祀活动。二府书院祭祀不仅教化生徒进德修业和表达对地方名宦支持书院祭祀活动的感激之情, 而且积极传承儒家道统和服务于地方治理, 实现道统对治统的促进作用。河南府和开封府是明清河南省重要的府级单位, 当时河南省较多有代表性的书院均位于二府, 通过探析二府书院祭祀活动的情形, 更好地揭示了明清河南书院的祭祀情况。

关键词: 河南府 开封府 祭祀对象 祭祀规章 祭祀仪式 祭祀经费

* 中国 湖南大学 岳麓书院 博士课程 / 2259813662@qq.com

I. 序言

祭祀是书院的重要活动,祭祀与讲学、藏书一起被称为“书院的三大事业”¹⁾。书院祭祀内容详实,特点鲜明,具有较多的探讨空间。目前学界对书院祭祀有所关注,论述了书院祭祀对教育的促进作用,书院祭祀对象的变化与时代学术风尚变迁的联系,书院祭祀符号的表征,书院祭祀在文化传播方面的作用²⁾等内容。在区域书院祭祀研究中,目前学界多侧重于明清陕西书院、贵州书院、江西书院、西南书院祭祀研究³⁾。具体到明清河南书院祭祀,管见所及,比较接近的研究多集中在对清代河南书院祭祀的探讨⁴⁾。河南府和开封府是明清河南省政治、经济、文化、交通等中心,学界对其祭祀情况探讨亦不多见。有鉴于此,本文以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内容为例探讨明清河南书院祭祀情形,侧重考述其祭祀对象、祭祀规章和仪式、祭祀经费、祭祀意义,希冀呈现一幅明清河南书院祭祀的丰富画卷。

-
- 1) 盛郎西：《中国书院制度》，北京：中华书局，1934年，第47页。
 - 2) 肖永明，唐亚阳：《书院祭祀的教育及社会教化功能》，《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2005年第3期；
董志霞：《书院的祭祀及其教育功能初探》，《大学教育科学》2006年第4期；左伟，王红：《古代书院祭祀的发展变迁与教育意涵》，《教育研究与实验》2016年第5期；肖永明，戴书宏：《书院祭祀与时代学术风尚的变迁》，《东南学术》2011年第6期；王胜军：《中国古代书院祭祀的符号表征》，《中外文化与文论》2015年第3期；蒋建国：《仪式崇拜与文化传播—古代书院祭祀的社会空间》，《现代哲学》2006年第3期。
 - 3) 黎文丽：《明清时期陕西书院的祭祀及其社会意义》，《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8年第6期；张羽琼：《浅谈明清时期贵州书院的祭祀》，《教育文化论坛》2016年第1期；范莉娟：《明清时期江西书院祭祀活动及其启示研究》，江西师范大学2019年硕士论文；王胜军：《明清时期西南书院祭祀与儒学传播》，《贵州社会科学》2016年第9期。
 - 4) 于晓红：《清代河南书院祭祀研究》，贵州大学2016年硕士论文。

II. 明清河南书院概况

书院最早起源于唐代开元以前民间个人读书治学的场所, 早于朝廷以书院命名的丽正、集贤书院, 其时书院尚未有祭祀活动。书院新生于唐代, 它沿着官府和民间两条路径发展, 五代十国时期的书院仍循此发展路径。唐五代(618~960)是书院发展的初期阶段。两宋是书院发展的兴盛时期, 书院总数达到720所⁵⁾, 尤其是南宋, 书院的制度规制得以确立, 形成了学术研究、讲学、藏书、刻书、祭祀、学田六大事业。“书院祭祀活动具体起源于何时, 限于资料, 目前尚无法明确考证。但可以肯定的是, 早在宋初, 书院中已存在祭祀活动。”⁶⁾北宋已经出现祭祀活动, 河南应天府书院已出现祭祀场所。书院祭祀发展至南宋已成为书院的重要事业之一, 但同期河南处于金国统治, 由于金国对书院不够重视, 使河南书院祭祀活动长期沉寂。蒙古族建立的元朝采取了提倡、扶持同时加强控制的书院政策, 国祚虽不及百年, 却创造了“书院之设, 莫盛于元”⁷⁾的历史记录, 书院总数为406所⁸⁾。元代书院发达区集中在长江中下游, 河南处于元代书院的不发达区, 其书院祭祀处于缓慢发展阶段。

明代是书院发展史上的一个重要时期, 具有承前启后的地位。明初朝廷大力兴复官学, 限制书院发展, 从洪武至天顺年间书院有过将近百年的沉寂。明代书院在成化和弘治年间摆脱发展困境, 明中期开始恢复发展势头, 在与王湛之学相结合后发展迅速, 并远播朝鲜, 但也遭遇了嘉靖、万历、天启三次禁毁书院的浩劫, 在明后期走向了衰落。总体上, 明代书院发展远超前代, 共有书院1962所⁹⁾。由于明初朝廷提倡科举, 推崇官学, 明初河南书院

5)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 武汉:武汉大学出版社, 2012年, 第65页。

6) 肖永明:《儒学·书院·社会: 社会文化史视野中的书院》, 北京:商务印书馆, 2018年, 第334页。

7) (清)于敏中等编纂:《日下旧闻考》, 北京:北京古籍出版社, 1985年, 第775页。

8)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 第201页。

9)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 第275页。

发展较为缓慢,河南书院祭祀活动也较为沉寂.在明中期,官学弊端层出,逐渐沦为科举的附庸,以王守仁、湛若水为代表的学术大师为纠正时弊,以书院为基地大力讲学以正人心,同时朝廷也倡导兴办书院,共同促进了书院的发展.明中期河南书院亦渐趋兴盛,大梁书院于明英宗天顺五年(1461)建于省会开封,并带动了河南其他地区书院的兴建热潮,同期书院祭祀活动逐渐兴盛.明代书院在嘉靖、万历、天启年间多次遭到禁毁,同期河南书院也遭到不同程度毁坏,尤其是天启年间魏忠贤毁书院,河南书院深受摧残,书院祭祀活动同样受到严重破坏.统而言之,明代河南书院的发展呈现了一个沉寂—兴盛—禁毁的历程,其书院祭祀活动的发展趋势与之相吻合.

清代是书院发展史上的繁荣时期,“创建兴复书院5836所”¹⁰⁾.清代朝廷的书院政策,呈现了一个由抑制到开放的总趋势.雍正十一年(1733)朝廷颁布创建省城书院的诏令,有力地推动了书院的大发展.清代中期书院在快速发展,其中显现了汉学旗帜高扬书院的阶段特征,对外走向日本、美国和意大利.19世纪后期40年,步入近代后,书院进行了改革和改制,出现教会书院,国人创办新式书院,至光绪二十七年(1901)清廷正式下达书院改学堂的诏令,古代书院的历史宣告结束.关于河南书院,由于明末河南战乱频仍,清初统治者又抑制书院的发展,清初河南书院发展较慢,其祭祀事业暂处低谷.另一方面,清初以孙奇逢为代表的著名学者讲学书院,以及河南各级地方官兴复和创建了一些书院,也显示出河南书院的强大生命力.清中期朝廷转抑制为支持的书院发展政策,于雍正十一年(1733)诏令建立省会书院,河南书院因此获得了大发展,“河南省自清世宗上谕下达之时到道光二十年(1840),共设立和兴复书院102所.”¹¹⁾在此趋势推动下,河南书院的祭祀事业也步入快车道.清末西学传入,列强环伺,河南书院也出现改革势头,在改革进行中,清廷于光绪二十七年突然下诏改书院为学堂,河南书院也逐渐改为学堂,以新的教学形式发展.在数量上,清代河南书院远超前代,邓洪波

10)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第449页.

11) 刘卫东,高尚刚:《河南书院教育史》,郑州:中州古籍出版社,1991年,第60页.

先生在《中国书院史》中统计为383所¹²⁾，李国钧等先生《中国书院史》统计为277所¹³⁾，均超过了200所，分布区域广泛，可谓大观。清代河南书院祭祀除了继承前代传统，也表现出更加重视祭祀与科举的联系。

河南府与开封府在明清书院发展史上均占有重要地位。明清河南省省会在开封府，河南府也是河南省重要的府级城市，两地政治、经济、文化较为发达。大梁书院、明道书院、游梁书院、彝山书院等著名书院位于开封府，嵩阳书院、洛西书院、伊洛书院、韶山书院等有名书院位于河南府，两地书院具有数量大、知名度高、规制较全等特点。王洪瑞《河南书院地理初探》¹⁴⁾提及开封府属于明清河南书院发达区，河南府属于明代河南书院一般区，至清代河南府和开封府同为河南书院发达区。一言以蔽之，河南府和开封府书院在明清河南书院发展史上具有代表意义，以二府书院祭祀活动为切入点，将有助于透视河南书院祭祀全貌。

明清河南府和开封府祭祀内容

明清河南书院祭祀内容丰富，底蕴深厚，涵盖以儒家代表人物为主的祭祀对象、详实的祭祀规章和仪式、祭祀经费等内容。河南府和开封府是当时河南书院分布较为集中，书院各项祭祀事业较为完备，现存相关祭祀史料较多的地区，故以其为切入点和个案分析，以求揭示河南书院祭祀的实际情况。

一. 祭祀对象

明清河南书院祭祀对象主要有孔孟、二程、朱熹、地方名宦、文昌帝君、奎星等，书院之间祭祀对象有很多的相似性，也有特色存在。下面以河南府和开封府的一些著名书院为例，展开论述。

12) 邓洪波：《中国书院史(增订版)》，第452页。

13) 李国钧主编：《中国书院史》，长沙：湖南教育出版社，1994年，第1128-1136页。

14) 王洪瑞：《河南书院地理初探》，陕西师范大学2000年硕士论文。

1) 至圣孔子和亚圣孟子

明代紫云书院位于开封府襄城县, 由襄城人浙江按察使李敏所建. 明代名臣刘健《敕赐紫云书院碑记》有载: “诏赐名紫云书院, 于是河南藩臬诸公暨郡县守令重其事, 稍董工役, 遂易以崇垣, 建大成殿、东西庑于前, 祀宣圣及从祀诸贤, 明伦堂、左右斋于后, 居师生, 悉如近时学校之制.”¹⁵⁾因为尊称孔子为大成至圣先师, 所以将孔子庙的大殿称为大成殿. 宣圣也是对孔子的尊称, 此称来源于汉平帝时谥孔子为褒成宣圣公. 明代紫云书院专建大成殿祭祀宣圣孔子, 体现了其对儒家文化的尊崇. 明代游梁书院位于开封府祥符县. 明万历三十一年(1603), 巡方御史方大美就城内孟子祠址重修祠宇并建游梁书院. 《游梁书院碑记》有载: “游梁有祠以祀孟子, 其规制故隘, 可撤而新也.”¹⁶⁾并详载祭祀对象为孟子和其诸位弟子, “中为殿六楹, 祀孟夫子其上, 以万章、公孙丑诸弟子配.”¹⁷⁾

清代河南府嵩阳书院修建先圣殿, 祭祀孔子, “祀吾夫子.”¹⁸⁾清代开封府祥符县明道书院建有道统祠, 奉祀有“至圣先师孔子、夏圣颜子、宗圣曾子、述圣思子、亚圣孟子.”¹⁹⁾祭祀孔子, 并以颜回、曾子、子思、孟子儒家四圣配享, 他们对儒学的产生和发展做出了很大的贡献, 故受到书院的尊崇, 同时也体现了书院对儒学的推崇.

15)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 清康熙增刻本.

16) (清)王士俊修, (清)顾栋高纂: (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 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

17) (清)王士俊修, (清)顾栋高纂: (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 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

18) (清)耿介撰, 李远点校: 《嵩阳书院志》, 郑州: 中州古籍出版社, 2003年, 第18页.

19) (清)吕永辉: 《明道书院志》, 转引赵所生, 薛正兴主编: 中国历代书院志 第六册[M], 南京: 江苏教育出版社, 1995年, 第325页.

2) 二程和朱熹

嵩阳书院历史悠久,宋代景祐二年(1035)正式得名,教学事业兴盛,金、元时被毁。明代嘉靖七年(1528)河南府登封知县侯泰重建嵩阳书院,聘师聚徒,并建二程祠,“侯泰即嵩阳书院塑像,特设春秋二祭。”²⁰⁾明代嵩阳书院建二程祠,专祭二程,并塑二程像,对二程像特别进行春秋二祭,尊崇之盛可见一斑。明末嵩阳书院毁于战乱,清康熙十三年(1674)河南府登封县知县叶封重修嵩阳书院,耿介《创建嵩阳书院专祀程朱子碑记》载:“余谓书院宜重道统,程朱例有专祀,寓书于前督学使者庄静庵先生及傅叔甘表兄、郭元甫同年,多寡咸有捐资,于是直南为殿,专祀程朱。”²¹⁾耿介明确提出嵩阳书院应专门祭祀程朱,并继承儒家道统。耿介所撰《嵩阳书院志·祀典》有一篇祭祀三贤祠的告文,“维康熙年月日,某官谨以牺醴之仪,致祭于先贤程子纯公、程子正公、朱子文公之神曰:惟神表章圣学,昭若日星。”²²⁾告文详细地介绍了三贤祠祭祀的对象是程颢、程颐 and 朱熹,并揭示了祭祀时需采取庄重的祭祀仪式。相比于明代,清代嵩阳书院祭祀对象增加了朱熹,朱熹是二程的三传弟子李侗的学生,朱熹承续了二程的“洛学”,并将其发扬光大,将二程和朱熹并祀于三贤祠,不仅彰显了嵩阳书院对理学大家的重视,也表明嵩阳书院对儒家道统的尊崇。

明代开封府的大梁书院,规模恢宏,其前身是丽泽书院。明天顺五年(1461)河南提学副使刘昌创建于开封府城南薰门内蔡河北岸。大梁书院初祀二程,后来将祭祀对象扩大,并建立十贤祠,“内祀周敦颐、程颢、程颐、邵雍、张载、司马光、朱熹、吕祖谦、张栻、许衡。”²³⁾十贤中包含了宋代理学的创立者“北宋五子”、南宋的理学家“东南三贤”、元代传播理学的代表人物许衡。司马光虽然以政治才能闻名于世,但他也是理学家。司马光继

20) (隆庆)《登封县志》卷三《坛祠》,明隆庆三年刻本。

21)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95页。

22)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23页。

23) (万历)《开封府志》卷十五《祠祀》,明万历十三年刻本。

承和发挥了儒家的“天命”思想，在政治上要求人们遵循封建社会的纲常名教，“司马光的理学思想是北宋理学的重要组成部分，是北宋理学的重要奠基人之一，朱熹将其与周敦颐、邵雍、张载、二程并称为北宋‘道学六先生’。”²⁴⁾大梁书院十贤祠不仅祭祀了程朱，而且按朝代顺序祭祀了两宋其他著名的理学家以及元代著名的理学家，上述十贤以儒学为宗，各自的学说在理学阵营中各有特色，其学说均是理学的重要组成部分，书院对其专祭，突显了书院对理学以及儒家道统传承的重视。明代开封府的二程书院即专祀程颢、程颐二先生，最后书院毁于水灾，“明二程书院在城东南二里繁塔侧，即旧大梁书院，祀宋程颢、程颐，明末河水没。”²⁵⁾二程书院在清代多次被重修，道光二年(1822)地方官员重修了二程书院，“并置奉祀生有碑记，二十年没于水，二程夫子祠并崇德祠存。”²⁶⁾可知当时书院仍将二程作为祭祀对象，并且在明道书院的后殿奉祀二程三代，包括二程的父亲、祖父、曾祖父，这种情景在其他书院是很少存在的，可视为二程书院的祭祀特色，显示了二程书院对二程的敬重和理学的坚定推崇。

3) 地方官员

书院的发展离不开地方官府的大力支持，明清河南许多地方官员热衷于书院建设，大力推动了书院的发展，因而受到了多所书院的祭祀。同时，祭祀名宦表现了书院对生徒在现实中建立事功的期待。

清康熙二十五年(1688)，邑绅耿介在嵩阳书院特建崇儒祠，祭祀有功于书院建设和发展的官员。崇儒祠纪念了明清两代的官员，包括明代登封县知县侯泰和傅梅、清代河南巡抚王日藻、清代河南提学道林尧英、清代登封县知县王又且等，知县侯泰在明嘉靖中重建嵩阳书院，聚师授徒，对书院而言

24) 潘富恩、徐洪兴：《中国理学 第2卷》，上海：东方出版中心，2002年，第334页。

25) (清)吕永辉：《明道书院志》，第316页。

26) (清)吕永辉：《明道书院志》，第317页。

有兴复功。傅梅在登封为官时，勤于政事，体恤民情，精于治狱，严厉捕盗，政绩颇著。巡抚王日藻于康熙二十三年(1684)为嵩阳书院创建藏书楼五楹，书院无书不成，王巡抚也功著于书院。提学林尧英不仅为书院捐建讲堂三楹，还积极参与了书院的讲学活动，并与耿介探讨问题，其在《嵩阳书院讲学记》中提及，“于别院，诸生环列，请先生开导益切，始讲《论语》一贯章。余不揣谬，呈《克己复礼琐说》以救正，先生以为可与语道。”²⁷⁾知县王又旦为书院创建三益斋和四勿斋五楹。以上明清河南府大小官员满怀热忱为嵩阳书院添设建筑或参与书院讲学，大力促进了嵩阳书院的运行和发展。

清代明道书院位于开封府祥符县，光绪二十年(1894)，学政邵松年建。据清代《明道书院志》记载书院建造了名抚祠，祭祀“明河南巡抚徐公贇，南京户部尚书河南巡抚邓公璋……”²⁸⁾，共祭祀明代官员27位，清代官员14位。明道书院奉祀的明清两代官员，均在河南担任过职务，或支持书院建设，或有功绩于当地，书院祭祀这些名宦，除了表彰其对书院建设的贡献，更重要的是教育书院生徒，期待他们见贤思齐，以名宦为榜样，将来也能继续支持书院的发展和造福社会。

4) 文昌帝君和奎星

明人张元楨在《敕赐紫云书院文昌祠碑记》中论及，“书院巽隅有隙地，夏立文昌祠，揭神位于其中。”²⁹⁾开封府紫云书院建成后，筹建者在书院的东南角空地，充分利用空间，建立了文昌祠，并立文昌帝君的神位于其中。紫云书院后续又塑文昌帝君神像，并与官学相比，“故天下学宫皆立祠，塑像以祀。今书院即古乡学遗制，祠既立，不像祀神，不缺典欤？遂捐贖命工刻神像。”³⁰⁾显示出书院隆重地祭祀文昌帝君。文昌帝君是古代中国民间公认的掌

27)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91页。

28) (清)吕永辉：《明道书院志》，第320-321页。

29)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

30)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

管士人功名禄位的神,紫云书院建文昌祠,除了表达对文昌帝君的尊崇,更主要的是期待书院学子学有所成,建立功勋,同时也是书院与科举联系的一种体现。

清代河南府洛阳县的奎光书院,“奎光书院,在县东南隅府学宫前奎光阁下。”³¹⁾奎光阁奉祀的是文昌帝君,“后创奎光阁以祀文昌”³²⁾、“后有奎光阁奉文昌星。”³³⁾奎光书院位于府学宫前的奎光阁附近,也显示了奎光阁对书院的影响,另外书院紧邻府学,体现的是官学与书院的联系。

清代彝山书院位于开封府祥符县,道光八年(1828)由知府栗毓美、知县刘荫堂创建。史致昌担任山长期间,为书院建设做出了贡献。史山长制定书院章程,刊刻课艺,并亲撰《彝山书院志》。奎星是古代主宰文章兴衰的神,深受读书人信仰。《彝山书院志》将祭祀奎星列入书院章程,规定每年祭祀奎星的日期,“定于送学之日,本府率诸童拜至圣先师后致祭。”³⁴⁾祭祀奎星和生徒入学同时,并且在诸生拜祭过孔子后,紧接着就祭祀奎星,可见彝山书院对奎星的重视,更表明其对生徒学业进步的期望。书院对奎星阁的日常维护事宜也较为重视,“奎星阁宜永久辉焕,以昭文明之象,嗣后定于两年油饰一次。”³⁵⁾为了使奎星阁持久辉焕,书院章程规定每隔两年用油漆对其涂饰一次。清代大梁书院也建有奎文阁,祭祀奎星。

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对象多以儒家代表人物孔孟、程朱为主,孔孟是早期儒学的代表人物,孔子更是儒家的开山鼻祖,二程和朱熹将儒学进一步发展理学,最终上升为朝廷的治国思想,并深刻地影响了中国古代社会的思想文化。祭祀儒家人物是书院祭祀的主流,显示出书院对儒家学说的尊崇,以及对儒学道统传承的关注。书院奉祀地方名宦,不仅是为了表彰

31) (乾隆)《重修洛阳县志》卷五《学校》,清乾隆十年刊本。

32) (清)贺长龄:《耐庵诗文存》卷一《重修贵阳府学文庙记》,清咸丰十年刻本。

33) (清)李富孙:《校经廡文稿》卷十六《游东溇塘记》,清道光刻本。

34) (清)史致昌:《彝山书院志》,转引赵所生,薛正兴主编:《中国历代书院志 第六册》[M],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年,第236页。

35) (清)史致昌:《彝山书院志》,第237页。

其为书院建设和发展做出的贡献,更是为了给生徒树立学习的榜样,另外也表明官方力量对书院的深刻影响。祭祀文昌帝君和奎星,体现了书院与科举的联系,彰显了书院培育人才的入仕目标。

二. 祭祀的规章和仪式

明清河南书院推崇祭祀,修建了众多的祭祀建筑,并定期围绕着祭祀建筑展开祭祀活动。祭祀是非常庄重严肃的活动,许多书院为祭祀活动的顺利开展制定了详细的祭祀规章和仪式。书院祭祀是一种动态的活动,对书院祭祀的规章和仪式进行探讨,将促进展现书院祭祀活动的完整性,对深入了解书院祭祀也大有裨益。下文以明清河南府和开封府的一些书院为代表,来揭示明清河南书院祭祀的规章和仪式。

1) 伊洛书院

明代伊洛书院位于河南府洛阳县,明成化十七年(1481)由提学副使吴伯通建,并设置十贤祠祭祀伊洛诸儒。《伊洛书院记》载:“命所司肖所祠十贤像,而位次则据草庐吴先生所著《洛人张顺中十贤堂记》以为序,择日安慰如礼,每月朔参谒,岁以释奠之明白致祭,著为仪。”³⁶⁾可见伊洛书院将伊洛诸儒塑像置于十贤祠进行祭拜,且十贤神像排列有详细的次序规定,并选择吉日行礼,在每月初一书院生徒要参拜十贤神像,每年都要以释奠礼来行祭祀。释奠礼是古代学校的祭祀典礼,较为隆重,用全羊、全猪等供祭。伊洛书院以庄重的释奠礼来祭祀十贤,表现对十贤的高度尊重。概而言之,伊洛书院在书院祭祀时规定了详细的祭祀时间、祭祀对象的排列顺序、祭祀的礼仪。

36) (乾隆)《重修洛阳县志》卷十五《艺文·记》,清乾隆十年刊本。

2) 嵩阳书院

清代嵩阳书院位于河南府登封县，在祭祀活动中有详细的规制和仪式。耿介《嵩阳书院志·祀典》首先强调祭祀的目的是使生徒内心充满对先贤的崇敬和诚意，贵诚，不在于祭祀程序的繁琐，“释菜礼之至简者也，不在多品，贵其诚也。”³⁷⁾在祭祀时，既有简朴的礼节，也有庄重高规格的礼节。“一每春秋祭丁之次日，以少牢一祀先贤祠，或县令亲祭，或委学博代祭。一每春秋二仲朔日，做古释菜之礼，用诸果品菜蔬十二器祀先圣，书院山长率肄业诸生行礼。”³⁸⁾少牢是古代祭祀的一种规格，低于太牢，它用羊、猪祭祀，一般是诸侯、卿大夫在祭祀宗庙时使用少牢。嵩阳书院用少牢祭祀先贤祠，并由县令或者学博参加祭祀，这是嵩阳书院里最高的祭祀规格，突显对先贤的敬重。释菜礼是一种从简的祭祀礼，祭品主要是蔬菜和水果。嵩阳书院里也采用释菜礼来祭祀先圣，在固定日期由山长率生徒前去对先圣行礼祭祀。释菜礼相对于少牢礼，属于简朴的礼节。嵩阳书院在祭祀中根据祭祀对象的不同，还颁布不同的祭文，有先贤祠祭文、三贤祠祭文和道统祠祭文，祭文能更加清晰地向书院生徒展示祭祀的主旨和意义，使生徒不仅崇拜祭祀对象，更能促进其对祭祀对象的德行、学识、功勋的学习，进而以祭祀对象为榜样在现实中力行。总的来说，嵩阳书院在祭祀中设置了祭祀的日期，规定了参祭人员、不同的祭祀礼、祭文等。

3) 紫云书院

紫云书院在明末遭到毁坏，关于明代紫云书院的祭祀规章仪式史料现存较少。清康熙时中州学者李来章重新修葺紫云书院，并合纂《敕赐紫云书院志》，该志载有清代紫云书院祭祀仪式的珍贵史料。紫云书院在清代仍位于

37)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23页。

38)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23页。

襄城县,襄城县在明代属于开封府辖区,清代开封府辖区有变化,襄城县于雍正二年属许州。《清史稿·地理志》载:“开封府:清初,河南省治,仍领州四,县三十。雍正二年,陈、许、郑、禹直隶,割县十四隶之。”³⁹⁾由此可知,襄城县在清雍正二年之前尚属于清开封府的辖区,也即紫云书院在清雍正二年之前仍为开封府书院,加上《敕赐紫云书院志》刊刻于康熙年间,故《敕赐紫云书院志》仍可作为清代开封府书院史料使用。

《敕赐紫云书院志》中李来章亲定的《紫云书院学规》除了规定学习事项,还着重介绍了书院祭祀仪式。李来章认为古人在学校祭祀先师是理所当然之事,书院作为教学场所对祭祀应同样重视。他在《紫云书院学规》中首列祭祀之礼,将其视作为学第一要义。《紫云书院学规》有载:“今凡入书院受学者,皆先诣圣殿阶前,伏,兴,行四拜礼,然后诣讲堂投刺,以文为贄。至逢朔望日前夕,值日者督率院中同人,拂拭神几,务期洁静。至日黎明,击板盥洗既毕。值日者,鸣鼓五声毕,诣圣殿阶前行伏,兴,四拜礼,再集讲堂向上一揖,又分班东西对揖,相引而退皆以齿序。”⁴⁰⁾学规规定进入书院学习的学生,首先要以最庄重的四拜礼拜谒圣殿,然后再前往讲堂,将拜祭圣殿置于讲堂之前,尤能反映书院对祭祀的尊崇。另外在每月的初一和十五前一天晚上,值班者需率领书院生徒,对圣殿进行细致地打扫,至第二天黎明,众人被唤醒并梳洗完毕,值班者在鸣鼓五声后,率众人对圣殿行四拜礼,然后才向讲堂行拱手礼,中间众人分列东西,互相拱手行礼,最后依据年龄大小有序退场。“或托故不至,或跛倚笑语,礼貌不肃者,各记过一次,实贴讲堂壁上。”⁴¹⁾在行礼时如果有人故意找借口不到,或者行礼时嬉戏玩乐,不够庄重严肃,书院将记其过并张贴于讲堂壁上,以作惩戒。在祭祀仪式中,要求正衣冠并需庄严肃穆,“故凡瞻仰庙貌,诵读遗言,皆当正冠整襟,昭如在之诚,此为学第一义也。”⁴²⁾

39) 赵尔巽等:《清史稿》卷六十二《地理志》,北京:中华书局,1977年,第2068页。

40) (清)李来章等:《敕赐紫云书院志》,转引赵所生,薛正兴主编:中国历代书院志第六册[M],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年,第146页。

41) (清)李来章等:《敕赐紫云书院志》,第146页。

括而言之,《紫云书院学规》详细介绍了祭祀的时间、祭祀前的清洁工作、祭祀时生徒的仪式动作、祭祀的程序、祭祀活动的约束惩戒措施,祭祀人员的着装等内容,呈现了紫云书院生动有序的祭祀画面。

4) 彝山书院

清代开封府彝山书院重视祭祀奎星,奎星是古代主宰文章兴衰的神,深受读书人崇敬。清代彝山书院每年都要祭祀奎星,“每年祭奎星,定于送学之日,本府率诸童拜至圣先师后致祭。”⁴³⁾规定了祭祀奎星的时间在生徒开学之时,拜祭奎星要排在祭祀孔子之后,表明奎星地位虽隆,但仍逊色于至圣先师孔子。“奎星阁宜永久辉焕以昭文明之象,嗣后定于两年油饰一次,每月朔望,院长率诸童行香,院长出省,监院行香。”⁴⁴⁾奎星阁需要定期维护方能保持其恢弘之势,书院规定每隔两年要对奎星阁涂油修饰,在每月初一和十五两次行香,届时院长率领生徒对奎星上香祭拜,并详细规定,若书院院长不在,可由监院代替其行礼。彝山书院细致地规定了祭祀奎星的时间、祭祀顺序、维护奎星阁情况、参与祭祀人员、祭祀礼等内容,并将祭祀奎星的各类内容列入书院章程,章程强调细致的做法和可操作性,进一步突显书院祭祀的制度化特点。

明清河南书院具有定期祭祀、祭祀规章内容丰富、祭祀礼仪制度化等特点。书院祭祀规章详细,包括祭祀前的准备、祭祀时间、祭祀对象排列顺序、参祭人员、祭文、祭祀人员违规惩处等内容,祭祀礼仪也较丰富,涵括释奠礼、释菜礼、少牢礼、四拜礼等,这些祭祀规章和礼仪均较细致并具备可操作性。书院通过详实的祭祀规章和制度化的祭祀礼仪,促使书院生徒亲身参与到祭祀活动中,在活动中感受圣贤的优秀风范,在潜移默化中感生

42) (清)李来章等:《敕赐紫云书院志》,第146页。

43) (清)史致昌:《彝山书院志》,第236页。

44) (清)史致昌:《彝山书院志》,第237页。

成圣成贤之志。

三. 祭祀经费

祭祀是书院的重要活动,顺利举办一场祭祀活动,花费不菲,这涉及祭祀物品购买、祭祀值班和管理人员薪酬、祭祀建筑的日常维护花费等,祭祀费用占书院经费支出的重要部分。明清河南书院多方筹措经费维持书院祭祀的正常进行,其中购置学田是书院筹措经费最重要的举措。学田收入对书院的正常办学至关重要,所谓“院有田则士集,而讲道者千载一时;院无田则士难久集,院随以费,如讲道何载?”⁴⁵⁾河南府和开封府许多地方官员积极筹措书院祭祀经费,如为书院设置祭田、捐贖,书院内部也为祭祀的展开划拨祭祀经费。

明代大梁书院是开封府的官办书院。明代李梦阳《大梁书院田碑》有载:“聚人之所,必庙其所师,庙必有祭,祭非田,何出矣!”⁴⁶⁾强调了书院祭祀对学田的依赖性。“有积书之院,祭养之田,又以异士而考成也。”⁴⁷⁾用于祭祀的学田,可以称为祭田,祭田是专用于书院祭祀开销。李梦阳对学田高度重视,认为书院需以学田生财,然后以材聚土。清代开封府彝山书院重视祭祀奎星,建有奎星阁,为持久维护奎星阁,制定了专门的经费,“香烛油饰之资,出正、副课科岁试进学之月所捐一月膏火银两,此项入监院交代,届时敬谨办理。”⁴⁸⁾奎星阁的维护经费从膏火银中拨出,并由监院负责。至后来改建奎星楼时,许多地方官员积极响应捐贖,促成了奎星阁的改建。

清康熙十三年(1674)河南府登封县令叶封重修嵩阳书院,他对书院祭祀相

45) (明)娄性:《白鹿洞学田记》,转引朱瑞熙:《白鹿洞书院古志五种》,北京:中华书局,1995年,第101页。

46) (明)李梦阳:《空同集》卷四十一《大梁书院田碑》,《文渊阁四库全书》(影印本)第1262册,台北:台湾商务印书馆,1986年,第369页。

47) (明)李梦阳:《空同集》卷四十一《大梁书院田碑》,第369页。

48) (清)史致昌:《彝山书院志》,第237页。

当重视,“嵩阳书院旧祀二程子,北侧为宋崇福宫故址,废且久.封稽史籍,得宋司马文正公以下,曾以宰执领宫使者,凡十有二人,为主祠之,时其祭祀.选博士弟子肄业其中,又置田以为俎豆饮食之需.”⁴⁹⁾俎豆本为祭祀、宴飨时放置食物的礼器,后引申为祭祀之意.叶封为了嵩阳书院祭祀之需,专门置田作为经费.叶封作为地方官员,积极支持嵩阳书院建设,并对书院祭祀投入甚多心血,也反映了地方官府借助祭祀对象的榜样作用,以教化生徒,并化民成俗.

Ⅲ. 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意义

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祭祀的意义丰富,影响颇广.书院祭祀活动是对生徒进行教育的一种形式,通过让生徒参与祭祀活动以激发其对祭祀对象的崇敬和学习热情,使学生在潜移默化中接受洗礼.书院祭祀首先表达了书院生徒对先圣先贤、地方名宦等的尊崇之情.书院祭祀对象以儒家代表人物孔孟、程朱为主,彰显了书院对儒学的尊崇,进而促进生徒传承儒家道统.祭祀地方名宦除了表彰其对书院的发展所作的贡献,更是期待生徒以其为榜样,未来学有所成、功成名就后能反哺书院和造福民间.祭祀奎星和文昌帝君,这是封建社会书院对生徒金榜题名、科举高中的期望.书院祭祀对传承儒家道统和促进地方治理的作用大有可观.

一. 促进传承儒家道统

朱熹提及祭祀的作用,“盖将以明夫道之有统,使天下之学者皆知有所向往而及之,非徒修其墙屋、设其貌像、盛其器服升降俯仰之容以为观美而已也.”⁵⁰⁾朱熹认为祭祀以传承道统,使读书人知所向往为目的,而非为了祭

49) (道光)《黄陂县志稿·人物》,民国十二年铅印本.

祀形式上的华丽。

儒学是中国封建社会的正统思想。明初尊奉程朱理学，中期王湛心学大盛，明末回归理学，无论程朱理学还是王湛心学均属于儒家学说，其是儒学发展到新阶段的表现形式。明代李敏创立紫云书院的目的就包含继承儒家道统，“欲仰师伊尹、周公、孔子以及程氏，又考古朱徽公正学善教之功，期如鲁斋河东之有遇，而或旷无宁居理，固有未安者，此浙江按察使襄城李公紫云书院所以作欤。”⁵¹⁾明代张元楨《敕赐紫云书院文昌祠碑记》论述书院祭祀时，“传曰：‘有功于民则祀之，若神之功，是宜士君子所当尊崇而敬祀之，岂释老之徒事虚寂而寺观之建为徒费民财者，可同日语哉！’”⁵²⁾严厉批判了佛道的虚无缥缈和浪费民财，反映了紫云书院推崇儒家文化，致力于巩固儒学在书院中的地位。

清代耿介在《嵩阳书院图》说中提及，“考《白鹿书院志》，中辟礼圣殿祀先圣，旁建宗儒祠祀先贤，重道统也。今嵩阳书院亦仿此制，别为三贤祠，祀二程、朱子。”⁵³⁾耿介明确提出书院祭祀宜重道统，特设先贤祠，专祀程朱三人，“先是程朱三子合祀于诸贤祠，介以书院宜重道统，故专祀焉。”⁵⁴⁾河南巡抚王日藻《嵩阳书院碑记》有载：“两程夫子应期而出，先后提点嵩山崇福宫，昌明正学于时，濂洛关闽递结薪传。”⁵⁵⁾进一步论述了嵩阳书院对儒家道统传承的重视。

清代开封府明道书院修建道统祠，奉祀孔孟、周敦頤、二程、朱熹等儒家代表人物，以使儒家道统在书院延绵不绝，一直传承下去。光绪二十年(1894)河南学政邵松年在《重建明道书院碑记》中亦提出重视儒家道统的传承，“学者读书其中，溯伊洛之渊源，勉圣贤之事业是也。”⁵⁶⁾

50) (宋)朱熹：《朱子全书》，卷八十《晦庵先生朱文公文集》，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3806页。

51) (清)李来章等：《敕赐紫云书院志》，第153页。

52)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

53)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11页。

54)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19页。

55)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81-82页。

二. 服务于地方治理

明清时期官办书院大盛，官府逐渐成为推动书院发展的主要力量。明清河南府和开封府官办书院较多，官方力量大力进入书院建设，并重视筹建祭祀建筑和开展祭祀活动。

书院祭祀礼仪对民众起到教化与训导的作用，有助于地方治理。明代开封府游梁书院由巡方御史方大美建，其在《游梁书院碑记》指出教化对士人和风俗的重要性，并认为，“树标莫如崇贤，善铸莫如敬业。孟氏仁义之学，士人之标也。倘惠邀圣贤之灵，群弟子而讲习之，炉冶之。”⁵⁷⁾进而明确指出游梁书院修建孟子祠的目的和作用，“祠修，则崇贤有仪；馆备，则敬业有所。崇贤以示之标，敬业以鼓之铸。”⁵⁸⁾“予与诸大夫今日作人之举，不有荣施哉！是所望于诸来学者，爱书之，为此祠记。”⁵⁹⁾祭祀先贤将起到榜样教育的作用，以身边先贤的高尚风范来感召生徒进德修业，并最终促进化民成俗。

在明清封建社会主宰功名利禄的文昌帝君对读书人的影响可谓巨大，书院巧妙地利用生徒的文昌帝君信仰来教化他们，使其崇尚美德，这同样有利于地方官府文教政策的施行。明代开封府紫云书院由浙江按察使李敏建，明人张元楨在《敕赐紫云书院文昌祠碑记》中进一步论述，“神之所以为神，与夫所以取士，亦惟本之忠孝，其警世弼教之功不亦大矣乎！……后自今襄之诸士子游歌于书院，而拜瞻神像之俨然，知神考德察行之，由必惕然，戒谨恐惧。”⁶⁰⁾揭示书院祭祀文昌帝君的目的之一是教育学子严于律己、培养德行，并通过信仰的力量从内心感化学子向善。紫云书院祭祀文昌帝君，不仅

56) (清)吕永辉：《明道书院志》，第334页。

57) (清)王士俊修，(清)顾栋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

58) (清)王士俊修，(清)顾栋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

59) (清)王士俊修，(清)顾栋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

60)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

期待生徒高中功名，而且有启迪生徒进德修身之意。

书院尊崇道统以襄助治统。清代河南府嵩阳书院由登封知县叶封重建。曾任河南巡抚王日藻《嵩阳书院碑记》有载：“余奉命抚豫方，以兴起文教为首图，值兹书院鼎新，而无一言纪其事，非所以崇道统、励儒修也。”⁶¹⁾王巡抚主要意图是为了推崇道统、奖励贤能的儒士，从而实现地方文教的兴盛。兴文教是王巡抚的职责，地方官员兴文教的目的是为了教化民众，从而巩固封建政权的统治。阎兴邦也曾任河南巡抚，其《嵩阳书院新立道统祠记》有载：“古今有治统，有道统，皆君相师儒共为任之者也。以治行道，天于是生尧舜禹汤、文武周公，以立乎上而治益隆。以道佐治，天于是生孔子，以修乎下而道不坠。”⁶²⁾治统是指治理国家的政治传统，道统是不断传承的儒家思想传统。治统和道统联系紧密，二者实际互为协助，相得益彰。封建统治者利用儒家学说的思想维护自身统治，他们对儒家道统较为重视，视道统为治统之所系，所谓“治统得道统而盛，道统赖治统而光。”⁶³⁾阎巡抚希望利用道统来协助治统，从而促进地方治理。

IV. 结 语

祭祀是书院四大基本规制之一，是书院的重要活动。明清河南府和开封府书院数量大，名书院众多，祭祀内容详实，在明清河南书院发展史中占有重要地位。明清两代河南书院祭祀中体现出较多的传承性。明清河南府和开封府祭祀对象涵括孔孟、程朱、地方名宦、文昌帝君、奎星等。透过祭祀对象，可探析出河南府和开封府书院尊崇儒家学说，积极传承儒家道统，表彰名宦，崇拜科举高中等情况，进而反映出河南省书院祭祀对象的选择情

61)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82页。

62)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83页。

63)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84页。

形. 二府书院也具有祭祀规章详密, 祭祀仪式制度化等特点. 无学田则无书院. 书院祭祀活动的开展, 需要坚实的祭祀经费支持. 地方官员为祭祀经费的筹措和稳定做出了贡献. 书院祭祀除了教育生徒向先贤先圣看齐学习和表彰地方名宦为书院做出的功绩外, 在传承儒家道统和促进地方治理方面, 发挥了不可替代的作用. 河南府和开封府是明清河南省重要的府级单位, 河南当时很多有代表性的书院分布在二府辖区, 对其书院祭祀活动进行探讨和介绍, 能更好地管窥明清河南书院祭祀情况.

명(明)·청(淸) 시대 하남성 서원(書院)

제사(祭祀)에 관한 연구

—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를 중심으로 —

유 명 명*

- I. 서론
- II.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소개
- III.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제사 내용
- IV.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 제사의 의의
- V. 결론

【국문초록】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은 하남성 서원의 발전역사에 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표성을 띄고 있다.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는 유명한 서원이 많았으며 제사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사는 서원의 중요한 활동이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의 제사대상으로는 공자 맹자, 정호(程頤)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지방 관리, 문창제군(文昌帝君), 규성(奎星) 등이 있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서원은 제사규정이 상세하고 제도화된 제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서원에서 제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제사 경비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학전(學田)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제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두 지역의 관리들도 기부 등을 통해 서원 제사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서원에서 제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고한 제사경비 지원이 필요하며,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제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도덕과 학문을 향상시키고 서원 제사활동을 지원한 지역 관

* 호남대학 약록서원 박사과정 / 2259813662@qq.com

리들에게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교 도통(道統)을 계승하고 지역 통치에 봉사함으로써 치통(治統)을 촉진시키는 도통(道統)의 역할을 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명·청 시대 하남성의 중요한 부급 도시로, 당시 하남성의 많은 대표적인 서원이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부에서의 서원 제사 활동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명·청 시대 하남지역 서원들의 제사활동 정황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주제어 : 하남부(河南府), 개봉부(開封府), 제사 대상, 제사 규정, 제사 의식, 제사 경비

I. 서론

제사는 서원의 중요한 활동이며, 제사, 강학(講學), 장서(藏書)를 “서원의 3대 사업”이라고 한다.¹⁾ 서원 제사내용은 상세하며 뚜렷한 특징과 더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서원 제사에 관심이 있으며, 서원 제사가 교육에 미친 영향, 서원 제사 대상의 변화와 시대적 학문적 유행의 변화와의 연관성, 서원 제사 기호의 표징, 문화전파 방면에서의 서원 제사의 역할²⁾을 논술하였다. 지역 서원 제사 연구에서 현재 학계는 주로 명·청 시대 섬서서원, 귀주서원, 강서서원, 서남서원의 제사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³⁾

- 1) 성량시, 『중국서원제도』, 베이징: 중화서국, 1934년, 47쪽.
- 2) 샤오용밍, 탕야양, 「서원 제사의 교육 및 사회교화 기능」, 『호남대학교학보(사회과학판)』 2005년 3호; 등즈샤, 「서원의 제사와 그 교육기능 연구」, 『대학교육과학』 2006년 4호; 주오웨이, 왕홍, 「고대서원의 제사 발전의 변천과 교육적 의미」, 『교육연구와 실험』 2016년 5호; 샤오용밍, 다이슈훙, 「서원제사와 시대 학술풍상의 변천」, 『동남학술』 2011년 6호; 왕성권, 「중국 고대 서원 제사의 기호 표징」, 『중외문화와 문론』 2015년 3호; 장젠귀, 「의식승배와 문화전파- 고대서원제사의 사회적 공간」, 『현대철학』 2006년 3호.
- 3) 리원리, 「명·청시대 섬서서원의 제사와 그 사회적 의미」, 『서북대학보(철학사회과학판)』 2018년 6호; 장위징, 「명·청시대 귀주서원의 제사 연구」, 『교육문화포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대부분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명·청 시대 하남성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학계에서는 이 두 지역의 서원 제사에 대해 거의 연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제사활동 내용을 예로 들어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을 분석하고 제사 대상, 제사 규정과 의식, 제사 경비, 제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제사의 풍부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한다.

II.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소개

서원은 당(唐)나라 개원(開園) 시대 이전에 민간에서 개인이 독서하고 학문을 배우던 곳으로, 정부에서 명명한 여정(麗正)서원과 집현(集賢) 서원보다 일찍 나타났으며, 그 당시 서원에는 제사활동이 없었다. 서원은 출현 이후, 관아와 민간 두 가지 길을 따라 발전하였다.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의 서원은 여전히 이 발전 경로를 따랐다. 당나라와 오대(618~960)시대는 서원 발전의 초기 단계이다. 북송과 남송은 서원의 발전이 번영한 시대로, 총 서원의 수는 720개에 달하였다.

특히 남송 시대에는 서원의 제도적 규제가 확립되어 학술 연구, 강의, 장서, 각서, 제사, 학전(學田) 등 6개 주요 사업이 형성되었다. 서원의 제사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일찍이 송나라 초기에 서원에서 제사활동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

림』 2016년 1호; 판리주안, 「명·청시대 강서서원 제사활동과 계서연구」, 강서사범대학 석사논문, 2019; 왕성진, 「명·청시대 서남서원 제사와 유학 전파」, 『귀주사회과학』 2016년 9호.

4) 위샤오홍, 「청대 하남서원 제사에 관한 연구」, 귀주대학 석사논문, 2016.

다. 북송(北宋)시대에 하남의 응천부서원에서 제사활동을 진행하였다.⁵⁾ 남송 시대에 이르러 제사는 서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 하남성은 금나라의 통치를 받았고 금나라가 서원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은 오랫동안 침체 되었다.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에서는 서원의 설립을 옹호하고 지지하지만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비록 원나라는 100년이 되지 않아 멸망했지만 “원나라는 서원을 가장 많이 설립한 왕조”⁶⁾이며 전체 서원 수는 406개에 달하였다.

원나라의 서원은 장강 중하류에 집중되어 있었고, 하남성은 원나라의 서원의 낙후된 지역에 속했으며 서원 제사활동의 발전이 느렸다.

명대는 서원 발전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연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명나라 초기에 정부는 관학(官學)을 강력하게 활성화하고 서원의 발전을 제한하였다. 홍무(洪武)연간에서 천순(天順)연간에 이르기까지 서원은 거의 100년 동안 침체기를 거쳤다. 명나라 서원은 성화와 홍치(弘治) 시대 발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명나라 중기부터 발전 추세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학설과 결합하여 급속히 발전하여 조선에도 전해 졌지만, 가경, 만력, 천계 연간에 세 차례 서원을 금지하고 파괴하는 재앙을 면치 못하고 명나라 말기에 쇠퇴하였다. 전체적으로 명나라의 서원 발전은 이전 세대 훨씬 능가했으며 서원의 수가 1962개에 달하였다.⁷⁾

명나라 초기에 정부는 과거시험을 옹호하고 관학(官學)을 옹호했기 때문에 명나라 초기에 하남성 서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하남서원의 제사 활동은 비교적 침체 되었다. 명나라 중기에는 관학(官學)의 허점이 잇달아 나

5) 肖永明：《儒學·書院·社會：社會文化史視野中的書院》，北京：商務印書館，2018年，第334頁。：“書院祭祀活動具體起源於何時，限於資料，目前尚無法明確考證，但可以肯定的是，早在宋初，書院中已存在祭祀活動。”

6) (清)於敏中等編纂：《日下舊聞考》，北京：北京古籍出版社，1985年，第775頁。：“書院之設，莫盛於元。”

7) 鄧洪波：《中國書院史(增訂版)》，武漢：武漢大學出版社，2012年，第275頁。：“明代……有書院1962所。”

타나 점차 과거시험의 예속물이 되었다. 왕수인(王守仁)과 담약수(湛若水)를 대표로 하는 학자들은 현재의 잘못을 시정하고 서원을 기반으로 강학을 하여 인심을 얻은 동시에 정부에서도 서원 설립을 주장하여 공동으로 서원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명나라 중기에는 하남서원도 더욱 번성하게 되었고, 명나라 영종천순 5년(1461)에 도성인 개봉에 대량의 서원이 세워지면서 다른 하남지역에도 서원이 건설되었다. 명나라 서원은 여러 번 금지되고 파괴되었으며, 하남성 서원도 같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정도로 파괴되어 서원 제사활동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명나라 하남성 서원의 발전은 침체-번영-금지 및 훼손의 과정을 거쳤고, 서원의 제사활동의 발전 추세도 이에 부합된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5836개의 서원을 복원 및 설립”하는 서원 발전사에서 번영한 시기였다.

청대의 서원정책은 견제에서 개방으로 가는 전체적인 경향을 보였다. 옹정 11년(1733년)에 정부에서 성도 서원을 설립하라는 칙령을 공포하여 서원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시켰다. 청나라 중기에는 서원이 급속히 발전하여 한학을 기치로 하는 서원의 계단적 특징을 보였으며 일본, 미국, 이탈리아에 진출하였다. 19세기 후반 40년,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원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교회 서원이 등장하면서 중국인들이 새로운 서원을 설립하였다. 광서 27년(1901)에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서원을 학당으로 변경하라는 칙령을 내렸으며, 이로써 고대 서원의 역사는 끝이 났다. 하남성 서원에 있어서 명나라 말기 하남성에서 빈번한 전쟁과 혼란이 발생하고 청나라 초기의 통치자들이 서원의 발전을 억제하였기에 청나라 초기에 하남성 서원의 발전이 느렸으며, 제사활동은 침체되어 있었다. 한편, 청나라 초기에 손기봉 및 유명 학자들이 서원에서 강학을 하고, 하남성 각급 관리들이 서원을 설립했는데 이로부터 서원의 강한 활력을 보아낼 수 있다. 청나라 중기 정부에서 서원에 대한 정책을 억제에서 지지로 전환하였다. 옹정 11년(1733년)에 성도 서원을 설립할 것을 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하남성 서원은 크게 발전하였다. 청세종이 칙령을 내린 1840년부터道光 20년(1840년)까지 성에 102개의 서원을 복원 및

설립하였다.⁸⁾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하남서원의 제사활동도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청나라 말기에는 서양학이 도입되어 외세를 주시하고 하남서원도 개혁의 조짐을 보였다. 개혁과정에서 청나라 정부는 광서 27년에 갑자기 서원을 학당으로 변경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하남성 서원도 점차 학당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교육기관 형태로 발전하였다. 숫자 면에서 보면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수는 이전 왕조를 훨씬 뛰어 넘었다. 덩홍보가 〈중국 서원사〉에서 집계한 수량에 따르면 총 383개이다.

리궈궈 등이 〈중국서원사〉에서 집계한 수량에 따르면 277개로서 모두 200개를 넘었으며 분포지역이 넓었다. 이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 외에도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은 제사와 과거시험의 연결을 더욱 강조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모두 명·청 시대의 서원 발전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명·청 시대 하남성(河南省)의 성도는 개봉부(開封府)였고, 하남부(河南府)는 또한 하남성(河南省)의 중요한 부(府)급 도시로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한 곳이었다. 개봉부(開封府)에는 대량서원(大樑書院), 명도서원(明道書院), 유량서원(游梁書院), 이산서원(彝山書院) 등 유명한 서원이 있었고, 하남부(河南府)에는 송양서원(嵩陽書院), 낙서서원, 이락서원, 소산서원 등 유명서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 곳의 서원은 그 수가 많고, 지명도가 높고, 규정과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왕홍루 등의 「하남서원 지리에 대한 예비 연구」⁹⁾에서 개봉부(開封府)는 명나라와 청나라 하남성에서 서원이 발달한 지역에 속했고, 하남부(河南府)는 명나라 하남성 서원의 일반 지역에 속했다고 언급하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모두 청나라 하남성 서원의 발달 지역이었다. 결론적으로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은 명나라와 청나라의 하남성 서원 발전역사에서 대표적인 의의가 있는 곳으로 두 서원의 제사활동을 사례로 들어 하남성

8) 刘卫东, 高尚刚: 《河南书院教育史》, 郑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年, 第60页. : “河南省自清世宗上谕下达之时到道光二十年(1840), 共设立和兴复书院102所.”

9) 王洪瑞: 《河南书院地理初探》, 陕西师范大学2000年硕士论文.

서원 제사활동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Ⅲ.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제사 내용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은 풍부한 내용과 심오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사 대상은 주로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상세한 규정과 제사 의식, 제사 경비 등 내용이 있었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는 하남성의 서원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었고, 서원에는 다양한 제사활동이 있었으며 관련 제사활동 사료가 많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하남성 서원 제사활동의 실제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제사대상

명·청 시대 하남서원의 제사대상은 주로 공자와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지방 관리, 문창제군(文昌帝君) 구성(奎星) 등이 있다. 서원별로 제사 대상에는 많은 유사점과 특징이 있다. 다음에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유명한 서원을 사례로 들어 논술하고자 한다.

1) 지극히 거룩한 공자와 아성(亞聖) 맹자

명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은 개봉부(開封府) 양성현(襄城縣)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성(襄城) 사람인 안찰사(浙江按察使) 이민(李敏)이 지었다. 명나라의 유명 재상인 유건(劉健)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남(河南)의 번사(藩司)와 얼사(臬司)관리와 군수(郡守)와 현령(縣令)들은 제사에 더욱 신경을 썼으며 공사를 감독하고 대성전(大成殿)을 지었다. 동서 사랑채는 앞에 있었으며, 공자와 기타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명륜당(明倫堂)

은 좌우 서재가 뒤에 있었으며 선생과 학생이 거주하였으며 모두 학교의 규정을 따랐다.”¹⁰⁾ 공자를 대성지성(大成至聖) 선생이라고 존칭했기 때문에 공자묘의 대전을 대성전(大成殿)이라고 하였다. 선성(宣聖) 또한 공자에 대한 존칭이다. 이 이름은 한평제(漢平帝)시기 공자에 대한 시호에서 따온 것이다. 대성전(大成殿)은 명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에서 공자를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설립된 것으로 유교 문화에 대한 존경심을 반영한 것이다. 명나라 유량서원(游梁書院)은 개봉부(開封府) 상부현(祥符縣)에 위치하였다. 명나라 만력 31년(1603년), 순방어사(巡方禦史) 방대미(方大美)가 사원을 재건하고 성내에서 맹자묘 터에 유량서원(游梁書院)을 세웠다. <유량서원(游梁書院) 비록>에는 “유량(游梁)에 맹자를 모시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¹¹⁾ 그리고 제사의 대상이 맹자와 그의 제자라고 자세히 나와 있다. “중간에는 맹자를 모시는 여섯 기둥의 대전이 있었고, 만장(萬章)과 공손추(公孫醜) 등 맹자의 제자도 모셨다.”¹²⁾ 청나라 때 하남부(河南府)에 있는 송양서원(嵩陽書院)에서 공자를 모시는 최초의 선성전(先聖殿)을 지었다.¹³⁾ 청나라 때 개봉부(開封府) 상부현(祥符縣) 명도서원(明道書院)에서는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안회(顏回),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 등 네 성인의 제사도 함께 지냈다”¹⁴⁾ 공자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안회(顏

10)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诏赐名紫云书院，於是河南藩臬诸公暨郡县守令重其事，稍董工役，遂易以崇垣，建大成殿，东西庑於前，祀宣圣及从祀诸贤，明伦堂、左右斋于後，居师生，悉如近时学校之制。”

11) (清)王士俊修，(清)顾栋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游梁有祠以祀孟子，其規制故隘，可撤而新也。”

12) (清)王士俊修，(清)顾栋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学校下》，清道光六年补刻光绪二十八年再补刻本：“中为殿六楹，祀孟夫子其上，以万章、公孙丑诸弟子配。”

13)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郑州：中州古籍出版社，2003年，第18页：“祀吾夫子。”

14) (清)吕永辉：《明道书院志》，转引赵所生，薛正兴主编：《中国历代书院志》第六册，南京：江苏教育出版社，1995年，第325页。“至圣先师孔子、复圣颜子、宗圣曾子、述圣思子、亚圣孟子。”

회),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 네 명 성인의 제사도 함께 지냈다. 그들은 유교의 출현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서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는 유교에 대한 서원의 숭상을 반영한다.

2)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송나라 2년(1035) 정식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 교학 사업이 번성했으나 금, 원나라 시기에 훼손되었다. 명나라 7년(1528)에 하남성 등봉현 지현(知縣) 후태(侯泰)가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고 교사와 학생을 모집하여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사당을 세웠다. “후태(侯泰)는 송양서원(嵩陽書院)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조각상을 세우고 봄과 가을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냈다.”¹⁵⁾ 송양서원(嵩陽書院)은 명나라 때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사당을 세우고 그들의 상을 조각했으며, 이 두 개의 조각상에 대해 봄과 가을에 각기 한 번씩 특별히 제사를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말에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전쟁으로 훼손되었다. 청나라 강희제 13년(1674)에 하남성 등봉현 지현(知縣) 엽봉(葉封)이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였다. 경개(耿介)의 〈창건송양서원전사정주자비기(創建嵩陽書院專祀程朱子碑記)〉에는 “나는 서원이 도통(道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에게 특별히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의 전 독학관인 장정암(莊靜庵)선생과 외사촌형 부숙감(傅叔甘)과 동갑 곽원보(郭元甫)에게 편지를 썼다. 같은 해에 그들은 모두 학원에 기금을 기부하였다. 기금 액수는 다양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원 바로 남쪽에 대전을 설치하고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에게 제사를 지냈다.” 라고 기재 되었다.¹⁶⁾ 경개(耿介)는 송양서원(嵩陽書院)

15) 《隆庆《登封县志》卷三《坛祠》，明隆庆三年刻本。：“侯泰即嵩阳书院塑像，特设春秋二祭。”

16)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95页。：“余谓书院宜重道统，程朱例有

이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전문적으로 제향하고 유가도통(道統)을 계승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송양서원지사전(嵩陽書院誌·祀典)>에는 “강희(康熙) 연간에 어떤 관원은 가축과 달콤한 술로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의 신상(神像)에 제사지내면서 성학을 널리 알렸다.” 라는 고문이 있다.¹⁷⁾ 고문에는 삼현(三賢) 제사의 제사대상이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임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제사하는 동안 제사의식은 엄숙해야 함을 밝혔다. 명나라에 비해 청나라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제사대상에는 주희(朱熹)가 늘어났다. 주희(朱熹)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제자 이통(李侗)의 제자였다. 주희(朱熹)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의 ‘낙학(洛學)’을 계승했으며 삼현(三賢)사당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를 함께 모셨다. 이는 위대한 성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유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다. 명나라 개봉부(開封府)의 대량서원(大樑書院)은 규모가 컸으며 전신은 여택(麗澤)으로 명나라 천순 5년(1461) 하남 제학부사(提學副使) 유장(劉昌)이 개봉부(開封府) 성남 훈문(薰門)내 채하(蔡河) 북안에 세웠다. 대량서원(大樑書院)은 초기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게만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 대상을 넓혀 십현사(十賢祠)를 지어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사마광(司馬光), 주희(朱熹), 여조겸(呂祖謙), 장식(張栻), 허형(許衡) 등 10명의 현인에게 제사를 지냈다.¹⁸⁾ 10명의 현인 중에는 송대 이학의 창시자 “북송의 오자(北宋五子)”, 남송의 성리학자, “동남의 삼현(東南三賢)”, 그리고 원나라의 이학 대표인물 허형(許衡)이 있다. 사마광은 정치적 재능으

专祀，寓书于前督学使者庄静庵先生及傅叔甘表兄、郭元甫同年，多寡咸有捐资，於是直南为殿，专祀程朱。”

17)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23页：“维康熙年月日，某官谨以牺禮之仪，致祭于先贤程子纯公、程子正公、朱子文公之神曰：惟神表章圣学，昭若日星。”

18) (万历)《开封府志》卷十五《祠祀》，明万历十三年刻本：“内祀周敦頤、程顥、程頤、邵雍、张载、司马光、朱熹、吕祖谦、张栻、许衡。”

로 유명했지만 성리학이 였다. 사마광은 유교의 ‘천명(天命)’ 사상을 계승하고 실행하여 사람들에게 봉건사회의 원칙과 유명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정치적으로 요구하였다. 사마광의 성리학은 북송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이자 북송 성리학의 중요한 창시자 중 하나이다. 주희(朱熹)는 사마광을 주돈이(周敦頤), 소옹(邵雍), 장재(張載), 정호(程颢)와 정이(程頤) 함께 ‘도학 육선생(道學六先生)’이라고 불렀다.¹⁹⁾ 대량서원(大梁書院) 십현(十賢) 사당은 정호(程颢)와 정이, 주희(朱熹)에게 제사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원나라의 유명한 성리학자들을 조대의 순서에 따라 모셨다. 위의 10명의 현인은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이론은 유교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성리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서원은 그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이는 성리학에서 서원에 대한 중시와 유학의 도통 전승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 준다. 명나라 개봉부(開封府)의 서원은 전문적으로 정호(程颢)와 정이(程頤)의 제사를 지냈으며, 결국 서원은 홍수로 인해 훼손되었다. “명대 정호(程颢)와 정이(程頤)서원은 성 동남쪽 2리 되는 번탑(繁塔) 곁에 있었으며 옛날의 대량서원(大梁書院)이다. 이 서원에서는 정호(程颢), 정이(程頤)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명나라 말기에 홍수에 의해 훼손되었다.”²⁰⁾이정서원은 청나라 때 여러 차례 재건되었으며,道光 2년(1822)에 지방 관리들이 이정서원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제사를 책임지는 전문 인원을 배치하였다. 서원에는 비문이 있었다.道光 20년에 대부분의 서원이 물에 잠겼지만 정호(程颢)와 정이(程頤)를 모시는 사당과 숭덕사(崇德祠)는 다행히 보존되었다.”²¹⁾ 당시 서원은 여전히 정호(程颢)와 정이(程頤)를 제사 대상으로 삼고 명도서원(明道書院) 후전에서 정호

19) 潘富恩, 徐洪兴:《中国理学 第2卷》, 上海: 东方出版中心, 2002年, 第334页. : “司马光的理学思想是北宋理学的重要组成部分, 是北宋理学的重要奠基人之一, 朱熹将其与周敦颐、邵雍、张载、二程并称为北宋‘道学六先生’.”

20) (淸)吕永辉:《明道书院志》, 第316页. : “明二程书院在城东南二里繁塔侧, 即旧大梁书院, 祀宋程颢、程颐, 明末河水没.”

21) (淸)吕永辉:《明道书院志》, 第317页. : “并置奉祀生有碑记, 二十年没于水, 二程夫子祠并崇德祠存.”

(程顥)와 정이(程頤)의 부친, 조부, 증조부를 포함한 3대 정씨 조상들을 모셨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서원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정호(程顥)와 정이(程頤)에 대한 존경심과 성리학에 대한 확고한 존경심을 보여주는 이 정서원의 제사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3) 지방 관리

서원의 발전은 지방 관리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명·청 시대 하남 지방의 많은 관리들은 서원 건설에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서원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에 많은 서원의 예배를 받았다. 동시에 유명한 관리에게 지내는 제사는 학생들이 현실에서 성취를 이루길 바라는 서원의 기대를 보여주었다. 청나라 강희제 25년(1688년) 향신 경개(耿介)는 송양서원(嵩陽書院)에 유교를 건립하고 발전에 이바지한 관리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송유사(崇儒祠)를 지었다. 송유사(崇儒祠)는 명나라 때 현 지현(知縣) 후태(侯泰)와 부매(傅梅), 청나라 하남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 청나라 때 하남제학도 임요영(林堯英), 청나라 등봉현 지현(知縣) 왕우단(王又旦) 등을 기념하였다. 지현(知縣) 후태(侯泰)는 명나라 가정(嘉靖)연간에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고 교사를 모집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서원의 부흥에 공을 세웠다. 부매(傅梅)는 등봉현에서 관리로 있을 때 정사에 근면하고 민심을 살피고 감옥 관리에 능숙하고 도덕을 엄격히 다스렸으며 상당한 정치적 업적을 이뤘다. 강희제 23년(1684)에 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가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위해 5개 기둥의 도서관 건물을 지었다. 서원은 책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왕일조(王日藻)도 서원에 모셨다. 제학(提學) 임요영(林堯英)은 서원을 위해 3개 기둥의 강의실을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의 강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경개(耿介)와 문제를 논의하여 <송양서원강학기(嵩陽書院講學記)>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별원에서는 여러 학생들이 선생을 에워싸고 가르침을 받았다. 선생은 논어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잘못을 짐작하지 않고, <극기복례쇄설>을 선생께 올려 시정을 받으려 했으나 선생은 그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²²⁾ 지현(知縣) 왕우단은 서원을 위해 3개 기동 삼익재와 5개 기동 사무재를 지었다. 위에서 언급한 명·청 시대 하남성의 관리들은 송양서원(嵩陽書院)에 건물을 증축하거나 서원 강의에 참여하는데 열정이 가득하여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운영과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칭나라 명도서원(明道書院)은 개봉부 상부현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서 20년(1894년)에 학정 소송년(邵松年)이 지었다. 칭나라 <명도서원지(明道書院志)>에 따르면 서원은 명나라 하남순무(巡撫) 서공찬(徐公讚), 남경호부상서 하남순무(巡撫) 등공장(鄧公璋)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명무사(名撫祠)를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³⁾ 명나라 관리 27명과 칭나라 관리 14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명도서원(明道書院)에 모셔진 명·청 시대의 관리들은 모두 하남성에서 직책을 맡았거나, 서원 건립을 지원했거나,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였다. 서원에서는 서원건설에 공로가 많은 유명한 관리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으며 무엇보다 그 서원의 학생들이 유명한 관리를 본보기로 삼고 서원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랐다.

4) 문창제군(文昌帝君)과 규성(奎星)

명나라 장원진(張元楨)은 <칙사자운서원문창사비기(敕賜紫雲書院文昌祠碑記)>에는 “서원의 동남쪽 모퉁이에 공터가 있었는데, 문창사(文昌祠)를 복원하고, 그 가운데 신위(神位)를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었다.²⁴⁾ 개봉부(開封府)

22) (淸)耿介撰, 李远点校:《嵩阳书院志》, 第91页:“于别院, 诸生环列, 请先生开导益切, 始讲《论语》一贯章. 徐不揣谬, 呈《克己复礼琐说》以救正, 先生以为可与语道.”

23) (淸)吕永辉:《明道书院志》, 第320-321页:“明河南巡抚徐公赞, 南京户部尚书河南巡抚邓公璋 …”

24)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 淸康熙增刻本:“书院巽隅有隙地, 复立文昌

에 자운서원(紫雲書院)이 세워진 후 건축가들은 서원의 남동쪽 구석에 있는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창사(文昌祠)를 지었으며 문창제군(文昌帝君)을 그곳에 모셨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은 후에 문창제군(文昌帝君) 신상을 만들었고, 관학(官學)과 비교하였다. “천하의 서원에는 신상을 모시는 사당이 세워졌다. 현재의 서원은 실제로 고대 마을 학교에서 발전된 것이다. 서원에 이미 사당을 마련했기 때문에 신상을 조각하지 않으면 의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은 공예가들이 조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였다.”²⁵⁾라고 적었는데 이는 서원에서 문창제군(文昌帝君)을 위해 장중하게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문창제군(文昌帝君)은 고대 중국인에게 학자의 명성과 지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정받았다. 자운서원(紫雲書院)에 문창사(文昌祠)를 설립하는 것은 문창제군(文昌帝君)에 대한 존경을 표명하는 것 외에도 서원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하고 공로를 세우고 서원과 과거시험의 연계를 보여준다. 청나라 때 하남부(河南府) 낙양현(洛陽縣)에 있는 규광서원(奎光書院)에 대해서는 “규광서원(奎光書院)은 현 동남쪽에 있는 부학궁(府學宮) 앞쪽, 규광각(奎光閣) 부근에 있다” 서술되어 있다.²⁶⁾ 규광각(奎光閣)의 제사대상은 문창제군(文昌帝君)으로 “문창제군(文昌帝君)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규광각(奎光閣)을 세웠다.”²⁷⁾ “규광각(奎光閣)에는 문창제군(文昌帝君)이 모셔져 있다.”²⁸⁾ 이라는 설이 있다. 규광서원(奎光書院)은 부학궁(府學宮) 앞쪽, 규광각(奎光閣) 부근에 있었다. 이는 규광각이 서원에 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또한 서원이 부학(府學)과 인접해 있어 관학(官學)과 서원의 연계성을 반영하

祠, 揭神位於其中.”

25)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故天下学官皆立祠，塑像以祀。今书院即古乡学遗址，祠既立，不像祀神，不缺典欤？遂捐贖命工刻神像。”

26) (乾隆)《重修洛阳县志》卷五《学校》，清乾隆十年刊本：“奎光书院，在县东南隅府学宫前奎光阁下。”

27) (清)贺长龄：《耐庵诗文存》卷一《重修贵阳府学文庙记》，清咸丰十年刻本：“後创奎光阁以祀文昌。”

28) (清)李富孙：《校经頌文稿》卷十六《游东瀉塘记》，清道光刻本：“後有奎光阁奉文昌星。”

고 있다.

청나라 때 이산서원(彝山書院)은道光 8년(1828)에 지부 율육미와 지현(知縣) 유음당에 의해 설립되었다. 사치창(史致昌)은 산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서원 건설에 기여하였다. 사치창(史致昌)은 서원의 규약을 제정하고 작품을 출판했으며 <이산서원지(彝山書院志)>를 저술하였다. 규성(奎星)은 고대에 문장의 흥망성쇠를 지배한 신으로 학자들이 숭상하였다. <이산서원지(彝山書院志)>에서는 학교 현장에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활동을 기입하고 매년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명시하였다. “등교하는 날 현령은 동자(童子)들을 거느리고 공자에게 제사를 지낸후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냈다.”²⁹⁾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활동과 신입생의 입학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공자를 예배한후 규성(奎星)에게 예배를 올렸다.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자의 학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서원은 또한 규성각(奎星閣)의 일일 유지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규성각(奎星閣)을 새롭게 유지하며 문명을 보여주기 위해 2년마다 색칠하기로 결정하였다.”³⁰⁾ 규성각(奎星閣)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서원의 규정에는 2년에 한 번씩 물감으로 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나라 때 대량서원(大樑書院)에도 또한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규성각(奎星閣)을 세웠다.

명·청 시대 하남·개봉 서원의 제사대상은 대부분 공자,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였다. 공자와 맹자는 초기 유교의 대표인물이었으며,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였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는 유학을 발전시켜 결국 유학을 봉건왕조의 통치사상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고대 중국 사회의 사상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서원은 주로 유교 대표적인 인

29) (淸)史致昌：《彝山書院志》，轉引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 第六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年，第236頁：“定於送學之日，本府率諸童拜至聖先師後致祭。”

30) (淸)史致昌：《彝山書院志》，第237頁。“奎星閣宜永久輝煥，以昭文明之象，嗣後定於兩年油飾一次。”

물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이는 유교에 대한 서원의 존경과 유학의 도통 계승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 서원은 유명한 관리들에게도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그들이 서원의 설립과 발전에 대한 공로를 표창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게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또한 공권력이 서원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보여준다. 문창제군(文昌帝君)과 구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서원과 과거시험의 연결을 반영하고 서원의 인재육성 목표를 보여준다.

2. 제사의 규정과 의식

명·청 시대의 하남성 서원은 제사활동을 존중하고 많은 제사건물을 건축하여 제사건물에서 정기적으로 제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제사는 매우 엄숙한 활동으로서 많은 서원에서는 제사활동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상세한 제사의 규정과 의식을 제정하였다. 서원의 제사활동은 동적인 활동으로, 서원 제사의 규정과 의식에 대한 논의는 서원 제사활동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서원 제사활동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일부 대표적인 서원을 사례로 하여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규정과 의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이락서원(伊洛書院)

명나라 이락서원(伊洛書院)은 하남부(河南府) 낙양현에 있는 서원으로, 명나라 성화 17년(1481)에 제학부사(提學副使) 오백통(吳伯通)이 설립하였다. 또 십선사(十先寺)를 설치하고 이락의 여러 유교성인들을 모셨다. <이락서원기(伊洛書院記)>에는 “서원에서 10명 현인의 조각상을 만들게 하였다. 10명 현인의 순서는 초려(草廬)오선생이 저술한 책 <낙인장순중십현당기(洛人張順中十賢堂記)>을 근거로 하여 10명 현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을 정한다. 매월 15일에는 10명 현인의 조각상을 예배하고 해마다 석전례(釋奠禮)로 10명

현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정한 제사의식을 형성하였다.”라고 기재 되었다.³¹⁾ 이로부터 이락서원(伊洛書院)은 여러 유교성인들의 조각상을 십선사(十先寺)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10 개의 현인들의 조각상을 세부적인 순서로 배치하고 상서로운 날을 선택하여 제사를 지냈다. 매월 1일에 서원의 학생들은 십선사(十先寺)의 조각상에 절을 하고, 매년 석전(釋奠)의 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석전(釋奠)은 고대 학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양과 돼지를 통째로 사용했으며 분위기가 더욱 엄숙하였다. 이락서원(伊洛書院)은 엄숙한 석전(釋奠)으로 10명의 유교 현인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10명의 현인에 대한 높은 존경심을 보여 주었다. 간단히 말해서 이락서원(伊洛書院)은 서원의 제사에서는 자세한 제사 진행시간, 제사 대상의 순서 및 제사 의식을 규정하였다.

2) 송양서원(嵩陽書院)

칭나라 송양서원(嵩陽書院)은 하남부(河南府) 등봉현에 자리잡고 있으며 제사 활동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의식이 있었다. 경개(耿介)의 <송양서원·사전(嵩陽書院志·祀典)>에서는 먼저 제사의 목적은 복잡한 제사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인에 대한 존경과 성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석채례(釋菜禮)는 제사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한 예의로, 제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제자의 정성을 돋보이게 한다.”³²⁾ 제사를 지낼 때는 간소한 예절과 엄숙하고 높은 규격의 예절이 있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 공자에게 제물을 바친후 두번째 날, 현령(縣令)이나 학박(學博)들은 소뢰례(少牢禮)로 선현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해마

31) (乾隆)《重修洛陽縣志》卷十五《藝文·記》，清乾隆十年刊本。“命所司肖所祠十賢像，而位次則據草廬吳先生所著《洛人張順中十賢堂記》以為序，擇日安慰如禮，每月朔參謁，歲以釋奠之明日致祭，著為儀。”

32) (淸)耿介撰，李遠中校：《嵩陽書院志》，第23頁。：“釋菜禮之至簡者也，不在多品，貴其誠也。”

다 제사는 석채례(釋菜禮)로도 지내고, 제사에 과일과 채소를 사용한다.”³³⁾ 소뢰례(少牢禮)는 태뢰(太牢)보다 낮은 고대 제사의 규격으로 양과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 일반적으로 제후와 경대부(卿大夫)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소뢰례(少牢禮)를 사용하였다.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소뢰례(少牢禮)의 규격을 사용하여 제사를 지내고, 현령이나 교사들이 제사를 참여하였다. 이는 송양서원(嵩陽書院)의 최고 제사기준으로 현인들에게 제사를 지냈음을 강조한다. 석채례(釋菜禮)는 간소한 제사로서 제물은 주로 채소와 과일이다. 송양서원(嵩陽書院)에서도 석채례(釋菜禮)로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정해진 날짜에 산장(山長)이 학생들을 거느리고 가서 공자에게 절을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 석채례(釋菜禮)는 소뢰례(少牢禮)에 비해 간소한 의식에 속한다.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제사 중 제사에 따라 제문(祭文)을 다르게 반포하는데, 선현사(先賢祠) 제문(祭文)과 삼현사(三賢祠) 제문(祭文), 도통사(道統祠) 제문(祭文)이 있다. 제문(祭文)은 제사의 취지와 의미를 서원 학생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제사대상을 숭배하고 제사대상의 덕행, 학식, 공훈을 따라 배워 사회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결론적으로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제사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짜를 정하고 제사 참여인원, 제사 예절, 제문(祭文) 등을 규정하였다.

3) 자운서원(紫雲書院)

자운서원(紫雲書院)은 명나라 말기에 훼손되었다. 명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제사 규정과 의례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거의 없다. 청나라 강희제 때 중주 출신의 학자 이래장(李來章)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을 재건하고 청나라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제사 의식에 대한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담고 있는 <칙

33) (清)耿介撰, 李远点校:《嵩阳书院志》, 第23页:“一每春秋祭丁之次日, 以少牢一祀先贤祠, 或县令亲祭, 或委学博代祭. 一每春秋二仲朔日, 做古释菜之礼, 用诸果品菜蔬十二器祀先圣, 书院山长率肄业诸生行礼.”

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를 편찬하였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청대에도 양성현에 위치하고 있었다. 양성현은 명대에는 개봉부(開封府) 관할내에 속하였다. 청대에는 개봉부(開封府) 관할에 변화가 있었으며, 양성현은 옹정 2년에 허주(許州)에 속하였다. <청사고지리지(淸史稿地理志)>에는 “청나라 초기에 개봉부(開封府)는 하남성의 성도였으며 관할 아래 4개의 주(州)와 30개의 현(縣)이 있었다. 옹정(雍正) 2년에 진(陳), 허(許), 정(鄭), 우(禹) 네개 지역이 개봉부(開封府)에서 분리되어 원래 개봉부(開封府)에 속해 있던 14개 현을 관할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³⁴⁾ 이로부터 청나라 옹정 2년 이전에는 양성현(襄城縣)이 여전히 개봉부(開封府)의 관할 아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는 강희(康熙)연간에 인쇄 되었기에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가 여전히 청나라 개봉부(開封府) 서원의 역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칙사자운서원지(敕賜紫雲書院志)에서 이래장(李來章)이 직접 편찬한 "자운서원학규(紫雲書院學規)"에서는 학습사항을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서원의 제사의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래장(李來章)은 고대인들이 학교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서원은 글을 가르치는 장소로서 제사에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운서원학규(紫雲書院學規)>에서 제사의 의식을 처음으로 기재하고 이를 제1의 학문의 핵심으로 여겼다. <자운서원학규(紫雲書院學規)>에는 “서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먼저 성전에 네번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 강당으로 가서 예배한다. 매월 1일과 15일 전날 밤에는 당직자가 서원의 제자들을 이끌고 조각상을 꼼꼼히 청소한다. 다음날 새벽에 모두가 일어나 세수를 한후 당번자는 북을 다섯 번 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강당에 공수례(拱手禮)를 한다. 중간의 학생들은 동서 두 줄로 나누어 서로 두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하며 나이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34) 赵尔巽等：《淸史稿》卷六十二《地理志》，北京：中华书局，1977年，第2068页。：“开封府：淸初，河南省治，仍领州四，县三十。雍正二年，陈、许、郑、禹直隶，割县十四隶之。”

퇴장한다.”라고 기록되었다.³⁵⁾ 학규에 따르면 서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먼저 성전에 네번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 강당으로 가서 예배한다. 강당 가기전에 성전에서 참배를 하는 것은 특히 서원의 제사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다. 또한 매월 1일과 15일 전날 밤에는 당직자가 서원의 제자들을 이끌고 조각상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다음날 새벽에 모두가 일어나 세수를 한 후 당번자는 북을 다섯 번 치면, 성전에 예배를 드리며 강당에 공수례(拱手禮)를 한다. 중간의 학생들은 동서 두 줄로 나누어 서로 두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하며 나이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퇴장한다. “제사를 지낼 때 일부 학생들은 일부러 예배 하러 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며, 어떤 학생들은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신나게 놀기도 한다. 서원은 이러한 학생들에게 과오를 한번 기록하며, 강당 벽에 붙인다.”³⁶⁾ 예의를 갖춰 서로 인사를 할 때 고의로 핑계를 찾지 못하거나 인사가 장난스럽고 엄숙하지 않은 경우, 서원은 별점을 기록해 강당 벽에 붙인다. 제사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조용하고 엄숙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찰에 참배할 때 모든 사람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성심성의로 유언을 낭독해야 한다. 이것이 서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³⁷⁾

〈자운서원학규(紫雲書院學規)〉에서는 제사 진행시간, 제사 전 청소, 제사 중 제자들의 의식, 제사의 절차, 제사에 대한 제지 및 처벌 조치, 제사활동을 거행하는 사람들의 의복 등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로써 자운서원(紫雲書院)의 생생하고 질서정연한 제사활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35) (清)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轉引趙所生，薛正興主編：《中國歷代書院志》第六冊，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年，第146頁。：“今凡入書院受學者，皆先詣聖殿階前，伏，興，行四拜禮，然後詣講堂投刺，以文為贊。至逢朔望日前夕，值日者督率院中同人，拂拭神几，務期潔靜。至日黎明，擊板盥洗既畢。值日者，鳴鼓五聲畢，詣聖殿階前行伏，興，四拜禮，再集講堂向上一揖，又分班東西對揖，相引而退皆以齒序。”

36) (清)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第146頁。：“或托故不至，或跛倚笑語，禮貌不肅者，各記過一次，實貼講堂壁上。”

37) (清)李來章等：《敕賜紫雲書院志》，第146頁。：“故凡瞻仰廟貌，誦讀遺言，皆當正冠整襟，昭如在之誠，此為學第一義也。”

4) 이산서원(彝山書院)

청나라 때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를 중시하였다. 규성(奎星)은 고대 기물의 흥망성쇠를 주관한 신으로 학자들의 깊은 존경을 받았다. 청나라 때 이산서원(彝山書院)은 해마다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냈다.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학생들이 개학을 할 때이다. 규성(奎星)의 제사는 공자의 제사를 진행한 후에 한다. 이는 규성(奎星)의 지위가 높지만 여전히 유교의 창시자 공자보다 열등함을 보여준다.”³⁸⁾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간은 학생들이 개학을 할 때이다. 규성(奎星)의 제사는 공자의 제사를 진행한 후에 한다. 이는 규성(奎星)의 지위가 높지만 여전히 유교의 창시자 공자보다 열등함을 보여준다. “규성각(奎星閣)의 웅대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며, 서원에서는 규성각(奎星閣)에 대해 2년마다 색칠하고 장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월 1일과 15일에 서원 원장은 제자들을 이끌고 규성(奎星)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지낸다. 서원 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감원(監院)에서 대신할 수 있다³⁹⁾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奎星)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간과 순서, 규성각(奎星閣)의 유지 관리, 제사에 참여하는 인원, 의식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규성(奎星)에 대한 제사의 다양한 내용은 서원의 현장에 포함되었다. 세심한 방법과 운용성을 강조하여 서원 제사활동의 제도화된 특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명·청 시대 하남서원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제사규정의 내용이 풍부하고 제사에의의가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원의 제사 규정은 상세하며 제사 전 준비사항, 제사 진행시간, 제물 배치, 제사 참가자, 제문, 규정을 위반한 제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

38) (淸史致昌 : 《彝山書院志》, 第236頁 : “每年祭奎星, 定於送學之日, 本府率諸童拜至聖先師後致祭.”

39) (淸史致昌 : 《彝山書院志》, 第237頁 : “奎星閣宜永久輝煥以昭文明之象, 嗣後定於兩年油飾一次. 每月朔望, 院長率諸童行香, 院長出省, 監院行香.”

사에의에는 석전례, 석채례, 소뢰례, 사배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사규정과 예의는 상세하고 실행 가능하였다. 상세한 제사규정과 제도화된 제사에의를 통해 서원 학생들이 직접 제사활동에 참여하고, 활동에서 현인들의 훌륭한 자질을 느끼며,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3. 제사 경비

제사활동은 서원의 중요한 활동으로, 제사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제사용품 구입, 제사당직 및 관리인의 급여, 제사건물의 일일 유지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명·청 시대의 하남서원은 서원 제사활동의 정상적인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비를 모았는데, 서원의 경비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학전(學田)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서원의 수입은 서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이른바 “서원에 학전(學田)이 있으면 서생을 모을 수 있고, 서원은 기회를 잡아 강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서원에 학전(學田)이 없으면 서생을 모으기 어려워 서원이 망하게 되는데 어찌 강학을 할 수 있는가?”⁴⁰⁾ 였다.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의 많은 지방 관료들이 제답(祭田) 마련, 서원 경비 기부 등 서원의 제사를 위한 경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

명나라 대량서원(大樑書院)은 개봉부(開封府)의 공식 서원이었다. 명나라 이몽양의 <대량서원전비(大樑書院田碑)>에는 “서생들이 모이는 곳에는 사찰을 세워 스승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학전(學田)이 없으면 제사의 경비는 어디서 마련하는가?”라고 기록되었다.⁴¹⁾ 이는 서원 제답(祭田)에 대한 서원

40) (明)姜性：《白鹿洞學田記》，轉引朱瑞熙：《白鹿洞書院古志五種》，北京：中華書局，1995年，第101頁。：“院有田則士集，而講道者千載一時；院無田則士難久集，院隨以費，如講道何載？”

41) (明)李夢陽：《空同集》卷四十一《大樑書院田碑》，《文淵閣四庫全書》(影印本)第1262冊，台北：台灣商務印書館，1986年，第369頁。：“聚人之所，必廟其所師，廟必有祭，祭非田，何出矣！”

제사의 의존성을 강조하였다. “책을 모으는 서원이 있고, 제사에 사용되는 학전(學田)이 있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⁴²⁾ 제사에 사용되는 학전(學田)은 제답(祭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답(祭田)은 서원 제물비용을 모으는데 전념하였다. 이몽양(李夢陽)은 학전(學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서원은 학전(學田)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재능 있는 학자를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청나라 때 개봉부(開封府) 이산서원(彝山書院)은 규성각(奎星閣)에 대한 제사활동을 중시했으며 규성각(奎星閣)을 건축하였다. 규성각(奎星閣)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마련하였다. “제사에 사용된 향과 양초, 폐인트는 서원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기부한 고화은(膏火銀)으로 구입한다. 이 일은 감원(監院)에 맡겨 처리된다.”⁴³⁾ 규성각(奎星閣)의 유지자금은 고화은(膏火銀)에서 할당되며 감원(監院)이 책임을 졌다. 나중에 규성각(奎星閣)이 재건되었을 때 많은 현지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기부하여 규성각(奎星閣)을 재건하였다.

청나라 강희제 13년(1674)에 하남성 등봉현 현령이 송양서원(嵩陽書院)을 재건하였다. 그는 서원의 제사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송양서원(嵩陽書院)은 정호(程頤)와 정이(程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북쪽에는 송나라의 숭복궁(崇福宮) 터가 자리 잡고 있다. 문헌을 찾아보니 송나라 사마광을 비롯한 12명이 한 때 재집(宰執)대신으로 숭복궁(崇福宮)을 관리했는데, 서원에서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서원에서는 학생을 선택하여 강의를 하고 학전(學田)을 자금의 원천으로 하였다.”⁴⁴⁾ 조두(俎豆)는 원래 제사와 축제 때 음식을 담는 제기였으나 나중에 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송양서원

42) (明)李夢陽：《空同集》卷四十一《大梁書院田碑》，第369頁： “有積書之院，祭養之田，又以異土而考成也。”

43) (淸)史致昌：《彝山書院志》，第237頁： “香燭油飾之資，出正、副課科歲試進學之月所捐一月膏火銀兩，此項入監院交代，屆時敬謹辦理。”

44) (道光)《黃陂縣志稿·人物》，民國十二年鉛印本： “嵩陽書院舊祀二程子，北側為宋崇福宮故址，廢且久。封稽史籍，得宋司馬文正公以下，曾以宰執領宮使者，凡十有二人，為主祠之，時其祭祀。選博士弟子肄業其中，又置田以為俎豆飲食之需。”

(嵩陽書院)의 제사활동을 위해 엽봉(葉封)은 특별히 학전(學田)을 사들였다. 엽봉(葉封)은 지방 관료로서 송양서원(嵩陽書院)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서원의 제사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방 관리가 제사대상의 본보기 역할을 빌어 학생을 교육하고 제사 민속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IV.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 서원 제사의 의의

명·청 시대에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 있는 서원의 제사활동은 의미가 풍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서원 제사활동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한 형태로, 학생들이 제사 활동에 참여하여 제사대상에 대한 존경심과 배움의 욕망을 갖게 하고 은밀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서원 제사활동은 먼저 공자와 성현, 지방 관리 등에 대한 서원 학생의 존경을 표한다. 서원 제사활동의 예배 대상은 주로 유교의 대표인물인 공자, 맹자,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로, 이는 서원의 유교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고 학생들의 도통의 계승을 추진하였다. 현지 유명한 관리들에 대한 제사는 서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그들을 본보기로 하여 학업에서 성공을 한 후 서원에 돌아와 백성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규성(奎星)과 문창제군(文昌帝君)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학생들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서원 제사활동은 유교 도통을 계승하고 지방 통치관리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 유교와 도통의 계승에 대한 추진 역할

주희(朱熹)는 제사활동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제사는 도통(道統)을 계승해야 한다. 천하의 학자들이 도통(道統)의 계승을 알게 하고 제

사 의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당을 짓고, 조각상을 전시하고, 예복을 입고, 고급 제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⁴⁵⁾ 주희(朱熹)는 제사의 목적이 도통을 계승하고 학자들이 사모하는 바를 알게 하는 것이지 제사의 형태가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유교는 중국 봉건사회의 정통 사상이다. 명나라 초기에는 성리학이 존경받았고, 중기에는 심학(心學)이 번성하였다가 명나라 말기에 성리학으로 복귀하였다. 성리학은 유교에 속하는 것으로, 유교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명나라 이민(李敏)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을 설립한 목적에는 유교 도통(道統)을 계승하는 것이 있다. “안찰사(按察使) 양성(襄城) 이민(李敏)이 자운서원(紫雲書院)을 세운 목적은 서원 학생들이 이윤(伊尹), 주공(周公), 공자(孔子), 정호(程頤), 정이(程頤)를 스승으로 삼고, 주희의 이론을 배우고 허형(許衡)의 품격을 배우는 것이었다.”⁴⁶⁾ 명나라 장원정(張元楨)의 “칙사자운서원문창사비기(勅賜紫雲書院文昌祠碑記)”에서 서원의 제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백성을 도와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낸다. 신의 도움이라면 누구나 신을 공경하고 경배해야 한다. 불교와 도교의 허무맹랑함이나 사찰 건설이 백성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⁴⁷⁾ 사람들의 불교와 도교의 허무함과 백성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자운서원의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학계에서 유교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전념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청나라 때 경개(耿介)는 그의 <송양서원도(嵩陽書院圖)>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백록서원지(白鹿書院志)를 살펴보면, 백록서원(白鹿書院) 중앙에는

45) (宋)朱熹：《朱子全書》卷八十《晦庵先生朱文公文集》，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2002年，第3806頁。：“蓋將以明夫道之有統，使天下之學者皆知有所向往而及之，非徒修其牆屋，設其貌像，盛其器服升降俯仰之容以為觀美而已也。”

46) (淸)李來章等：《勅賜紫雲書院志》，第153頁。：“欲仰師伊尹、周公、孔子以及程氏，又考古朱徽公正學善教之功，期如魯齋河東之有遇，而或旷无甯居理，固有未安者，此浙江按察使襄城李公紫雲書院所以作欤。”

47) (康熙)《襄城縣志》卷八《藝文志》，清康熙增刻本。：“傳曰：‘有功於民則祀之，若神之功，是宜士君子所當尊崇而敬祀之，豈釋老之徒事虛寂而寺觀之建為徒費民財者，可同日語哉！’”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예성전(禮聖殿)이 있고, 그 옆에는 선현을 제사지내는 종유사(宗儒祠)가 세워져 있어 백록서원(白鹿書院)이 도통(道統)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송양서원(嵩陽書院)에도 백록서원(白鹿書院)의 제사제도를 본떠서 삼현사(三賢祠)를 세워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제사를 지냈다.⁴⁸⁾ 경개(耿介)는 서원이 도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를 예배하기 위한 선현사(先賢祠)를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제시하였다. “먼저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의 제사를 제현사(諸賢祠)에서 함께 지냈다. 경개(耿介)는 서원의 도통(道統)을 선양하기 위해 삼현사(三賢祠)를 지어 정호(程顥), 정이(程頤), 주희(朱熹)에게 제사를 지냈다.”⁴⁹⁾ 하남성 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의 〈송양서원비기(嵩陽書院碑記)〉에는 “정호(程顥), 정이(程頤)는 때맞춰 나와 송산의 송복궁(崇福宮)을 주관하며 유학을 전파했고,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 주희(朱熹)가 대대로 계승하여 온 유교를 전파하였다.”⁵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서원은 도통의 유산을 매우 중시하였다. 청나라 때 개봉부(開封府)의 명도서원(明道書院)은 공자, 맹자, 주돈이, 정호(程顥)와 정이(程頤), 주희(朱熹) 등의 유교 대표인물들을 모시기 위해 도통사(道統祠)를 설립하여 도통이 서원에서 계승되도록 하였다. 광서20년(1894)에 하남성 학정(學政) 소송년(邵松年)은 〈중건명도서원(明道書院)비기〉에서 도통의 유산을 중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학자는 명도서원(明道書院)에서 공부하여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이학을 계승하고, 성현(聖賢)과 같은 일을 성취하도록 격려하였다.”⁵¹⁾

48) (淸)耿介撰, 李远点校: 《嵩阳书院志》, 第11页: “考《白鹿书院志》, 中辟礼圣殿祀先圣, 旁建宗儒祠祀先贤, 重道统也. 今嵩阳书院亦仿此制, 别为三贤祠, 祀二程、朱子.”

49) (淸)耿介撰, 李远点校: 《嵩阳书院志》, 第19页: “先是程朱三子合祀於诸贤祠, 介以书院宜重道统, 故专祀焉.”

50) (淸)耿介撰, 李远点校: 《嵩阳书院志》, 第81-82页: “两程夫子应期而出, 先後提点嵩山崇福宫, 昌明正学于时, 濂洛关闽递结薪传.”

51) (淸)吕永辉: 《明道书院志》, 第334页: “学者读书其中, 溯伊洛之渊源, 勉圣贤之事业是也.”

2. 지역 통치관리에 도움이 됨

명·청 시대에는 서원이 번성했으며 정부는 점차 서원의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세력이 되었다. 명·청 시대 하남부(河南府)와 개봉부(開封府)에는 서원이 많았고 정부는 서원 건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사건물 건축과 제사활동의 발전을 중시하였다. 서원의 제사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했으며 지역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 명나라 개봉부(開封府) 유량서원(游梁書院)은 순방어사(巡方禦史) 방대미(方大美)는 <유량서원비기(游梁書院碑記)>에서 사람과 관습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본보기를 세우는 것보다 선현을 숭상하는 것이 낫고, 주물을 잘 만드는 것보다 맡은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낫다. 맹자의 인의지학은 서생들의 학습 목표이다. 많은 서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성현의 정신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⁵²⁾라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유량서원(游梁書院)에서 맹자의 사당을 지은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사당을 갖추는 건 곧 선현(先賢)을 존송하는 예의이고, 館을 갖추는 건 곧 학업에 전력하라는 것이니, 선현의 숭상함을 외부에 보이고, 학업에 전력하도록 두드려 인재를 양성한다. ... 나와 여러 大夫들이 오늘 인재를 양성하는 움직임은 영화를 바리는데 있지 않다. 배우러 오는 자들에게 바라는 바를 이에 글로써 이 사당에 기록한다.”⁵³⁾ 성인에 대한 제사는 모범 교육의 역할을 하고, 주변 성인들의 고상한 품성이 제자들을 감화시켜 진덕수업(進德修業)하기 위함이었다.

명·청 시대 봉건사회의 공명과 관록을 지배했던 문창제군(文昌帝君)은 서

52) (淸)王士俊修, (淸)顧棟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淸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樹標莫如崇賢，善鑄莫如敬業。孟氏仁義之學，士人之標也。倘惠邀聖賢之靈，群弟子而講習之，爐冶之。”

53) (淸)王士俊修, (淸)顧棟高纂：(雍正)《河南通志》卷四十三《學校下》，淸道光六年補刻光緒二十八年再補刻本：“祠修，則崇賢有儀；館備，則敬業有所。崇賢以示之標，敬業以鼓之鑄。... 予與諸大夫今日作人之舉，不有榮施哉！是所望於諸來學者，愛書之 為此祠記。”

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서원은 문창제군(文昌帝君)에 대한 제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고 덕을 수호하게 하여 지방 정부의 문화 및 교육 정책의 시행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명대 개봉부(開封府)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절강안찰사(浙江按察使) 이민건(李敏建)이 세웠다. 명나라 사람 장원·정이 <칙사자운서원문창사비기(勅賜紫雲書院文昌祀轄記)>에서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까닭과 무릇 인재를 뽑은 것은 모두 오직 충효에 근본한 것이다. 그것이 세상 사람을 깨우쳐 돕도록 가르치는 공은 모두 크지 않은가. ... 지금부터 양성현(襄城縣)의 여러 서생들은 서원에서 공부하며 읊을 때 신상에 경건히 배례한다. 그러하면 신이 덕행을 살피는 것을 알고서 그런 연유로 반드시 몹시 두려워하여 감히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⁵⁴⁾ 이는 문창제(文昌帝)에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 중 하나가 신앙의 힘으로 학생들을 엄하게 교육하고 덕을 기르며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친절을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운서원(紫雲書院)은 문창제군(文昌帝君)을 숭배하며 학생들의 과거시험에서의 성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도덕성과 자기 계발을 장려하였다.

서원은 도통(道統)을 존중하는 것으로 치통(治統)에 도움을 주었다. 청나라 하남부(河南府)에 있는 송양서원(嵩陽書院)은 등봉현 엽봉(葉封)이 재건하였다. 전 하남성 순무(巡撫) 왕일조(王日藻)는 <송양서원비기(嵩陽書院碑記)>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내가 명을 받들어 향학을 본떠서 문교의 흥기를 우선 도모하여 이에 서원을 새롭게 고쳐 세웠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마디도 적은 데가 없으니 도통을 높이고 유학을 닦아 권장하는 바가 아니다.”⁵⁵⁾ 왕일조(王日藻)의 주된 의도는 도통을 홍보하고 유덕한 학자들을 포상하여 지역 문화와 교육의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문화와 교육을 진흥하는 것은 왕일

54) (康熙)《襄城县志》卷八《艺文志》，清康熙增刻本：“神之所以为神，与夫所以取士，亦惟本之忠孝，其警世弼教之功不亦大矣乎！... 後自今襄之诸士子游歌於书院，而拜瞻神像之俨然，知神考德察行之，由必惕然，戒谨恐惧。”

55) (清)耿介撰，李远点校：《嵩阳书院志》，第82页。“余奉命抚豫方，以兴起文教为首图，值兹书院鼎新，而无一言纪其事，非所以崇道统、励儒修也。”

조(王日藻)의 의무이며 지방 관리의 문화와 교육 진흥의 목적은 백성을 교육하여 봉건체제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엄흥방(閔興邦)은 또한 하남 순무(巡撫)를 역임했으며 그의 〈숭양서원신립도통사기(嵩陽書院新立道統祀記)〉에는 다음이 기재하였다. “고대와 지금에는 치통(治統)과 도통(道統)이 있고, 군주와 사유(師儒) 모두가 함께 임하는 것이다. 정치로서 도를 행하여 하늘에서 요(堯), 순(舜), 우(禹), 탕(湯), 문무주공(文武周公)을 낳아서 임금으로 세워 더욱 융성하게 다스렸다. 도로써 정치를 보좌하여 하늘에서 공자를 낳아 아래에서 다스리도록 하여 도가 떨어지지 않았다.”⁵⁶⁾ 치통(治統)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전통을 말하며, 도통(道統)은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유교의 전통이다. 치통(治統)과 도통(道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완한다. 봉건 통치자는 유교사상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유교의 도통을 중시하고 도통을 통치 사상으로 간주하였다. 소위 “도통의 번영은 통치에 달려 있다.” 도통을 활용하여 통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촉진하기를 희망하였다.

V. 결론

제사는 서원의 4대 기본규정 중 하나이며 서원의 중요한 활동이다. 명·청 시대에는 하남부와 개봉부에 많은 서원이 있었고 유명한 서원도 많았다. 이러한 서원의 제사는 규정이 상세하고 명확하며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 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에서는 많은 계승성을 보여주었다. 명·청 시대에 하남부와 개봉부의 제사대상에는 공자와 맹자, 정호와 정이, 지방 관리, 문창제군, 규정 등이 포함되었

56) (淸)耿介撰, 李远点校:《嵩阳书院志》, 第83页:“古今有治统, 有道统, 皆君相师儒共为任之者也。以治行道, 天於是生尧舜禹汤, 文武周公, 以立乎上而治益隆。以道佐治, 天於是生孔子, 以修乎下而道不坠。”

다. 제사대상을 통해 하남부와 개봉부의 서원에서는 유교를 존중하여 도통을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유명한 관리를 예배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숭상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는 하남성 서원에서의 제사대상의 선택을 반영한다. 하남부와 개봉부는 제사규정이 상세하고 제사의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학전(學田)이 없으면 서원은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서원의 제사활동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제사경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지역 관리들은 제사경비의 조달에 도움을 주었다. 서원의 제사활동은 학생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현인들을 따라 배우도록 했을 뿐더러 지방 관리의 업적을 표창하였다. 서원의 제사는 유학의 도통을 계승하고 지방 통치관리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하였다. 하남부와 개봉부는 명·청 시대 하남성의 중요한 현금 도시로 당시 하남성의 많은 대표적인 서원이 하남부와 개봉부의 관할이었다. 명·청 시대의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을 논의하고 소개함으로써 명·청 시대 하남성 서원의 제사활동 현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고대 서적

- (송)주희, 『주자전서』, 상해고서출판사, 안후이 교육출판사, 2002년.
(명)누성, 『백록동학전기』, 주서희 인용, 백록동서원고지오중, 베이징, 중화서국, 1995년.
(명)리명양, 『공동집』, 『문연각사고전서』(영인본) 제1262권, 타이베이, 대만 상무인서관, 1986년.
(류경) 『등봉현지』, 명대 류경 3년 각본.
(만력) 『개봉부지』, 명대 만력 13년 각본.
(강희) 『양성현지』, 청대 강희 증각본.
(청)우민중 등 편찬, 『일하구문고』, 북경, 북경고서출판사, 1985년.
(청)왕사준 수정, (청)도공고 편찬, (옹정)『하남통지』, 청대 도광6년 보각 광서28년 재보 각본.
(청)경계 편찬, 이원 점교, 『송양서원지』, 정주, 중주고적출판사, 2003년.
(청)여영휘, 『명도서원지』, 조소생 인용, 설정홍 주필, 중국 역대 서원지 6권 난징, 장쑤교육출판사, 1995년.
(건륭) 『낙양현지 중수』, 청대 건륭 10년 간행본.
(청)하장령, 『내암시문존』, 청대 함풍 10년.
(청)이부손, 『교경경문고』, 청대 도광 각본.
(청)사치창, 『이산서원지』, 조소생 인용, 설정홍 주필, 중국 역대 서원지 6권, 남경, 강소 교육출판사, 1995년.
(청)이래장 등, 『칙사자운서원지』, 조소생 인용, 설정홍 주필, 중국 역대 서원지 6책, 남경, 강소교육출판사, 1995년.
(도광)『황피현지고』, 민국 12년 연판본.
자오얼쑨 등, 『청사고』, 베이징, 중화서국, 1977년.

2. 현대 저작

- 성량서, 『중국서원제도』, 베이징:중화서국,1934년.
유위동, 고상강, 『하남서원교육사』, 정주, 중주고적출판사, 1991년.
이국균 편집장, 『중국 서원사』, 창사, 호남교육출판사, 1994년.

판푸은, 쉬홍싱, 『중국 이학 2권』, 상하이, 동방출판센터, 2002년.

덩홍보, 『중국서원사(증정판)』, 우한, 우한대학출판사, 2012년.

샤오융밍, 『유학·서원·사회:사회문화사 관점에서의 서원』, 베이징:상무인서관2018년.

3. 정기 간행물 논문

샤오융밍, 탕야양, 「서원 제사의 교육 및 사회교화 기능」, 『호남대학교학보(사회과학판)』 2005년3호.

동지하, 「서원의 제사와 그 교육기능의 예비 연구」, 『대학교육과학』 2006년 제4호.

장젠궈, 「의식승배와 문화전파-고대서원 제사의 사회공간」, 『현대철학』 2006년 3호.

샤오융밍, 다이슈홍, 「서원제사와 시대학술의 변천」, 『동남학술』 2011년 6호.

왕성진, 「중국 고대 서원 제사의 기호 표징」, 『중외문화와 문론』 2015년 3호.

장우경, 「명청시대 귀주서원의 제사」, 『교육문화포럼』 2016년 1호.

좌위, 왕홍, 「고대서원 제사의 발전적 변천과 교육의 의미」, 『교육연구와 실험』 2016년 제5기.

왕승군, 「명청시대 서남서원 제사와 유학전파」, 『귀주사회과학』 2016년 9호.

리원리, 「명청시대 산시서원의 제사와 그 사회적 의미」, 『서북대학교 학보(철학사회과학판)』 2018년 6호.

4. 학위논문

왕홍서, 「하남서원 지리연구」, 산시사범대학 석사논문, 2000.

위샤오홍, 「청대 하남서원 제사에 관한 연구」, 구이저우대 석사논문, 2016.

범리연, 「명청시대 강서서원 제사행사와 그 시사점 연구」, 강서사범대학교 석사논문, 2019.

Abstract

Research on sacrifices in Henan province academ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

—Taking Henan and Kaifeng Prefecture as examples

LIU, MING MING*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in Ming and Qing Dynasties played an important position in the development history of Henan Province Academ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had a large number of famous academies and detailed sacrificial contents. Sacrifice is an important activity of academies. The sacrificial objects of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included Confucius and Mencius, Cheng Hao, Cheng Yi, Zhu Xi, Local famous officials, Wenchang, Kui star and so on. The academies of two prefectures had the characteristics of detailed and dense sacrificial rules and institutionalization of sacrificial ceremony. The development of academy sacrificial activities needed solid support of sacrificial funds, among which the income of school fields had a great impact on the sacrificial activities. Local officials in the two prefectures also actively supported the academy sacrificial activities through donations. The academies of two prefectures sacrifice activities not only educated students to study morality and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the local officials to support the academy sacrifice activities, but also actively inherited the Confucian tradition and served the local governance, and realized the

* Doctor of Yuelu Academy of Hunan University / 2259813662@qq.com

promoting role of the Confucian tradition on the governance.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were important prefectural units in Henan Province in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t that time, many representative academies in Henan Province were located in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By analyzing the sacrificial activities of Henan Prefecture and Kaifeng Prefecture, the sacrificial contents of Henan Province Academies in Ming and Qing Dynasties were better revealed.

Key word : Henan Prefecture, Kaifeng Prefecture, sacrificial objects, sacrificial rules, sacrificial ceremonies, sacrificial funds

논문 투고일: 2022. 05. 31 심사 완료일: 2022. 06. 16 게재 확정일: 2022. 06. 20

죽음을 통한 젊은 유학자의 성장

이 우 진*

- I. 들어가는 말
- II. 상실의 문화: 죽음이 죽지 않은 문화
- III. 상실의 이해: 유가(儒家)의 생사관(生死觀)
- IV. 상실의 의례: 상례(喪禮)와 애도과업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하외일록』이라는 유학자의 성장일기를 통해 조선시대 양반 가의 젊은 유학자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성장일기의 가장 중심에 자리하는 내용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였다. 류의목은 성장하면서 조선을 강타한 전염병에 따른 수많은 이들의 사망을 목도하였으며,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친과 사별해야 했다. 류의목의 이러한 경험은 '트라우마(Trauma)'가 될 수도 있었는데도, 그는 건강한 유학자로 성장하였다. 이 글은 류의목이 그토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다.

먼저, 류의목이 '죽음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에서 성장했음을 밝혀냈다. 우리의 현 시대가 '죽음이 금지되고 추방된 시대'라면 류의목의 시대는 '죽음이 친숙하게 살아있는 시대'였다. 그의 시대는 어린이들과도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린이도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죽음의 의례와 의미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가의 사생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가는 죽음은 언제라도 찾아올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기에, 죽음과 사후 세계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이 차안(此岸)의 현실에서 '인간의 길[人道]'을 나

* 공주교육대학교 / Jeannie@giue.ac.kr

아기는 것이야 말로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유가적 사생관을 학습한 류의목은 아버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들의 죽음과 마주했음에도 비판적이거나 염세적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유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가의 상례와 애도과업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유가의 상례(喪禮)는 상실의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제공해주는 장치였다. 바로 상례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애도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었다. 류의목은 아버지의 상례를 통해 애도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유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류의목, 사생관, 상례, 애도과업, 죽음, 하와일록

I.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아동과 청소년은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양반가는 어떠한 교육과 양육을 통해 건강한 유학자(儒學者)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일까? 다시 말해, 조선시대 양반가문의 아동과 청소년은 어떠한 삶의 노정을 거쳐 유학자로서 자기 주체성과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이 글은 『하와일록(河窩日錄)』에 주목한다. 이 책은 조선후기 안동 하회의 양반가에서 성장한 류의목(柳懿睦, 1785-1833)이 12-18세(1796-1802)까지 아동·청소년 시기에 섬세하게 기록했던 일기이다. 저자 류의목은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의 형(兄)으로 학덕이 높았던 류운몽(柳雲龍, 1539-1601)의 9대손이었고, 당시 하회마을의 문장(門長)이었던 류일춘(柳一春, 1724-1810)의 손자이었다. 바로 『하와일록』은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젊은 유학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와일록』의 저자 류의목은 22세 되던 해(1806)에 자신의 어린 시절 일

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서문(序文)을 적었다.

일기란 무엇인가? 날마다 한 것을 반드시 서책에 기록하였다가 이를 살펴보고 반성하며 바로잡는 바탕으로 삼고자 할 따름이다. …… 사양하고 받아들이며(辭受) 움직이고 멈추는(動靜) 예법과, 언론(言論)과 시비(是非)에 있어서는 더욱 상세히 기록하지 않을 수 없으니 거의 다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혹시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바로잡는 도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었다.¹⁾

류의목이 언급대로, 일기는 자신의 하루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기록이다. 그는 이 기록들을 건강한 인간으로서 ‘성장’의 위한 바탕으로 삼았다. 더군다나 류의목은 『하와일록』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상의 예법들과 올바른 시비판단의 사례들을 기록하여, 언젠가 자신에게 올바른 유학자로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에서 우리는 『하와일록』은 류의목이 모범적인 선비가 되기를 꿈꾸고 그 노정을 향해 성실히 나아간 ‘젊은 유학자로서의 성장일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하와일록』이란 독서 과정, 과거 준비, 집안의 대소사, 서원의 이견 문제, 서족(庶族)과 서학(西學) 관련 문제, 남인(南人)의 정치적 위기 등과 같은 사건·사고들을 기록하였다.²⁾ 놀랍게도 그 성장일기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는

1) 「日記」〈第一〉, “日記者何, 日之所爲, 必于書冊, 以備觀省而資改耳. …… 辭受動靜之祭, 言論是非之間, 尤不得不詳記, 而該錄之庶, 或有補於治心勅躬之道之萬一之歲, 在柔兆貫提格.” 이 원문에 대한 번역은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들: 하와일록』, 김정민·박세욱·김명자 외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44-45쪽”을 참조하였다. 이후 『하와일록』의 인용문은 이 번역서를 기준으로 해석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정하였다. 이후 쪽수는 일일이 표기하지 않고, 간략히 연도와 일자만 나타내도록 하겠다. 이 『하와일록』의 원문과 이미지는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 DB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iary.ugyo.net/item?cate=book#node?itemId=DY&cate=book&depth=2&upPath=Z&datald=ACKS_DY_00500803)

내용은 바로 ‘죽음’이었다. 류의목은 친인척과 마을 사람들, 영남 남인의 영수였던 채제공(蔡濟恭, 1720-1799)과 국부(國父)인 정조(正祖, 1752-1800)의 죽음은 물론이고, 1798~1799년 조선을 강타한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죽음의 기록 가운데 청소년기의 류의목에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그가 15세(1799)에 마주한 부친 류선조(柳善祚, 1757-1799)의 죽음이었을 것이다.

어떠한 청소년이 전염병의 창궐에 따른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부친의 죽음을 만나게 된다면 어떠할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어린 시절의 부모의 사망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경험으로서, 남은 삶 전체를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만들 위험이 있는 진짜 ‘트라우마(Trauma)’로 자리할 수 있다.³⁾ 부모의 때 이른 죽음은 단기적으로 자녀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정신적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⁴⁾ 놀랍게도 류의목은 부친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으로 허덕이던 끔찍한 조선의 상황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부친과 사별하고 두 해가 되던 해에 류의목은 그 상실의 슬픔을 완벽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명(命)이 있음을 알기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군자(君子)의 낙천지명(樂天知命)을 노래할 만큼 건강한 유자로서 성장하였다.⁵⁾ 그는 집안의 상제례(喪祭禮)에 참여하고, 과거를 준비하며, 관례를 치르고, 혼인을 하는 등 자

2) 『하와일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김정민, 『『하와일록』 해제』,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들: 하와일록』, 김정민·박세옥·김명자 외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15, 8-41쪽” 참조할 것.

3) Patrick Ben Soussan & Isabelle Gravillon,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번역,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북랩, 2017, 187쪽.

4) 권석만,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학지사, 2019, 584쪽.

5) [1801년 2월 15일], “朝倚牆獨坐, 孤露之感, 自爾凄切, 因念君子用工, 必以樂天爲貴.”

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비록 과거에는 합격하지 못하여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했지만, 이 또한 망학(妄學)인 과거 공부보다는 도학(道學)을 실천하는 올바른 처사(處士)로서 살아가고자 한 그의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⁶⁾ 이러한 류의목의 생애는 그가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대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갔음을 말해준다.

사실 어떠한 개인의 죽음은 개인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다. 개인의 죽음은 그가 생전에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든지 간에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 개인의 죽음은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다시 말해 산 자들에게 삶은 다시는 이전과 결단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⁷⁾ 하지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미 떠나가 버린 이에게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떠난 이는 떠나보내고 살아남은 이는 살아가야 한다. 즉 공동체는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 물론 공동체는 살아남은 이들에게 사별에 의한 상처를 아물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미 떠나버린 이가 수행했던 사회적 역할을 살아남은 이들에게 새롭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류의목이 부친과 사별한 뒤에 건강한 정신으로 문중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사실은, 그 집안 전체가 이 사별의 아픔을 건강하게 극복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점에서 『허외일록』은 풍산류씨(豊山柳氏) 겸암파(謙巖派) 류의목 집안의 위기와 극복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지점에 주목하여 ‘죽음을 통한 젊은 유학자 류의목의 성장’을 그려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전개방식은 『허외일록』의 전 기록을 따라가면서 류의목과 그의 가족이 어떤 식으로 애도과업(tasks of mourning)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탐색해 보도록 하겠다. 류의목이 건강한 유학자로 성

6) 『守軒先生文集』 卷3, 「南厓書塾記」 “只爲親年漸高, 不自己妄學兒曹一例. 轉到奔忙於聲利科臼, 今且幾十年而無成. 然後漸覺向來枉過了, 林中日月, 爲真可惜.”

7) Mike Parker Pearson, 이희준 옮김,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354쪽.

장했다는 것은 그가 부친의 상실(喪失)에 따른 비탄(悲嘆)의 상처를 적절한 애도(哀悼)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극복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애도(mourning)와 비탄(Grief)은 구분되어야 한다. 비탄은 상실한 이후 유족이 겪게 되는 사고·감정·행동인 반면, 애도는 유족이 자기가 마주한 상실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⁸⁾ 바로 애도과정은 소중한 이들을 먼저 보내고 살아 남아있는 자들에게 상실이 가져다 준 비탄을 넘어서 마음의 평정의 회복과 함께 성장으로 이끄는 노정이다. 그 점에서 이 글은 또한 상례(喪禮) 절차를 워든(Worden)이 제시한 다음의 '4단계 애도과업'과 유비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기. → (II) 비탄의 고통을 처리하기. → (III) 고인이 부재한 환경에 적응하기. → (IV) 고인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기.⁹⁾

하지만 이 글은 위와 같은 애도 상담 치료(Grief Counseling Therapy)의 입장으로 만 류의목의 성장을 그려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글은 '하회 마을의 양반가에서 성장한 젊은 유학자'를 그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먼저 조선의 유자들이 시행했던 상례(喪禮) 절차와 그 의미를 통과의례(rite of passage)의 입장에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이는 상례가 어떤 개인의 죽음으로 발생한 균열을 메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하는 '죽음에 대한 유가의 문화적 장치'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덧붙여서 '죽음 그 자체보다 삶에 대해서 묻고, 귀신보다는 사람을 섬기기를 높게 여기며, 내세(來世)의 피안(彼岸)보다 현세(現世)의 차안(此岸)을 중시하는 특징으로 하는 유가의 생사관'¹⁰⁾에 대해서도 논의해

8) J. William Worden(2018),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5th editi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38, p.42.

9) J. William Worden(2018), *ibid.*, pp.43-52.

10) 何顯明, 현채련·리길산 옮김,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예문서

보도록 하겠다. 또한 이 글은 『하와일록』을 추적해 가면서 ‘죽음이 금기가 된 근대’와 달리 ‘아이들에게마저도 죽음을 격리시키지 않고 열어놓는 전통시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곧 죽음을 추방시키고 죽음을 낫설게 만든 근대적 방식보다 죽음에 마주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어찌면 인간의 건강한 성장에 있어 더 유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II. 상실의 문화: 죽음이 죽지 않은 문화

부친상(父親喪)으로 ‘의목(懿睦)’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까지 류의목의 이름은 팽길(彭吉)이었다.¹¹⁾ 아버지와 친척 어른들은 아직 ‘팽길 어린이’라는 의미에서 ‘팽아(彭兒)’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¹²⁾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류의목이 아닌 ‘팽아(彭兒)’라는 호칭을 쓰고자 한다. 이 글은 『하와일록』을 ‘죽음을 통한 류의목의 성장일기’로서 바라보기에, ‘팽아’라는 호칭은 류의목이 부친상으로 ‘의목’이라는 정식 이름을 받기 전까지 아직 ‘어린이’ 단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이다.

팽아의 12세(1796) 일기는 1월부터 2월 25일까지만 기록되어 있다. 일기는 하루의 특별한 기록이다. 팽아가 12살 일기에는 매일 매일의 날씨 상황과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동선(動線)과 함께 친인척들과 동네 어른스들의 왕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할아버지 류의춘이 병산서원(屏山書院)에 왕래하고 조부를 따라 겸암정사(謙巖精舍)에 가서 공부한 사항.¹³⁾ 아버지

원, 199923쪽.

11) 의목이라는 이름은 받은 것은 부친상에서 제주(題主)할 때이다. [01권 1799년 11월 10일, “題主時揚名曰懿睦”]; 그리고 ‘팽길’이 그의 아명이었음은 1801년의 일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801년 10월 22일], “遂還仁同兄主生長峯下, 顧余言曰, 以彭吉之而不學無識, 則人必掩目而過之矣.”

12) [1798년 11월 26일], “大父曰, 彭兒讀周誥, 不能成誦, 甚恠事也. 從叔曰, 莫非運也, 彭兒道兒俱以將來之器許之.”

류선조의 화천서원(花川書院) 왕래와 안동부 향회(鄕會) 참석 등 여러 이동사항,¹⁴⁾ 친척이나 마을 어른들이 여러 사안으로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사항이 기록되었다.¹⁵⁾ 그리고 특징적인 것으로서 막내 동생 류진현(柳進鉉)이 태어난 기록이 있다.¹⁶⁾ 이처럼 팽아의 12세 일기는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면모는 다음 해 13세(1797) 일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조부의 병산서원과 겸암정사 왕래 및 옥연서당(玉淵書堂) 행차,¹⁷⁾ 부친의 병환과 치료,¹⁸⁾ 친인척과 동네 어른들의 방문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 첫째 동생 류진택(柳進澤)이 학업을 시작한 것,¹⁹⁾ 사서 보낸 소가 암송 아지를 낳았다는 기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²⁰⁾

하지만 팽아의 12-13세의 일기에는 이러한 기록 이외에 또 하나의 주제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죽음과 관련된 기록들이었다.

○ 가암(佳巖) 할아버지가 재주가 있는 아들을 잃었다. 애석함을 어찌 감당할

13) [1796년 1월 3일, “大父行次屏山.”; [1796년 1월 8일, “大父還自屏山.”

14) [1796년 1월 5일, “大人行次花川.”; [1796년 1월 6일, “大人自花川還.”; [1796년 1월 26일, “大人赴府中鄕會.”; [1796년 1월 8일, “大人朝往磨厓.”; [1796년 1월 29일, “大人自府中還, 卽渡花川.”

15) [1796년 1월 2일, “一村諸父兄, 終日團話於家.”; [1796년 1월 4일, “諸父兄竟夕來語.”; [1796년 1월 6일, “諸父兄半夜會話.”; [1796년 1월 13일, “鳴湖金進士戚叔.”; [1796년 1월 14일, “後谷叔主謁大父.”

16) [1796년 2월 24일, “弟龍壽生.”

17) [1797년 1월 30일, “大父行次屏山.”; [1797년 2월 1일, “大父還自屏山.”; [1797년 3월 2일, “大父始留謙舍.”; [1797년 3월 8일, “大父復往精舍.”; [1797년 3월 21일, “大父自玉淵還.”

18) [1797년 1월 2일, “大人病臥.”; [1797년 1월 5일, “大人症勢愈苦. 朝夕飲食亦爲之減, 筭也李醫【經高】來執脈曰, 此兩源委不少, 可服藥.”; [1797년 1월 6일, “用藥一帖.”; [1797년 1월 7일, “又用一帖.”

19) [1797년 1월 23일, “壽吉始入學.”

20) [1797년 1월 17일, “英陽柳後三, 以青銅十五兩買牛牽送, 纜入門, 卽生牝犢, 奇哉.”

수 있겠는가²¹⁾

- 새벽에 큰아버지의 기제사(忌祭祀)에 참석했다.²²⁾
- 명절 차례를 동쪽 협실(夾室)에서 거행하였다. 서쪽 협실이 낡았기 때문이다. 이미 어제 저녁에 동쪽 협실로 신주(神主)를 옮겨 모셨다.²³⁾
- 구담(九潭) 할아버지가 별세(別世)하셨다.²⁴⁾
- 아버지가 성묘를 하기 위해 안동 풍산읍에 있는 건지동(乾池洞)에 갔다.²⁵⁾
- 초저녁에 외종조 할머니 조씨의 부음이 왔다. 통곡하였다.²⁶⁾

여기에는 사람들이 사망했음을 알리는 죽음을 직접 나타내는 기록이 있다. 더불어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에 대한 기록, 죽은 이의 위패(位牌)를 모신 가묘(家廟)의 협실에 관한 기록, 돌아가신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는 성묘에 관한 기록과 같이 죽음과 연관되는 기록들이다. 곧 12-13세의 어린이에게 죽음은 이토록 중요하고도 친근(親近)한 대상이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에드가 모랭(Edgar Morin)의 말대로, 죽음은 인간의 세계, 존재, 정신, 과거, 미래 모두에 자리하는 운명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죽음을 지나치게 분리시키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며, 죽음과 결별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²⁷⁾ 곧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중요하고도 친근한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현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국가적인 인물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음을 추방’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²⁸⁾ 우리는 이른바 죽음이 금지된 시대, 죽음이 추

21) [1796년 1월 27일, “佳巖大父哭才子, 可勝惜哉.”

22) [1796년 1월 29일, “晨參伯父忌祀.”

23) [1797년 1월 1일, “行時祀於東夾室。(以西夾額圯, 已於昨暮, 移安東夾.)”

24) [1797년 1월 10일, “九潭大父別世, 葛田安丈.”

25) [1797년 2월 10일, “大人爲省墓往乾池洞.”

26) [1797년 3월 8일, “外從祖祖母趙氏訃音至, 慟哭.”

27) Edgar Morin, 김명숙 옮김, 『인간과 죽음』, 東文選, 2000, 390쪽.

28) Philippe Ariès, 고선일 옮김, 『죽음 앞의 인간』, 새물결, 2004, 1011쪽.

방된 시대에 살고 있다. 진정 ‘우리가 볼 수 없을 이 죽음을 숨기시오’라는 말로 표현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²⁹⁾ 근대에 이르러 죽음은 공개의 대상이 아닌 은폐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이 지적하고 있듯이, 근대성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의 변화를 가져와 ‘죽음을 사망’시켰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근대성은 죽음을 그 원인인 무수한 질병으로 해체하였다. 필멸성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큰 죽음’을 인간이 싸울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작은 죽음’으로 잘게 조각내어버린 것이었다. 근대 이후의 인간은 죽음의 원인과 싸우게 되며, 죽음의 문제를 병원에서 해결하게 된다. 바로 근대성은 ‘죽음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죽음이 사라졌기에 인간은 불멸을 추구하지 않고, 순간의 행복만을 추구한다. 죽음은 질병이라는 작은 죽음에 허망하게 쓰러진 모습인 것이다.³⁰⁾ 이제 죽음을 맞이한 시신들은 은밀하게 멀리 보내진다. 병원이라는 그 작은 죽음을 이겨내고자 했던 장소에서 마지막 살균처리가 된 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최소한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바로 죽음은 숨겨지고 부정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고만 것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죽음은 더더욱 거부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죽음이 가정에서 멀어지게 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들과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죽음을 금기시하고 죽음을 어린이들과 격리하는 일은 그들의 성장에 있어 심각한 해악을 일으킨다. 이는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심만 심어줄 뿐이다.³¹⁾ 어린이들에게 죽음을 금기시함으로써 죽음에 맞설 준비를 조금도 시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죽음의 문제를 금기시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죽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지니게 된다. 때문에 애도 전문가인 얼 그로만(Earl A. Grollman)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십계명 가운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죽음이라는 단어를

29) Patrick Ben Soussan & Isabelle Gravillon(2017), 앞의 책, 23쪽.

30) 이창익,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 인간사랑, 2020, 486~487쪽.

31) Elisabeth Kübler-Ross, 이주혜 옮김, 『죽음 그리고 성장』, 이레, 2010, 38쪽.

금지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었다.³²⁾ 어린이가 죽음에 대한 접촉이 금지 시 된다면 언젠가 그가 소중한 이가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우 더 더욱 그 죽음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게 된다. 심지어 죽음에 대한 어린이를 격리 시키면, 언젠가 어린이가 자신의 소중한 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³³⁾ 때문에 어린이에게 죽음에 대한 정보를 솔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를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 참여시키고 그 의례의 여러 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으며 언젠가 찾아올 본인의 죽음도 좀 더 수월하게 맞을 수 있는 것이다.³⁴⁾ 진정 “죽음을 재앙도 파괴도 아니며 가장 건설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문화와 삶의 요소”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³⁵⁾

앞서 보았듯이, 팽아의 12~13세 일기에는 가암 할아버지의 아들이 죽었다는 기록, 구담 할아버지와 외종조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팽아의 일기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의 조부든 부친이든 간에 죽음에 관한 모종의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또한 기제사에 참여하는 등 팽아가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 참여하였으며, 짐작컨대 그 참여과정에서 그 의례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곧 ‘죽음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 다시 말해 ‘죽음이 죽지 않는 문화’에서 팽아는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팽아가 가장 가까운 혈육인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건강한 유자로 자라날 수 있던 문화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32) Earl A. Grollman, 정경숙·신종섭 옮김, 『아이와 함께 나누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너북스, 2008.

33) Linda Goldman, 윤득형 옮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죽음이야기』, 2013, 104~105쪽.

34) Patrick Ben Soussan & Isabelle Gravillon, 앞의 책, 2017, 140쪽.

35) Elisabeth Kübler-Ross, 앞의 책, 2010, 33쪽.

Ⅲ. 상실의 이해: 유가(儒家)의 생사관(生死觀)

팽이는 14세가 되던 해의 첫날부터 걱정이 태산이었다. 부친의 병세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지난해부터 앓았던 병으로 인해 몸져누워 있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계시니, 팽이의 근심되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³⁶⁾ 감사하게도 많은 이들이 부친의 병환으로 정성스레 문병을 왔다.³⁷⁾ 하지만 그들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병세는 두통과 안질(眼疾)로 이어지는 등 더욱 심해져서, 팽이는 너무도 괴로웠다.³⁸⁾ 이에 막내 작은아버지는 아버지의 약 처방을 위해 동분서주하였고,³⁹⁾ 아버지는 막내 작은아버지가 구해 온 약을 복용하였다.⁴⁰⁾ 아버지가 약을 열 첩이나 복용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팽이는 마음이 아팠다.⁴¹⁾ 부친의 병환과 관계없이 봄은 어느 때와 같이 돌아왔다. 바람이 따뜻해져 마을의 아이들은 풀피리를 불고 있었고 들간의 소들은 파란 봄풀을 밟고 있었다.⁴²⁾ 가끔씩 이상기후가 나타났기도 했지만,⁴³⁾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36) [1798년 1월 1일], “大人自去年, 已有羸瘁疾, 委臥數朔, 不能巾櫛 倏忽之際, 歲色已換 種種貢慮, 無任下誠”

37) [1798년 1월 2일], “載陽載陰, 虎坪叔袖青梨一枚. 獻大人曰, 病患中無物可奉, 適有此果, 或望有補於口味. 其誠款不易也.”; [1798년 1월 3일], “注書叔來問病.”; [1798년 1월 4일], “葛田安丈【愿】來問病, 食後詣問.”; [1798년 1월 8일], “枝谷權戚叔【彪】來問病.”; [1798년 2월 26일], “金丈【世奎】來問病.”; [1798년 3월 3일], “夕星州三從叔來問病.”; [1798년 3월 6일], “衡湖比安族長來問病.”; [1798년 3월 20일], “星州客來問病.”

38) [1798년 1월 9일], “大人患候一倍添苦, 憫何可言.”; [1798년 1월 11일], “大人又以頭齷作苦, 憫憫.”; [1798년 1월 16일], “大人又添眼疾, 色色症青, 良苦良苦.”

39) [1798년 1월 17일], “季父以問藥事向蟻谷.”; [1798년 1월 20일], “季父齎藥而還.”

40) [1798년 1월 24일], “大人始服藥.”

41) [1798년 2월 4일], “大人已服藥十帖, … 切悶.”

42) [1798년 2월 19일], “風和日暖, 有里兒吹園蔥野牛踏春[青][之][回].”

43) [1798년 2월 24일], “晨霜降. 噫! 方當百草敷榮之時, 氣候又如此, 可恠也.”; [1798년 2월 25일], “午前大雪漫山, 午後細雨落地.”; [1798년 3월 2일], “霜降地凍.”

거스를 수는 없었다. 봄을 알리는 제비가 온 것이었다.⁴⁴⁾

인간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생(生)이 있으면 사(死)도 있는 법이다. 너무도 슬프지만 순환의 법칙에 따라 이 세계에 온 사람들은 언젠가 이 세계를 떠날 수밖에 없다. 애통하게도 울곡(栗谷) 종숙모(宗叔母)가 별세하였고,⁴⁵⁾ 참혹하게도 공성(功城) 할머니가 장녀(長女)를 잃었으며,⁴⁶⁾ 마을의 중 덕화(德花)도 죽고 강선(姜先)이도 죽었다.⁴⁷⁾ 또 임하(臨河)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⁴⁸⁾ 늑곡(勒谷)의 아저씨도 별세하셨다.⁴⁹⁾ 살아남은 이들, 특히 고인과 가까운 이들은 떠난 이들과의 작별의례를 수행해야 했다. 종숙모를 상여에 태워 묘지로 보내드리고, 장사지낸 뒤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다시 모신 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맡았다.⁵⁰⁾

아버지의 병환은 더욱 더 심해져 음식만 대하면 구역질을 하였으며 심지어 피를 토할 지경이 되자 의원까지 모셔왔다.⁵¹⁾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직접 이름난 의원이 있는 의곡(蟻谷)까지 다녀왔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피를 토하니 팽이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다.⁵²⁾ 이에 막내 아버지는 호남에 있는 의원을 초빙하여 자음강화탕(滋陰降火湯)을 처방을 받았다.⁵³⁾ 다행

44) [1798년 3월 3일], “玄鳥至.”

45) [1798년 1월 10일], “栗谷宗叔母別世, 慟哭慟哭.”

46) [1798년 1월 13일], “功城大母哭長女, 慘矣.”

47) [1798년 2월 25일], “村奴德花物故.”

48) [1798년 3월 9일], “臨河大母別世.”

49) [1798년 3월 20일], “勒谷叔別世, 慘不可言.”

50) [1798년 2월 28일], “宗叔母喪, 發向陵岡.”; [1798년 2월 29일], “宗家返魂.”; [1798년 3월 7일], “晨參曾王考忌祀.”; [1798년 7월 11일], “勒谷叔喪, 發向月峽.”

51) [1798년 3월 11일], “大人自數日間飲食凡節大減於前, 憫不可言.”; [1798년 3월 12일], “朝大人嘔血可數升, 小子煩悶, 何可形言, 筈池李醫來訪.”; [1798년 4월 15일], “大人對食嘔逆之症, 去而愈甚, 憫何盡言.”;

52) [1798년 9월 19일], “大人爲見醫, 行次蟻谷.”; [1798년 9월 27일], “大人還自蟻谷. 【大人患候自數月間, 可謂快去, 近日來又事前症, 憫憫.】”; [01권 1798년 10월 4일], “大人又吐血, 煎立可言.”

히도 이 처방에 따르니 아버지가 입맛도 조금 회복되었고 기침도 줄어들었다.⁵⁴⁾ 하지만 11월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 아버지의 병환이 다시 심해져 팽이는 너무도 걱정되었다.⁵⁵⁾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팽이의 온 가족이 아팠다. ‘북림(北林)의 오래된 나무를 베 것이 화근(禍根)’이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연두가 마을에 유행하였고,⁵⁶⁾ 막내 동생인 류진현이 천연두에 걸려 고생하였다.⁵⁷⁾ 11월에는 어머니가 과로와 영양실조로 병에 걸렸고,⁵⁸⁾ 할아버지는 실음(失音) 증세로 고생하였다.⁵⁹⁾

그해 겨울이 다가오자 가족의 병환으로 마음은 너무도 괴로웠지만,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14세 팽이에게는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바로 배움의 길로서, ‘유교적 지식의 내면화 과정’이었다. 팽이는 병산서원에 가서 『소학』을 강독하는 시험을 보고, ‘통(通)’을 받아 부장원(副壯元)까지 하였다. 이 곳에서 그가 강독한 『소학』의 문장은 「가언(嘉言)의 ‘진충숙공왈장(陳忠肅公曰章)’이었다.⁶⁰⁾ 이 문장은 ‘어릴 때 선비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격언이

53) [1798년 10월 10일], “湖南醫李柱天見過。【季父來時見請故也。】”; [1798년 10월 11일], “早朝，大人使李醫執脈。既訖，醫曰，義量大矣。平生勞身焦思，不避風雪，心有所向，必決於事，故致此病無他。陽太過而陰不足耳。遂書滋陰降火湯曰，服此必見神效。後欲見我，必訪問于長水長溪面云云。”

54) [1798년 10월 17일], “夕蟻谷姜醫書，亦曰滋陰益氣湯，季父欲從長水醫所劑，父主亦然之。”; [1798년 10월 24일], “大人始服藥”; [1798년 11월 11일], “大人服藥後，口味稍回，咳嗽亦減，不勝伏賀。”

55) [1798년 11월 28일], “忽大寒，大人患候每當日寒，輒有害事，可悶。”

56) [1798년 3월 30일], “洞內以時氣爲憂。爭謂北林古木斬伐所崇，爲文以祭之。”

57) [1798년 5월 13일], “龍壽痘發表。”; [1798년 5월 16일], “龍壽潰濃。”; [1798년 5월 17일], “龍壽痘靑頰順，多幸。”; [1798년 5월 25일], “以龍壽善痘出濁慶。”; [1798년 6월 7일], “龍壽以頰交出清慶。”

58) [1798년 11월 3일], “母氏偶得疾甚苦，悶悶。”; [1798년 11월 4일], “母氏患候加倍，憫憫。”; [1798년 11월 5일], “問母氏症靑於李醫【經高】，醫曰，此由勞身失攝，而然勿爲深慮云云。”

59) [1798년 11월 23일], “大父失音之症，去益沉痼，悶悶。”; [1798년 11월 24일], “食後以五味子沈白沸湯獻大父，爲失音有助也。”; [1798년 11월 26일], “大父失音症頓減伏賀。”

었다. 곧 성현과 하우(下愚)가 하는 일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⁶¹⁾ 바로 팽아에게는 유학에서 인정하는 시비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내면화가 필요하였다. 더불어 『시경(詩經)』과 「이소(離騷)」와 같은 시문(詩文)을 읽고 또한 작시(作詩)하는 능력이 요청되었다.⁶²⁾ 또한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유가 경전을 학습함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⁶³⁾ 결론적으로 인생의 봄에 팽아는 유자로서의 살아갈 자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서 시(詩)에 대한 교육은 팽아의 문중 선조이자 풍산 류씨가 대유(大儒)인 류성룡이 지적하고 있듯이, 유가의 종주인 공자에게서부터 유학자의 자질 양성에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공자는 “시에서 고무되고,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할 수 없으며, 시는 의지를 일으키고, 정치의 득실을 볼 수 있으며, 화합하여 어울릴 수 있고, 멀리로는 임금을 섬길 수 있고, 가깝게는 아버이를 섬길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⁶⁴⁾

하지만 류성룡은 팽아가 공부했던 굴원(屈原)의 시 「이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류성룡은 주희(朱熹)의 말에 근거하여 ‘굴원의 잘못은 지나친 충(忠)에 있다’면서 그가 삶을 버리고 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60) [1798년 1월 7일], “出向屏山, 以應講次也, 食後設講, … 山長【新陽】在南壁下, 慶山大父以都訓長, 進士大父以面訓長, 皆依西壁而坐, 整襟危坐, 促令儒生入讀小學, 於是余入參, 講陳忠肅公曰章通, …… 夕頒賞, 余以副壯參焉.”

61) 『小學』 「嘉言」 〈廣立教〉 “陳忠肅公曰, 幼學之士, 先要分別人品之上下, 何者是聖賢所爲之事, 何者是下愚所爲之事, 向善背惡, 去彼取此, 此幼學所當先也.”

62) [1798년 3월 13일], “讀詩陳風”; [1798년 4월 23일], “讀離騷”; [1798년 5월 2일], “始出書堂, 作時文.”

63) [1798년 11월 12일], “見余讀共範謂曰, 此篇玉食卽玉鼎之食, 若以玉食爲稻食, 則其時之民, 豈盡不食稻, 八庖徵, 雨暘燠寒風時, 皆一吐釋之, 然近聞, 自上亦致疑於此, 乃曰, 雨【卜】暘【果】燠【果】寒【果】風【果】曰時【又】. 如此讀之云, 甚爲奇警.”; [1798년 11월 26일], “大父曰, 彭須讀周誥, 不能成誦, 甚恠事也, 從叔曰, 莫非運也, 彭須道兒俱以將來之器許之, 今不可望矣, 彭須則讀書自謂莫己若也, 雖有疑晦處, 不問於他人, 至於如我者, 又視之以眼下, 必不能有爲矣.”

64) 『西厓集』 卷15, 「詩教說」 “孔子云興於詩, 又曰, 不學詩, 無以言, 又曰, 詩,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 遠之事君, 邇之事父, 聖人之重詩教也如此.”

버린 일은 너무도 과한 일로서 평가하였다.⁶⁵⁾ 흥미롭게도 주희든 류성룡이든 간에 굴원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굴원의 죽음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과 같은 문제들은 다루지 않는다. ‘죽음으로 인한 자아의 소멸’ 등과 같은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논하지 않는 것이다. 주희도 이미 유가의 경전에서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음을 시인한 바 있다.

육경(六經)은 성현(聖賢)의 행사(行事)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구비하였으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해서는 기술한 것이 없다. 대개 삶과 죽음을 일상적인 일(常事)로 여겼기 때문이다. 단지 『논어(論語)』와 『예기(禮記)』의 「단궁(檀弓)」에서만 증자가 질병으로 앓아누웠을 때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을 보전하고 예(禮)를 삼가는 것을 말하고 학자가 지켜야 할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여기에서 성현의 학문을 충분히 볼 수 있고, 성현의 학문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여기에 있으니, 이치를 살피지 않고 한갓 앓은 채로 죽어 육신을 떠나는 것과 같은 기이한 것을 일삼는 불가와는 같지 않다. 그러나 배우는 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죽고 사는 일은 역시 큰 문제이다. 평소에 분명하게 선을 밝히고 도를 독실하게 믿고 깊이 침잠하여 두텁게 함양하며 힘써 실천함을 끊임없이 해나가지 않는다면, 어찌 또한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이르러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는가?⁶⁶⁾

여기서 주희가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삶을 살아가는 성현의 태도’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죽음에 집중하기 보다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노정에 집중해야 한다. “태어남이 있

65) 『西厓集』卷15, 「詩教說」 “若屈子離騷 九歌 九章等篇, 亦詩之遺意, 而至於捐生赴淵則甚矣. … 故朱子謂屈子之過, 過於忠.”

66) 『朱子大全』卷81 「跋鄭景元簡」 “六經記載聖賢之行事備矣, 而於死生之際無述焉, 蓋以是爲常事也. 獨論語檀弓記曾子寢疾時事爲詳, 而其言不過保身謹禮, 與語學者以持守之方而已. 於是足以見聖賢之學, 其所貴重乃在於此, 非若浮屠氏之不察於理, 而徒以坐亡立脫爲奇也. 然自學者言之, 則死生亦大矣, 非其平日見善明, 信道篤, 深習厚養, 力行而無間, 夫亦孰能至此而不亂哉?”

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다.”⁶⁷⁾ 그런데도 “불가와 도가는 인간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데도 끝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⁶⁸⁾ 주희가 보기에, 그들은 죽음에 집중하여 삶을 허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곧 “건전한 생사관을 확립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생을 일종의 사명으로 여기지도 않으며, 다만 사후의 아름다운 세계로 도피하려고만 하는 무책임한 태도”⁶⁹⁾에 대해 주희는 비판하는 것이었다.”

유가의 아버지 공자는 일찍이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며 귀신을 섬기기보다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고,⁷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나 인륜을 어지럽히는 괴력난신(怪力亂神)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⁷¹⁾ 공자는 피안이나 사후 세계에서 영원한 초월을 추구하지 않았다.⁷²⁾ 사후 세계에 대한 깊은 사색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비판, 죽음 자체에 대하여 자신을 속이거나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등의 태도는 공자나 유가의 시각에서 볼 때 모두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었다.⁷³⁾ 유가는 생사(生死)의 문제는 운명에 따른 것이기에,⁷⁴⁾ 요절하느냐 장수하느냐에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⁷⁵⁾ 이처럼 유가는 “죽음 자체나 죽음에 국한된 형이상학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세속윤리에 대한

67) 『朱子語類』 卷3 「鬼神」 19조목, “此所以有生必有死, 有始必有終也.”

68) 『朱子語類』 卷3 「鬼神」 44조목, “釋道所以自私其身者, 便死時亦只是留其身不得, 終是不甘心.”

69) 傅偉勳, 진병술 옮김,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청계(휴먼월드), 2001, 270쪽.

70) 『論語』 「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71) 『論語』 「述而」, “子不語怪力亂神.”

72) 『論語』 「雍也」, “樊遲問知.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73) 何顯明, 현채린·리길산 옮김, 『죽음 앞에서 고향 공자와 노래한 장자』, 예문서원, 1999, 38쪽.

74) 『論語』 「顏淵」, “子曰, 商聞之矣. 死生有命, 富實在天.”

75) 『孟子』 「盡心(上)」, “天壽不貳, 脩身以俟之, 所以立命也.”

관심과 책임감”에 집중한다.⁷⁶⁾ 그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인간 현세의 고달픈 비극에서 벗어나 내세의 영원한 초월을 추구하는 다른 가르침들과 달리, 유가는 이 현세 안에서 인간 비극의 극복에 온전히 헌신하는 길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 믿었다.⁷⁷⁾ 피안이 내세가 아닌 이 차안의 현실에서 ‘인간의 길(人道)’을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삼불휴(三不朽)’이다.

노(魯)나라 선대부(先大夫)에 장문중(臧文仲)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죽은 뒤에도 그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지 않는 것이라 아마도 이런 것을 말하는 듯하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최상은 ‘덕행(德行)’을 세워 세상에 모범을 전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공업(功業)’을 세워 세상에 법칙을 전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후세에 전할 말을 남겨 교훈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이 3가지는 세월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소멸되지 않으니, 이것을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고 말이다.⁷⁸⁾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남긴 덕(德), 공(功), 언(言)이 현세에 유의미한 가치로서 살아있다면 그는 죽은 자가 아니다. 이처럼 유가는 ‘내세의 영원성’이라는 문제를 ‘현세의 영원성’으로 용해시켜 버린다. 인간의 신

76) 何顯明, 현채련·리길산 옮김, 앞의 책, 1999, 19쪽.

77) 유가의 이러한 현세적 입장에 막스 베버(Max Weber)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유교는 무교양의 야만상태에서의 구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원치 않았다. 德의 보답으로 기대한 것은 현세에서의 長生, 건강 및 富이며, 죽은 다음에는 좋은 평판을 남기는 것이었다. 순수한 그리스인과 같이 윤리를 초월적인 것에 근거하게 하는 어떤 사고방식도, 초현세적 신의 명령과 피조물적인 현세 사이의 어떤 긴장 대립도, 내세의 목표에 대한 어떠한 지향도, 또한 근원적인 뻘에 대한 어떤 관념도 유교도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 이 문장은 “Max Weber, 이상률 옮김, 『유교와 도교』, 문예출판사, 1991, 334쪽.”에서 인용함.

도 유가가 초월적인 사고방식이나 초현세적인 신의 명령 및 내세의 목표에 관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78) 『春秋左氏傳』「襄公」〈24年 春〉, “魯有先大夫曰臧文仲, 既沒, 其言立, 其是之謂乎. 豹聞之, 大上有立德, 其次有立功, 其次有立言, 雖久不廢. 此之謂不朽.”

체적 유한성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아니 무한에 가까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때문에 유가는 ‘생물학적 죽음’보다 ‘가치론적 죽음’이 훨씬 더 무겁고도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⁷⁹⁾는 말이나,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仁)을 해치지 아니하며 자기 몸을 죽여 서라도 인(仁)을 완성한다.”⁸⁰⁾는 말은 생물학적 차원의 죽음에 연연하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영원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인으로 죽기보다는 군자로서 마쳐야 하는 것”⁸¹⁾이 유학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회적 차원의 죽음’이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에 의해 확보된다는 점이다. 유자들이 ‘제례(祭禮)와 사당(祠堂), 문집(文集)과 족보(族譜) 등을 중시했던 것’은 ‘역사적 기억을 통해 영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노력들은 “자칫 개인의 주관적 기억 속에 스러져 버릴 수도 있는 선대의 존재를 영원토록 살아 있게 해 주는 객관적이고 제도적인 형식”이었다.⁸²⁾ 여기에 후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가지 노부유키(加地伸行)가 지적하듯이, 유가는 ‘가문 종교’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다.⁸³⁾ 가문종교의 측면에서 볼 때, 유가에서의 인간존재란 죽음 자체로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간의 개체는 죽은 뒤에 신체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 개체성이 자신의 신체적 분신인 자손의 생명을 통하여 유지·계승’된다고 할 수 있다.⁸⁴⁾ 곧 후손은 혈연

79) 『論語』 「里仁」, “朝聞道 夕死可矣”

80) 『論語』 「衛靈公」,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81) 『禮記』 「檀弓」, “君子曰終, 小人曰死”

82) 최우영, 「신의 의지와 인간의 기억-유교와 기독교의 ‘죽음론’ 소고」, 『동양사회사상』 20, 2009, 18쪽.

83) 加地伸行, 이근우 옮김, 『침묵의 종교, 유교』, 경당, 2002, 106쪽.

84) 가지 노부유키는 유가의 사생관은 “자기라는 개체가 병들거나 노쇠해서 사멸하는 것은 하지만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손의 육체는 존속한다고 하여 육체의 소

이라는 생물학적 연계성을 통해 조상의 영원성을 현실에서 유지·계승하는 존재이다. 더불어 후손은 조상을 기억하는 종교적 주체(agent)이기도 하다.⁸⁵⁾ 팽아가 증조부의 기제사와 할머니의 기제사에 참여하였던 것도,⁸⁶⁾ 조상과 후손과의 혈연적 연속성과 조상의 역사적 기억을 후손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종교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곧 제사는 이미 생명을 다한 조상들을 후손들의 기억과 실천을 통해 불멸의 존재로 위치지우는 종교 의례와 같은 것이다. 유자들이 문집을 남기고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4세가 된 팽아에게 종선조(從先祖) 류진(柳珍, 1582-1635)의 문집을 접하도록 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⁸⁷⁾

유가는 ‘선조와 후손 관계로 이루어진 가문’을 혈연적인 연속성을 담보하는 생물학적 연대체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적 연대체로서 이해한다. 때문에 후손은 자기의 조상이 남긴 역사적 흔적들을 ‘사회적 혹은 공적(公的) 차원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예컨대, 조상이 살아생전에 이루었던 공덕으로 죽은 뒤에 임금에게 아름다운 시호(諡號)를 받는 일은 후손들에게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기억에 희미해져가고 있는 조상의 공덕이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두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을 팽아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성(申城)에서 회문(回文)이 왔는데, 쌍절묘(雙節廟)에 시호를 내리는 일 때 문이었다. 백암(白巖) 선생의 휘(諱)는 제(濟)이고, 아우 농암(籠巖) 선생의 휘(諱)는 주(澍)이다. 모두 조선 초에 순절했는데, 농암이 옷을 부친 일은 곧바로

멀이라는 공포 역시 해결하는데, 자손이 대를 이음으로서 ‘육체[魄]가 영원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加世伸行, 앞의 책, 2002, 78쪽.” 참조 바람.

85) 최우영, 앞의 논문, 2009, 13쪽.

86) [1798년 3월 7일, “晨參曾王考忌祀”]; [1798년 10월 1일, “晨參祖妣忌祀”]

87) [1798년 8월 9일, “觀修巖從先祖文集.” *류진은 류성룡의 셋째 아들이다.

세상에 드러나 소문이 났지만, 백암이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은 묻히고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에 이르러 시랑(侍郞) 이익운(李益運)이 그 일을 아뢰니, 임금의 매우 놀라 찬탄하며, 곧바로 가묘(家廟)에 시호(諡號)를 충개(忠介)로 하사하고, 또 친히 제문을 지어 바다 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대개 세상에 드문 임금의 은전(恩典)이니, 공론(公論)은 백세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⁸⁸⁾

고려 말 김주(金澗)가 중국에 성절사(聖節使)로 파견되어 돌아오던 중 망국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부인에게 서신을 보내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의리에 따라 자신이 강을 건너면 몸 둘 곳이 없으니, 서신 보낸 날을 나의 기일로 하라’며 중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익히 유명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형 김제(金濟)도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의 의리에 따라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은 묻히고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에 알려져 가묘(家廟)에 시호를 하사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충신(忠臣)으로 시호를 받는다는 것은 혈연적 후손들은 물론이고 혈연적으로 무관계한 후손들에게까지 ‘역사적 기억’으로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쌍절묘(雙節廟)는 단순한 가묘가 아니라 후손들의 기억을 통해 ‘불멸의 존재들이 사는 성지(聖地)’가 된 것이다. 이 점에서 그 불멸의 조상들과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는 후손들도 나름의 불멸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상의 생애를 공적인 ‘역사적 기억’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일은 가문 전체 구성원의 엄청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팽야의 가문도 마찬가지였다. 정조는 조선초기부터 경상도의 이름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고을별로 분류하여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를 편찬할 것을 명하였다.⁸⁹⁾ 이에 팽

88) [1798년 9월 15일], “申城回文來, 盖以雙節廟宣謚事也. 白巖先生講濟, 與弟籠巖先生諱珒, 俱死節於國初, 而籠巖寄衣之事, 卽爲著, 聞白巖沈海之迹, 尤隱晦而不顯. 至是李侍郞益運奏其事, 上大加驚歎, 卽命賜益【忠介】於家廟, 又親製文以祭於海上. 盖曠世恩數公論不泯於百世, 豈不信哉.”

89) 김명자, 『『河窩日錄(1796-1802)』을 통해 본 豊山柳氏 謙巖派의 관계망』, 『大邱史學』 124, 2016, 17쪽.; 『嶺南人物考義例』(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MF35-

아 가문인 풍산 류씨 문중도 중가에서 이와 관련한 문적(文籍)을 마련하여 올리고자 큰 모임을 가졌다.⁹⁰⁾ 이후 영남의 문적이 모두 검토에 들어갔는데,⁹¹⁾ 한탄스럽게도 풍산 류씨 문중이 올린 문적이 많이 산삭(刪削)되었기에, 류이좌(柳台佐, 1763~1837)가 힘써 간쟁하였다.⁹²⁾ 풍산 류씨는 이 문제에 관해 병산서원에 회문을 돌리고자 했지만 팽아의 할아버지 류일춘은 “임금께서 이 일을 체제공에게 전임시킨 것은 잘 처리하기 때문이다. 지금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하는 것은 아마도 일의 일치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였다.⁹³⁾ 류일춘은 영남 사족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체제공이란 정치적 파트너와 협조가 절실한데, 그와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다.⁹⁴⁾ 이러한 류일춘의 입장에 수긍하는 이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신민(臣民)이 임금을 섬기는 도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손이 선조를 위하는 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⁹⁵⁾ 이러한 반발은 당연한 것이었다. 유가의 가르침을 받은 후손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자기 조상의 생애를 공적인 ‘역사적 기억’으로 인정받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정리하면, 유가는 죽음은 언제라도 찾아올 자연적인 현상이기에, 죽음과 사후 세계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요청한다. 더

004667). “歲戊午, 命判府事蔡濟恭前判書權李家煥等, 探國朝以來道內聞人事行, 州郡以分之, 作爲一書.” 이 원문은 “이재두, 「1798년에 편찬한 『영남인물고』와 그 위상, 『규장각』 58, 2021, 539쪽.”에서 재인용.

90) [1798년 8월 20일], “一門大會宗家, 以門中文籍事也.【自上將刊布名臣錄, 傳教鄉曲, 使各拔出故籍.】”

91) [1798년 10월 28일], “嶺人文籍皆入睿覽.”

92) [1798년 11월 7일], “季父自宗家還語曰, 文籍事, 吾家多在刪削中云, 可歎. … 注書自諱所還, 力爭其不可云.”

93) [1798년 12월 12일], “慶山大父來語大父曰, 明日將往屏山發回文. 大父曰何, 曰面中先輩文籍, 多有遺漏, 當相議處置. 大父曰, 不可. 自上專任於蔡台者, 爲其善處也.”

94) 김명자, 앞의 논문, 2016, 18쪽.

95) [1798년 12월 12일], “慶山大父曰, 果然. 臨川兄來家聞之曰, 臣民事上之道則可.”

불어 생물학적 육신의 존속보다 사회적 가치의 존속을 더 중시한다. 다시 말해, 육신은 죽었다 할지라도 고인이 살아생전에 남긴 유의미한 가치들이 여전히 현세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가에서 말하는 영원성은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과 함께하여, 그 점에서 조상의 신체적 분신이자 문화적 계승자인 후손의 역할은 중요하다. 후손은 자신의 근본이 조상임을 알고,⁹⁶⁾ 조상이 살아생전 남긴 흔적들을 '불멸의 기억'으로 승화시킬 임무가 있다. 그래야 후손들 자신도 이 불멸의 기억이 된 조상들과 함께 영원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 팽이는 이러한 유가의 생사적으로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 습득하면서 성장하였다. 때문에 팽이는 가장 가까운 부친의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죽음과 사후 세계의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거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비관적이나 염세적인 입장에 머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는 유학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다하며, 기억의 방식으로 부친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을 것이다.

IV. 상실의 의례: 상례(喪禮)와 애도과업

15세 팽이의 설날 밤에 눈이 가득 내렸다. 사람들은 모두 풍년의 조짐이라며 기뻐했다.⁹⁷⁾ 하지만 그 기쁨과는 반대로 조선 전국이 돌림병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실록』에 따르면, 이 해 돌림병에 의한 사망자가 무려 12만 8천여 명이나 되었다.⁹⁸⁾ 『영남인물고』 작성과 관련하여 서울로 올라간 영남의 유생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고, 한양에는 상주가 없는 시신들을

96) 『禮記』 「郊特牲」, “人本乎祖.”

97) [1799년 1월 1일], “夜半雪下. 人皆稱賀曰豐兆也.”

98) 『正祖實錄』 51권, 정조23년 1월 13일 <壬申>, “是歲 有輪行之疾, 京外死亡, 凡十二萬八千餘人.”

사람들이 실어 날라 짚으로 덮어 쌓아둔 것이 산과 같을 정도였다.⁹⁹⁾ 영남의 관찰사는 물론이고 평안·함경·황해·전라·강원·충청도의 감사(監司) 7명이 모두 병으로 죽었으니, 참으로 세상의 변란(變亂)이 아닐 수 없었다.¹⁰⁰⁾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고을 수령은 ‘소고기가 이 감기를 다스리는 방도이니 마땅히 잡아 쓰라.’며 전교를 내리기까지 하였다.¹⁰¹⁾ 농경제 사회였던 조선은 농업에 도움이 되는 소의 도축을 제한하였으나,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 이를 허락했던 것이다.

이의 주변 인물도 이 돌림병의 감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팽아 본인도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지병이 있던 아버지마저도 감염되었다.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돌림병 감기로 앓아눕지 않은 이가 없는 지경이었다.¹⁰²⁾ 할아버지도 아파서 누웠고,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모든 가족이 앓아누웠다.¹⁰³⁾ 할아버지의 증세가 심해지자 아버지는 자신의 병을 돌보지 않은 채 몸과 마음을 다해 밤낮으로 보살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탕아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파했다.¹⁰⁴⁾ 기쁘게도 할아버지의 병환이 차도가 있었다.¹⁰⁵⁾ 하지만 그 다음날, 할아버지를 정성스레 간호하느라 무리

99) [1799년 1월 10일], “嶺儒以先事上京者, 無一人生還者. 死而無主者, 京人輪尸掩藁, 積之如山云.”

100) [1799년 1월 23일], “聞本道巡相及裨將二人, 平安咸鏡黃海全羅江原諸監司皆病死云, 可謂世變也.”; [1799년 1월 29일], “九潭查丈來謁大父, 語及時氣事曰, 監司七人皆死, 極是世變. 大父曰, 吾聞六監司矣. 今日, 七, 京畿忠清中, 誰死. 曰, 忠淸死云.”

101) [1799년 1월 27일], “本倅傳令內, 牛肉爲治感之方, 當堆而用之云.”

102) [1799년 1월 7일], “余得寒疾甚苦. 大人亦以本病添輪感痛臥. 閔閑. 盖此病名, 雖感寒, 無異癘疫. 一村上下, 不見一人不臥者.”

103) [1799년 1월 8일], “大父還自屏山卽痛臥. 大家渾眷季父家渾眷從叔家渾眷一時染痛.”

104) [1799년 1월 11일], “大父症勢有加無減. 大人不顧身病, 晨夜侍湯, 衣不解帶, 目不交睫”; [1799년 1월 13일], “大父疴靑小間, 而纒語又發, 閔閑. 大人已病之不恤, 而費盡勞思, 種種閔迫, 難以形言.”

105) [1799년 1월 14일], “大父漸向歇境, 伏賀萬萬.”

를 해서인지 아버지의 증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온몸을 떨고 통증에 고통스러워했다. 심지어 헛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 팽야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¹⁰⁶⁾

다음 달 2월에는 더 괴이한 돌림병이 마을에 출현하였다. 걸리기만 하면 곧바로 죽는 병이었다. 이 병이 크게 확산되자 치료제로 쓰기위해 잡은 소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¹⁰⁷⁾ 더욱 강력해진 이 전염병 감기로 인해 안동부에 죽은 자가 모두 400여 명에 이르렀다.¹⁰⁸⁾ 사람들의 소문에 따르면 올해 돌림병의 원인은 호인(胡人)이었다.¹⁰⁹⁾ 이 낭설에 대해 팽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올해 봄의 감기는 모두 호국(胡國)에서 왔다고 했다. 이에 앞서 관우가 의주(義州) 부윤(府尹)의 꿈에 나타나 “내일 모시(某時)에 호승(胡僧)이 강을 건너올 것인데 배를 지키는 사람에게 그가 차고 있는 세 개의 주머니를 반드시 빼앗으라.”고 하였다. 부윤이 깨어나 이를 괴이하게 여기고는 뱃사람 4명에게 분부하여 앞서 기다리게 하였더니, 과연 승려 한 사람이 홀연히 왔다. 이에 뱃사람 4명이 그를 잡아 두 개의 주머니를 빼앗고 한 개의 주머니는 미처 빼앗지 못했는데, 그때 갑자기 붉은 기운이 공중에 떠돌며 사라졌다. 뱃사람 4명이 중독되어 즉사하였는데, 곧 감기 주머니였다. 일이 괴상하고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우선 기록해서 후일의 웃음거리로 삼을 뿐이다.¹¹⁰⁾

106) [1799년 1월 15일], “大人 大寒戰, 痛勢愈苦, 虛言甚多, 悶不可言.”

107) [01권 1799년 2월 17일], “閭里又有怪怪之病, 逢之則頃刻即死者也. 今方大熾, 牛肉爲治病之方, 故近日村巷堆殺無數, 日不下四五, 亦世變也.”

108) [1799년 2월 22일], “聞府中以感死者, 凡四百餘人云.”

109) [1799년 1월 28일], “聞胡人得二罌, 一曰癘, 二曰感, 今此病, 皆感罌所出云笑矣乎.”

110) [1799년 2월 22일], “又聞今春感病, 皆自胡國而來. 先是關羽夢告義州尹曰, 明日某時胡僧有渡江者, 宜勅守船者, 奪其所佩三囊. 尹覺而怪之, 分付舡工四人, 前期待. 果有一僧自無何而來, 於是四人扶寺, 而奪其二囊, 其一囊則未及奪, 而忽有赤氣浮空而去, 四人被毒即死, 卽感寒囊也. 二囊則皆見破碎, 而一則癘病囊, 二則卽疔疫囊云. 事近怪誕然, 姑錄之, 以資後日之笑罔耳.”

전염병이 창궐하자 유언비어들과 거짓 정보들이 함께 확산되고 있던 것이었다. 그 병의 정체를 모르기에 불안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고 막연한 공포가 엄습해왔던 것이다. 전혀 근거가 없지만 그 병원의 실체를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미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팽아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다. 팽아의 아버지마저도 자신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자 별곡(別谷)에 사는 점쟁이에게 사람을 보내기까지 했다.¹¹¹⁾ 이는 미신을 멀리하고 상식을 따르는 유가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세상에 어찌 그런 용한 점쟁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¹¹²⁾ “해자(亥子) 방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쟁이의 예언대로 그 쪽 방향에 있던 막내 작은아버지의 집으로 옮겨 거처하였다.¹¹³⁾

팽아 아버지의 상황은 심각했다. 오랜 병환으로 머리가 어지러워 칼로 머리를 찢어 고름을 짜낼 정도였다.¹¹⁴⁾ 막내 작은 아버지가 여러 의원들에게 받은 처방에 따라 약을 지어 복용했지만,¹¹⁵⁾ 효과는커녕 아버지의 증세가 더욱 심해지니 팽아의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다.¹¹⁶⁾ 약도 먹어보고 용하다는 점쟁이의 말도 따라봤지만 아버지의 병환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팽아의 마음은 실로 찢어졌다.

아버지가 여러 해 동안 앓고 있는 병 때문에 날마다 누워서 지냈다. 여러

111) [1799년 1월 19일], “大人以身病欲知所崇, 遣沙品庶叔, 就問於別谷卜者.”

112) [1799년 1월 20일], “沙品叔來, 其兆辭曰, 廟神木辰巳年間, 盖有暗合者, 其亦異也. 承旨叔來語訝曰大人, 語及卜辭. 承旨叔曰, 世間豈有名卜, 兄主必誤聞矣.”

113) [1799년 1월 25일], “大人以卜辭祈稱, 亥子方生活等語, 移居季父家.”

114) [1799년 2월 4일], “大人以積年身病頭髮紊亂, 寢食爲憂, 遂請武夷大父, 以刀裂髮解其瘡, 既訖終夕眩暈.”

115) [1799년 2월 8일], “季父還, 【問於高醫, 更質姜醫云.】”; [1799년 2월 9일], “大人服藥.”

116) [1799년 2월 20일], “大人服藥已畢, 咳嗽燥症不無變動, 而今日午後寒氣乍入, 頭痛復起, 甚悶甚悶.”; [1799년 2월 21일], “大人症勢還覺添苦, 悶悶.”; [1799년 3월 8일], “大人服藥幾盡, 而有加無減, 悶不可言.”

달 동안 집을 옮겨 지내기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한 증세가 있지 않은 날이 없었고, 혹 얼굴이 돌에 부서진 것 같기도 했고, 혹 사지가 불에 문드러진 같기도 했다. 지난겨울 의원 이씨가 한 말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음(陰)이 허해져서 화(火)가 동(動)하는 증세라고 했는데, 끝내 인삼과 사삼(沙參) 등의 약재를 사용하여 양기를 돋운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 종일 병시중을 들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소리 없이 눈물이 절로 흘렀다. 언제쯤 평안한 시절을 볼 수 있을까! 애를 줄이며 눈물 흘리는 심정을 말할 수 없다.¹¹⁷⁾

팽아의 간절한 마음과 무관하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의 환후는 심해졌다.¹¹⁸⁾ 점쟁이의 말대로 작은 아버지의 집에 거처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기에, 아버지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¹¹⁹⁾ 6월에는 어쩔 수 없이 무당까지 불러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고자 3번이나 축귀(逐鬼)를 하였다.¹²⁰⁾ 하지만 두 달 쯤 흘렀던가, 심지어 아버지에게 합병증이 발생하여 고통으로 전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¹²¹⁾ 이 날 풍산 류씨 삼대는 아들의 감정과 시간을 공유하였다.

할아버지가 향임(鄉任)이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아버지 생전에 소자의 목숨이 만약 이어지지 않는다면 불효의 죄가 막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또한 머리를 숙이고 울었다.¹²²⁾

117) [1799년 3월 15일], “大人以積年身病, 日事沈淹, 移家數月, 略無效應. 寒戰之症, 無日不在, 或一面如碎之以石, 或四肢若爛之以火. 追思前冬李醫之言曰, 陰虛火動之症, 而竟用人參沙參等藥, 以助陽而然歟. 終日侍病, 不覺暗淚自下. 何時得見平安時節. 煎泣不可言.”

118) [1799년 4월 20일], “大人患候數日添苦, 悶悶.”

119) [1799년 4월 29일], “大人自季父家還舊所. 【出避無益故也.】”

120) [1799년 6월 15일], “以大人患候, 召卜三逐鬼, 【蓋出於不得已, 而無所不爲也.】”

121) [1799년 8월 10일], “大人又添別症, 醫腫臂痛, 夾雜而發, 千萬不成寐.”

122) [1799년 8월 10일], “大父以鄉任還, 大人執手而立泣, 大人生前, 小子之命若不遲延, 不孝之罪, 莫甚云云. 余侍側, 亦垂頭而泣.”

전통적으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참척(慘戚)’ 혹은 ‘상명(喪明)’이라고 칭하였다. 즉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이자 ‘눈이 멀도록 울게 만드는 슬픔’이란 뜻이다. 부모에게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슬픔을 남기며 떠난 자식은 불효자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위로도 위로될 수 없는 ‘지속적인 비탄(悲嘆)’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와이스(Weiss)에 따르면, 비탄은 인간이 ‘주요한 인간관계(primary relationships)’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결과이다.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감정을 공유하며, 얼굴을 마주해온 부모, 자녀, 친구, 동료 등 모두가 ‘주요한 인간관계’가 된다. 그러나 이 주요한 인간관계도 ‘상실이 비탄의 신호탄이 되어 지속되는 애착(attachment)의 관계’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community)의 관계’로 구분된다. 예컨대, 부모·자녀와 같은 애착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실이 발생하면 인간은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다른 가정의 친구나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그 고통이 훨씬 덜하다.¹²³⁾ 또한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특정 개인의 상실을 다른 개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지만, 애착의 관계에서는 상실된 특정 개인을 다른 어떤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¹²⁴⁾ 곧 가장 근본적인 애착의 관계인 부모-자식사이에서 서로간의 상실은 너무도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 상실된 존재를 메꿀 수가 없는 것이다. 탕아의 울음은 ‘풍산 류씨 3대의 애착관계에서 그 치명적이고도 지속적인 고통을 가져오며 그 어느 누구도 메꿀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서글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달 말 탕아의 아버지는 이제 기가 허해져 머리와 가슴 아래로 붉은 반점이 무수하게 생기기까지 하였다. 탕아는 아버지의 상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여우가 서쪽 숲에서 우는 소리를 들

123) Weiss, R(1993). “Loss and Recover”, Margaret S, etc.(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272.

124) Weiss, R(1993), *ibid.*, p.273.

있기 때문이다.¹²⁵⁾ 전통적으로 밤의 여우소리는 초상이 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특히 북쪽이나 서쪽 숲은 해가 지거나 없는 어두운 곳이기에 죽음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남을 의미해왔다.¹²⁶⁾ 아버지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한 듯하였다. 다음 달 9월에 류이좌 아저씨가 임금의 명을 받아 출발할 때 아버지가 “아마도 다시 볼 날이 없겠구나.”라고 말한 것을 보니 말이다.¹²⁷⁾

10월이 되자, 팽이는 아버지의 상실에 대한 걱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¹²⁸⁾ 집에 들어와 간병하면서도 너무도 많이 울어 아버지를 차마 볼 수가 없었다.¹²⁹⁾ 그 달 5일 아침에 어머니가 길몽을 꿔다면서 “어제 밤 꿈에 두 마리 용이 네 아버지 어깨 위에서 날아 나와 집 서북쪽 모퉁이로 갔으니, 이는 길조다. 앞으로 네 아버지가 나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¹³⁰⁾ 하지만 어머니의 해몽과 달리 그 날 저녁 팽이의 부친은 이 세상을 떠나갔다.

저녁 무렵에 아버지가 가슴이 답답하여 할아버지에게 동창과 남창을 활짝 열 것을 부탁하니, 할아버지가 창을 열었다. 아버지가 억지로 일어나 나에게 “저 노적가리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 것인가?”라고 하여, 내가 “문 안쪽으로 모두 우리 가문의 벼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어머니가 곁에 있다가 “병세가 조금 차도가 있으니 본가로 돌아갑시다.”라고 하자, 아버지는 머리를 가로지으며 나에게 창을 닫으라 하였다. …

이어 가래로 호흡이 몹시 어려웠다.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다시 탄식하며 말

125) [1799년 8월 29일], “向夕大人滿身搔癢, 頭上胛下赤點無數, 余急奔告於星州叔, 答曰, 此氣虛所致. … 夜狐鳴西林.”

12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1)』, 동아출판사, 1996, 472-473쪽.

127) [1799년 9월 23일], “注書叔承命臨發而來見大人. 大人曰, 自此恐無再【自此以下遺錄】見之日.”

128) [1799년 10월 1일], “大人喉痺咳嗽喘急諸症, 閱不盡言. … 余與慈氏侍宿於西齋, 達夜轉轉, 不覺泣下滂滂.”

129) [1799년 10월 2일], “因入室看病大人, 泣不能仰視.”

130) [1799년 10월 4일], “【五日朝, 慈氏語余曰, 昨夜吾夢有二龍, 自汝大人肩上飛出, 向屋西北隅而去, 此吉兆, 將無乃汝大人向瘳也.】”

하기를 “이를 어찌할까. 이를 어찌할까.”라고 하였다. 연이어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었으나 돌아가셨다. 천지에 사무치는 아픔을 뭐라고 말 할 수 없었다. 땅을 치고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오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삼년간 병수발한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할 것이며, 또한 나이 팔십에도 아들의 병을 근심한 할아버지를 어떻게 위로하겠는가? 아버지를 잃은 불초(不肖) 자식의 성의가 부족하여 하늘에 죄를 받은 것이 이에 이르렀으니, 오히려 누구를 탓하겠는가! 호천망극(昊天罔極)이로다.¹³¹⁾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표현을 빌리자면, 뺨아가 “직접 당한 슬픔의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¹³²⁾ 그가 당한 상실은 가장 근본적인 애착관계에서의 상실, 치명적이고도 지속적인 고통을 일으키며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메꿀 수 없는 상실이다. 이러한 상실은 비탄을 발생시킨다. 이 비탄은 슬픔과 비애의 감정이 중심을 이루지만, 우울·절망·후회·분노·원망·불안·죄책감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수반한다.¹³³⁾ 위 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뺨아는 부친을 잃은 슬픔·비애·절망감과 함께 자신의 성의가 부족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후회·분노·죄책감을 내보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Elisabeth Kübler-Ross)에 따르면, 이 상실의 고통은 상실로 인해 발생한 강렬한 감정적 반응인 슬픔으로 치료할 수 있다. 슬픔은 상실로 고통 받은 영혼을 변화시키며, 슬픔만이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곧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자신이 충분히 슬퍼하도록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¹³⁴⁾

131) [1799년 10월 5일], “向夕大人胷中煩悶, 請於大父願開東廳及南廳, 大父爲而開之. 大人強起謂余曰, 彼露積何者爲我物, 余對曰, 門內門外皆吾家稻粟也. 母氏在傍曰, 病勢少差, 願還本家, 大人攙頭, 遂命余開門. … 因痰上呼吸甚難, 大人嚙嚙再歎曰, 將何爲將何爲. 因連呼父呼父而逝. 窮天極地之痛, 到此無以爲言. 拚號擗踊五內(奔)裂. 三年救病之勞, 母何以慰抑, 八耋惟疾之憂祖, 何以寬譬. 孤之不肖誠意淺薄, 得罪神天, 而有以致也, 尙誰爲咎, 昊天罔極.”

132) Roland Barthes, 김진영 옮김, 『애도 일기』, 걷는나무, 2018, 20쪽.

133) 권석만, 앞의 책, 2019, 558쪽.

134) Elisabeth Kübler-Ross, 김소향 옮김, 『상실 수업』, 이레, 2007, 293쪽.

대부분의 사회는 유족들이 사별의 슬픔을 표출하고 위로하여 사별의 상처로부터 회복하도록 돕는 애도의 문화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¹³⁵⁾ 유가의 상례(喪禮) 또한 유족들의 슬픔을 발산하여 상실의 상황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순자는 상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상례란 산 사람의 예로써 죽은 사람을 장식하고, 되도록 삶을 모방하여 죽은 사람을 송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 섬기듯 하고, 죽고 없는 사람 섬기기를 생존하는 듯이 하여, 시작과 마지막을 한가지로 여기는 의식이다.¹³⁶⁾

흥미롭게도 순자는 죽은 이를 산 사람의 예로써 송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곧 유가가 상례를 죽은 자의 의례가 아닌,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종 통과의례로 파악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례는 다른 통과의례와 달리 당사자가 이 의례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곧 상례는 살아남은 유족들에 의해 시행되는 통과의례이다. 그 점에서 상례는 살아남은 이들을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에서 어떤 구성원의 사망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크진 작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혈연을 연결성을 강조하는 유학자의 가문에서 ‘아들이자 아버지였던 류선조’의 죽음은 그 집안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 바로 상례는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가 그 안정성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때문에 상례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는 유족들이 자연스럽게 애도과업(tasks of mourn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류선조의 상례도 마찬가지이다. 사별로 충격을 받은 풍산 류씨 가문의 구성원들이 애도과업을 성취하여, 이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

135) 권석만, 앞의 책, 2019, 559쪽.

136) 『荀子』禮論 “喪禮者, 以生者節死者也, 大象其生以送其死也, 故事死如生, 事亡如存, 終始一也.”

적이 있는 것이다. 『하와일록』에는 류선조의 마지막 통과의례가 다음의 단계들로 기록되었다.

- 1799년 10월 6일: 밤에 습(襲)하다.¹³⁷⁾
- 1799년 10월 7일: 밤에 소렴(小斂)하다.¹³⁸⁾
- 1799년 10월 8일: 밤에 대렴(大斂)하다.¹³⁹⁾
- 1799년 10월 9일: 관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저녁에 성복(成服)을 한 뒤 조객록(弔客錄)을 마련하다.¹⁴⁰⁾
- 1799년 11월 4일: 관(棺)을 옷칠을 하다.¹⁴¹⁾
- 1799년 11월 9일: 저녁에 사람들이 전(奠)을 올린다.¹⁴²⁾
- 1799년 11월 10일: 사시(巳時)에 하관(下棺)을 한 뒤, ‘의목’이란 이름을 받아 신주에 이름을 적고, 신시(申時)에 반혼(返魂)하여 초우제(初虞祭)를 지낸다.
- 1799년 11월 11일: 재우제(再虞祭)를 지낸다.
- 1799년 11월 12일: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 1799년 11월 14일: 졸곡제(卒哭祭)를 지내고 산소로 가서 혼백을 묻는다.¹⁴³⁾

이 10단계의 상례 과정은 애도과업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워든(Worden)이 제시한 ‘애도과업’과 유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상례는 염습(斂襲)으로 시작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고인의 유체(遺體)를 씻기고 수의(壽衣)로 갈아입힌 다음, 유체를 거둔 뒤에 입관하는 과정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염습의 과정에서 유족은 망자의 시신을 관에 안치

137) [1799년 10월 6일, “夜襲.”
 138) [1799년 10월 7일, “夜小斂.”
 139) [1799년 10월 8일, “夜大斂.”
 140) [1799년 10월 9일, “隨棺還家. … 夕成服. 修吊客錄.”
 141) [1799년 11월 4일, “卯時拈漆棺. … 時漆工已來待, 故不得已用之.”
 142) [1799년 11월 9일, “夕來奠者甚多.”
 143) [1799년 11월 10일, “巳時下棺. … 題主時揚名曰訖, 申時返魂初虞. 其明日再虞. 又明日三虞. 越二日卒哭. 發向山所埋魂魄.”

하기 전에 시신과 마지막으로 대면할 수가 있다. 이 시신과의 대면은 오늘날에는 흔치 않지만 다시 발견해야 할 의미 있는 절차이다. 왜냐하면 시신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살아남은 이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¹⁴⁴⁾ 또한 유족은 망자의 신체와 접촉함으로써 망자와의 사별이 현실임을 받아들일게 된다. 바로 유족으로 하여금 애도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I)상실의 현실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더불어 유족은 고인의 유체와 대면함에 따라 상실에 따른 슬픔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여 애도과정의 두 번째 단계인 '비탄의 고통을 처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슬픔은 상실로 고통 받은 영혼을 변화시키며 치유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비탄의 고통'은 '애착의 관계'와 정비례하는 특성을 지닌다. 곧 '애착의 관계'가 긴밀하고 깊을수록 그 비탄의 고통도 더욱 치명적이며 긴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유가는 이를 정확히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망인과의 친소후박(親疎厚薄)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의 상복을 착용하도록 요구하였다. 혈연관계가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상(喪)의 기간도 순차적으로 짧아지도록 한 것이다. 그 기간으로 참취(斬衰) 3년, 재취(齊衰)는 3년·1년·5개월·3개월, 대공(大功)은 9개월·7개월, 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緦麻)는 3개월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슬픔이 깊은 만큼 의복에 마음을 쓰면 안 되기에, '참취'가 테두리를 꿰매지 않는 것에 비해서, 다음으로 무거운 '재취'가 테두리를 꿰맨다는 식이다.¹⁴⁵⁾ 사실상 이러한 유가의 입장은 유족들이 망자의 상실에 따른 그 슬픔을, 성복(成服)의 기준을 통해 가장 적절하게 발현하도록 한 것이었다.

성복이 끝나면, 유족은 조객록(弔客錄)을 마련하고 조문을 위해 찾아온 손님을 맞이한다. 어쩌면 상례는 망자를 구심점으로 하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144) Patrick Ben Soussan & Isabelle Gravillon, 앞의 책, 2017, 85쪽.

145) 土田健次郎, 성현창 옮김, 『유교를 아십니까』, 그물, 2013, 163쪽.

다시 회합을 가지는 공식적 모임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한 사람을 떠나보냈기에 흔들리는 공동체 조직에 연대성과 단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유족 또한 그 손님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위로받게 된다. 망자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자 찾아온 손님들을 통해, 유족은 망자가 살아생전에 유의미한 가치를 남겼던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상실의 아픔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상례는 떠나간 이가 맡았던 사회적 역할의 공백을 메우는 의식이기도 하다. 망자의 역할을 온전히 대치할 수는 없지만, 살아남은 자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때문에 팽이는 비록 관례를 치르기 전이었지만, ‘의복’이라는 정식 이름을 받아야 했다. 이른바 ‘(III) 고인이 부재한 환경에 적응하기’라는 3번째 애도과업을 수행하도록 요청받게 된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 ‘팽이’가 아닌 유학자 ‘의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했다. 우선적으로, 상실의 슬픔에 빠진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위로해야 했으며, 궁극적으로 풍천 류씨 가문을 ‘역사적 기억’에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었다.

상례의 마지막 과정은 ‘졸곡제(卒哭祭)를 지내고 산소로 가서 혼백을 묻는 일’이다. 여기서 졸곡이란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아침·저녁에만 한다는 것이다. 이 졸곡제는 상복을 입은 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졸곡제 이후에는 의복이 달라지며, 산 사람의 예로써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예로 변화한다. 이를 애도과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IV) 고인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기’와 연결될 수 있다. 고인의 육신(體)은 떠났지만 그의 정신(魂)은 가묘의 위패에 모셔져 후손들과 함께 한다. 곧 유족은 고인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면서 각자가 담당해야 할 현실적인 책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애도과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가의 상례는 ‘상실의 비탄을 극복할 수 있는 애도과업’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유가가 상례를 그토록 번잡하고도 상세하게 규정했던 것은 상실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치유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하여 구성원들이 차안이나 내세에 매달리지 않고 이 현세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균열을 상례를 통하여 메우도록 이를 통해 현실의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V. 나가는 말

이 글은 『하와일록』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 가문의 젊은 유학자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그 『하와일록』이라는 성장일기의 가장 중심에 차지하는 내용은 ‘죽음’이라는 점에 집중하였다. 그 일기의 저자인 류의목은 조선을 강타한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이들의 사망을 목도하였고, 15살이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부친의 죽음을 만나야 했다. 이러한 상황과 사건은 어쩌면 남은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트라우마(Trauma)’로 자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류의목은 아주 건강한 유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렇게 건전한 유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를 이 글은 류의목의 12세부터 15세까지(1796~1799)의 일기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12~13세 일기를 통해 류의목이 ‘죽음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에서 성장했음을 밝혀냈다. 우리의 시대가 ‘죽음이 금지되고 추방된 시대’라면, 류의목의 시대는 ‘죽음이 친숙하고 살아있는 시대’였다. 우리의 시대는 어린이들에게 죽음을 금기시함으로써 죽음에 맞설 준비를 조금도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어린이들이 죽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지니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류의목의 시대는 어린이들과도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시기였다. 더불어 어린이도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 참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그 의례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류의목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어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14세 일기를 통해 유가의 사생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가는 죽음으로 인한 자아의 소멸' 등과 같은 '죽음에 대한 형이상학적 문제'에 논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세속윤리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에 집중한다. 곧 피안의 내세가 아닌 이 차안의 현실에서 '인간의 길(人道)'을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곧 인간의 신체적 유한성을 넘어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가치, 아니 무한에 가까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영원성은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에 의해 확보된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제사는 이미 생명을 다한 조상들을 후손들의 기억과 실천을 통해 불멸의 존재로 위치지우는 종교 의례라고 할 수 있다. 후손 또한 자기의 조상이 남긴 역사적 흔적들을 '사회적 혹은 공적(公的) 차원의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한 일은 그 불멸의 조상들과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는 후손들도 나름의 불멸성을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유가에서는 죽음을 언제라도 찾아올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기에, 죽음과 사후 세계의 문제보다는 지금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문화에서 자란 류의목은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죽음과 사후 세계의 문제에 지나치게 골몰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규범을 다하는 건강한 유학자로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친의 사망하던 해인 15세 일기를 통해 유가의 상례와 애도과업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유가의 상례(喪禮) 또한 유족들의 슬픔을 발산하여 상실의 상황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에서 어떤 구성원의 사망은 살아남은 이들에게 크건 작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상례는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가 그 안정성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곧 상례의 주된 임무 가운데 하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애도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였다. 유가는 이러한 문화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현실의 공동체가 와

해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류의목은 아버지의 상례를 통해 애도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유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論語』
『孟子』
『禮記』
『西厓集』
『小學』
『守軒先生文集』
『荀子』
『正祖實錄』
『朱子大全』
『朱子語類』
『春秋左氏傳』

2. 저서류

加地伸行, 이근우 옮김, 『침묵의 종교, 유교』, 경당, 2002.
권석만,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학지사, 2019.
김정민, 『『하와일록』 해제』,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들: 하와일록』, 김정민 외 옮김, 한국국학진흥원, 2015.
류의목, 김정민·박세옥·김명자 외 옮김, 『할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들: 하와일록』, 한국국학진흥원, 2015.
傅偉勳, 전병술 옮김, 『죽음 그 마지막 성장』, 청계(휴먼필드), 2001.
이창익, 『죽음을 사색하는 시간』, 인간사랑, 2020.
土田健次郎, 성현창 옮김, 『유교를 아십니까』, 그물, 2013.
何顯明, 현채련·리길산 옮김,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예문서원, 199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편, 『한국문화상징사전(1)』, 동아출판사, 1996.
Elisabeth Kübler-Ross, 김소향 옮김, 『상실 수업』, 이레, 2007.
Roland Barthes, 김진영 옮김, 『애도 일기』, 걷는나무, 2018.
Max Weber, 이상률 옮김, 『유교와 도교』, 문예출판사, 1991.

- Linda Goldman, 윤득형 옮김, 『우리는 왜 죽어야 하나요?: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죽음이야기』, 2013.
- Earl A. Grollman, 정경숙·신종섭 옮김, 『아이와 함께 나누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이너북스, 2008.
- Elisabeth Kübler-Ross, 이주혜 옮김, 『죽음 그리고 성장』, 이레, 2010.
- Philippe Ariès, 고선일 옮김, 『죽음 앞의 인간』, 새물결, 2004.
- Edgar Morin, 김명숙 옮김, 『인간과 죽음』, 東文選, 2000.
- Mike Parker Pearson, 이희준 옮김, 『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 Patrick Ben Soussan & Isabelle Gravillon,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연구회 번역, 『아이에게 죽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북랩, 2017.
- J. William Worden,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5th editon),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18.
- Weiss, R. "Loss and Recover", Margaret S, etc.(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3. 논문류

- 김명자, 「『河窩日錄(1796-1802)』을 통해 본 豊山柳氏 謙巖派의 관계망」, 『大邱史學』(124), 2016.
- 이재두, 「1798년에 편찬한 『영남인물고』와 그 위상」, 『규장각』(58), 2021.
- 최우영, 「신의 의지와 인간의 기억-유교와 기독교의 '죽음론' 소고」, 『동양사회사상』(20), 2009.

4. 기타자료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DB

(https://diary.ugyo.net/item?cate=book#node?itemId=DY&cate=book&depth=2&upPath=Z&dataId=ACKS_DY_00500803)

Abstract

The Growth of a Young Confucian Scholar through Death

Woojin Le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growth diary of a youth named 'Hawa Illok' and to analyze how a young Confucian scholar of a noble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I concentrated on the fact that 'death' is at the center of that growth diary. While growing up, Ryu-Uimok witnessed many deaths of thousands of people due to the epidemic and he even lost his father at the age of 15. Although Ryu's these experience could be 'trauma', he grew up as a very healthy Confucian scholar. I tri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made Rye grow healthy.

First, I looked at the chrono-cultural context in which Ryu grew up. He grew up in culture where "death is not dead." As a result, he had conversations about death from an early age, and was even able to participate in death-related ceremonies. In this process, he learned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death as well. Second, I examined the Confucianism's view on life and death. Confucianism understood that death is a natural phenomenon that can come to humans at any time, and they urged people to do their best in the present reality of life rather than dwell on the problems of death and the afterlife. Finally, I compared Confucian funeral rites with tasks of mourning, haiku with the lamentation section. Thus, it was confirmed that Confucian

* Professor,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eannie@gjue.ac.kr

funeral rites are institutional devices that provides comfort and healing to the bereaved.

Key word : Ryu-Uimok, View of Life and Death, Funeral Rites, Tasks of Mourning, Death, Hwa Illok.

논문 투고일: 2021. 11. 30 심사 완료일: 2021. 12. 09 게재 확정일: 2022. 06. 20

- 후보

1. 주요 연혁

2022. 05. 20 : 국제 학술대회(오프라인, 온라인 이원화)

2. 활동

■ 국제 학술대회(2022. 5. 20~21 오프라인, 온라인 이원화)

· 20일

기조 발표 ① 한국서원의 지식문화적 성격과 서양 중세 수도원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제언(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조 발표 ② 송대 서원의 모범적 가치(朱漢民, 중국 호남대 악록서원)

발표 ③ 조선 서원의 입지 공간구성과 전망경관(문루당호)의 유학적 함의
-중국 서원과의 비교적 관점에서(김덕현, 경상국립대)

발표 ④ 江戸儒學と社會-武士の書院と『孔子家語』という觀點から(미나미
자와 요시히코, 일본 규슈대)

발표 ⑤ 무강의 이등 선생과 청대 서원교육(肖永明, 중국 호남대 악록서원)

발표 ⑥ 누각과 정침 구현으로 살펴본 조선시대 서원 건축의 지역적 특성
(조재모, 경북대)

발표 ⑦ 17~18세기 중국 서원의 학술적 전환과 관학회(陳時龍, 중국사회
과학원)

발표 ⑧ 강학과 경제 : 이옹(李顛)의 서원강학과 사회교화(정병석, 영남대)

발표 ⑨ 악록서원 제사 사기(鄧洪波, 중국 호남대 악록서원)

발표 ⑩ 한국 서원의 경제적 기반과 운영 실태(이수환, 영남대)

발표 ⑪ 청대 산동서원 비문의 구조와 문화적 함의(徐雁平·盧興民, 남경
대학문학원)

발표 ⑫ 북한 서원 자료 현황(Vladimir Glomb, Free University Berlin·Martin
Gehlmann, Ruhr Universität Bochum)

발표 ⑬ 명청시기 성회서원의 재정경영 연구(趙偉, 남창대)

발표 ⑭ 18세기 월남 서원과 유학교육-복강서원(Phúc Giang Academy)
을 중심으로(응우옌 뚜언 끄엥, 베트남 한놈연구원)

· 21일 메인세션

발표 ① 한말 일제강점기 서원 운영의 변화-옥산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명근, 영남대)

발표 ② 16~19세기 학규를 통해 본 한·중서원의 변모 양상(이광우, 영남대)

발표 ③ 《清代人物生卒年表》四川尊經院生補正-兼探《四川尊經書院舉貢題
名碑》中的官年(魯小俊·張藝, 무한대학)

발표 ④ 論清代義學的書院化(張勁松, 남창사범학원)

발표 ⑤ 동아시아 서원, 일반성과 다양성의 경계-동아시아 서원과 조선
서원 비교(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⑥ 雙官學到書院：明清教育重心之轉軸(劉艷偉, 서화사범대)

발표 ⑦ 晚清西學流布下書院山長的儒學堅守-以俞樾在詒經精舍的活動爲
例(宗堯, 중국 호남대 약록서원)

· 21일 세션 1

발표 ① 제향인물 변천을 통해 본 중국 서원의 사상적 특징-江西일대 서
원을 중심으로(배다빈, 영남대)

발표 ② 명청시대 하남성 서원 제사에 관한 연구-하남부와 개봉부를 중
심으로(劉明明, 중국 호남대 약록서원)

발표 ③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그 목적-경주 옥산서원과 광주 광아서
원을 중심으로-(이병훈, 영남대)

발표 ④ 晚清東南士人的書院生活世界-以秦陳唐爲中心的考察(王勝軍·袁媛
귀주대)

발표 ⑤ 한중서원의 원임 비교 연구-한국 소수서원과 중국 백록동서원을

중심으로-(채광수, 영남대)

발표 ⑥ 清代書院學生名額制度及其變遷－以湖南爲中心的考察(劉明, 북경사범대)

발표 ⑦ 五峰書院與中晚明陽明學在金華的深層傳播(蘭軍, 강소사범대)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1) 3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7~19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신입 집행부 인수인계
 - (2) 상반기 연구발표회 및 주요 행사 일정 확인
 - (3) 제14집 원고 모집 공고(안) 논의

2) 5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 일시 :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17~19시
- 장소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 안건
 - (1) 국제 학술대회 원고 투고 관련 상황 점검
 - (2) 제14집 일반 투고 논문 확보 방안 논의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¹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준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부 칙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과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瑱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¹⁾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²⁾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광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 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기 임원명단(2022.3~2024.2)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 장 : 김학수(한중연)
부 회 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정수환(한중연)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재무이사 : 윤혜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욱(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숙경(부산기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이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신재용(국민대), 이치역(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숭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영남대), 김지운(공주대),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김수경(상지대) / 전라·제주 김봉근(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욱(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이선영(한중연)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흥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한중연), 정우락(문학, 경북대), 한형조(철학, 한중연),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석(문학, 충북대), 이치역(철학, 공주대), 김지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근(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간사 : 김윤희(한중연)

중신회원(2006~2022)

강대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한,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중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韓國書院學報 제14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2년 6월 27일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